

통일
인문학 연구총서

005

고전산문 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정운채, 김종근, 강미정, 전영선, 나지영,
박재인, 이원영, 조홍윤, 황승엽, 한상호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도서
출판 **박이정**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고전산문 1

통일
인문학 연구총서

005

고전산문 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정운채, 김종군, 강미정, 전영선, 나지영,
박재인, 이원영, 조홍윤, 황승엽, 한상호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도서
출판 박이정

기획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이 책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NRF-2009-361-A00008)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겠다는 취지로 ‘통일인문학’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통일 담론이 체제 문제나 정치·경제적 통합을 전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류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인문학은 사회과학 차원의 통일 논의가 관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사람 중심의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영역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통일 논의는 기존의 통일 담론에서 크게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남과 북의 주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산재한 약 800여만명의 코리언을 아우릅니다. 나아가 ‘결과로서의 통일’에만 역점을 두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정으로서의 통일’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사람간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에 통일인문학은 ‘소통·치유·통합’을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인문정신에 입각하여 사람 사이는 물론 사회계층 간의 소통을 일차적인 방안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상대와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가

운데 내재하는 공통의 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 분단 이후 지속적이면서 현재까지 거듭 생산되고 있는 분단트라우마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로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한 분단의 역사에서 잠재 되어 있는 분단서사를 양지로 끌어 올리고 진단하여 해법으로 향하는 통합서사를 제시함으로써 개개인의 갈등요인이 된 분단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체제나 이념의 통합과 우리 실제 삶속에서 일어나고 가라앉는 사상·정서·생활 속의 공통성과 차이성간의 조율을 통하여 삶으로부터의 통합이 사회통합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통일인문학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상이념, 문학을 기반으로 한 정서문예,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등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삶으로부터의 통합과 사회통합으로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연구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연구 생산한 성과들은 학계와 대중에게 널리 홍보되어 후속연구로의 발판 마련과 사회적 반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와 관련된 노력은 우선 국내외의 통일 관련 석학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연구 화두로 삼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과의 학술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활동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분단트라우마 진단을 위한 구술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시민강좌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통일콘텐츠 연구개발 사업 등 다양한 방면의 모색과 실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의 성과들은 출판물로 외현되어 학계와 대중들이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옮겨집니다. 본 연구단에서 특히 출간기획에 주력한 것은 『통일인문학총서』 시리즈입니다. 현재 『통일인문학총서』 시리즈는 모두 네 개의 영역별로 분류되어 출간중입니다. 첫째, 본

연구단의 학술연구과정의 성과들을 주제별로 묶은 『통일인문학 연구총서』, 둘째, 분단과 통일 관련 구술조사 내용을 구술현장의 묘미를 잘 살려 정리한 『통일인문학 구술총서』, 북한연구 관련 자료와 콘텐츠들을 정리하고 해제·주해한 『통일인문학 아카이브총서』, 남북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귀 자료들을 현대어로 풀어낸 『통일인문학 번역총서』 등이 그것입니다.

통일인문학의 정립과 발전을 사명으로 알고 열의를 다하는 연구단의 교수와 연구교수, 연구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구 사업에 기꺼이 참여해주시는 통일 관련 국내외 석학·전문가·학자들께도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중한 체험과 기억을 구술해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인문학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시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통일, 인문정신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 김성민

남북이 분단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국문학계에서 북한에 대해 두는 관심은 많이 위축된 듯하다. 해금 이전 시기에는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가 통제된 속에서 북한의 학문 연구 성과와 자료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였다. 해금을 맞아 몇몇 학자들과 발 빠른 출판 시장에서 붓물 터지듯 북한 자료를 소개하는 일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소개하는 일들도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세에 따른 변화로 입을 수도 있겠으나 실상으로 파고들면 북한의 연구 성과가 우리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점이 많아 보인다.

북한 문학계는 남한의 학계보다는 학술활동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국가 주도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문학사와 같은 총서 집필을 주도하고, 국문학분야의 연구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개별적인 학문 연구 집단의 층도 매우 얇아서 고전문학을 비롯한 국문학 전반에 대한 개별 연구의 성과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 방법은 대체로 총서 형식으로 집필된 문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유입되는 북한의 문예 관련 잡지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 시각을 간혹 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고전문학 작품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추출하여 소

개하고 이를 남한의 연구 성과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대체로 국내의 학자들은 북한의 문학사 서술 방식에 관심을 두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을 띤다. 아울러 출판계에서는 북한에서 나온 문학사나 고전문학 자료들을 영인하여 출판하거나 간단한 해제를 덧붙여 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에서 기획한 것과 같이 북한 학계에서 비중을 두고 논의한 고전문학 개개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남한의 시각과 비교하는 시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서는 북한의 문학사에서 강조하는 작품 중에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산출된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에서 출판된 문학사들은 거의 모두가 남한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개인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들은 소개된 경우가 드물다. 북한의 고전문학 관련 전문 학술지를 찾던 중 북한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학술 잡지들을 현지에서 DB화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업체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술 잡지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발행되는 국문학 관련 전문 학술잡지는 『조선어문』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정도이다. 『민족문화유산』이라는 대중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 글들이 주로 수록되면서 고전 작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글이 게재되기도 한다. 그 외 종합 문화잡지로 『천리마』가 있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잡지에 고전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의 기사가 수록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아동문학』, 『청년문학』의 잡지가 발행되는데, 여기에는 문예 창작물이 수록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연대별로 발간된 북한의 문학사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을 두는 고전문학 작품들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 소개된 북한의 학술지인 『조선어문』,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과 『민족문화유산』에 개별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이 있는 작품들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 학계에서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개별 논문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위의 학술지에 개별적인 논문이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연대별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작품들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책에서 참고한 북한의 조선문학사와 고전소설사를 연대별로 정리하고 그 내용적인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들 문학사는 이 책에서 공통으로 참고한 문헌이므로, 그 서술상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④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⑤ 정홍교·김하명, 『조선문학사』1·2·3, 사회과학출판사, 1991.
- ⑥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문학사’는 북한의 사회 변혁 운동 시기에 따라 그 초점이 달라진다. 북한은 1970년 11월에 있었던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역사적 원리로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6차 당대회(1980년 10월)에서는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규정하고 당의 지도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변혁은 문학사에도 그대로 투영되는데, 1959년 출판된 ①에서는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을 표방하여 간명하게 문학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일성의 교시 인용도 절제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제5차 당대회를 거친 후에 출판된 ②, ③, ④, ⑤, ⑥에서는 ‘수령의 형상 창조 문학 사관’을 표방하면서 주체사상을 문학사 서술의 원리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교시의 표현 방식도 모두 큰 글자로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③의 임현영 해설 참조). 그 결과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문학사

서술 시각과 작품명의 명명 방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문학사는 대체로 제한된 전문 학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집필된 경향을 가진다. 조선시대 문학사는 대체로 사회과학원에서는 김하명이 주도 집필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김춘택이 주도하고 있다. 정홍교는 조선 이전의 문학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체로 주체 사상 정립 이전에 출판된 ①을 제외하고, ②와 ⑤는 김하명의 집필로 보이고, ③과 ⑥은 김춘택의 집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의 정홍교는 김하명의 후학으로 그 지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체로 인용한 문학사에서 ①이 별개의 논점으로 서술되어 있고, ②, ④, ⑤는 김하명의 서술 시각이며, ③, ⑥은 김춘택의 서술 시각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김춘택의 서술 시각은 김하명에 비해 체계적이고 간결하다고 판단된다.

이 책은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정서문예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집필되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남북한의 고전문학연구 시각을 비교하는 세미나를 진행한 결과물을 축적한 것이다. 국내에 소개된 이상의 북한문학사·고전소설사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DB화된 북한의 국문학 관련 학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덧붙여 남한 학계의 연구 성과들도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우리와 다른 문학사 서술 시각, 낯선 북한식 맞춤법과 띄어쓰기 방식이 난잡하게 와 닿을 수 있는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임해 준 팀원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학교 업무와 학문 연구에 겨를이 없는 가운데서도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운채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통일인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박이정의 박찬익 사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2011년 세월에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정서문예팀장 김 중 균

▶ 차례

- 발간사 _5
-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내면서 _9

단군신화檀君神話 / 단군전설 _15

주몽신화朱蒙神話 / 주몽전설 _63

최치원崔致遠 / 두 녀자의 무덤 _121

국순전魏醇傳 / 국순전 _175

만복사저포기萬福寺榜蒲記 / 만복사의 옷놀이 _201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 리생과 최랑의 사랑 _237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 부벽정의 달맞이 _267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남염부주이야기 _289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 룡궁의 상량잔치 _319

수성지愁城誌 / 시름에 쌓인 성 _341

- 찾아보기 _391

단군전설

1. 서지 사항

남한과 북한에서 <단군신화>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문헌으로 언급한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실려 있다. 이 가운데 단군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문헌이면서¹⁾,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삼국유사』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삼국유사』를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현존하는 우리나라 문헌 유산 가운데 제일 오래된 책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남한과 북한에서 <단군신화>를 연구할 때 거의 동일한 텍스트로 『삼국유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1) '문헌학적견지에서 보아도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과 시조왕으로 알려진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현존하는 우리 나라 문헌유산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책이다. 그런것 만큼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에서 <삼국유사>는 모든 자료들을 대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데서 기초에 놓이는 문헌자료로 된다고 할 수 있다.'(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1쪽.)

2) '이 신화는 오래동안 구두로 전해져내려오는 과정에 불교, 도교의 영향과 각이한 시기 사람들의 감정과 취미에 따라 이리저리한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고려시기에 와서부

2. 작품 개요

〈단군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였다. 환웅의 뜻을 알아차린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었다. 이에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이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바람의 신과 비의 신과 구름의 신을 거느리고 인간세상의 여러 일을 관장하며 세상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곰과 범에게 썩 한 묶음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백일 동안 동굴 안에서 썩과 마늘만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범은 도중에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갔지만, 곰은 끝까지 참아 삼칠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여자가 된 곰(웅녀)이 잉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자 환웅이 잠시 인간 남자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 얼마 후에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고조선의 시조가 된 단군왕검이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고, 그 뒤에 아사달로 도읍을 옮겨 1,500년 간 나라를 다스렸다. 후에 단군은 산신이 되었다.

터 기록에 남게 되었다. 그때문에 《삼국유사》(13세기80년대), 《제왕운기》(1287년),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응제시주》(1460년) 등에는 조금씩 모습을 달리한 단군신화가 전해졌는데 그가운데서도 가장 이른시기의것으로서 비교적 신화의 본래모습을 많이 보존하고있는것이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신화이다.’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991년 10호.)

3. 북한의 연구

북한에서는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단군’, 또는 ‘단군의 공적을 기리는 작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단군신화>를 해석하는 북한 연구자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 뒤에 단군과 관련한 작품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단군신화>와 관련한 연구

현재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문학사 및 개별 논문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②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③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④ 정영진, 「<단군신화>를 두고」, 『천리마』, 1985년 11호.
- ⑤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역사과학』, 1987년 3호.
- ⑥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역사과학』, 1987년 4호.
- ⑦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1)」, 『역사과학』, 1988년 3호.
- ⑧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2)」, 『역사과학』, 1988년 4호.
- ⑨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3)」, 『역사과학』, 1990년 1호.
- ⑩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991년 10호.
- ⑪ 강인숙, 「단군에 대한 이야기(1)」, 『천리마』, 1993년 10호.
- ⑫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4호.

이중에서 ⑤와 ⑩에 인용되어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는 북한에서의 전반적인 연구 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문제를 력사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떼내어 추상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저작집》18권, 145쪽)³⁾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단군신화는 우리 나라 건국신화들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입니다. 이 신화에는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계급사회가 발생하던 력사적시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⑩)⁴⁾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려고 한다. 따라서 <단군신화>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역사와의 관련성이다.

<단군신화>를 칭하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북한에서의 연구 관점이 역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1980년대에 출간된 문학사 ①, ②에서는 <단군신화>를 각각 <고조선 건국 신화>⁵⁾ 또는 <고조선 신화>⁶⁾라고 칭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단군신화>⁷⁾라고 칭하고 있다. 그 후 <단군신화>는 ‘단군설화’⁸⁾ 또는

3)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력사과학』, 1987년 3호.

4)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991년 10호.

5) ‘고조선 건국 신화’는 고조선 국가의 창건자라고 하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화문화사, 1996, 34쪽.)

6) ‘고조선 신화’는 옛날 문헌에 「단군신화」로 전해 온 것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신화들 중 가장 오랜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7) ‘《단군신화》는 조선옛류형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 형성 과정과 그 특성을 설화적형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며 여기에 이 신화유산이 가지는 중요한 문화사적가치가 있는

‘단군전설’⁹⁾로 불리어지게 된다. 점차 ‘신화’라는 표현대신 ‘전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군신화>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1) 역사 자료로서의 <단군신화> 연구

우선 북한의 문학사 ①, ②, ③에서 <단군신화>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에는 우선 원시공동체 사회의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 (중략) 신화에서 곰과 범은 두 개 씨족의 토tems를 반영한 것이 인정되며 쑥과 마늘, 환웅과 곰녀의 결혼, 단군의 출생 등은 부계 씨족사회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신화에서는 이러한 원시시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한 설화적 내용이 계급 사회에 들어선 시기의 생활과 국가 권력을 잡은 통치 계급의 사상과 융합되어 있다. 신화에서 세상을 다스려 볼 뜻을 품은 환웅이 3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상에 내려 왔다는 것은 씨족공동체 시기의 정복 전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신화에는 하늘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신화에서 하늘신은 인격신으로 전환되고 그 인격신이 종족 신인 곰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는다.(①)¹⁰⁾

것이다.’ (정흥고,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4쪽.)

- 8) ‘이미 알려져있는것이지만 단군설화는 먼 옛날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건국설화로 창조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건국설화라고 할 때 그것은 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에서는 단군의 가계와 출생, 건국과정을 신적이고 기적적인것으로 신비화하면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신성시하였다. 실제한 력사적인물을 신격화하여 신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것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고대문명국가를 일떠세우고 민족사발전의 시원을 열어놓은 원시조 단군에 대한 숭배심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다. 먼 고대시기에 신화로 이미 창조된 단군설화는 그후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화적외피를 벗어버리고 전설화되었으며 단군은 신화의 주인공으로부터 전설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4호.)

한편 단군설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부단한 보충윤색과정을 거쳐 보다 풍부화되었다.

- 9) 천수산, 조선민족의 단군에 대한 신앙, 1호, 1996.

①에서는 <단군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원시공동체 사회의 생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곰과 범은 두 개 씨족의 토tem을 반영한 것이며, 환웅과 곰녀의 결혼, 단군의 출생 등은 부계 씨족사회의 생활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 속에 하늘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화에는 다음으로 아득한 먼 옛날의 우리 선조들의 원시 공동체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 (중략) 이 신화의 원초형은 우선 아득한 원시 시기 즉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무리를 지어 살던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략) 원시 동굴 집거 생활· 원시적 채집 경제· 원시 농사 등 원시 주민들의 제반 원시적인 물질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고조선 신화」에는 또한 우리 나라 먼 선조들이 원시 공동체 사회를 벗어나 사회 발전의 다음 단계인 노예 사회· 계급 사회에 들어선 시기의 생활도 반영되어 있다. (중략) 이와 같이 신화의 내용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 발전 단계의 사회 현실과 인간들의 사회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신화에는 원시 집단 생활로부터 고대 계급 국가 출현 이후의 생활에 이르는 사회적 현실과 인간들의 의식 관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이 「고조선 신화」가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쳐 창조 전승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2)¹¹⁾

②에서도 <단군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선조들의 원시 공동체 생활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를 통해 원시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단군신화>가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쳐 창조· 전승되어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단군의 가계와 출생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의 기저에는 인간의 기원과

1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 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35쪽.

11)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8~29쪽.

인간사회의 창시와 관련된 원시적인 사고와 인류최초의 사회의식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최초의 사회의식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의혹과 그에 대한 해석과 리해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해석과 리해는 환상적인 관념으로부터 점차 과학적이며 유물론적인 것으로 지향되었다고 할수 있다. (중략) 이로서 《단군신화》는 조선옛류형사람들의 사회의식형성과정과 그 특성을 설화적형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며 여기에 이 신화 유산이 가지는 중요한 문화사적가치가 있는 것이다. 신화에서 곰과 범은 하나의 종족집단을 이룬 두 개 씨족의 토템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며 쑥과 마늘, 환웅과 곰녀의 결혼 등은 부계씨족사회의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3)12)

③에서도 ①, ②에서처럼 <단군신화>에 반영된 옛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군의 가계와 출생담에 관한 이야기의 기저에 깔려 있는 당대 사람들의 사고와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간사회의 형성에 대해 환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점차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단군신화>를 역사적 배경과 연관 지어 연구해 왔다. <단군신화>가 당대인들의 사상과 생활환경을 반영한다고 전제하면서, 당대의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단군신화>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신화>를 통해 원시 집단생활로부터 고대 계급 국가 출현 이후의 생활에 이르는 사회적 현실과 인간들의 의식 관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⑩에서도 <단군신화>가 원시사회말기 우리 조상들의 생활형편과 국가의 설립에 대하여 전해주는 자료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고조선은 100만여년에 걸친 장구한 원시사회에 뒤이어 선 우리 나라 력 사상 최초의 국가였으며 이 나라의 건국에 대하여 전한것이 바로 단군신화

12)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3~54쪽.

이다.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것을 기본주제로 한 이 신화는 고조선건국 당시나 그 직후시기에 노예소유자들과 그들의 사상적대변자들이 자기 왕조의 출현을 합리화하고 그 권위를 신성화하려는 목적됨에 선행한 원시사회의 신화유산(웅신화와 곰신화)들을 건국당시의 역사적조건에 맞게 그리고 건국시조를 최대한 신비화하는 방향에서 계승발전시켜 만든 것이었다. (중략)

신화에서 하늘신 웅, 부하신(풍백, 우사, 운사)그리고 못귀신(무리 3,000)으로 신의 세계를 계층으로 구분하여 전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종족성원들이 종족장, 씨족적귀족, 일반종족원들로 구분되어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웅이 무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것은 하늘신(태양신)을 주되는 신으로 숭배한 종족이 다른고장에서 이동해왔음을 보여주는것이다.

한편 신화의 곰과 범은 고조선의 발상지에 있던 씨족들의 이름이고 그들이 한글에서 살고있었다는것은 두 씨족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있었음을 말한것이며 곰만이 사람으로 되었다는것은 종족내에서 곰씨족의 귀족들이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곰너자가 웅과 혼인하였다는것은 웅이 거느린 하늘신을 주되는 신으로 숭배한 이주민종족과 동물을 자기 조상으로 숭배한 본고장의 원주민종족들사이에 종족연맹을 이루었음을 말한것이다.

공동체성원들로부터 <신시>(큰어른)로 불리운 웅이 곡식과 목숨, 병과 형벌, 선과 악 등 인간세상살이를 주관하였다는 신화의 이야기는 종족연맹체의 정치적수장이며 신앙행사를 담당한 공동체주장이 수행한 주되는 일들을 말한것이다.

곡식을 주관했다는것을 맨처음으로 이야기한것은 당시사회가 정착농업을 기본으로 한 농경사회였다는것을 보여주며 형벌을 주관하였다는것은 당대사회에 도덕적한계에서는 금지할수 없었던 <범죄>들이 싹트기 시작하여 하나의 사회적문제로 됨에 따라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의 맹아적형태가 나왔다는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종족연맹체가 이루어지고 사회성원들이 여러 계층으로 구분되어있었으며 형벌의 맹아적형태들이 나온 사회는 원시사회말기에 해당한다. 단군의 출생경위까지 전한 신화의 앞부분은 이러한 역사적사실에 토대하여 꾸며진 이야기이다. ⑩¹³⁾

⑩에서 환웅은 하늘신을 숭배하는 종족의 정치적 수장으로서 다른 곳에서 이주를 해왔으며, 곰과 범은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씨족들의 이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통해 환웅은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구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군의 출생 이전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분석해보면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기 이전의 사회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단군신화>의 신화적인 내용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갖고 있는 사실 토대에 대해 논하고 있다.

2) <단군신화>와 원시신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⑤, ⑦, ⑧, ⑨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다. 이 연결된 논의들은 <단군신화>와 <단군신화>의 창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신화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단군신화>의 내용을 구조화시켜 분석하였다.

단군신화에서 웅과 곰에 대한 설화의 원형은 원시사회에 그 발생근원을 둔 원시신화로 볼 수 있다. 최초의 인류가 획득한 정신적재부의 하나인 신화가 원시신앙에 토대하여 발생하였음은 물론이다. 원시신앙이 원시사회 인간들의 보편적인 관념형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도 원시사회에서 어느 종족,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창작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하였을 주되는 설화형태였다. 이와 같은 원시신화들이 후날 건국신화창조에 리용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웅신화와 곰설화가 원시신화였다면 단군신화도 선행한 저러한 신화유산들에 토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건국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완성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의 형성유래를 이상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건국

13)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991년 10호.

신화가 왕조의 번성과 계급적지배를 위한 정신적도구라는 점에서 건국당시부터 그것을 만들 필요가 제기되기 시작한다는 일반적리유에 의하여, 다른 편으로는 《조선(고조선)》의 경우 원시신화(웅과 곰 신화)를 선행한 사회로부터 유산으로 넘겨받음으로써 건국신화를 만들수 있는 유리한조건을 가지고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하여 비록 소박하고 유치한 형태의것으로나마 단군신화는 고조선건국당시나 그 직후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리라는것을 추정할수 있다.(⑤)¹⁴⁾

⑤에서는 환웅과 곰에 대한 원시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단군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는 환웅과 관련되는 원시신화와 곰과 관련된 원시신화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⑦, ⑧, ⑨에서는 본격적으로 <단군신화>와 원시신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단군신화가 후세에 조작된 거짓 신화가 아니라 고조선의 건국당시부터 그 직후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참 신화라는것이 뚜렷해지고(《역사과학》 1987년 3호) 그 애초의 모습이 대체로 어떠하였으리라는것(근사한 신화원형)이 측정된(《역사과학》1987년 4호) 이상 신화의 해석을 통하여 그것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것이 당연한 과제로 남게 된다.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사한 신화원형자료를 그 구성의 특성에 따라 웅신화, 단군의 출생신화, 단군의 건국기사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⑦)¹⁵⁾

⑦에서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환웅과 관련한 신화, ㉡단군의 출생과 관련한 신화, ㉢단군의 건국기사로 나누었다. 이는 ⑤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웅과 관련한 신화와 단군과 관련한 신화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14)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역사과학』, 1987년 3호.

15)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1)」, 『역사과학』, 1988년 3호.

것이다.

우선 '㉠환웅과 관련한 신화'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꼭대기 신단수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신시라고 일렀다.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을 주관하며 목숨을 주관하며 병을 주관하며 형벌을 주관하며 선과 악을 주관하여 무릇 인간살이의 360여가지의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종래에 사가들은 단군신화해석에서 우에 소개한 웅신화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지만 사실은 단군의 출생신화나 건국기사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단군신화가 건국신화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나타낼수 있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웅신화가 단군이«조선(고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시기의 원시사회상을 놀라우리만치 풍부하게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중략)

신화의 주인공 웅은 공동체성원들로부터«신지(큰 어른)»로 불리운 부계씨족공동체의 정치적수장이였으며 제천행사를 주관한 신관이였다(웅의 정체). 그는 자기의 공동체성원들을 이끌고 새 고장(후날 고조선의 발상지)에 이동하여(지역적 무대)정착농업을 하였다. 경제생활에서 기본은 농업이였다(추장의 사회적 직능 첫째). 농업생산의 발전으로 잉여생산물이 출현하고 사적 소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성원들은 서로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공동체추장, 씨족적 귀족들, 공동체일반성원들)으로 구별되였다(사회의 계층구조).

이웃 공동체와의 전쟁이 항시적인 생업으로 되어 처음에는 포로노예로부터 시작되였을 노예제는 동족성원들을 노예로 전환시키면서 더욱 확대되였다(추장의 사회적 직능 둘째). 사회성원들이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됨에 따라 리해관계를 침해하는 현상이 늘어나 그것이 사회적으로«범죄»로 인정되고 이«범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의 맹아가 싹터(추장의 사회적 직능 넷째) 관습법의 한계안에서 시행되였다. 그러나 사회성원들의 행동을 조절통제함에 있어서 아직은 료리도덕적 관념과 관습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추장의 사회적 직능 다섯째). 이러한 사회는 국가성립 직전 원시사회말기에 해당된다.(㉠)¹⁶⁾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웅’은 ‘환웅’을 가리키는 것으로, ‘웅’의 실체가 ‘부계씨족공동체의 정치적 수장’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환웅에 관한 이야기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의 원시사회상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이야기만큼 중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단군의 출생과 관련한 신화’를 다루면서 꿈과 범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신화는 단군신화로 꾸며지면서 본래의 모습보다 상당히 변하였다고 보아진다. 원래 사람의 조상이 꿈이라는 관념은 하늘신승배이전시기에 있었던것만큼 꿈설화의 시초형태는 꿈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스스로 사람으로 되었다는 정도의것이였을것이다.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을 띠였겠는가를 알기 위하여 꿈신화의 해당부분에서 천신을 일단 상상해본다. 그러면 꿈이 천신의 도움으로 사람으로 된 신화의 해당부분이 응당 꿈자신의 일로 되여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꿈과 관련한 설화의 본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다.

《옛날에 꿈이 썩 한타래와 마늘 스무개를 먹고 굴속에 들어가 백날동안 해빛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드디어 사람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설화가 고조선건국이전 태고적부터 우리 조상들의 동물승배관념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꿈신화였을것이다.

단군신화의 창조자들이 재래의 꿈설화를 모체로 하면서 그것을 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켜 단군의 출생신화를 만들었다면 여기에는 꿈설화의것이 그대로 채용된것도 있고 변형시킨 부분도 있으며 새로 첨가한 개소들도 있었을것이다. 해당기사들을 분석하면서 상세히 밝힐것이지만 그러한 변화의 일반적 취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우선 꿈이 스스로 사람으로 되었다고 한 본래의 설화를 하늘신의 조화로 되었다는 방향으로 꾸미게 된것이다. 그러자니 자연 꿈과 천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서술들이 새로 끼여들게 되고 본래의 꿈과 관련한 행적들이

16)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1)」, 『력사과학』, 1988년 3호.

천신에 의해 고안되고 제시된것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다음은 단군을 출생시키기 위한데로부터 곰녀자와 웅과의 혼인, 임신에 대한 서술을 새로 첨부하였다.

끝으로 단군신화의 창조자들이 곰설화를 단군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건국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것이다.

결과 종래의 곰설화에 반영된 사회상이 단군신화에 이르러서는 건국전야의 사회형편을 이리저리하게 반영하면서 일정한 변형을 거치게 되었다.(8)¹⁷⁾

⑧에서는 곰설화의 본래 모습을 ‘옛날에 곰이 쑥 한타래와 마늘 스무개를 먹고 굴속에 들어가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드디어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신화>의 창조자들이 건국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곰설화를 <단군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논의하였다. 단군을 출생시키기 위해 웅녀와 환웅의 혼인, 임신에 대한 서술이 새로 첨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군신화>의 내용 가운데 곰과 범이 한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과,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어야 했던 이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 신화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였는가를 정확히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곰>>과 <<범>>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화의 <<곰>>과 <<범>>은 씨족들의 명칭이었다. (중략)

곰과 범이 <<같은 굴에서 살면서>>라는것은 동거생활을 표현한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곰과 범이 한굴에서 살았다는것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을수 없다. 그렇다면 곰과 범이 한굴에서 살았다는것은 무엇을 말하지는것인가 이 부분을 우의 문단과 관련시켜보면 곰씨족과 범씨족이 한개 종족을 이루고 같이 살았던 사실을 반영한것이였다. (중략)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곰이 사람으로 되는 계기를 두가지로 설명하고있

17)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2)」, 『역사과학』, 1988년 4호.

는 점이다.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것이 그 하나이고 굴속에 들어가 오래동안 해빛을 보지 않았다는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들가운데 어느 한 조건이라도 없으면 꿈이 사람으로 될수 없었다.

다시말하여 꿈이 쑥과 마늘을 먹었다 하더라도 굴속에 들어가지 않고 해빛을 보았다면 사람으로 될수 없는것이고 아무리 굴속에 들어가 오래동안 해빛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쑥과 마늘을 먹지 않았다면 그 역시 사람으로 될수 없다는것이 설화의 취지이다. 그러나 꿈이 굴속에 들어가 한겨울을 지내는것은 그 생활습성이므로 사람으로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렇다면 꿈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필이면 다른것도 아닌 쑥과 마늘을 먹어야 하였는가. 사람의 조상이 꿈이라고 믿었던 이 설화창조자들에게 있어서 꿈이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신비한 힘의 작용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만능의 주재자인 하늘신을 몰랐던 그들은 그러한 힘을 그들자신의 생활자체에서 찾을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 대상으로 선택된것이 쑥과 마늘이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의 민간치료약재로 전해지고있었다. 대식물학에서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알려진 쑥은 일명 약쑥이라고 할 정도로 약재로서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있다.(8)¹⁸⁾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범은 씨족의 이름이며, 곰과 범이 한 동굴안에 살았다는 것은 곰씨족과 범씨족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쑥과 마늘이 민간치료약재로 전해지고 있던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웅녀(곰녀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곰녀자가 혼인할데가 없으므로 매번 신단수아래에서 아이를 배게 해 달라고 빌므로 웅이 잠시 변하여 이와 혼인하였더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

18)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2)」, 『력사과학』, 1988년 4호.

다.》는 기사는 원래 곰설화에는 없었던것이요 또 있을수도 없는것이였다. 이야말로 단군의 출생신화에서 근본을 이루는것으로서 이상의 모든 신화부분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곰녀자》란 곰씨족의 녀자를 가리키는것이지만 실상은 그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씨족사회에서 매개 성원은 자기가 속한 씨족의 명칭으로 표시되는 이름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름을 보고서도 그가 어느 씨족에 속하는가를 알수 있게 된다. 이미 신화에 《곰》으로 표시된것을 씨족명칭으로 본 이상 그 개별적인 한 성원을 표시한 《곰녀자》는 씨족명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된 그의 이름으로 보지 않을수 없다. 《성》이 아무런 사회적 기능도 가지지 못하고 이름의 무의미한 접두사처럼 붙어다니는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다만 김씨가문의 녀자, 리씨가문의 녀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김씨》, 《리씨》가 우리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잔존하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씨족명이 그들의 이름에서 필수적인 한 구성부분을 이루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결국 곰씨족의 녀자를 가리키는 《곰녀자》는 씨족의 어느 한 성원의 이름으로 될것이다.

다음으로 《곰녀자》이하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까지의 기사는 겉으로 보면 극히 평범한 남녀관계를 표현한것처럼되어있지만 거기에는 실로 중대한 사실이 반영되어있다. 신화에서 곰녀자가 혼인할데가 없어서 신단수아래에 가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것은 청혼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웅이 곰녀자와 혼인했다는 그 다음 기사에 의하여 더욱 명백해진다. 그런데 청혼을 하필이면 신단수아래에 가서 했는가, 신화에서는 마치고 그것이 하늘신 웅이 내린 매우 신비한 나무이므로 거기에서 빌었기때문에 소원이 성취된것처럼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신단수는 천신을 숭배하는 웅의 종족이 새로 정착한 지역을 가리키며 따라서 그곳에 가서 종족의 추장(웅)에게 청혼한 사실을 신화적으로 반영한것이였다. 여기로부터 다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추정해볼수 있다.

그 하나는 종족간의 련맹이라는 사실이 이와 같은 일종의 《혼인담》을 통하여 반영되었을수 있다는것이다. 웅이 거느린 종족이 새 고장 즉 신화에서 말하는 태백산일대에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 고장에는 본래 곰과 범이라는 씨족명을 가진 종족이 살고있었다. 결국 원주민종족과 이주민종족이 한 고장에서 산셈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원주민종족을 대표하는 곰씨족녀자가

이주민종족의 추장에게 청혼하여 서로 혼인이 성립되었다는것은 이 두 종족들의 융합 또는 종족동맹의 실현이라는 보다 중대한 사실을 뜻하는것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부일처제가족의 존재를 보여준다는것이다. 학자들은 웅이 《잠간 변하여 혼인》했다는 글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그 어떤 대우혼을 련상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종족성원들이 결혼하는 그러한 단계에서의 가족은 벌써 일부일처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이미 일부일처제가족단계에로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단군의 출생신화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력사적 사실을 반영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고조선발상지의 본고장에는 곰씨족과 범씨족으로 구성된 종족이 살고있었다. 종족안에서 곰씨족의 세력이 우세하여 종족수장의 지위를 곰씨족의 귀족들이 차지하였다. 이 종족의 귀족들은 하늘신을 숭배한 웅이 거느린 이주민종족과 련합하여 종족동맹을 형성하였다.(8)¹⁹⁾

위의 인용문에서는 ‘곰녀자’가 실제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웅녀와 환웅의 혼인을 ‘곰씨족 여자가 이주민종족의 추장에게 청혼하여 서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일부일처제 가족단계로 이행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㉔단군의 건국기사’와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기었는데 그곳을 또한 궁흘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하였다. …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 신화에서 전하는 단군의 건국기사이다. 단군이 죽은 뒤 아사달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즉 단군이 《조선》이란 국호를 가진 나라를 세우고 처음에는 평양성에, 나중에는 아사달(궁흘산, 금미달)에 도읍을 정하였다는것은 그 어떤 신화적요소도 없는 사실그대로의 력사기록이다. 그 해석에서 주되는

19)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2)」, 『력사과학』, 1988년 4호.

것은 <단군>, <평양성>과 <아사달>, <조선>이다.(9)²⁰⁾

⑨에서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단군’, ‘평양성’, ‘아사달’, ‘조선’이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하여 단군의 건국기사가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평양>역시 우리 말의 리두식표기이다. <평양>의 <평>은 리두표기에서 <부루, 바라>에 대한 소리움김으로나 <벌판>의 <벌>의 옛 형태인 <바라, 버러>에 대한 뜻움김으로 쓰인것이다. <평양>의 <양>은 묘대 우리 말 <나>이며 <내 천>을 가리킨것으로 볼수 있다. 결국 <평양>은 고대 우리 말의 <부루나>또는 그 형태변종인 <바라나 버러나>에 대한 리두식표기로 추정할수 있을것이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의 <국내>는 일명 <불내>, <위나암>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역시 <평양>과 동일한 어원 <부루나>에서 유래한것이다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213, 224~255페이지). 이런 사실로부터 원래 우리 선조들은 벌에 흐르는 강물을 <부루나>라고 하여는데 점차 그 강을 끼고있는 마을을 역시 <부루나>로 불렀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라의 도움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전용되었다고 생각해볼수 있다.*

* 물론 이 과정에 <부루나>의 <나>의 의미도 마을, 수도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땅>, <바위>와 같은 그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을 표시하는 의미로 달라졌을것이다.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초기수도 <평양>의 본래 우리 말은 <부루나>였고 후일 그것이 리두로 정리되면서 <평양>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 (중략)

료동반도에 있었던 고구려시기의 <개모성>이나 현대지명<웅악성>을 달리 표기하면 <웅달>또는 <웅홀>로 될것이며 단군신화의 본래대로 표기하면 <궁홀>, <금미달>로 되고 현대어로 옮기면 모두가 <곰골>, <곰고울>로 될것이다. 또 <안시성>역시 옛투로 표기하면 <아사달>로 될수 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아사달>이나 그것의 별칭인 <궁홀산>, <금미달>과 통하는 <안시성>, <개모성>, <웅악성>과 같은 지명들

20)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3)」, 『력사과학』, 1990년 1호.

이 료동반도에 집중적으로 전해지고있다는 사실은 고조선의 건국력사의 일단을 전하는 단군신화의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동시에 아사달의 위치를 찾을수 있는 근거까지 제공해준다.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미루더라도 어쨌든 고조선의 발상지인 아사달의 위치는 이상의 초보적인 해석에 근거하더라도 료동지방에서 찾는것이 합리적이다.⑨)

또한 ⑨에서는 주로 단군의 건국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한 예로, '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초기수도 《평양》의 본래 우리 말은 《부루나》였고 후일 그것이 리두로 정리되면서 《평양》으로 표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초기 수도가 바로 오늘날의 평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단군신화>에 나오는 《아사달》이나 그것의 별칭인 《궁홀산》, 《금미달》과 통하는 《안시성》, 《개모성》, 《웅악성》과 같은 지명들이 료동반도에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조선의 발상지인 아사달의 위치는 료동지방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3) <단군신화>의 윤색 과정에 대한 연구

이번에는 <단군신화>가 새로이 윤색되어 나간 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②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개작된 <단군신화>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노예 소유국 국가의 흔적이 바로 신화로써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기 봉건 문인들에 의하여 개작 윤색되어 첨가된 부분도 있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신화 아닌 첨가된 부분들에 대하여 노동 계급적 선을 세워 비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후기 봉건 문인들의 손에 의하여

윤색된 것은 13세기 이승휴의 『제왕운기』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군을 계급 국가의 왕으로 찬양하면서 고조선 노예 소유자 국가는 물론 그후의 봉건 국가의 출현을 신성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 신화」 연구에서는 신화의 원초형을 후기 봉건 문인들에 의하여 윤색 첨가된 부분과 똑바로 구분하여 갈라내는 동시에 원시 및 고대 주민들의 소박한 사고방식과 환상의 산물인 신화를 봉건 통치 계급의 지배적 목적에 복종시키려는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 비판하여야 한다.(②)²¹⁾

위의 글에서는 봉건 문인들이 봉건 통치 계급의 지배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단군신화〉에 첨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후대에 윤색된 내용은 원래 신화의 내용과 철저히 분리하여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논의들에서는 윤색된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점차 사라졌다. 다음의 논의는 〈단군신화〉의 원형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윤색된 〈단군신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사실들을 바로 평가하여 우리의 새세대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22권, 51페이지)

《조선(고조선)》의 건국당시나 그 직후시기부터 단군신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 실리기까지 어떤 부분은 전해져오는 도중에 빠져버려서 《고기》에 실리지 못한것도 있었을것이고 또 어떤것은 후세에 서로 덧붙여졌거나 본래 있었던것이 후에 더 윤색된것도 있을것이다. 이런 변화를 거쳐온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기》의 단군신화이다.

이와 같이 변모된 현존 단군신화에서 그 본래의 모습을 성하게 되살려내는것은 힘든 일이지만 근사하게 그려볼수는 있을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후세에 오면서 덧붙여졌거나 변모된 부분을 가려내는것이 필요하다.(⑥)²²⁾

21)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9~30쪽.

22)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력사과학』, 1987년 4호.

위의 인용문에서는 변모된 <단군신화>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군신화>의 내용 가운데 후대에 변모된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환인》이란 칭호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을 포괄하는 도리천의 주재신을 가리키는 싘스크리트말(범어)을 한자음으로 《석가제한이다라》라고 표기한다. 이 짧지 않는 합성어의 뜻은 《석가》는 《능하다》, 《제한》은 《하늘》, 《이다라》는 《임금》을 각각 의미한다. 통털어 그것은 《하늘을 주재하는 임금》이란 말이다. 이것을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면 《천제》가 되고 현대 우리 말로는 《하느님》이 된다. 이와 같이 《환인》은 《하늘》을 가리키는 범어 《제한》의 마지막자와 《임금》을 뜻하는 《이다라》의 첫글자를 합쳐 만든 것이므로 그 어원이 불교에서 유래하였다는것은 근거있는 이야기로 된다.⑥)

위의 인용문은 환인과 관계된 이야기는 본래의 <단군신화>에는 없던 것인데 후대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첨가되었다는 내용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환인’ 외에도 ‘《삼위태백》의 《삼위》, 《천부인 3개》 등이 불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논하고 있다.

이상에서 《환인》이나 《삼위태백》의 《삼위》, 《천부인 3개》등이 불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이제 문제로 되는것은 이상에서 본 신화의 첫부분이 원래 신화에 있었던것인가 아니면 후세에 첨가된것인가 하는것이다.

단군신화가 이미 고조선시기에 형성되어있었다는 필자의 해석으로부터 본다면 이 부분에 있는 불교적색채들은 논의할 여지없이 불교가 우리 나라에 수입된 이후의것으로 되지만 그것들이 원래 신화에 있었던 이야기를 단순히 불교적으로 윤색되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불교도들에 의해 꾸며졌느냐 하는것에 좀 더 논의할 문제꺼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군신화와 비슷한 구성을 가진 고구려건국건설에서 이

른시기의 자료들(광개토왕릉비문, 《위서》)에는 주인공 주몽을 천제(해 빛)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뒤시기의 자료(구《삼국사》)에는 천제와 주몽 사이에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끼여들어 주인공이 천제의 손자로 되어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오랜 형의 건국설화일수록 주인공의 선대계보를 기껏해서 아버지, 어머니 한세대에 국한시키지만 후세에 오면서 건국시조를 내세우기 위해 그 조상계보를 늘리는 경향성을 보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주몽전설의 이와 같은례로 미루어보아 단군신화도 처음에는 단군의 1대선조 환웅이나 곰녀자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을것이다. 사실상 내용구성으로 보아 단군신화에서 환인관계기사는 전혀 불필요한 군더더기이다. 그것없이 환웅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신화로서의 면모를 갖추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후세에 승려들의 손에서 이미 전해져오던 단군신화에 기초하여 새로 꾸며 덧붙인것으로 보인다.⑥)

⑥에서는 환인관계기사는 전혀 불필요한 군더더기인데 후세에 승려들의 손에 의해 새로 꾸며 덧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군신화>가 처음에는 환웅이나 곰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인데, 건국시조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 조상의 계보를 늘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③에서는 변모된 <단군신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설화의 창조자들은 천제에 관한 사상적지향을 반영함으로써 시조왕을 신격화했을뿐 아니라 국가의 건립과 저들의 권력이 이른바 <하늘>의 명시에 의한 운명적인 것으로 미화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의 건국설화인 《단군신화》가 원시대에 창조된 곰토텐신화를 주되는 바탕으로 하여 창조되었으나 계급이 분화되고 계급적 지배가 실현되고 있던 사회력사적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작되었으며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시대의 사상과 내용이 보충되고 윤색됨으로써 원시씨족공동체의 생활로부터 계급국가형성이후의 여러 단계에 걸치는 사회생활과 사회적의식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²³⁾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군신화>가 사회·역사적 현실의 요구에 따라 개작된 것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급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단군신화>에 새로운 사회의식이 반영되게 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②에서의 기술 태도와 비교가 된다.

⑬에서도 <단군신화>의 개작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단군설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부단한 보충윤색과정을 거쳐 보다 풍부화되었다.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왕이 된후 여러곳에 도읍을 옮기며 1500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 인간이 1500년을 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서 이것은 1500년간 존속한 단군왕조(전조선)시기의 력사적사실이 설화적으로 꾸며지면서 《단군신화》에 보충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군제라든가 단군릉수호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들은 중세나 근대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으며 이러한것들을 놓고도 단군설화가 고대시기에 창조된후 반만년에 걸치는 민족사적인 발전과 함께 전승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단군설화의 다른 하나의 특성은 작품들에 우리 인민의 애국애족의 감정이 강하게 구현되어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설화가 애국애족의 감정을 구현하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설화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다. 단군설화는 민족의 원시조를 숭상하여 창조된 이야기로서 거기에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온 세상에 널리 자랑하고 빛내이려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보다 짙게 구현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단군설화가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유구성, 전통적인 고유한 생활풍습을 설화적으로 형상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하늘의 후손으로 태어난 단군이 여러 소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 나라를 동방에서 가장 강대한 고대문명국으로 만들고 오래동안 다스린 이야기 그리고 흰옷을 입

23)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5쪽.

고 동정을 달며 중매를 서는것 등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한 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에서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는것이다.

그 특성은 또한 단군설화가 민족의 성지 평양과 명산들과 결부되어 광범히 전해지고있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단군설화는 단군이 태를 묻고 자라났으며 죽어서 묻힌 평양지방 특히는 강동과 그 주변일대를 많이 담고있으며 우리 나라 명산들인 조종의 산 백두산과 구월산, 묘향산 등에도 단군이 태어나고 성장하였다는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산수수려한 곳에서 뛰어난 인물이 난다고 여겨온 우리 민족의 관습에서 나온것으로서 단군과 같은 인물을 낳은 우리 조국산천은 그 어디나 다 아름답고 물맑은 금수강산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사랑의 감정이 깔려있다.

특히 조선의 녀과 기상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끝없이 숭상해온 우리 인민들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사적을 백두산과 결부시킴으로써 백두산을 단군민족의 상징으로 높이 찬양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높였다. 실로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숭상하여 창조된 단군설화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민족의 고유한 설화유산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조선민족 제일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²⁴⁾

⑬에서는 <단군신화>가 오랜 세월동안 윤색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풍부해졌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들이 설화적으로 꾸며지면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군신화>가 반만년에 걸치는 민족사적인 발전과 함께 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북한에서 윤색된 <단군신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점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4호.

3.2. '단군'을 찬양하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는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보면서 '단군'의 공적을 기리는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논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강인숙, 「단군에 대한 이야기(1)」, 『천리마』, 1993년 10호.
② 박시형, 「일제의 단군말살책동」,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③ 「함정에 빠졌던 단군」, 『민족문화유산』, 2001년 3호.
④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4호.
⑤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노래한 민족고전시가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3호.
⑥ 장광혁, 「중세 단군관계시문학에서 단군의 역사적공적에 대한 찬양」, 『조선어문』, 2005년 2호.
⑦ 리해연, 「〈인물소개〉 대종교의 창시자 라철과 단군찬양시문학」,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⑧ 리해연, 「〈인물소개〉 애국적인 문인 김준과 단군관계시문학」, 『민족문화유산』, 2005년 3호.
⑨ 최인철,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고조선」,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⑩ 최광호,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 평양은 단군이 나라의 창업을 이룩한 민족의 성지」, 『민족문화유산』, 2006년 3호.
⑪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해설 :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조선예술』, 2007년 7호.
⑫ 신재복, 「단군릉과 송령전, 삼성사의 회화복원」, 『조선예술』, 2008년 7호.

단군과 관련한 작품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과거에 이미 창작된 시작품들을 단군과 관련지어 분석한 논의와, 민간에 구전되어

은 단군 관련 설화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 먼저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본 뒤에, 북한에서 〈단군신화〉뿐 아니라 ‘단군’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를 논해보도록 하겠다.

1) 단군과 관련한 시작품 연구

다음의 글은 단군을 노래한 고전시가유산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단군에 대한 시가들은 고대에 이어 중세 전 기간 끊임없이 창작되어왔다. 고구려와 발해시기 문헌사료의 인멸로 하여 단군을 노래한 시가들은 거의 원존시가유산 그대로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단군에 대한 제사의식이 국가적관심속에 여러 갈래로 널리 진행되고 다양한 역사문헌들이 편찬되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적지 않은 작품들이 나왔으리라고 짐작된다.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단군관계시가들은 대체로 고려이후시기에 창작된 것들이다. 고려시기는 중세 조선민족의 발전력사에서 국토통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의 시기로서 고려사람들은 전례없이 양양된 민족적분위기속에서 우리 민족사의 자랑찬 전통을 노래한 작품들을 적극 창작하였다. (중략)

리조시기 단군을 칭송한 작품들은 많은 경우 단군이 태어나 건국업적을 이룩한 평양의 역사유적유물들을 제재로 삼은것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허균의 시 <구월산 단군사>, 서산대사의 시 <단군대에 올라>, 권필의 시 <마니산 천단에 올라>, 김춘택의 시 <참성제단> 등에서는 묘향산과 구월산, 강화도 등 전국각지에 있는 단군시기의 유적유물을 통해 단군에 대한 찬양을 보다 구체적인 정서속에 토로하기도 하였다.

단군을 노래한 리조시기 시가유산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19세기에 활동한 최영연의 작품들이다. 그는 민족사와 민족생활을 반영한 악부시 창작으로 널리 알려진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특히 단군의 업적과 고조선의 역사, 풍속 등을 제재로 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남기었다. 그의 악부시집 <해동악부>에는 단군과 관련한 시만 하여도 수십편이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단군의 건국업적을 취급한 시 <나라이름 조선이라 불렀네>, <하늘에

서 내려온 임금》 등과 《신지글자》, 《고시래》, 《서감왕후》, 《신교를 세우다》를 비롯하여 단군조선초기의 인물, 세태와 관련한 전설들을 시로 읊은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²⁵⁾

위의 글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단군을 노래한 시작품들을 창작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실제 작품을 많이 인용하면서 단군을 노래한 시들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반영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의 글도 단군의 공적을 노래한 중세의 시가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중세단군관계시가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기강을 마련하였으며 문명시대로의 길을 개척한 단군의 역사적공적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이 주제 작품들은 단군의 역사적공적을 찬양하는데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작품들에서 그 지향은 다양하게 표현되고있다. 중세단군관계시가문학에서 단군의 역사적공적에 대한 찬양은 구체적으로 단군의 출생, 건국실현과 문명시대으로 이끈 단군의 공적에 대한 찬양으로 표현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우선 단군의 출생에 대하여 찬양하고있다. 중세문인들이 단군의 출생을 찬미하게 된것은 자기 민족의 시조가 못사람들과 구별되는 뛰어난 인물이며 때문에 고조선의 건국자로 될수 있었다는 민족적인 긍지와 숭배심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김평묵(1805-1882)은 4언고시 《아침해 솟아오른다》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이른 새벽 아침해 솟아오르는 / 동쪽나라에 임금이 태여났네

...

해빛받은 박달나무밑에서 태어나 / 아득한 그 옛날 나라를 세웠어라

25)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노래한 민족고전시가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3호.

...

아, 그 임금은 단군시조였어라 / 단군, 이는 바로 우리 임금이였네

시는 첫 부분에서 아침해 제일먼저 맞는 우리 나라에 대한 밝고도 환희에 찬 시적묘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착과 자랑의 감정을 터놓으며 바로 이렇듯 아름다운 강토에서 임금이 태어났다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시는 다음부분에서 앞부분의 정서적인 감정을 승화시켜 그 임금은 박달나무 밑에서 해빛의 정기를 받아안고 태어난 성인이라고 찬양하고있다.²⁶⁾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아침해 솟아오른다>라는 시는 단군의 출생에 대해 찬미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 글에서는 다양한 중세의 시가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단군관계 시가문학’을 하나의 장르처럼 보면서 중세의 여러 시인들이 단군을 찬양하기 위해 시작품을 활발히 창작했다고 논의하고 있다.

다음은 일제의 통치를 받는 시기에 김준이라는 문인이 단군을 찬양하는 시작품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논의한 글이다.

김준의 문집에는 7언절구인 《단군조선》, 《좋은 세월에 민속도 아를 다웠어라》, 《단군이 팽오를 시켜 살림을 꾸리다》, 《단군이 아들 부루를 도산에 보내다》, 《참성단》들과 5언물시 《단군을 우러러 추모하는 노래》와 같은 단군관계 시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김준은 이러한 작품들에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연구에 기초하여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숭배심을 격조높이 구가함으로써 동시대인들에게 일제의 야만적인 민족말살책동에 민족적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맞서나가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그의 작품들에는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과 민족의 원시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배심이 랑만적인 정서로 구가되고있다.

26) 장광혁, 「중세 단군관계시가문학에서 단군의 역사적공적에 대한 찬양」, 『조선어문』, 2005년 2호.

아득한 그 옛적 / 혼돈이 갈라지지 않을적에 / 신인이 동쪽나라에 내려
 / 나무궁전을 세웠어라
 태백산 남쪽기슭 / 박달나무밑에 내려오니 / 령롱한 빛 상서로움 서리고
 / 오색구름 붉게 피어났다네

이 시는 7언절구로 된 《단군조선》이다. 작품에서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 아득한 원시시대의 역사를 끝장내고 국가문명시대를 마련해준 단군의 역사적공적과 민족의 원시조에 대한 인민들의 숭배심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특히 작품은 마지막부분에서 단군과 박달나무와의 관계를 시적으로 확인하면서 단군의 역사성, 실재성을 강조하고있으며 동화세계와 같은 형상적표현을 빌어 작품의 정서적색채를 밝고도 낭만적으로 채색하고 있다. 7언절구 《단군을 우리러 추모하는 노래》에서도 단군을 잊지 못하는 우리 선조들의 정서를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7언절구 《참성단》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앞의 작품들에서는 단군과 관련된 역사적사실이나 인민들속에서 창조전 승된 전설적인 소재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단군숭배심을 보여주었다면 《참성단》에서는 단군과 관련된 실재한 역사유적에 기초하여 단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시조숭배심을 강조하였다. 역사적사실에 의하면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것으로 알려져있다.

마니산 북쪽 봉우리우엔 / 참성단이 남아있어 / 웃쪽은 네모나고 밑은
 둥글어 / 오늘도 돌란간 남아있어라
 단군의 빛나는 령혼 / 태고의 그시절과 다름없어 / 지금도 사람들이 추
 모하며 / 신단제의 향불을 피운다네

작품에서는 앞부분에서 단군의 발자취가 어린 실재한 역사적사실과 유적에 기초하여 단군의 실체를 확인하는데로 작품의 정서적내용을 지향시키고있다. 작품은 다음 부분에서 단군은 우리 민족사에 쌓은 역사적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태고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며 때문에 우리 인민은 단군을 잊지 못하여 숭배하는것이라고 노래하고있다.²⁷⁾

27) 리해연, 「〈인물소개〉 애국적인 문인 김준과 단군관계시문학」, 『민족문화유산』, 2005년 3호.

김준의 시작품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논지이다. 또한 김준의 시에 나타나는 단군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예로 들면서, 단군이 숭배를 받아야 하는 민족의 시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글에서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대종교의 창시자 라철이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찬양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민족에게 단군민족의 애국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반일구국항전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정서적주장은 시인이 1909년 3월 6일에 지은 <단군성덕가>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작품은 모두 6개 분절로 이루어져있다. 작품의 제1절에서는 단군의 건국공적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의 정이 드높은 정서적양상으로 짙게 채색되어있다. 제2절에서는 백성들에게 농경생활의 혜택을 안겨주고 입고 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준 단군의 공적을 노래하고있으며 제3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불리용방법과 병충해를 막는 방법, 병치료법을 마련하여 <우리 지손들을 살려준> 단군의 구체적인 공적을 노래하고있다. (중략) 당시 일제가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왜색, 왜풍을 강요하고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에 동조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궤변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과 존엄이 심히 침해당하고있던 조건에서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배달겨레 모든 민중>이 일치단결하여 민족정신을 되찾고 단군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나가자는 시인의 주장은 더없이 귀중하고 찬양할만한것이다.²⁸⁾

위의 글에서는 라철의 시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제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단군민족의 기상을 떨쳐 나가려는 애국정신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8) 리해연, 「〈인물소개〉 대종교의 창시자 라철과 단군찬양시가문학」,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이처럼 북한에서의 단군과 관련한 시작품 연구는 민족정신 내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2) 단군 관련 구전설화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는 <단군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군과 관련한 수많은 구전설화들이 채록되어 전하고 있다.²⁹⁾ 한 예로 <함정에 빠졌던 단군>이라는 전설³⁰⁾은 단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달족의 족장이 되고 주변의 씨족들을 하나하나 통합하여 그 위세와 명망이 천하를 진동하던 바로 그 무렵에 있는 일에 대한 것으로, 단군이 적군이었던 신지를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만들고 신지의 누이동생인 연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민간구전으로 전해온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단군설화유산은 민간구전으로 보다 풍부하게 전해지고있다.

민간구전으로 전하는 단군설화유산들은 단군의 일대기를 폭넓게 담고있을뿐아니라 단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신앙의식도 보여주고있다. 그가운데는 《아사달(아사봉)과 단군성동》, 《단군의 공부터》, 《무술터-홍산》

29)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학자 이재원은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단군릉 발굴 전에는 단군전설이 극히 적었으나 발굴 이후에는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설화집이나 그림책 형식으로 널리 홍보되었는데 내용의 특징은 단군신화에는 표현되지 않은 주로 단군 생존 때의 이야기가 많았다. 즉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부족장 또는 임금 때의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재원은 북한에서 단군전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단군릉 발굴 결과 단군조선의 시작이 기원전 3000년경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중심이 평양이었다는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확립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만한 수많은 단군전설이 요구되었다고 본다. 전설은 신화보다 실제성을 입증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단군전설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홍보하지 않고 전설의 현장을 실제 확보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단군학회, 2005, 314쪽.)

30) 「함정에 빠졌던 단군」, 『민족문화유산』, 2001년 3호.

등과 같이 단군의 출생과 성장을 내용으로 한 설화유산들이 있다. 이 설화들에서는 단군이 하늘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장차 임금으로 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글공부와 무술을 닦으면서 성장하였다는것을 신화전설적으로 형상하였다.

《구빈리와 왕립고개》, 《마명리》, 《가사녀왕봉》 등은 단군에 의한 고조선건국과정을 보여주는 설화유산들로서 여기에서는 출중한 지략과 용맹, 뛰어난 인품을 지니고있는 단군이 여러 종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데 대하여 전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설화들을 통하여 고조선국가의 형성경위를 어느정도 가늠해볼수 있다.

민간구전으로 전하는 단군설화유산들에는 또한 《장장평에 수도를 옮기다》, 《백날개》, 《단군의 유언》 등과 같이 나라를 세운 단군이 정사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들과 《별학터》, 《백운대》, 《말묘》를 비롯하여 단군의 사후에 일어난 신비한 현상들을 이야기한 설화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국사당》, 《단군사당에 깃든 이야기》, 《개미가 없는 단군릉》 등과 같이 단군제사를 지내고 단군릉을 보존관리하며 지켜온 우리 인민들의 신앙의식과 활동을 내용으로 한 설화유산들이 있다.

단군의 생애와 활동, 사적을 말해주는 설화유산들은 이밖에도 많다.³¹⁾

위의 인용문에는 단군의 출생과 성장을 내용으로 한 설화작품들, 단군의 출중한 지략과 용맹, 인품을 보여주는 설화작품들, 단군이 정사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작품들, 단군의 사후에 단군제사를 지내고 단군릉을 보존해온 인민들의 신앙의식과 활동을 내용으로 한 설화작품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글에서도 단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설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강동에는 첫 건국시조 단군의 출생이라는 비상한 사건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두 마리의 닭이 소리높이 울다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쌍계봉 전설이 있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는 당시로 말하면 천신족 족장이라는 최고의

31)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4호.

문벌출신의 환웅과, 곰을 토tem신으로 하는 부족장의 딸과의 사시에서 태어났으며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튼튼히 자라나고 소년시절부터 칼쓰기, 창쓰기, 활쓰기, 말타기 등 무술훈련에 힘써서 무예에서도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장성하였다.

강동에는 단군이 말타기 무술훈련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큰 산의 초목이 다 없어졌다는 홍산(붉은 산)전설도 있고 구월산에는 단군이 탄 말발굽자리바위가 삼성사아래에 있으며, 또 패엽사 앞산에는 그가 도를 닦았다고 전하는 수십길의 높은 벼랑을 이룬 단군대의 한쪽에 그가 앉은 곳이라는 음쪽 패인 자리도 있다. 묘향산의 단군대에는 그가 건너편 높은 바위기둥을 과녁삼아 활쏘기련습을 하였다는 천주석도 있다.³²⁾

위의 인용문은 강동 지역에서 전해지는 단군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업적과 관련한 전설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태백산(대박산)이 강동지방에 있기 때문에 단군관계설화가 깃든 단군굴, 단군못, 단군동, 단군전동, 아달산, 쌍계봉 등이 강동지방에 있다'³³⁾고 논의하였다. 북한에서 채록된 단군 관련 설화는 대부분이 북한의 지명이나 지역과 관련한 전설이다.

3.3. 북한에서 '단군'에 주목하는 이유

북한에서는 <단군신화> 뿐 아니라 '단군'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북한에서 '단군'은 중요한 연구 대상인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민족의 조상으로 숭배하여왔으며 우리 민족이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문명시대에 들어섰다고

32) 손영중, 단군학회 역, 「단군조선의 성립」, 『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 지식산업사, 2005, 261~262쪽.

33) 손영중, 앞의 글, 261쪽.

자부하여왔다.³⁴⁾

이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첫 임금으로 된 사람이 단군이였다. 그러므로 단군은 우리 민족사의 첫 개국시조였으며 문명시대 우리 민족의 원조상이었다고 할수 있다.³⁵⁾

위의 인용문들은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군이 실존했다는 증거를 단군릉의 발굴 및 개건 사업을 통해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은 원시조 단군이 태어나서 나라의 창업을 이룩하고 죽어 묻힌 민족의 성지이고 고대문화, 고대국가의 발상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오래동안 우리 인민들속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전설적인 인물로만 전해져오던 단군의 유골이 평양에서 발굴됨으로써 단군이 력사에 실지로 생존하였던 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³⁶⁾

위의 인용문은 평양에서 단군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단군의 역사적 생존이 증명되었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 평양이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단군릉 발굴 이후에 모든 동포를 단군의 후손이라 언급하면서 ‘단군의 자손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고 한다.³⁷⁾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분명히 명시하면서 단군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려고 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단군릉 발굴 이전에 단군이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

34) 최인철,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고조선」,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35) 강인숙, 「단군에 대한 이야기(1)」, 『천리마』, 1993년 10호.

36) 최광호,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 평양은 단군이 나라의 창업을 이룩한 민족의 성지」, 『민족문화유산』, 2006년 3호.

37) 이재원,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제6호, 교양교육연구소, 2001, 26쪽.

인 인물로 인식되었던 이유를 일본의 조선식민지정책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다.

일제침략자들이 단군과 조선고대사 말살책동을 저들의 대조선식민지정책의 한 고리로 삼은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말살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배를 손쉽게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의 하나로 된것은 단군이 동방에서 첫 국가를 세운 이래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면서 곳곳이 살아온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력사적 바탕을 둔 우리 인민의 강한 민족자주의식이였다.³⁸⁾

위의 인용문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후에 민족의 자주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단군 말살정책에 의하여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인식해 오던 전통적인 관념이 사라지고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 허황된 존재로 보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단군릉이 발굴됨으로 인해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며 고조선의 건국시조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으로서,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랑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게 되었으며 단군의 후예로서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더한층 높아지게 되었다.³⁹⁾

38) 박시형, 「일제의 단군말살책동」,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84쪽.

39) 박시형, 「일제의 단군말살책동」,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89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군릉의 발굴이 단군의 실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단군릉의 발굴은 단군의 역사적인 위상을 높이고, 또한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단군릉의 개건이 북한에서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발견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군릉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민족의 재보로 훌륭히 꾸리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구상을 꾀피우시기 위하여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무어주시고 륭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온갖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온 나라가 비분에 울고있을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단군릉개건에 참가한 일군들과 학자들, 건설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그해 개천절을 계기로 단군릉개건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83(1994)년 10월 단군릉개건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⁴⁰⁾

위의 인용문을 통해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이 앞장서서 단군릉을 개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있을 때 김정일이 김일성의 뜻을 이어 단군릉을 복구하고 세상에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죽은 김일성과 단군의 형상을 연결 짓고자 한 북한의 정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40) 신재복, 「단군릉과 승령전, 삼성사의 회화복원」, 『조선예술』, 2008년 7호.

41)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학자 이재원은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소식과 1995년 단군릉 개건 준공식 소식을 함께 언급하면서 '사망한 김일성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초월한 신적인 존재, 즉 단군과 같은 반열에서 신화적 존재로 형상화되고 찬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북한체제의 중심이던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후계체제의 정통성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죽은 김일성을 단군과 같이 영생불멸하는 신화적 존재로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들로부터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며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⁴²⁾

위의 인용문에서는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단군과 김일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단군과 김일성의 형상을 일치시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이 고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단군'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가 '수령형상화'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⁴³⁾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북한에서는 <단군신화>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역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해왔다.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단군과 관련된 연구들은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역사적으로 단군과 깊은 관련이

지속적인 충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했다.'고 논의하였다.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단군학회, 280쪽.)

42)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해설 :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조선예술』, 2007년 7호.

43) 전영선은 '수령형상은 노동계급 문화예술에서 가장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어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게 하여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인민을 교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역락, 2002, 149쪽.)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단군과 관련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해 왔는데, 그중 특징적인 것은 북한에서는 구비전승된 단군설화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될 수 있는 남한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4.1. <단군신화>와 역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남한에서의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전공이나 연구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역사학 분야에서는 <단군신화>를 ‘한국사에 있어 최초의 정치적 사회인 고조선의 성립을 전하는 자료’⁴⁴⁾ 또는 ‘한국사의 첫장을 여는 개국과 민족 시조에 대한 역사’⁴⁵⁾로 여기면서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의 역사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⁴⁶⁾ 또한 단군을 실존 인물로 전제하면서 <단군신화>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을 고찰하는 논의,⁴⁷⁾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식하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되

44) 서영대는 <단군신화>가 자료로서 갖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고조선에 관한 우리측 자료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조선에 대한 문헌자료는 대단히 빈약하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중국측 자료이다. (중략) 둘째, 한국사의 시조를 소급해 볼 수 있는 자료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략) 셋째, 신화의 형식을 빌어 고조선의 성립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47~48쪽.)

45) 이필영, 「단군 연구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82쪽.

46) 김성환은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에서 특히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 ‘근대 사학의 수용 이후 단군 연구는 일인들의 부정론과 이에 대응한 신재호·최남선·손진태 등의 선구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는 이를 계승하여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축소·왜곡되었던 고조선사와 단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논자에 따라 고조선사의 연구를 3~4기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데, 단군 연구의 동향 역시 이와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김성환,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 『단군학연구』 제18호, 단군학회, 2008, 140쪽.)

47) ‘단군 일족은 엄연히 천신족이었다. 더구나 단군이 부족연맹으로 통일하던 시대에는 동

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군신화’에서 ‘신화’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라는 논의⁴⁸⁾도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단군신화>를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환웅과 웅녀의 혼인’을 다른 곳에서 이주를 해온 천신족과 토착민 부족이었던 지신족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논의,⁴⁹⁾ <단군신화>의 내용이 천신숭배집단과 곰숭배 부족, 호랑이 숭배 부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논의⁵⁰⁾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단

물토템이 숭배되던 시기였다. 곰과 범이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고자 청했을 때 100 일 동안 동굴에서 빛을 보지 않고 썩과 마늘만을 먹고 있으면 환인될 수 있다는 신화의 기록은 그 시대에 동물 토템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범이 중도에서 동굴생활을 포기하고 곰만이 21일 동안 견디어 웅녀로 변신한 것은 그 시대 환웅의 결혼이 곰부족녀와 범부족녀와의 삼각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환웅이 곰부족녀와 결혼하였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것이다. 환웅은 천신족이었으므로 지상신족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 지상족인 곰부족녀의 동물성을 배제시킨 후 신성성을 고취하기 위해 지모신으로 격상시킨 후, 또한 이부체계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간략히 말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환웅과 웅녀와의 관계는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천장 지구와 같은 영원함을 구현한 것이다.’ (윤경수, 「단군신화의 신화성과 역사인식」, 『단군학연구』 제2호, 단군학회, 2000, 75~76쪽.)

48) 박정학은 “단군신화라는 말은 1920년대에 일본인들이 주장하기 전에는 없었던 말로서, 단군기록 속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기록 전체가 신화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여기는 것을 ‘인식 혼란’이라고 하였다. (박정학, 「단군에 대한 인식 혼란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제17·18집, 강원대사학회, 2002, 72쪽.)

49) ‘환웅은 환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시조이자 수호신이라고 생각한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을 한 것은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뜻한다 하겠고, 그러한 전개는 해모수와 유화의 경우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이주했다는 사실과 이주민의 자부심을 함께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환웅의 건국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핵심 부분을 이루고, 단군이야기는 오히려 부수적인 편이다. 환웅과 웅녀가 혼인해서 낳은 단군은 순탄하게 왕위에 올랐으며, 나중에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데까지의 일대기가 나타나 있으며, 극적인 사건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1994, 77~78쪽.

50) ‘<단군신화>의 단군의 출생과 즉위에 관한 부분은 북몽골에서 도래한 천신숭배집단이 백두산 주변으로 이동하여 선주하고 있던 곰숭배 부족과 호랑이 숭배 부족을 복속시키고자 하였는데 호랑이 숭배 부족인 예족은 복속되지 않았고 곰숭배 부족만 복속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천신숭배집단과 선주했던 곰토템집단이 통합되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단군이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다는 역

군'보다는 '환웅'을 <단군신화>의 주역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⁵¹⁾ 이러한 관점은 단군을 중심으로 <단군신화>를 해석하는 북한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4.2. 구전된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한 연구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처럼 단군과 관련한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구전된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 학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다.

특히 <단군신화>의 경우 실존을 강조하기 위해 5011년경 전으로 추정되는 단군의 뼈가 묻혀있는 무덤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한 단군전설의 제시는 매우 절실했을 것이다.⁵²⁾

사적 사실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50쪽.)
51) 조동일은 <단군신화>에서 환웅의 건국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핵심 부분을 이루고, 단군이야기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1994, 77~78쪽.)

서대석도 '단군'을 부수적 인물로 보았다. '실제 단군신화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존재는 환웅이다. 환웅은 신시를 개창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꿈을 여인으로 변신시키고 용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게 하는 신성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환웅신화'라고 하지 않고 '단군신화'라고 하며 국조로 단군을 받들고 환웅을 받들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환웅의 신시 집단과 단군의 아사달집단이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신시의 2대 왕으로서 환웅의 왕위를 계승한 존재가 단군이 아니고 신시와 용녀집단이 통합하여 새로운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조선의 시조로서 즉위한 존재가 단군이라는 것이다.'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3쪽.)

그는 위의 인용문에서 <단군신화>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존재가 환웅임에도 불구하고 '환웅신화'가 아닌 '단군신화'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환웅은 신시의 1대 왕이었는데 단군은 신시의 2대 왕이 아니라 신시와 용녀집단이 통합하여 새로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조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단군신화>에는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조로 모셔지는 것은 단군이라고 하였다.

위의 글에서는 북한에서 수많은 단군 관련 설화가 발견되는 이유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단군릉 발굴 이후에 단군의 실존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많은 '단군전설'이 새로 생겨났다고 논의한 것이다.

다음의 논의에서도 북한에서 채록된 단군 관련 설화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단군 관련 설화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단군 연구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우선 김정설의 『단군설화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43편의 단군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중략) 다음으로 2004년에 나온 조희승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사회과학출판사)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단군조선사를 개관한 것인데, 여기서는 단군조선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단군 관련 설화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북한에서 정리한 자료들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단군 관련 설화의 편수가 많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단군과 관련 깊은 평양과 구월산 지역의 설화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에 나온 김정설의 『평양전설』(사회과학출판사, 1990)과 1994년에 나온 석선영의 『구월산전설』(문학예술종합출판사)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는 단군 관련 설화가 한 편도 없다. 더구나 『평양전설』의 저자 김정설은 『단군설화집』의 저자이기도 한데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단군설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 발견되어 채록된 셈이 된다.⁵³⁾

위의 글에 따르면 북한에서 1990년과 1994년에 발간된 설화집에는 단군과 관련한 이야기가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1998년에 발간된 설화집에서는 43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민족의식 강화를 통해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정권의 정통성을

52)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단군학회, 2005, 288쪽.

53) 서영대,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 단군학회, 2009, 157~158쪽.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짧은 기간에 단군설화를 많이 만들어 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단군설화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단군설화의 뼈대가 되는 구전설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의 단군설화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화석화된 단군의 실체를 보다 생동감 있게 인식하려 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⁵⁴⁾ 북한의 단군설화가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료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단군 관련 설화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에서는 손진태의 『조선민담집』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 등을 비롯한 몇몇 설화집에 채록되어 있는 단군 관련 설화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채록된 편수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을 1)단군의 출생 2)단군의 부인 3)단군이 한 일들 4)단군의 무덤 5)단군의 사후 6)단군의 자손 등으로 나누었다.⁵⁵⁾

이 글에 소개된 남한의 설화집에 실려 있는 단군 관련 설화 중에는 남한에 속해있는 지역과 관련된 것이 많다. 강화도에 위치한 참성단과 삼랑성을 단군이 만들었음을 전하는 이야기,⁵⁶⁾ 단군이 묻힌 곳이 경기도 가평군이라는 이야기,⁵⁷⁾ 전남 보성에 단군의 일곱째 아들이 도술을 부리고 문학생들을 가르치던 거북바위가 있다는 이야기⁵⁸⁾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채록된 상당수의 단군 관련 설화가 북한에 속해있는 지역과 관련된다는 것과

54)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단군학회, 2005, 297쪽.

55) 서영대,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 제21호, 단군학회, 2009, 135~169쪽.

56) 서영대, 앞의 글, 145쪽.

57) 서영대, 앞의 글, 148쪽.

58) 서영대, 앞의 글, 151쪽.

비교된다.

4.3. <단군신화>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한 연구

남한에서는 북한과는 다르게 전문 작가들에 의해 <단군신화>가 현대적으로 재창작된 경우가 있다. 「여성작가가 재창조한 <단군신화> 연구」에서는 김성희의 희곡 <옹녀>(1977),⁵⁹⁾ 김승희의 소설 <호랑이 젓꼭지>(1994),⁶⁰⁾ 양귀자의 소설 <곰 이야기>(1995)⁶¹⁾를 분석하였다. 전문 작가는 아니지 옹

59) '김성희의 희곡작품 <옹녀>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결혼한 남편 '환일'과 사랑하는 남자 '단상'을 등장시켜 여성의 현실과 이상을 대별하여 구현한다. '곰 여인' 역의 기혼 여성 '옹녀'는 여성의 현실계약제도로 복귀한다. '호랑이 여인' 역의 미혼 여성인 '거리의 여자'는 자유로운 이상의 삶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결혼하여 현실세계를 떠나 정신병원을 체험하고, 다시 새로운 현실로 돌아오는 여정은 옹녀의 자아발견의 상황을 통해 보여준다. 현실과 분리 후 병원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어 낸다. 즉, 통과제의 시련의 여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각성하는 옹녀로 보여준다. ...결혼한 여성인 '곰 여인' 역의 계약적인 삶에 대한 존재 각성과 '호랑이 여인' 역의 미혼 여성의 자유로운 사랑의 삶을 잘 대비해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임금복, 앞의 글, 301쪽.)

60) '<호랑이 젓꼭지>에서는 여성성의 여성을 아주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다. <호랑이 젓꼭지>는 여성의 잠재된 무의식의 에너지를 통해 여성적인 자매애를 보여주고 있다. 그 여정에 어머니의 삶인 '곰 은유적 시대의 삶'의 인고와 인내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연민을 갖는 것을 먼저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삶과 다른 딸들의 호랑이적 은유의 삶의 시대를 자매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작가 김승희는 자신의 소설에서 딸들의 삶을 통해 동굴에서 시련을 겪던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동굴을 뛰어나간 호랑이를 되살려 여성적인 에너지의 원천으로 재현시키고 있다.'(임금복, 앞의 글, 301~302쪽.)

61) '양귀자의 <곰 이야기>는 제도적인 역의 곰의 후예인 전처와 제도 속에서도 자유로운 호랑이 역의 후처의 두 모습을 유약한 남자의 시선으로 보여준 소설이다. 여성적인 면에서 보면 이 소설은 곰 역의 전처는 무책임한 가장인 남성 대신 가정과 자녀를 힘겹게 지켜왔던 삶에서 남성과 시련의 고통 후 당당하게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다. 후처인 재벌 2세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어진 풍족한 환경의 운명으로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움과 담담함의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우연에 의한 소산이라는 점이다. 전처와 남자의 관계가 '슈퍼우먼'인 곰 역과 무능한 '환웅'역의 삶이었다면, 후처와 남자의 관계는 '평강공주 역'과 유약한 '환웅 온달 역'의 삶이라 볼 수 있다.'(임금복, 앞의 글, 302쪽.)

녀의 입장에서 〈옹녀이야기〉를 재창작한 뒤에, 직접 만든 이야기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한 논의⁶²⁾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단군신화〉가 현재의 독자들에게 어떠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만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의 효용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인물관계에 주목하여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질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논의⁶³⁾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되는 〈단군신화〉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민족의 긍지를 높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단군신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군신화〉는 민족의 정통성, 자부심 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민족의 긍지

62) 전영숙, 「〈단군 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25~144쪽.

63) 정운채는 ‘범-곰(옹녀)-환웅’의 관계 속에서 범이 충분히 질투를 느낄만한데도, 〈단군신화〉에는 범의 질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질투에 대한 〈단군신화〉의 독특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단군신화〉는 범의 질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이 곰과 환웅의 관계에 대해서 질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범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환웅의 말대로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내심 내지 능력의 문제일 뿐 질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둘째, 〈단군신화〉는 곰과 범의 관계가 청산되고 곰과 환웅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곰이 여자가 되고 여자가 다시 어머니가 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범과의 관계보다 환웅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고 승화된 것이라면 곰이 범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환웅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다. … 셋째, 〈단군신화〉는 곰과 범의 관계나 곰과 환웅의 관계를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곰과 범의 관계 속에 환웅이 들어오거나 곰과 환웅의 관계 속에 범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 곰과 범의 관계가 애초에 매우 돈독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어나는 소망을 따라서 둘이 함께 노력하고 향상되지 않으면 둘은 각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임에 틀림없다.’(정운채, 「질투에 대한 고전문학의 특별한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33~235쪽.)

또는 자부심을 높이고자 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실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단군신화>의 의미를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갖는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단군신화>의 의미를 연구해 나간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의 효용성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노래한 민족고전시가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3호.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해설 :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조선예술』, 2007년 7호.
 「함정에 빠졌던 단군」, 『민족문화유산』, 2001년 3호.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991년 10호.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1)」, 『력사과학』, 1988년 3호.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2)」, 『력사과학』, 1988년 4호.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3)」, 『력사과학』, 1990년 1호.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력사과학』, 1987년 4호.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력사과학』, 1987년 3호.
 강인숙, 「단군에 대한 이야기(1)」, 『천리마』, 1993년 10호.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리해연, 「〈인물소개〉 대종교의 창시자 라철과 단군찬양시가문학」,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리해연, 「〈인물소개〉 애국적인 문인 김준과 단군관계시문학」, 『민족문화유산』,

2005년 3호.

- 박시형, 「일제의 단군말살책동」,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신재복, 「단군릉과 송령전, 삼성사의 회화복원」, 『조선예술』, 2008년 7호.
-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4년 4호.
- 장광혁, 「중세 단군관계사가문학에서 단군의 역사적공적에 대한 찬양」, 『조선어문』, 2005년 2호.
- 정영진, 「《단군신화》를 두고」, 『천리마』, 1985년 11호.
-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단군릉발굴보고」,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 최광호,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 평양은 단군이 나라의 창업을 이룩한 민족의
성지」, 『민족문화유산』, 2006년 3호.
- 최인철,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고조선」, 『민족문
화유산』, 2005년 4호.

5.2. 남한 자료

- 강명혜, 「〈단군신화(檀君神話)〉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2007.
- 김성환,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 『단군학연구』 제18호, 단군학회, 2008.
- 김진석, 「〈단군신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체계」, 『한어문교육』 10, 한국언어문학교
육학회, 2002.
- 단군학회 엮음, 『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 지식산업사, 2005.
- 목영해, 「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교육원형」, 『교육사상연구』 제14호, 한국
교육사상연구회, 2005.
- 박범석, 「단군신화 상징의 종교학적 해석」, 『선도문화』 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 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 박정학, 「단군에 대한 인식 혼란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제17·18집, 강원대사학회, 2002.
- 방석중, 「단군설화의 역사 비평적 해석」, 『고조선단군학』 제13집, 단군학회, 2005.
- 백미나, 「「단군신화(檀君神話)」에 나타난 역사 기술의 구현 양상 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24, 한민족문화학회, 2008.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서영대, 「단군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신인문학연구』 2,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 신은희, 「단군신화와 서양신화의 비교연구」, 『고조선단군학』 제4집, 단군학회, 2001.
-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안상문, 「단군신화에 나타난 보편적 세계정신」, 『한어문교육』 12, 한국언어문학 교육학회, 2004.
- 오윤선, 「〈단군신화(檀君神話)〉 영역자(英譯者)의 시각(視角) 일고찰」, 『국제어문』 48, 국제어문학회, 2010.
- 윤경수, 「단군신화와 한국문학과의 관계 양상-고소설과 현대문학의 수용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제3집, 단군학회, 2000.
- 윤경수, 「단군신화의 신화성과 역사인식」, 『단군학연구』 제2호, 단군학회, 2000.
- 윤이흠 외,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이재원, 「남한과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단군학연구』 제9호, 단군학회, 2003.
- 이재원,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제6호, 교양교육연구소, 2001.
-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단군학회, 2005.
- 이찬구, 「단군신화의 재해석」, 『고조선단군학』 제17집, 단군학회, 2007.
- 이철우, 「단군신화에서의 구조 및 특성 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8, 한민족문화

- 학회, 2009.
- 임금복, 「여성작가가 재창조한 ‘단군신화’ 연구」, 『유관순연구』 5,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 임재해,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제19집, 단군학회, 2008.
- 임재해,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고조선단군학』, 제16집, 단군학회, 2007.
- 임태홍, 「단군신화에 나타난 유교적 성격」, 『유교사상연구』 30, 한국유교학회, 2007.
-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역락, 2002.
- 전영숙, 「〈단군 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 정운채, 「질투에 대한 고전문학의 특별한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나지영>

주몽전설

1. 서지 사항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탄생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남한에서는 역사시대에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인물에 관한 이야기¹⁾라 하여 건국신화로 간주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건국설화이면서도 고대의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기에, 고구려의 건국설화를 포함한 중세의 건국설화들을 건국전설이라 부른다.²⁾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몽신화>의 기록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이다. 이 이후의 문헌 기록은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명왕편>의 주석 부분, 『제왕운기(帝王韻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

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4쪽 참고.

2) 중세의 봉건국가들의 형성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국설화에는 신화적요소가 적지 않게 내포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건국설화에서의 신화적요소는 형상창조의 한갓외피에 지나지 않으며 작품의 전반에서 지배적인 특징으로는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중세 건국설화는 <단군신화>, <해모수신화>이서와 같이 건국신화라고 하지 않고 건국전설이라고 하며 같은 건국설화이면서도 고대의것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0쪽.)

錄地理志』 등이다. 이 밖에 『위서(魏書)』, 『수서(隋書)』, 『북사(北史)』, 『통전(通典)』 등 중국의 고전에도 주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남한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가장 온전한 형태라 하여 <동명왕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북한에서는 <동명왕편>에 첨부되어 있는 <동명왕본기>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고구려 건국설화의 가장 정제된 형태로 인정한다.

2. 작품 개요

<주몽신화>는 고귀한 혈통의 주몽이 한 나라의 시조가 되는 영웅의 일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이야기는 문헌에 따라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 과정, 주몽의 성장과 위업 성취 과정, 유리의 성장과 아버 찾기 과정이 첨삭되어 제시되어 있다. 뒤에 제시한 <주몽신화>의 줄거리는 이 세 부분을 함께 담고 있으며, <동명왕편>을 주로 참고하였다.

한나라 신작 삼년 임술해 천제가 태자(해모수)를 부여왕의 옛 도읍에 보내서, 해모수가 낮에는 인간 세상에 살고 밤에는 하늘로 돌아갔다. 하루는 하백의 딸, 유화, 흰화, 위화가 압록강에 나와 노는데, 해모수가 이들을 보고 비를 삼아 후사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해모수를 발견한 하백의 딸들은 도망갔다. 해모수는 하백의 딸들을 유인하기 위해 도술로 구리집을 만들고 순한 술을 준비했다. 세 여인은 그 술을 먹고 취했다. 해모수는 세 여자가 크게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나가 막으니 여자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장녀인 유화만이 해모수에게 붙들렸다. 이를 알게 된 하백이 해모수에게 진실로 상제의 아들이라면 신이한 능력을 보여 달라고 청했고, 해모수가

이에 응하여 수달, 매, 승냥이로 변해 그것을 증명하였다. 하백은 해모수를 알아보고 기뻐하며 술을 대접했다. 사실 하백은 해모수가 딸을 버릴까 두려워서, 딸과 더불어 천상에 보내려고 가죽수레에 두 사람을 가두었다. 칠 일이 지나 술에서 깬 해모수는 딸의 황금비녀로 가죽을 찢고 하늘로 가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백은 딸을 책망하여 입술을 당겨 삼 척을 늘려 놓고는 우발수에 버렸다.

그렇게 버려진 딸(유화)은 금와왕에 의해 구출되었고, 금와왕은 그녀가 해모수의 왕비임을 알고 별궁에 머물게 하였다. 계해년 유화는 해를 품어서 알을 낳았다. 금와왕이 그 알을 마구간에 버리면 말무리들이 보호하고, 산 속에 버리면 온갖 짐승들이 옹위하였다. 유화가 거두어 기르니 한 달이 지나 말을 하는데, 파리가 눈을 물어서(嚙)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유화는 아이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가 쏜 화살은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몽이라 불렀다.

날이 갈수록 주몽의 비범함이 돋보이자, 금와왕의 태자(대소)가 투기하는 마음이 생겨 주몽을 모함하였다. 이에 금와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하늘의 손자로 말을 키우는 일이 부끄럽게 여겨져 어머니에게 출가의 뜻을 밝혔다. 유화는 먼 길을 떠나려면 준마가 필요하다며, 주몽에게 준마를 가려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준마를 알아본 주몽은 그 말의 혀를 바늘로 찢어 잘 먹지 못하게 하였고, 말은 야위어갔다. 이에 금와왕은 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부 등 세 벗과 함께 성에서 나와 엄수에 이르렀다. 뒤에서는 대소의 무리가 뒤따르는데, 강을 건널 배가 없었다. 이에 주몽은 자신이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라 밝히며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달라 소리쳤다. 그러자 물에 고기와 자라가 모여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몽의 무리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뒤를 쫓던 무리가 건너려 하니 다리는 곧 사라졌다. 주몽과 그를 따르는 벗은 졸본부여에 도착하

였고, 주몽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한편 주몽의 부인 예씨는 주몽이 부여를 떠난 뒤 아들 유리를 낳았다. 하루는 유리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니 예씨는 졸본에 나라를 세운 주몽이라는 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들에게 숨겨둔 유물을 찾아오라고 했던 주몽의 말을 전하였다. 유리는 주몽이 남긴 칼 반 토막을 찾아내어, 옥지·구추·도조 등 세 사람과 더불어 졸본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자 동명왕은 유리를 태자로 삼았고, 유리는 고구려의 2대 왕이 되었다.

3. 북한의 연구

〈주몽전설〉에 대한 연구의 방대한 양은 북한의 강국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몽전설〉에 대한 북한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④ 정흥교, 『조선문학사』1·2, 사회과학출판사, 1991.
- ⑤ 채희국, 「동명왕전설」, 『천리마』, 1981년 11호
- ⑥ 김호성, 「고구려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 ⑦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년 4호.
- ⑧ 김덕성, 「고구려의 건국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 ⑨ 정흥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 ⑩ 김진호, 「고구려건국설화 - 〈주몽전설〉」, 『천리마』, 2005년 8호.
- ⑪ 리성, 「서사시 〈동명왕편〉」, 『민족문화유산』, 2007년 3호.

이상의 북한 연구는 장르 구분에 대한 논의, 역사학적 관점의 논의, 텍스트 고층에 대한 논의, 인물 형상화에 대한 논의, 문학적 기법과 주제사상적 의미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3.1. 신화인가, 전설인가.

북한에서는 시조왕을 중심으로 한 건국 경위가 드러난 작품들을 건국설화로 통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출현 시기와 내용 상의 특징에 따라 ‘신화’와 ‘전설’로 구분한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건국설화를 ‘전설’로 간주하여 왔는데, 먼저 건국신화와 건국전설에 대한 북한 연구의 관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예이론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건국설화의 특징을 규정해왔다.

맹수들과 자연 재해의 부단한 위협을 받고 있었고, 수렵이나 경작을 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들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인간들이 해방될 것을 열렬히 공상하였으며, 자연의 개조, 보다 풍만한 생활을 항상 꿈꾸었다. 이러한 공상들과 염원들은 그들이 창조한 신화들과 고대 설화들에 예술적 형상으로써 반영되었다.

‘건국설화’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풍부한 고대 설화들에는 이러한 흔적들과 특성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오룡차(五龍車)를 타고 하늘과 바다 속과 지상을 마음대로 왕래하는 해모수나, 순식간에 사람이 새로도 물고기로도 그리고 짐승으로도 변할 수 있는 화신술의 재주를 소유한 해모수, 하백, 탈해, 수로의 형상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³⁾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16쪽.

건국설화에 자연의 위협과 빈곤으로부터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선조들의 바람이 반영되었으며, 그 흔적은 신화적 인물들의 기이한 행적과 신이함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국설화를 설명한다. 문예이론 확립 이후의 논의에서는 건국설화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설화는 대체로 시조왕을 주인공으로 하고 그의 출생담과 성장과정, 건국의 역사적과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점에서 다른 설화들과 구별된다.

건국설화의 특징은 또한 선행한 시대로부터 전해지는 신화적유산들에 의거하여 주인공의 가계를 신비화하고 그 성격을 신화적형상으로 과장하고 있는것이다.⁴⁾

건국설화의 기본 내용이 시조를 중심으로 한 건국 경위를 담고 있다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주인공의 신격화를 건국설화의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포함되는 건국설화들은 출현시기와 그 특징에 따라서 ‘신화’와 ‘전설’로 세분화된다. 건국설화들 중 〈단군신화〉와 〈해모수신화〉는 고대의 것으로 신화로 인정하고, 그 이후의 중세 건국설화들은 전설로 간주하는 것이다. 고구려 건국설화 역시 전설로 보고 있다. 『조선문학통사(고대·중세편)』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러한 장르 구분 관점이 적용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다음의 제시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설화는 그 사상적 내용과 형상적 특성으로 보아 오래 전에 창작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내려오다가 고구려 건국 이후 시기 봉건사회 현실을 생활적 바탕으로 하여 개작이 되고 더욱 윤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설화에서는 원시 및 고대 설화의 신화적 성격이 현저하게 적어지

4)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0쪽.

고 현실적인 인간 성격과 인간관계가 보다 전면에 나서고 있다. 물론 주몽이 알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다른 건국 설화들과 함께 이 설화 역시 난생 신화적 요소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⁵⁾

〈주몽전설〉이 지닌 특징을 고대의 신화들과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 건국설화를 전설로 규정하는 이유를 현실적인 인간 성격과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두고 있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난 신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설화의 주인공 주몽을 천체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증 용왕인 하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한 것은 고구려 봉건 왕조를 신성화하려는 통치배들의 조직과 관련된다.⁶⁾

〈주몽전설〉의 신화적인 특성이 고구려 봉건 왕조의 신성화를 위한 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주몽전설〉은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는 전설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며 신화적인 특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며 ‘전설’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 『조선문학사1』에서도 이러한 장르 구분의 관점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

옛날 문헌에 고착되어 지금까지 전하는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화 유산으로는 「고조선 신화」와 「해모수 신화」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전개된 형식으로 옛날 책에 고착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상 신화로 볼 수 있는 설화들, 또는 전설적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속에 신화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설화들까지 든다면 더 많은 신화 유산들을 들 수 있다.

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50쪽.

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50쪽.

「주몽전설」, 「박혁거세설화」, 「가락국 전설」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⁷⁾

〈주몽전설〉을 포함한 중세건국설화들은 신화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신화적 유산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현 시기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뚜렷하게 전설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제시한 신화의 특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는 원시인들의 이러한 원시적인 사고와 환상에 기초하여 발생 발전한 원시 설화인 것이다. 신화의 이러한 현실 반영의 특성이 바로 신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신화적인 형상의 특성을 규정한다. 신화의 내용과 변화 발전에서 계급 사회의 출현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략〉

노예주의 착취와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역사 무대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정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신화 창조와 사회 역사적 바탕이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창조 의식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예 소유자 사회에 들어서고 지배 계급의 통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면서부터 신화에는 이리저리하게 지배 계급의 통치 사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배 계급은 다른 문학 예술의 형태들과 함께 신화도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복종시키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신화가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 것도 이상과 같은 계급 관계로부터 온 것이다.⁸⁾

신화에는 원시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위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화에는 지배 계급의 통치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계급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신화와 구별되는 전설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7)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천지, 1995), 27쪽.

8)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6쪽.

세 나라 시기에 이르러 상당히 발전한 전설은 신화 다음에 발생한 설화의 한 형식이다. 전설은 계급 사회의 출현을 전후하여 발생한 설화로써 특히 봉건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많이 창조되었다. 전설은 신화와 달리 현실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민들이 관심사로 여기는 사실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전설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지방적인 사실·자연·물체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부터 온다.⁹⁾

전설을 신화 다음에 발생한 설화 장르로 정의하면서 신화와 달리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몽전설〉을 ‘역사 설화’로 칭하면서 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 설화란 역사 발전에서 의의를 가지는 사건과 그와 관련되는 인물들을 소재로 한 설화 작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전설들이 많이 속한다. 이 시기 인민들은 당대의 사회 현실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하였으며, 자기들의 생활 체험과 지향에 기초하여 그것들에 대하여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였다. 이 시기 봉건 문인들이 쓴 전기 문학이 개별적 인물들 특히 봉건 위정자들을 내세우고 찬양하는 데 관심을 돌렸다면, 역사 설화는 그 창조자들인 인민들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인물들을 형식 속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세나라 시기의 역사 설화로서는 「주몽전설」·「온달이야기」·「을지문덕이야기」·「수양제의 말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세나라 시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설화는 「주몽전설」이다.¹⁰⁾

역사 발전에서 의의를 가지는 사건과 인물을 다룬 설화 작품을 ‘역사 설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전설들이 이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 논의에서는 〈주몽전설〉을 신화적 성격이

9)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54쪽.

10)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55쪽.

강한 전설이자,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 설화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발표된 논의에서는 신화적 특성과 전설적인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주몽전설>에 대해 논한다. 『조선문학사』1(1991)에서는 고대의 건국설화들의 특징을 들어 신화적 특성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출현 또는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국왕의 가계를 신화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으며 …… 이처럼 신비스러운 출생담을 가진 주인공들의 성격을 보면 그 모두가 하늘, 땅, 물속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천지조화를 마름대로 불러일으키고 아무리 강한 적수도 손쉽게 물리치며 마침내 뜻을 실현한다는 초인간적인 재능과 힘을 가진 비상한 존재로 형상되고 있다.¹¹⁾

고대 건국설화의 등장인물들이 초인간적인 재능과 힘을 가진 비상한 존재라고 밝히며, 이러한 신화적 형상을 신화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 즉 신적인 인물들의 이적(異蹟)을 신화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세의 건국설화들에서는 이러한 신화적 특성이 그 중심에 있지 않다면 그 점이 고대의 건국신화들과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로부터 중세의 봉건국가들의 형성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국설화에는 신화적요소가 적지 않게 내포되고있다. 그러나 중세건국설화에서의 신화적 요소는 형상창조의 한갓 외피에 지나지 않으며 작품의 전반에서 지배적인 특징으로 되지 못한다. 이점에서 중세건국설화는 <단국신화>, <해모수신화>이서와 같이 건국신화라고 하지 않고 건국전설이라고 하며 같은 건국설화이면서도 고대의 것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11)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46쪽.

〈중략〉

이러한 전설적이야기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국설화가 아니지만 설화적주인공이 시조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있는 봉건군주며 시조왕이 세운 나라를 합법화하고 공고화하는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건국설화의 부류에 보충적으로 포함시킬수도 있을 것이다.¹²⁾

중세건국설화는 신화적인 요소가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이 될 수 없어 건국신화라고 칭할 수 없지만, 시조왕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건국설화에 보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의 건국설화와 중세의 건국설화가 “봉건국가의 형성과정을 반영한 역사주제에 해당하는 설화”¹³⁾라는 공통점을 지녔음에도 다른 장르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세건국설화가 지니고 있는 전설적인 특성에 대해 ‘구체성’과 ‘실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전설은 말 그대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라는 뜻이며 민담은 민간에서 꾸며지고 민간생활을 반영한 이야기를 말한다. 전설은 환상적수법에 의거하면 서도 구체성과 실제성을 띠고 이야기가 전개되는것이 특징적이다.¹⁴⁾

전설적인 특성을 ‘구체성’과 ‘실체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성과 실체성은 현실적인 인물 설정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건 전개에서 기인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주몽전설〉은 ‘전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어 다음과 같이 〈주몽전설〉에 드러나는 전설적인 특징을 포착해내고 있다.

설화발전의 역사적과정으로 보더라도 〈주몽전설〉은 탄생설화적 요소를

12)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0쪽.

13)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0쪽.

14)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46쪽.

가지고있으나 신화적성격이 현저히 적어지고 력사에 실재한 사실들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인간성격과 인간관계가 이야기줄거리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점에서 선행한 시대의 건국설화들과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전설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¹⁵⁾

이 논의에서도 신화적인 특성인 비현실적인 요소는 전설로 간주되는 <주몽전설>에서도 발견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나타나 있고 대신 현실적인 인물 성격과 인간관계가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몽전설>이 해모수와 유화, 주몽, 유리에 걸쳐 삼대에 이르는 다양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설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고주몽이 “주변의 봉건소국인 비류국의 송양왕을 지략으로 굴복시키고 행인국과 북옥저를 통합하여 국력을 강화한 이야기”¹⁶⁾나 주몽의 아들, 유리의 “비범한 성격이나 남다른 재능에 대한 이야기”¹⁷⁾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설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다양한 인간성격들을 통하여 고구려국가의 형성초기 여러 종족들의 호상관계와 건국위업의 실현과 국력의 강화발전과정만이 아니라 고구려사람들의 슬기롭고 씩씩한 기상과 락천적이며 진취적인 생활감정을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¹⁸⁾

즉 작품에서의 현실적인 인간관계 설정이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며 전설적인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연구에서는 건국설화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그 특성에 따라

15)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쪽.

16)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쪽.

17)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쪽.

18)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쪽.

‘신화’와 ‘전설’로 세분화하여 장르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내용의 구체성과 실체성을 신화와 구별되는 전설적인 특성으로 보고, 고구려 건국설화를 ‘전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3.2. 역사적 ‘사실’인가, 문학적 ‘허구’인가.

고전에 기록된 신화와 전설은 우리 민족의 과거에 대한 역사학 연구의 사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도 역시 <주몽전설>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몽전설>은 고구려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위대한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주몽전설>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 작품 내용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기도 한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주장과 더불어 그 비현실적인 요소로 인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뒤따르고 있다.

먼저 <주몽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논의 가운데 먼저 『조선문학사』1(1982)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몽전설」은 고구려의 첫 왕인 고주몽(동명왕)에 대한 전설로서 고구려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전설은 실제 있었던 인물을 기초로 한 건국 설화이다.¹⁹⁾

이 작품에는 고구려 건국 경위가 반영되어 있으며, 등장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희국(1981)도 그의 논의에서 역시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19)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55쪽.

여기서 우리는 고주몽이 전설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구세력과 투쟁하여 승리를 쟁취한 실제적 인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가 건국하던 시기는 국내적으로는 낡은 세력과 새 세력간의 투쟁
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였다. 낡은 노예제사회를 유지하려고 발악
하는 부여통치배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억제하였는데 고주몽에 대
한 부여통치배들의 박해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중략〉

이 이야기에서 고주몽이 부여통치배들속에서 빠져나와 다른곳으로 와서
고구려라는 새 나라를 세운 경위를 엿볼수 있다. 여기서 주몽이 부여를 떠
날 때 세사람의 동무가 있었고 길도중에 또 세사람을 만났다는것은 당시
주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전설에서 졸본땅(오늘의 환인지방)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오
늘 환인지방에는 오녀산성이라는 고구려의 성터가 남아있고 그 주변에 고
구려 무덤들이 많은것을 미루어보아 이 전설이 결코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²⁰⁾

〈주몽전설〉은 주인공 주몽이 실존했던 인물이며, 고주몽에 대한 박해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몽이 부여를 떠
날 때 세 동무들과 떠났다는 내용이나 졸본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결말 역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김호성(1992)도 역시 〈주몽전설〉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주몽전설은 이런 문화적형상을 통하여 고구려의 역사, 나아가서는 우리
인민의 발전역사에 대하여 비교적 생동하게 알수 있게 한다.

주몽전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적근지, 풍부한 문화적유산에 가진 선조들의 후손
이라는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느끼게 된다.

20) 채희국, 〈동명왕전설〉, 『천리마』, 1981년 11호.

주몽전설에서 주몽이 부여에서 나서 자랐으며 그의 이름 역시 부여사람들의 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비록 오랜 력사과정에 여러 나라로 존재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단일한 민족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주몽전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또한 동방강국으로 그 이름 떨치던 고구려의 건국과정과 문물제도에 대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²¹⁾

고구려의 역사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 민족인 단일한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구려의 문물제도 또한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주몽전설>에 근거하여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시조는 동명왕(추모, 주몽)이었다.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기록들에는 동명왕의 출생과 그가 나라를 세운 건국경위를 전하는 전설들이 실려있다. 이 동명왕전설(고구려건국전설)과 그밖의 자료들을 통하여 고구려의 건국과정을 잘 알수 있다.²²⁾

<주몽전설>을 통해 동명왕의 출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잘 알 수 있다고 밝히는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주몽전설>을 문학작품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 유용한 사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몽전설>이 포괄하고 있는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 과정이 담긴 <해모수신화>에 대해 주목하면서,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추측하는 주장도 있다. 정홍교는 『조선문학사』1(1992)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1) 김호성, <고구려 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22) 김덕성, <고구려의 건국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주몽전설》이 이처럼 부여의 《해모수신화》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것이 주인공의 성격을 신비화하는 생활적전제로, 바탕으로 되고있는 사실은 고구려의 건국전설이 대체로 선행한 신화적유산가운데서도 옛부여국의 건국과정을 보여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꾸며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고구려건국전설이 옛부여국의 설화유산을 문학적원천으로 삼게 된것은 고구려국가를 세운 시조왕인 주몽이 동북의 나라 부여땅에서 온 사람이였다는 역사적사실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대해서는 갓 세워진 고구려국가를 졸본부여라고 불렀다는 옛문헌자료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해모수신화》가 고구려 건국설화의 앞머리에 첨부된것은 시조왕을 천제의 손자, 바다룡왕의 외손으로 그 성격을 신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옛부여국과 고구려의 관계, 주몽의 출생과 성장과정, 주몽이 고구려에 오게된 경위와 국가의 건립과정으로 보나 전혀 사리에 맞지 않게 꾸며진 황당한 이야기였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²³⁾

《주몽전설》에 삽입된 〈해모수신화〉가 신화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실제 역사적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전설이 옛부여국의 설화를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땅 출신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작품의 내용을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점을 드러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문학사』2(1992)에서도 역시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첨부된 〈동명왕본기〉 역시 사료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창작의도로부터 시인은 작품의 제목도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동명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동명왕편》이라고 하였고 자신을 그쳐

23)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3~104쪽.

림 격동시킨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내용도 시의 구절들에 사료적 근거가 될수 있게 그대로 첨부하여놓았다.²⁴⁾

이러한 관점은 2000년 대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

또한 작품의 소재로 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주석으로 달아 그대로 인용한것으로 하여 사료적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진다.²⁵⁾

2007년 발표된 리성의 논의에서는 〈동명왕편〉에 첨부된 〈동명왕본기〉가 원형 그대로 실려 있다고 인정하며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연구에서는 고구려 건국설화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며 역사학적 연구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몇몇의 연구자들은 〈주몽전설〉이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허구와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 김호성(1992)의 논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설은 력사이야기지만 결코 력사적사실들을 사적그대로만 전하지 않고 풍부한 예술적허구, 예술적환상에 기초하여 꾸며지였다.

주몽이 나서 한달도 못되어 말을 하였다든가, 활로 과리를 쏘아잡았다든가, 나무에 묶이였을 때 그것을 뿌리채 뽑아지고 왔다든가, 추격당할 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았다는것 등은 전설이 력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예술적환상에 의하여 꾸며져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²⁶⁾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적 환상에 의해 재구되었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24) 정홍교, 『조선문학사』2, 사회과학출판사, 1991, 244쪽.

25) 리성, 〈서사시 《동명왕편》〉, 『민족문화유산』, 2007년 3호

26) 김호성, 〈고구려 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견해와 유사하지만, 어디까지나 환상이고 허구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도 역시 2000년대에 까지 지속된다.

비록 주몽전설이 형상에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나 동방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건국 역사를 설화형식으로 깊이 있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다.²⁷⁾

2003년에 발표된 허태선의 논의에서는 <주몽전설>에는 역사적 사실이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으나, 작품의 내용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설화적 형식으로 변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몽전설>의 허구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제시한 작품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태도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몽전설>이 지닌 허구성에 대해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 평하면서 현실과 조응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다음의 논의에서 시작된다.

주몽전설은 이렇듯 풍부한 문학적형식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지만 역사적인 제한성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이른바 <탄생설> 같은것이다. 이 <탄생설> 즉 사람이 알에서 까나왔다고 하는 신화적수법은 고구려건국시기 발전형편으로 보아도 타당치 못한것이다. 이것은 후기 지배 계급의 리익의 견지에서 꾸며진 허황한 이야기인것이다.²⁸⁾

<주몽전설>이 지닌 전기적인 요소를 들어 허황된 이야기라 판단하고 이 작품이 지닌 역사적인 한계점이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도 2000년대에까지 제기된다.

27)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년 4호.

28) 김호성, <고구려 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서사시 《동명왕편》은 지나간 역사적시대에 창작된 작품인것만큼 거기에는 일련의 제한성과 부족점도 있다. 그것은 우선 머리시의 앞부분에서 고사에 나오는 신화전설적이야기들을 필요없이 장황하게 라렬함으로써 서사시의 창작의도를 오히려 흐리게 하고 생활반영의 진실성에도 손상을 주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또한 서사시에는 해동의 해모수가 왕위에 오른 것이 《한나라 신작 3년》이라 하고 류화가 주몽을 낳은것이 계해년 즉 B. C. 58년이라고 한것을 비롯하여 실재한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게 된 개소들도 일부 있다. 고구려의 국가건립이 B. C. 277년 다시말하여 B. C. 3세기초라는 역사적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제한성이고 부족점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²⁹⁾

정홍교는 200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동명왕편〉의 신화적인 특징들이 서사시의 창작의도를 흐리고 있으며, 고구려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신화적 특성이 반영된 지점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평하면서, 이것이 〈동명왕편〉이 지니는 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북한 연구자들은 〈주몽전설〉이 고구려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몽전설〉이 실제 역사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원전 텍스트로 간주되는 〈동명왕본기〉

북한에서는 고구려 건국설화에 대해 “중세설화로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이며 구성의 짜임새와 전설적인특성의 측면에서도 제일 우수한 작품”³⁰⁾으

29)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30)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1쪽.

로 많은 문헌들에 수록되어 전해져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헌 기록의 원전을 추정하기도 하였으며, 원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로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주목하기도 한다.

문예이론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2000년대에 까지 북한의 연구들은 이견 없이 고구려 건국설화가 실린 문헌기록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능지문에도 묘지문에도 자기 국가 선조들에 대한 높은 금지감이 표현되어 있다.

「광개토왕 능비문」의 맨 첫머리에는 추모왕(鄒牟王)(주몽의 동음 이자적 기사)의 건국 설화가 새겨져 있는바 이것을 보면 추모왕은 천제(天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무두루 묘지문」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고구려의 선조가 ‘하백지손 일월자(河伯之孫 日月之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의 강조는 당시 강대한 국력과 높은 문화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던 고구려에서의 준민족적 자의식의 장성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부당한 외래 침략자들과의 투쟁 가운데서 가일층 발전하고 있었던 자기 국가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금지감의 장성의 표현인 것이다.³¹⁾

삼국 시기 건국 설화들 중 대표적인 것은 고구려 건국 설화인 주몽전설이다. 주몽전설은 「광개토왕릉 비문」, 「무두루 묘지문」,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 및 기타 여러 외국 문헌들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그 변종이 아주 많다.³²⁾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6쪽.

3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49~50쪽.

3~6세기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관계문헌들인 《삼국지》, 《후한서》, 《위서》 중에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주몽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수록되어있는데 특히 위수가 편찬한 《위서》는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주몽전설》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소개되고 당대사람들속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있었음을 말하여준다.³³⁾

414년에 고구려사람들이 세운 《광개토왕릉비》의 비문과 12세기에 만들어진 《구삼국사》, 리규보가 쓴 서사시 《동명왕편》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고주몽에 대한 이러저러한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³⁴⁾

처음에는 구두로 전해오던 고구려건국전설은 그후 문헌들에 기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중 가장 오랜것은 광개토왕릉비에 고구려사람들 자신이 써놓은 건국설화이고 이밖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우리나라 옛문헌들과 《위서》를 비롯한 중국역사책들에 그와 관련한 설화들이 있다.

여러 역사책들에 전하는 건국전설의 기본줄거리는 기본상 같으나 세월이 감에 따라 덧붙여지고 가지를 쳐서 내용이 조금씩 차이난다.³⁵⁾

북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고구려 건국설화가 많은 문헌기록에 전해진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역사서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용 상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북한 연구에서는 〈주몽전설〉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각 문헌자료의 원전에 대해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조선문학사』1(1991)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33)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3쪽.

34) 채희국, 〈동명왕전설〉, 『천리마』, 1981년 11호

35) 김덕성, 〈고구려의 건국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주몽전설〉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옛기록들로서 현재 볼수 있는것중에서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무덤에 세워진 비문이 제일 오래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물론 광개토왕릉비문이 〈주몽전설〉을 수록한 첫 기록자료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이미 건국초기부터 〈류기〉라 불리는 국사의 편찬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100권에 달하는 이 〈류기〉를 함축하여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만들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년대기적성격의 역사문헌들의 례에 비추어볼 때에 〈류기〉와 〈신집〉에는 시조왕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었을것이며 거기에는 의심할바 없이 〈주몽전설〉이 포함되어있었을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개토왕릉의 비문도 〈류기〉와 〈신집〉에 의거하였을것이며 또한 〈류기〉와 〈신집〉은 그후 〈구삼국사〉 고구려본기의 사료적원천으로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는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³⁶⁾

이 저서에서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무덤에 세워진 비문이 제일 오래된 〈주몽전설〉을 전하는 기록으로 보는데, 고구려의 역사문헌인 『류기』와 『신집』에 〈주몽전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광개토대왕릉의 비문도 이 두 문헌에 의거하여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몽전설〉이 수록된 또 다른 문헌인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역시 이 두 문헌기록을 원천으로 삼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주몽전설〉의 문헌기록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대한 주장이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동명왕편〉의 서문에 근거하여 그 원형이 〈동명왕편〉에 반영되어 있다고 확신하며, 문헌 기록들 중 가장 짜임새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이에 부합되는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1977)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6)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1~102쪽.

이규보는 서사시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동명왕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는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데 「구삼국사」를 구하여 그 안에 있는 「동명왕본기」를 보니 거기에는 신비로운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하면서 김부식이 국사 「삼국사기」를 다시 편찬함에 있어서 그것을 자못 간략하게 하였다고 썼다. 이규보의 이러한 서술을 통하여 지난 시기 역사책에 실려 있는 주몽전설 가운데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내용이 보다 풍부하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압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비해 〈동명왕본기〉의 내용이 더욱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이다. 『조선문학사』2(1991)에서도 다음과 같이 〈동명왕본기〉가 가장 내용이 상세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전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광개토왕릉비문 이후의 문헌기록들로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와 그에 기초하여 창작된 고려시기 리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련의 〈삼국유사〉 등을 대표적인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 여러 문헌기록들 가운데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정제된 이야기로서의 구성이 잘 짜인 것은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이다.

〈중략〉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왕본기》에 실린 이야기에서 주몽의 가계에 해당하는 앞부분과 류리에 대한 이야기가 엮어진 마지막 부분을 빼고 주몽의 출생담으로부터 건국과정, 즉위년간의 통치내용을 기전체의 력사서술체계에 부합되게 함축하였으며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전체로 하면서 지나치게 함축되었다고 인정되는 일부 대목들을 보충하였으나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비해볼 때에는 역시 매우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³⁸⁾

3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50쪽.

38)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2~103쪽.

이 서문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리규보는 고려가 고구려의 애국 전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동방일각에 고구려와 같이 강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운 선조들의 사적을 후손대대에 전하도거 이 작품을 썼던것이다. 또한 이러한 창작의도로부터 시인은 작품의 제목도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동명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동명왕편>이라고 하였고 자신을 그처럼 격동시킨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내용도 시의 구절들에 사료적근거가 될수 있게 그대로 첨부하여놓았다.³⁹⁾

이와 같이 정홍교 역시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이 대표적인 문헌기록이라고 밝히며, 비교적 정제된 형식의 <동명왕본기>가 <동명왕편>의 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함축되어 있고, <동명왕본기>에 비해 소략하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첨부되어 있는 <동명왕본기>가 그 원본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정홍교(2005)의 또 다른 논의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지에 있어서 고구려의 건국설화 <주몽전설>은 서사시 <동명왕편>을 통하여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그대로 내용이 풍만하고 뜻이 깊은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여기서 서사시는 전설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생동한 문학적형상을 통하여 감동깊이 인식하고 리해할수 있게 하여준다. 특히 시행과 단락들에 주석으로 첨부된 전설의 내용은 시형상창조에서 생동성과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동시에 서사시적화폭속에 담겨져있는 력사의 진실을 옹계 인식하며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을 정서의 질은 흐름속에 감동깊이 리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에 첨부된 주석은 시밖에 있으면서도 시에서 떼어낼수 없는 특색있는 구성의 한부분을 이룬다고 할수 있다.⁴⁰⁾

39) 정홍교, 『조선문학사』2, 사회과학출판사, 1991, 244쪽.

40)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첨부된 형식의 〈동명왕본기〉가 〈동명왕편〉 작품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명왕본기〉를 통해 〈동명왕편〉의 생동성과 진실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동명왕본기〉가 그 원래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동명왕편〉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동명왕본기〉가 현존하지 않은 문헌 기록임을 인정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조선문학사』1(1982)에서는 〈주몽전설〉을 소개하면서 연구 대상의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몽전설」은 고구려의 첫 왕인 고주몽(동명왕)에 대한 전설로서 고구려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전설은 실제 있었던 인물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전설은 원래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전해 왔으나, 현재 이 책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및 이규보의 장편 서사시 「동명왕편」에 기록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보기로 한다.⁴¹⁾

이처럼 북한 연구에서는 〈동명왕본기〉가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른 문헌기록들을 근거로 삼아 〈주몽전설〉을 이해하려는 견해도 발견된다.

정리하면 북한에서는 〈주몽전설〉의 문헌기록들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원전을 추정하려는 논의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다수의 논의들 가운데 특히 현존하지 않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동명왕본기〉의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1)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전지, 1995), 55쪽.

3.4. 〈해모수신화〉의 독자적 정체성

북한 연구에서는 〈주몽전설〉 중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담이 부여국 건국 설화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해모수신화〉로 구별하고 있다. 두 작품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정홍교에 의해서 풍부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모수신화〉를 소개하며,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여국의 건국설화로서의 동명에 대한 신화적이야기는 중국의 옛책들인 〈문형〉, 〈위략〉, 〈후한서〉 등에 실려있다. 이 옛책들에 실린 자료들을 대조해보면 일부 표현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설화의 내용은 크게 부여국을 세웠다는 동명의 출생담과 성장과정, 탁리국을 탈출한 경위와 부여국의 건립과정 등으로 엮여져있다.

〈중략〉

문헌사료적 측면에서 볼 때 〈해모수신화〉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앞머리에 첨부되어 고구려의 시조왕으로 된 동명왕 즉 고주몽의 가계와 출생담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있지만 그 주되는 내용이 고대 부여국의 건국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으므로 대체로 부여국의 건국설화로 평가되고 문학사들에서도 그렇게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년간 력사학계에서는 여러 문헌자료의 탐구와 고증을 통하여 부여국의 건국설화는 〈해모수신화〉가 아니라 〈동명신화〉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었다.⁴²⁾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해모수신화〉가 고구려 건국설화에 삽입된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해모수신화〉가 부여국의 건국설화로 인정받아 왔는데,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여의 건국설화

42)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55쪽.

가 〈해모수신화〉가 아니라 〈동명신화〉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모수신화〉, 〈동명신화〉, 〈주몽전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료적 측면에서 설화의 내용을 따져보면 중간에 적지않게 생략된 흔적을 보이고있고 또 〈한나라 신작 3년 입술〉, 〈한고의 녀신〉 등의 표현을 비롯하여 후세에 덧붙여 놓은것으로 인정되는 개소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볼 때 해모수신화는 오랜 연원을 가지고 전승되어오다가 고구려국가가 창건된 이루시기 고구려의 건국설화에 인입되면서 새롭게 개작되고 보충된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해모수에 대한 이야기가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 설화적 주인공인 고주몽의 가계와 출생담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있고 또 고구려사람들에 의하여 개작보충되고 다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국의 건국과정과 연관되어있는 고대설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먼저 이야기의 앞부분에 부여국 출현초기의 왕으로 전하는 해부루와 그 뒤를 이은 금와왕이 등장하며 그들과의 관계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있기 때문이다.

〈중략〉

고구려의 건국설화의 견지에서 보면 신화의 중심인물들인 해모수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고주몽의 아버지로, 류화는 어머니로 되어있다. 또한 부여국의 건국설화라고 하는 〈동명신화〉와 고구려의 건국설화인 〈주몽전설〉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시조왕을 다 같이 〈동명〉이라 하였을뿐아니라 건국과정을 엮은 이야기자체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건국설화가 주로는 선행한 시대의 고대국가였던 부여의 설화유산들에 토대하여 꾸며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해모수신화〉가 〈동명신화〉와 함께 이미 부여국의 설화유산으로 전해지고있었다는 것을 확증할수 있게 하여준다.⁴³⁾

〈해모수신화〉를 부여국의 건국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유를

43)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1-62쪽.

부여국의 초기 왕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여국의 건국설화로 인정받은 〈동명신화〉는 〈주몽전설〉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부여국의 설화인 〈해모수신화〉와 〈동명신화〉의 영향으로 고구려의 건국설화 〈주몽전설〉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해모수신화〉를 별도의 작품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신화’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주몽전설〉과 장르도 구별하고 있다. 게다가 〈해모수신화〉가 〈주몽전설〉에 포함되어 전해지기도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해모수와 류화의 이야기는 원래 부여사람들속에서 창조되어 전해져오던 신화적성격의 설화이다. 《주몽전설》의 창조자들은 이 신화적성격의 이야기를 앞머리에 첨부함으로써 시조왕인 주몽의 아버지를 하늘신의 아들인 해모수였다고 꾸미었고 그의 어머니는 바다룡왕의 딸인 류화라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설의 창조자들은 주몽의 성격을 비범화, 신비화하고 그에 의한 고구려국가의 건립을 합리화할수 있는 생활적바탕을 마련하였던것이다.⁴⁴⁾

신화적인 특성이 왕권과 국가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고구려 국가의 건립의 합리화를 위해 〈주몽전설〉 앞머리에 신화적인 성격을 덧붙였다는 설명이다. 즉 〈주몽전설〉에 포함된 〈해모수신화〉의 역할에 대해서 전설에 신화적인 특성이 개입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주몽전설〉에 〈해모수신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정홍교의 주장과 달리, 최근에는 〈해모수신화〉와 〈주몽전설〉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관점도 제기된 바 있다.

《주몽전설》에는 고구려의 건국과정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44)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3쪽.

주몽전설은 리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 주해의 《해모수신화》 다음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주몽이 류화에게서 태어나 고구려를 세우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발수가에 내버려졌던 류화는 어부에 의하여 구원되었다. 어부가 쇠그물을 쳤는데 한 녀인이 걸려들었다. 그가 바로 류화였다. 그는 입술이 너무 길어 말을 못하였다. 그래서 입술을 세번이나 잘라주어서야 말을 하게 되었다.⁴⁵⁾

〈주몽전설〉안에 〈해모수신화〉가 삽입된 형태로 보지 않고 두 작품을 철저히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다. 〈주몽전설〉이 〈해모수신화〉의 다음 부분부터 해당된다고 보며, 우발수에서 유화가 구출되는 장면에서부터 〈주몽전설〉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담이 포함된 고구려 건국설화는 〈해모수신화〉와 〈주몽전설〉이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두 설화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설화가 지닌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실하므로 그것을 토대로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추측하는 논점은 유효하다. 정홍교의 논의에서는 이 설화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추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대를 달리하는 부여와 고구려의 이러한 설화유산적연관은 조선 민족사의 각이한 역사적단계에 존재하였던 서로 다른 이름을 다진 나라들이 그 모두가 하나의 혈통과 공통된 언어와 풍습을 기초로 하여 밀접한 계승관계에 있었으며 조선의 민족문화도 역사적으로 피조물과 언어와 풍습을 같이 하여온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끊임없이 발전 풍부화되어왔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하여준다.⁴⁶⁾

45) 김진호, 〈고구려건국설화 - 《주몽전설》〉, 『천리마』, 2005년 8호.

46) 정홍교, 『조선문화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2쪽.

두 나라가 공통된 언어와 풍습을 소유한 계승관계라고 보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의 혈통으로 구성된 단일한 민족임이 실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모수신화〉의 특이점을 포착해내고 있다.

〈해모수신화〉는 이처럼 역사적단계를 포괄하는 장구한기간에 걸쳐 개작보충되고 윤색되어왔던만큼 고조선의 건국설화인 〈단군신화〉와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있으며 설화적형상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⁴⁷⁾

〈주몽전설〉로 이어지는 〈해모수신화〉의 설화적 특성은 다른 신화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지점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모수신화〉와 〈주몽전설〉의 관계를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로 단정하는 한편,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완의 상태임을 밝히기도 했다.

동명의 출생국으로서의 탁리국과 부여의 관계, 동명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운 부여의 건국시도와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주몽의 관계, 그리고 동명설화와 해모수신화의관계 등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이문제들은 사료적측면에서만 아니라 문학사적 견지에서도 앞으로 더 연구를 심화시켜 설득력있는 해명을 주어야 할 것이다.⁴⁸⁾

확실히 밝혀내야할 사항이 많은 논점이지만, 이렇게 북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주몽전설〉 중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부분을 〈해모수신화〉로 지정하여 독립된 작품으로 보고 장르도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두 작품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고구려와 부여의 밀접한 관계를 추측할 뿐만 아니라, 단일민족적 혈통의 근거도 확인하고 있다.

47)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2쪽.

48)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2쪽.

3.5. 고구려 정신의 표상, 주몽

북한에서는 <주몽전설>에 등장하는 각 인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한다. 먼저 주몽의 인물 형상화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논의들에서 대체적으로 주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주몽을 통해 고구려인들의 상무적 기상이 드러난다고 언급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서부터 힘이 셀 뿐 아니라 활을 잘 쏘고 사냥 경기에 참가하여 제일 적은 화살을 가지고 가장 많은 짐승을 잡으며 활쏘기로 비류왕을 굴복시키는 주몽의 형상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적 기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주몽이 말을 가르면서 준한 말을 살지게 하여 금와왕이 타게 하고 좋은 말에게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함으로써 자기가 차지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지혜로운 성격적 특질이 표현되고 있다.⁴⁹⁾

주몽의 형상은 고구려인의 상무적인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에는 그의 지혜로운 면모가 부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논의에서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전설은 주몽의 형상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건국과정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구려 인민들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주기도 한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다. 전설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동부여의 금와왕의 일곱 아들들과의 대비 속에서 사냥·말기르기 등 당대의 전형적인 생활을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주몽은 금와왕의 아들과 사냥 경기를 하면 매양 이긴다. 그러나 그것이 화가 되어 주몽의 목숨을 위협에 처했을 때, 그의 어머니 유화는 아들의 슬기와 용맹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

4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51쪽.

면서 그에게 좋은 말을 골라 준다. 전설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던 고구려 인민들의 상무적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⁵⁰⁾

주몽은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며, 이것이 당대 고구려인들의 상무적 기상을 드러낸다는 평가이다. 주몽의 남다른 무예 능력뿐만 아니라, 내면적 특성 역시 긍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구려사람들이 지니었던 상무정신과 락천적인 생활기풍은 남다른 담력과 함께 다정다감한 인정미, 지력과 근면성, 역경에 꺾이지 않는 굳센 의지에서라도 표현되고 있다.

설화에서 천대와 고생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와 생리별하게 되는 슬픔을 한가슴 안고서도 큰 일을 위해 서슴없이 생소한 길을 떠나는 장면, 못말들가운데서 준마를 찾아내고 지력과 성실성으로 그 말을 차지하는 장면, 병사들의 추격으로 위험이 닥치게 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늘에 호소하여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장면 등도 고구려적인 기질을 가진 주인공의 성격미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할수 있다.⁵¹⁾

주몽의 인정미, 지혜, 굳센 의지 등이 고구려적인 기질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지닌 의의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 다른 논의에서는 주몽을 인민 독자와 가까운 거리의 인물로 보기도 한다.

전설에서는 주몽의 출신을 아주 신비롭게 하였지만 그 신화적외피를 벗기고보면 그가 인민출신의 장수라는것을 알수 있다.⁵²⁾

50)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56쪽.

51)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쪽.

52) 김호성, <고구려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고귀한 출신인 주몽은 신화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인민 출신의 영웅이라고 보면서 그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명왕편〉에 대한 논의에서도 동명왕 역시 예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이 주정토로에는 우리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재능과 슬기를 지닌 걸출한 성인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또한 이 주정토로를 통하여 시인은 서사시의 기본주인공인 동명왕이 이 땅에 성스러운 나라를 세운 걸출한 성인들의 뜻을 이어 민족발전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출중한 인물로 태어났음을 격동적인 심정으로 시사하였다고 할수 있다.⁵³⁾

〈동명왕편〉의 동명왕은 민족의 발전을 개척한 영웅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동명왕을 통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작품 속 주몽에 대한 당대 고구려인들의 숭배의식에 대한 논의도 발표된 바 있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의 기록에 근거하여 당대 사람들이 지닌 동명왕에 대한 숭배의식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개토왕릉비》에는 동명왕의 최후에 대하여 쓰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보낸 누른 룡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동명왕을 숭배하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창건자의 최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은 아마 그의 최후를 똑똑히 모르는데서 나온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외적과의 싸움과 작은 나라들의 통합에 일생을 바쳐온 동명왕이 어느 싸움터에서 희생되었는지 알수 없고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던탓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53)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평양시 려포구역 무진리에는 지금도 동명왕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때 가지고온것인데 고구려 사람들은 동명왕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늘에 올라갈 때 남기 고간 옥으로 만든 말채찍을 시체 대신 묻어서 무덤을 만든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3월 3일이면 이곳에서 사냥놀이를 하여 잡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성대히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지난날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를 얼마나 동경했으며 거기에서 민족적공지를 느끼었는가를 알수 있다.⁵⁴⁾

작품 속 동명왕의 최후에 대한 내용과 그를 애도하는 제사의식을 통해 동명왕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숭배사상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에 대한 동경과 민족적 공지를 드러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해모수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홍교의 논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모수를 비롯한 설화의 등장인물들은 신적인 존재로 형상되고 있으면서도 현실세계의 인간성격에 매우 가깝게 그려지고있다. 신화의 중심주인공인 해모수는 용감하고 민첩하며 활달라고 자유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이다.⁵⁵⁾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담이 신화로 간주되듯이 그 주인공 해모수 역시 신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동시에 그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수신(水神)격의 하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화에서 류화는 비록 바다룡왕의 딸로 되어있지만 성격면에서는 소박

54) 채희국, <동명왕전설>, 『천리마』, 1981년 11호.

55)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2쪽.

하고 부지런하며 지혜롭고 인정깊은 녀인으로 형상되고있으며 하백은 요란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부리나 아둔하고 영민치 못한 고대제왕의 형상으로 꾸며지고 있다.⁵⁶⁾

소박하고 부지런한 여인으로 평가되는 유화와 달리 하백을 허욕에 치우친 지혜롭지 못한 권위자로 평가하고 있다.

〈주몽전설〉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 중 특이한 점은 금와왕에 대한 평가가 양분된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는 〈주몽전설〉에 제시된 바 그대로 유화를 보호하고 주몽에 대해서는 관조적인 태도를 취한 인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각은 유화와 주몽을 억압하고 통제한 지배계층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음의 금와왕에 대한 해석은 전자에 해당된다.

류화는 부모의 승인 없이 해모수와 상관한 죄로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거기에서 부여사람들에게 발견된 류화는 이 나라의 왕인 금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류화는 주몽에게 여러 곡식의 씨를 모아주며 어서 떠나도록 하였다.⁵⁷⁾

이와 같이 유화가 금와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견해는 〈주몽전설〉 내용의 전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금와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논의들도 있다. 정홍교(199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와왕의 통제속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며 상무정신과 씩씩한 기상을 지니도록 자식을 키워가는 주몽의 어머니 류화의 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⁵⁸⁾

56)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3쪽.

57)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년 4호.

58)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쪽.

즉 유화와 주몽이 금와왕의 억압 하에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금와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유화에 대한 평가로 직결된다. 금와왕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건국시조를 출산, 보육하였기 때문인데, 정홍교는 위의 주장에 이어 다음과 같이 유화를 훌륭한 어머니의 상으로 평가하였다.

조용하면서도 속이 깊고 말없이 성실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강의한 류화의 형상에는 조선녀성들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고유한 성격적특질이 체현되어있다.

류화는 비록 철없는 자식의 엉뚱한 말이라도 소홀히 듣지 않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며 아들의 울분에 찬 말을 듣고서는 나도 이 일로 마음을 썩이고있다고 하며 교훈적인 이야기로 지략을 키워준다. 또한 아들이 길을 떠나게 될 때에는 자신에게 미칠 위험은 가슴속에 감추고 어머니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5곡의 종자를 싸주면서 그의 장래를 고무해준다.

류화의 이러한 형상은 고구려녀인들이 지니었던 강의하고 슬기로운 성격미와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감명깊이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⁵⁹⁾

이러한 유화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수의 논의에서는 금와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이어 유화에 대한 예찬적인 평가가 언급되고 있다. 다음의 논의 역시 그러하다.

설화에서는 금와왕 밑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주몽을 낳아 기르는 유화의 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금와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해치려고 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하니 너 같은 재능과 지력을 가지고 어디 간들 나쁠 것인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옥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어 길을 떠나 보내는 유화

59)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쪽.

의 형상에서는 강인하고 슬기로운 성격적 특질이 표현되어 있다.⁶⁰⁾

이렇게 금와왕이 주몽을 해치려고 하는 장면에서 유화의 지혜롭고 강인한 면모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영웅을 출산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넘어 영웅을 양육하여 대업을 이룬 장본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훌륭한 어머니의 형상을 유화라는 인물이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주몽전설〉이 현대에도 전승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논의에서는 유화를 형상화해낸 방식이 작품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설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금와왕 밑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아 기르는 여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유화는 「해모수신화」에도 나오고 「주몽전설」에도 나오는 인물이다. 그런데 신화에서는 보다 신적인 인물로, 전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재한 인물로 나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⁶¹⁾

금와왕의 밑에서 온갖 시련을 경험한 유화는 〈해모수신화〉에서는 보다 신적인 인물로, 〈주몽전설〉에서는 현실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작품의 장르적 성격에 따라 인물 형상화 방식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연구에서는 각 인물들이 고구려의 실재를 반영하여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면서 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6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51쪽.

61)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전지, 1995), 56쪽.

《주몽전설》이 다른 건국설화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의하여 꾸며지고 봉건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퍼지고 그들을 통하여 전승되면서 인민설화적특성을 풍만하게 갖추게 된 것은 이처럼 화족의 중심을 이룬 주인공과 류화의 형상이 고구려사람들이 개척한 실재한 생활에 바탕을 두고 조선민족의 고유한 성격적특질과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체현하였기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위의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처럼 북한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한 나라를 세운 건국시조가 된 주몽과 주몽의 탄생과 보육을 위해 수난을 겪은 유화를 예찬하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3.6. 애국애족적 지향의 주제사상과 기법

북한에서는 <주몽전설>을 문학적 기법이 뛰어나고 훌륭한 주제사상을 지닌 이야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몽전설>의 서사적 구조에 대한 분석방법과 더불어, 이 작품의 표현 기법과 주제사상적 의미, 그리고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다수 북한의 논의에서는 <주몽전설>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핀다. 그 첫 번째 부분은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부분은 주몽의 성장과 위업성취의 내용이 해당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유리의 성장과 왕위 계승의 내용이 해당된다.

정홍교는 <동명왕편>에 첨부된 <동명왕본기>를 기본 텍스트로 삼고 <주몽전설>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62)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쪽.

〈동국리상국집〉에 실려있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사료적 기초로 삼고 내외의 여러 문헌기록들을 참고로 하여 〈주몽전설〉의 내용을 고찰하여 보면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야기가 엮여지고있다고 할수 있다.

첫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주몽의 가계를 보여준 해모수와 류화의 이야기로 되어있다.⁶³⁾

그 첫 번째 부분은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을 신화적 성격의 설화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주몽전설〉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둘째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주몽의 출생담과 성장과정, 주몽에 의한 고구려국가의 형성 경위 그리고 건국이후 주변의 소국들을 지략으로 통합하고 국력을 키워 왕권을 공고히 한 주몽의 사적이 담겨져있다.

〈중략〉

〈주몽설화〉의 둘째 부분의 마지막은 왕위에 오른 고주몽이 주변의 본진 소국인 비류국의 송양왕을 지략으로 굴복시키고 행인국과 복옥저를 통합하여 국력을 강화한 이야기로 엮여져 있다.⁶⁴⁾

두 번째 부분은 〈주몽전설〉의 중심이 되는 주몽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위업을 성취하는 대목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부분이 〈주몽전설〉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정홍교는 〈삼국사기〉에 제시된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주몽이 지형 좋은데를 찾아 도움을 정한 곳이 바로 졸본천이었으며 이곳에서 주몽은 미처 궁전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루강변에 초막을 짓고있으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고 이로서 〈고(高)〉자로

63)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56쪽.

64)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4~107쪽.

성을 삼았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또한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에 왕이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보며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에게 딸을 주어 안해로 삼게 하였고 왕이 죽은 다음 주몽이 그 뒤를 이었다는 설도 있다고 하였다.⁶⁵⁾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주몽의 아들 유리의 성장과 왕위 계승 과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화의 셋째 부분 즉 마지막은 주몽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류리의 비범한 성격과 남다른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있다.

〈주몽설화〉는 이처럼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선대와 후대까지를 포괄시켜서 이야기의 폭을 넓힘으로써 내용이 풍부하고 설화적형상이 다채롭고 세련되어있는것으로 특징적이다.⁶⁶⁾

이러한 해석은 앞서 말한 주몽의 이야기의 전설적인 특성이 삼대에 걸친 개성있는 인물 설정과 그 인간 문제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의 논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몽전설〉의 서사를 분석하고 있다.

첫 부분에서는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아침저녁 하늘땅을 오르내린 이야기, 웅심연기슭에서 바다룡왕 하백의 반딸 류화와 사랑을 맺고 하백과 재주를 겨루는 이야기 그리고 해모수와 갈라져 우발수에서 지내던 류화가 금와왕에게 구원된 후 그의 별궁에서 주몽을 낳는 이야기 등을 시적화폭으로 재현하면서 주몽에 의한 고구려건립을 〈하늘의 뜻〉에 의한 것으로 신비화한 생활적전제를 마련하고있다.⁶⁷⁾

65)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6~107쪽.

66)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쪽.

67) 리성, 〈서사시 《동명왕편》〉, 『민족문화유산』, 2007년 3호.

리성(2007) 논의 역시 첫 번째 부분을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담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이 ‘천명’으로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동명왕편〉에 제시된 주몽의 성장과 위업 성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고구려시조왕 주몽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말들이 알》에서 태어나 《골격이 출중하고/울음소리 또한 웅장》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주몽의 신비한 출생담으로부터 뛰어난 활쏘기재주, 그에 대한 부여왕자들의 시기질투, 말몰이군이 되어 《이렇게 사는것이야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고 울분을 토하던 주몽이 어머니 류화의 도움으로 부여땅을 탈출하는 과정, 추격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졸본에 이르러 고구려국가를 세우기까지의 온갖 고초와 기이한 사건들을 정연한 줄거리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에서는 특히 주몽이 비류국 송양왕을 굴복시키고 고구려의 영역을 확대하여 국력을 튼튼히 다진후 검은 구름이 골령에 일고 사방에서 나무썩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덧 구름은 흩어지고 드높은 궁전이 솟았어라》고 노래함으로써 민족사에 천년강국 고구려시대를 열어놓은 동명왕-고주몽의 공적을 뜨거운 공감속에 형상적으로 부각시키었다.⁶⁸⁾

역시 두 번째 부분은 주몽의 탄생과 성장과정에서 일어난 기이한 이야기와 위업 성취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도 〈동명왕편〉의 세 번째 부분을 우리의 성장과정의 왕위 계승의 이야기로 보고 있다.

본시의 마지막은 주몽이 하늘로 올라가고 아들 유류가 왕위를 이어 나라

68) 리성, 〈서사시 《동명왕편》〉, 『민족문화유산』, 2007년 3호.

를 다스리는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전설내용을 그대로 시화한 앞부분과 달리 함축된 시형상으로 유류의 비범성을 강조하고있다.⁶⁹⁾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몽과 유리의 비범성이 강조되어 형상화되어 있다고 밝히며, 시 장르의 특성에 맞추어 그 비범성이 함축되어 전달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 달리 이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논의도 있다. 그 분석 대상은 〈동명왕편〉이다.

이 작품은 ‘머리 시’와 ‘본시’ 그리고 ‘맺는 시’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시’에서는 시 창작 동기를 쓰고 있다. ‘본시’는 내용상 두 부분 즉 “해모수편”과 “주몽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신화와 전설의 즐거리를 전개시켜 가면서 신화적 형상으로서의 해모수와 전설적 형상으로서의 주몽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중략〉

본시의 다음 부분에서는 주몽에 대한 전설적 이야기가 시화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해모수와 주몽의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그저 객관적으로 그들의 신기로운 역사를 노래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무신 정변 후 봉건사회 현실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입장과 낭만주의적 지향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다.⁷⁰⁾

전체 구조 상 ‘머리시-본시-맺는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역할을 설명하고, 고구려 건국설화의 내용이 담긴 ‘본시’의 내용은 ‘해모수편’과 ‘주몽편’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주몽전설〉의 서사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69) 리성, 〈서사시 《동명왕편》〉, 『민족문화유산』, 2007년 3호.

70)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97쪽.

이 작품의 문학적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논의도 발표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주몽과 어머니 류화와의 뜨겁게 오가는 혈육의 정, 비둘기가 보리 씨를 물고온 세부 등은 높은 수준의 문학형상이라고 볼수 있다.

주몽전설이 수천년동안 우리 인민들속에서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전해질수 있는것은 바로 이런 풍부한 예술적환상과 문학적형상에 기초하고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주몽전설은 이런 문학적형상을 통하여 고구려의 력사, 나아가서는 우리 인민의 발전력사에 대하여 비교적 생동하게 알수 있게 한다.

〈중략〉

주몽전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유구한 력사를 가진 민족적금지, 풍부한 문화적유산을 가진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느끼게 된다.⁷¹⁾

이와 같이 이 논의에서는 작품 곳곳에 발견되는 문학적 기법을 소개하며, 〈주몽전설〉의 의의가 이러한 기법들에 의해 더욱 생동하게 전해진다고 밝힌다. 그리고 〈주몽전설〉로 인해 민족적 자긍심이 고취된다고 평한다. 이러한 〈주몽전설〉에 대한 평가는 2000년대에 까지 동일하게 지속된다.

주몽전설은 고구려의 건국을 전후한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현실과 우리 인민들의 뛰여 난 상무적기풍, 고구려사람들의 생활세태와 성격적특질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는 우수한 설화작품이다.⁷²⁾

〈주몽전설〉을 고구려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우수한 설화 작품으로 평하고 있다. 역사적 현실을 생동감 있게 반영하

71) 김호성, 〈고구려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72)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년 4호.

고 있어서 그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에서도 <동명왕편>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서사시로서의 <동명왕편>의 기법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두드러지며, 그 문학적 의의도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 먼저 그 문체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은 문예이론이 확정되기 이전의 논의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다음 이 서사시에서 특징적이 것은 해모수와 주몽의 형상을 신화 전설적 형태 그대로가 아니라, 서사적인 묘사와 서정적인 묘사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비교적 생동하게 부각시켜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이 시에서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신화·전설적 사건들을 다만 연대기식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서사시의 중심에 놓여진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면서 주인공들의 신화적 성격을 그 사건과의 연관 속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서사시의 주인공들인 신화·전설적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시인 자신의 낭만주의적 지향과 결부된 주정 토로를 배합하고 있다. 이리하여 시는 장편 서사시의 시적 묘사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해모수의 신비롭고 호방한 성격, 유화의 아름답고 소박하고 지혜로운 모습, 주몽의 힘차고 늠름한 성격들을 창조할 수 있었다.⁷³⁾

<동명왕편>의 문체를 서사적인 묘사와 서정적인 묘사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기법으로 인해 주제 의식이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문학적 의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서사시에서는 고구려의 건국 시조로서의 주몽이 유교의 '왕도' 사상에 의하여 신성화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 발전에서 인민 대중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 시인 이규보의 세계관상 제한성과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199쪽.

아직도 짙막한 서정시 형식의 시가 작품들만이 창작되었고, 가사와 같은 긴 형식의 시가가 발생하기 이전 시기에 장편 서사시로서의 시적 체제를 갖춘 작품이 창작된 것은 그후 우리 나라 장편 서사시 문학 발전에서 의의를 가진다.⁷⁴⁾

〈동명왕편〉에서도 지배층의 사상적 측면이 개입되어 있어 한계점을 지니지만, 장편 서사시의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예이론이 확립된 이후에도 유사한 관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새로 출현한 시가 형식에서 서사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2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사회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깊어지고 현실비판 정신이 높아짐에 따라 시작품들에서는 서사적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시가 형식으로서의 서사시가 출현하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의탁하여 당시의 부패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을 비판한 낭만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우리 나라에서 서사시 형식의 출현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⁷⁵⁾

이와 같이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1977)에서는 대중의 현실 비판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시가 장르에 서사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사시 형식 출현으로서의 〈동명왕편〉의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동명왕편〉의 서문을 근거로 하여 〈주몽전설〉의 가치를 입증해내려고 한다. 서문을 통해 이규보가 〈주몽전설〉의 주제사상적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199쪽.

7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이회문화사, 1996), 139쪽.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규보가 살아가던 당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과 애국사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동명왕편〉에 담긴 이규보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홍교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인은 작품에서 동명왕을 리상화하고 그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을 높이 찬양하는 동시에 그와의 대비속에서 선조들의 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지 못하는 당대의 무능부패한 통치자들과 어지러운 현실을 비판하려고 하였다.⁷⁶⁾

이규보는 동명왕을 이상적 인물로 그려내며 고구려의 건국을 찬양하는 동시에, 당대의 부정한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의의를 발견하고 있다.

머리시와 맺음시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서사시〈동명왕편〉은 민족사의 유구성을 시적형상으로 재현하고 찬양하는데 머물지 않고있다. 시에서 시인은 고구려의 건국위업을 실현한 시조 동명왕의 사적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애국의 념을 굳건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당대의 통치자들을 비판하였고 어지러운 현실을 바로잡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내 나라 고려를 천만년 융성번영시켜나갈데 대한 애국의 열망, 애족의 뜨거운 지향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여기에 서사시 〈동명왕편〉의 주되는 사상예술적특성이 있다.

또한 이점에서 《동명왕편》은 조선의 중세시가사에서 서사시의 시초를 마련한 첫 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애국적주제의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높이 평가되어왔다.⁷⁷⁾

76) 정홍교, 『조선문학사』2, 사회과학출판사, 1991, 245쪽.

77) 정홍교, 『조선문학사』2, 사회과학출판사, 1991, 246쪽.

〈동명왕편〉이 중세시대에서 서사시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애국의 주제를 지닌 작품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하며 그 문학사적 의의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명왕편〉은 그 주제의 우수성과 더불어 서사시라는 장르적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한다. 정홍교는 다른 논의에서도 〈동명왕편〉의 문학적 의의를 인정한다.

바로 여기에 서사시 《동명왕편》의 구성상의 특색이 있고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로서의 독특한 문학사적의의가 있으며 조선민족발전의 유구한 역사적과정을 감명깊이 전하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⁷⁸⁾

〈동명왕편〉은 구성상 특색이 있고 우리의 역사적 업적을 전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보며, 중세 조선의 첫 서사시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명왕편〉의 본문을 분석하여 작품에 반영된 사상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사시에서 시인의 사상적지향은 주정토로와 함께 머리시와 맺음시에서 선명하게 실현된다. 이것은 서사시의 구성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를 이룬다고 할수 있다.

시 《동명왕편》의 머리시에서 시인은 태고적에는 인심이 순박하고 풍습이 아름다워 《신비하고 성스러운 일 이루 다 기록할수 없》이 많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대의 야박하고 성실치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토로하였고 맺음시에는 《내 본시 성질이 소박하고 신기한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 동명왕의 성스러운 사적을 처음 볼 때에는 황당하고 괴이한 일로 여기면서 믿지 않았으나 후에 다시 보고 또 보니 그것은 참으로 민족사에 길이 전할 자랑스러운 사적임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선조들이 이 땅에 남긴 애국의 넋과 위훈의 역사를 자자손손 전하며 그

78)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낮과 높은 뜻을 이어 고려를 빛내어나가기를 바라는 애국의 념원을 《이법도 자자손손 전하며》 《천만년 무궁토록 내 나라 편케 하세》라고 격조 높게 노래하였다.

여기에 서사시 《동명왕편》의 또 하나의 사상예술적특성이 있으며 조선시가가에서 애국애족적지향을 특색있게 구현한 력사물주제의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는 근거가 있다.⁷⁹⁾

이규보의 의도가 〈동명왕편〉의 서두와 결미에 적극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며, 그의 애국애족적 지향이 잘 드러난 역사적 주제의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연구에서는 〈주몽전설〉을 강국이었던 고구려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하며, 이 작품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남한에서도 역시 역사상 최대 강국인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대단하다. 천부지모형의 전형적인 영웅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건국신화 가운데 신화 모티브가 가장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 서사구조 또한 완결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⁸⁰⁾ 그 기록 또한 다양하게 전해내려 오기 때문이다. 〈주몽신화〉에 대한 남한 연구는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여기에서는 앞의 북한 연구들과 견줄 수 있도록 북한에 연구된 주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9)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80) 황패강,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207~208쪽.

4.1. 건국신화로서의 〈주몽신화〉

건국설화를 시조를 중심으로 한 건국 경위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는 건국의 시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건국의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건국신화로 간주한다. 북한에서 〈단군신화〉, 〈해모수신화〉 등을 신화로, 그 이후에 출현한 건국설화를 전설로 간주하는 경향과 달리, 남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국신화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가야, 신하의 건국시조에 대한 신화로 보고 있다. 그리고 탄생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거나, 역사시대에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도 건국신화로 간주한다.⁸¹⁾

북한에서 신화를 설화의 원초 형태로 보고 그 시기를 구분하여 중세의 건국설화를 전설로 간주하며, 중세의 건국설화에 전기적인 특성을 들어 신화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남한에서는 무엇보다 ‘신성성’을 신화의 본질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신화의 명칭을 부여한다. 신성성은 신화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건국신화에는 혈통을 통해 신성성이 드러난다고 본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자들은 건국신화에 부각된 신성성은 국가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나 왕실과 그 계승자의 정통성을 보장하고 그 집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구실을 한다고 주장한다.⁸²⁾

그리고 남한에서는 당시 건국신화가 제천의식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

8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4쪽.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 연구의 동향과 그 전망」, 『동아시아고대학』 제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4, 7쪽.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1994, 71쪽.

82)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9~11쪽.

이지영, 「주몽신화를 통해본 건국신화 속의 건국과정의 두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10집, 236쪽.

정원주, 「고구려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고구려발해연구』 제33집, 2009, 45쪽.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1994, 71쪽.

고, 서사무가의 형태로 국중대회에 불리며 건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확인하는 데에 역할을 다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다수 등장한다. <주몽신화>의 경우는 고구려의 '동맹'에서 주몽신화의 내용이 노래로 불려졌다는 것이다.⁸³⁾ 이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남한의 많은 연구자들은 건국신화와 무속, 혹은 무속신화의 상관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⁸⁴⁾

4.2. 역사학 연구 자료로서의 <주몽신화>

남한에서 <주몽신화>는 역사학 연구의 자료로 활발히 분석되어 왔다. 북한과 동일하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남한의 역사학에서는 건국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사의 실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⁸⁵⁾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기 위해 주몽의 출자를 파악하기도 한 바 있으며,⁸⁶⁾ 역사적 문맥에서 주몽이야기의 의미를 추적한 논의도 발표되었다.⁸⁷⁾ 그리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주몽신화>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풍속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관점 아래 민속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온 실정이다.⁸⁸⁾

83) 윤성용,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28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94, 73쪽.

84)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98.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85) 김정학, 『한국상고사연구』, 범우사, 1990.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이 옥,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984.

정정희,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일지사, 1990.

86) 윤성용,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5-30쪽.

87)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주몽 전설>의 사료적 가치를 달리 평가하기도 하지만, 남한에서는 대체로 신화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독해를 통해 역사적 정보를 추론하고 있는 편이다. <주몽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씨 집단의 시조신화에서 고씨 집단의 시조신화로, 해씨 집단이 통합하면서 해씨와 고씨족의 통합 시조신화로 형성되었다고 본 견해도 있으며,⁸⁹⁾ 그 신화적 주인공이 바뀔에 따라 천신족, 수신족, 지신족 등의 역사적 행보로 이해하는가 하면, 그 인물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해당 부족의 주된 생활 방식을 수렵, 목축, 농경 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⁹⁰⁾

4.3. <주몽신화>를 이루는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

고구려 건국신화를 이루는 텍스트를 해모수신화, 주몽신화로 인식하고 연구대상으로 삼는 북한 문학 연구의 경향과 달리, 남한에서는 그것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흔히 <주몽신화>로 일컬어지지만 주인공의 이름을 두고 그 내용을 구분하면, 해부루신화·금와신화·해모수신화·유화신화·주몽신화·유리신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⁹¹⁾ 이를 두고 남한 연구자들은 그 서사적 복합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고구려의 주몽신화는 해모수신화와 동명신화가 합쳐지면서 이루어졌으며, <동명왕편>은 후대에 새로운 설화가 삽입되면서 재구성되었다고 보기도 했고,⁹²⁾ 고구려 건국신화를 이루는 여러 텍스트와

88) 장주근, 「고주몽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4.

89)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244~265쪽.

90)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86쪽.

9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51쪽.

92)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94.

그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시켜 오기도 했다.⁹³⁾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문헌 기록들이 <동명왕편>에 첨부된 <동명왕본기>를 원전으로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 텍스트들 간의 내용상의 차이는 전승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문헌기록 간의 차이를 포착하여 유사한 텍스트들을 묶어 비교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발표되어 왔다.

남한 연구자들은 각 자료를 삼국사기 계통과 동명왕편 계통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그 유사성을 『구삼국사』에서의 전승으로 보기도 했고,⁹⁴⁾ 각각의 텍스트들을 논형계, 광개토대왕릉비계, 위서계의 세 계통으로 나누기도 하고,⁹⁵⁾ 광개토대왕릉비계, 논형계, 위서계, 기타계 등 네 계통으로 나누기도 하여⁹⁶⁾ 텍스트 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여왔다. 그리고 『논형』에서 <제왕운기>에 이르는 21종의 고구려 건국신화 자료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그 문헌기록의 양태와 그 고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 논의도 발표되었다.⁹⁷⁾ 한편 동명신화와 주몽신화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하였다.⁹⁸⁾ 그리고 텍스트에 따라 달라진 구성에 대해 향유 집단의 세계관이 각기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⁹⁹⁾

<동명왕본기>를 온전히 전승하고 있는 <동명왕편>의 중요성을 강조해

93) 김기홍,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 『한국사연구』 제113집, 한국사연구회, 2001.

김화경, 「고구려 건국신화의 연구」, 『진단학보』 86호, 진단학회, 1998.

이지영, 「고구려 유리신화 연구」, 『한국학연구』 제4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94) 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지양사, 1989, 90~92쪽.

95) 김정학, 「조선신화의 과학적 고찰(Ⅰ)」, 『사해』 제1호, 조선사연구회, 1948.

96) 박두포, 「민족영웅 동명왕설화고」, 『국문학연구』 제1집, 효성여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68.

97)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98) 이복규,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 『국제어문』 제12,13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91, 199~222쪽.

99) 박일용, 「동명왕설화의 연변양상과 <동명왕편>의 형상화 방식」,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은 북한 문학사와 달리, 남한에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주몽신화>를 전승하는 문헌기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개인의 의식이 반영된 기록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¹⁰⁰⁾도 있었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주몽의 이야기를 가장 온전하게 전달하고 있는 텍스트로 인정하며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¹⁰¹⁾

게다가 남한에서는 <주몽신화> 서사적 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른 동아시아 신화와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주인공의 영웅성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한 논의도 있으며¹⁰²⁾, 서사구조가 유사한 동아시아 신화들과의 비교를 시도한 논의도 있다.¹⁰³⁾

4.4. 남한의 작품 해석과 인물 분석

주몽을 고구려 정신의 표상으로 평가하는 북한의 가치판단적인 시각과 달리, 남한에서는 <주몽신화>의 인물들에 대한 신적인 면모를 포착하는 데에 치중한다. 그리고 주몽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시각은 “신화의 의미를 과거 이상으로

100) 이복규, 「고구려건국신화 연구성과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제1집, 고구려발해학회, 1995.

101) 강미정, 「미래민족사관서사로 읽는 동명왕편과 리더십서사로 읽는 홍길동전」,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이강엽,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139쪽.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 연구 동향과 그 전망」, 『동아시아고대학』 제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4.

102)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107~142쪽.

103) 이지영, 「동아시아 건국시조신화의 비교연구 -주몽·유리신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1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5~51쪽.

현재와 미래와 맺어져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인간의 생활을 양식화 한 근원적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화의 기능이다.”¹⁰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신화의 특성을 중점으로 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는 신화의 주인공들을 ‘보통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영웅’¹⁰⁵⁾으로 인식하여, 신화를 신성적인 영웅에 관한 이야기로 정의한다. 특히 <주몽신화>와 같은 건국신화는 어떠한 내력으로 신격으로서 집단의 숭앙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신화는 신격의 혈통과 좌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정한다.¹⁰⁶⁾ 그리고 이에 따라 건국신화는 천신이 아들을 파견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경우와 스스로 건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로 나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¹⁰⁷⁾ 건국 영웅의 출신 배경이 ‘하늘’이고 그 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이 ‘지상’임을 두고, 하늘이 주인공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이라면 땅은 주인공이 박차고 일어서야 할 ‘현실’이며 이는 곧 신화의 ‘현실’이 의미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¹⁰⁸⁾

특히 남한에서는 <주몽신화>와 같이 영웅이 지상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위업을 성취한 일련의 과정을 다른 신화와 고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영웅의 일대기’라 하여, 그 보편적인 서사구조를 일곱 단락으로 산출해내기도 하였다.¹⁰⁹⁾ 반면 여타의 연구자들은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건국신화에 두루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치기도 하였다.¹¹⁰⁾ 이러

104) 황폐강, 『한국의 신화』, 단국대출판부, 1988, 7쪽.

105)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534쪽.

106)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9, 29쪽.

107) 이지영, 「주몽신화를 통해본 건국신화 속의 건국과정의 두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10집, 2006, 238쪽.

108) 이강엽,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139쪽.

109)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110)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최원오,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 논쟁은 북한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몽신화>가 지닌 인간중심적인 서사의 특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화와 해모수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의 결합을 천부지모형의 신성혼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결합은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들의 분리는 건국신화나 일반 무속신화에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신성혼 구조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¹¹¹⁾ 그리고 주몽의 탄생을 두고 천지의 결합으로 보며, 천지개벽과 인간출현의 관념이 함축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¹¹²⁾ 그리고 유화의 출산을 대지에서 생명이 싹트는 자연현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고,¹¹³⁾ 유화에게 지모신이나, 수신과 곡신 등의 신적인 면모를 포착하면서 동시에, 여성 일대기에 걸친 모든 수난 과정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한다.¹¹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의 수난을 보여주는 인물로 인식하기도 한다.¹¹⁵⁾ 한편으로 해모수와 유화, 그리고 금와왕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포착하려는 논의도 발표된 바 있다.¹¹⁶⁾

111)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112) 서대석, 「한국 신화의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 5~26쪽.

113) 서대석, 「인문학과 신화의 해석」, 『서강인문논총』 제16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1~31쪽.

114)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115)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49집.

116) 정운채, 「질투에 대한 고전문학의 특별한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제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29~249쪽.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덕성, 「고구려의 건국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5년 1호.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김진호, 「고구려건국설화 - 〈주몽전설〉」, 『천리마』, 2005년 8호.
- 김호성, 「고구려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년 12호.
- 리 성, 「서사시 〈동명왕편〉」, 『민족문화유산』, 2007년 3호.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년 3호.
- 정홍교, 『조선문학사』1·2,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채희국, 「동명왕전설」, 『천리마』, 1981년 11호.
-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년 4호.

5.2. 남한 자료

- 강미정, 「미래민족사관서사로 읽는 동명왕편과 리더십서사로 읽는 홍길동전」, 『문학치료연구』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김기흥,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 『한국사연구』제113집, 한국사연구회, 2001.
-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98.

- 김정학, 『한국상고사연구』, 범우사, 1990.
-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 김화경, 「고구려 건국신화의 연구」, 『진단학보』 86호, 진단학회, 1998.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박일용, 「동명왕설화의 연변양상과 〈동명왕편〉의 형상화 방식」, 『고소설사의 제 문제』, 집문당, 1993.
-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 서대석, 「인문학과 신화의 해석」, 『서강인문논총』 제16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서대석, 「한국 신화의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 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 윤성용,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 이 옥,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984.
- 이강엽,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이복규, 「고구려건국신화 연구성과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제1집, 고구려발해학회, 1995.
- 이복규,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 『국제어문』 제12,13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91.
- 이지영, 「고구려 유리신화 연구」, 『한국학연구』 제4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이지영, 「동아시아 건국시조신화의 비교연구 -주몽·유리신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1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이지영, 「주몽신화를 통해본 건국신화 속의 건국과정의 두 양상」, 『한국문화연구』

- 제10집, 2006.
-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 연구의 동향과 그 전망」, 『동아시아고대학』 제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4.
-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9.
- 장주근, 「고주몽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4.
- 정경희,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일지사, 1990.
- 정운채, 「질투에 대한 고전문학의 특별한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제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정원주, 「고구려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고구려발해연구』 제33집, 2009.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94.
- 조현철,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최원오,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지양사, 1989.
- 황패강, 『한국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6.
- 황패강, 『한국의 신화』, 단국대출판부, 1988.

<박재인>

두 녀자의 무덤

1. 서지 사항

〈쌍녀분(雙女墳)〉은 『수이전(殊異傳)』에 실려 있었다고 전해지는 나말여초시대의 전기(傳奇)작품 중의 하나로서 남한연구사에서는 주로 〈최치원〉이나 〈쌍녀분〉으로, 북한연구사에서는 〈쌍녀분〉 또는 〈두 녀자의 무덤〉으로 일컬어져 왔다. 인용문이 아닌 본고의 서술에서는 작품명에 있어 〈최치원전〉(혹은 최고운전)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쌍녀분〉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쌍녀분〉은 『수이전(殊異傳)』에 수록되었지만 문집이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후 성임(成任)의 『태평통재(太平通載)』(1462년) 권 68에 〈최치원(崔致遠)〉으로 수록되었고, 또 권문해(權文海)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1589년) 권 15등에 실려 〈선녀홍대(仙女紅袋)〉로 전해지고 있다. 『태평통재』에 수록된 자료와 비교하자면 『대동운부군옥』에서는 작품의 내용이 경개(梗概)로 정리되어 5분의 1의 양으로 요약되었으며, 제목은 〈선녀홍대(仙女紅袋)〉라고 붙여졌다. 그러므로 줄거리로 정리되지 않은 『태평통재』본 〈최치원〉작품을 통하여 〈쌍녀분〉의 원형적인 형태를 짐작하는 것이 보다 그 실체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1940년 이인영이 『태평통재』의 잔권을 찾아내어 활자화¹⁾하면서 다시금 세간에 소개되었지만 이인영이 납북된 후 『태평통재』의 잔권은 소실되어 남한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후 최남선에 의해 『태평통재』가 『삼국유사』²⁾의 부록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이로써 결국 남한에서는 『태평통재』소재의 〈쌍녀분〉활자본이 이인영본과 최남선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인영이 영인하여 발표한 낱장의 원문을 토대로 비교하자면 이인영본은 원문에 충실하고, 최남선본은 교정본에 가까운데, 최남선 본은 오자를 교정한 경우도 있지만 오자를 발생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쌍녀분〉을 보다 원전에 가깝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인영본에 영인되어 있는 『태평통재』의 원문 부분을 주로 하고, 나머지는 이인영이 입력한 활자본 부분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북한의 경우는 〈쌍녀분〉을 설명하면서 『신라수이전』이 소실되었다는 기술은 따로 하지 않은 채 『태평통재』와 『대동운부군옥』을 통해서도 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통재』에 수록된 내용이 원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신라수이전』이 소실됨에 따라 『태평통재』의 부분을 주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작품 개요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였는데 과거에 합격하여 율수현위라는 관직을 제수 받았다. 최치원이 남쪽 초현관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1) 이인영, 「太平通載殘卷 小考 - 특히 新羅殊異傳 逸文에 對하여-」, 『진단학보』12, 진단학회, 昭和15(1940), 1면·12면(마지막면)은 원문이 영인되어 있음.

2) 최남선, 『(新訂)三國遺事』, 三中堂書店, 1943.

3) 장효현, 윤재민, 최용철 지음, 『전기소설』:03-崔致遠,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7, 23~36쪽.

데 관(館)앞 언덕에는 예로부터 많은 명현들이 유람하던 쌍녀분(雙女墳)이라 하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다. 최치원은 무덤 앞에 있는 석문에다 쌍녀분을 위로하는 시를 쓰고 관으로 돌아왔다. 산책하던 최치원에게 홀연 한 시녀가 다가와 팔랑자(八娘子)와 구랑자(九娘子)가 쓴 화답의 시를 전하였다. 아름다운 시를 보고 기뻐한 치원은 취금(翠襟)이라는 시녀가 맘에 들어 치근거렸다. 취금은 답장만 주면 되는데 공연히 귀찮게 한다며 화를 내었다. 치원은 두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답가를 지어 취금에게 주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두 남자가 나타났다. 치원이 반가워 말을 전해도 두 남자가 웃을 뿐 말이 없자, 치원은 다시 시를 지어 두 남자를 섬기는 여자라며 놀렸다. 희롱 당했다는 생각에 붉은 치마의 여자가 화를 내며 반박했다. 이에 치원이 웃으며 말수는 적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는다고 평하자 두 여자가 모두 웃었다.

치원이 두 남자의 배경을 물으니 붉은 치마를 입은 팔랑이 울면서 이야기하길 자기와 동생은 율수현 장씨의 두 딸로 부유하게 자라 각각 18세, 16세가 되자 혼처가 정해졌는데 자신은 소금장사, 동생은 차(茶)장사를 남편감으로 맞게 되었다고 했다. 두 남자는 남편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번 바뀔 달라고 하였는데 그러다가 울적한 마음이 맺혀 풀기 어렵게 되자 급기야 요절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은 어진 사람을 만나고 싶을 뿐이라며 설명하자 치원은 두 남자의 뜻을 옹호했다. 치원은 두 남자에게 무덤에 깃든지 오래되었고, 초현관에서 멀지 않으니 다른 영웅(남자)과 만났던 사연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붉은 소매의 남자는 이제까지 왕래하던 이들은 모두 비루하였는데 오늘 다행히 수재인 최치원을 만났다고 하며 함께 대화할 만하다고 하였다.

치원이 두 여자에게 짐짓 술을 권하자 붉은 치마의 팔랑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좋은 술을 먹게 되었다며 사양하지 않았다. 셋이 함께 술을 마시고 시로써 화답하며 하녀 취금의 노래까지 듣자 세상에 다시없을 흥취에 이르

렸다. 치원이 두 여자에게 좋은 연분을 맺고 싶다는 마음을 떠보았는데 두 여자가 모두 허락하였다. 치원은 뜻밖의 허락에 기뻐했다. 곧 정갈한 베개 셋을 두고 세 사람이 한 이불 아래 누우니 그 곡진한 사연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치원이 규방에서 사위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무덤가에 와서 미녀를 취한다며 농담을 던지자 필랑과 구랑이 어질지 못하고 경박하다며 치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치원이 화답하여 오백 년 만에 어진 이를 만났고 함께 잠자리를 즐겼으니 광객(狂客)을 가까이 했다고 한탄치 말라며, 자신은 이미 봄바람에 적선이 되었다고 농을 받아쳤다.

달이 지고 닭이 울자, 두 여자가 작별을 고하며 각각 이별시를 읊었다. 치원은 시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두 여자는 치원에게 황폐한 무덤을 다듬어 달라고 부탁하며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치원은 무덤가를 쓸쓸히 거닐며 깊이 탄식하는 마음에 장문의 시를 읊으며 자신을 위로하였다. 나중에 치원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뜬 구름 같은 세상의 영화는 꿈속의 꿈이라며 하얀 구름 자욱한 곳에 깃들겠다는 시를 썼다. 치원은 속세를 떠나 산과 강에 묻힌 절을 찾아 문서를 탐독하고 풍월을 읊조리며 유유자적하게 살았다. 최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며 경론을 탐구하여 마음을 맑고 아득한 데 노닐다가 세상을 마쳤다.

3. 북한의 연구

〈쌍녀분〉에 대한 북한의 문학 연구는 대체로 통사적 시각의 문학사 정리가 주를 이룬다. 현재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자료는 총 5편으로 1959년, 1977년, 1982년, 1986년, 1991년에 북한에서 출판된 문학사 연구저서이다. 『조선어문』을 통해 확보한 1988년, 2003년, 2005~2009년까지의 북

한의 연구 자료에서는 『수이전』이나 〈쌍녀분〉, 최치원에 관한 논의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최근의 연구동향을 가늠하기란 실로 쉽지 않다. 이렇듯 가장 최근에 발행된 북한의 고전문학사 연구서인 정홍교의 『조선문학사』¹ 이후 벌써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쌍녀분〉을 단독으로 다룬 소논문이 아직 한 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문학연구에서 〈쌍녀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다소 정설화 되어 새롭게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남북한 〈쌍녀분〉연구 비교의 대상 자료로 수집된 위 5편의 저서를 북측에서 출판되었던 연도별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④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⑤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이중 〈쌍녀분〉에 대해 기술된 ④의 논의는 ②에서 기술된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②의 논의와 매우 흡사하며 기술된 면의 내용은 축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논의에서는 ②에 포함시켜 대신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후의 본론에서 비교대상으로 다루어질 연구저서는 『조선문학통사』(상) (1959, 이하 ①), 『조선문학통사』1(1977, 이하 ②), 『조선문학사』1(1982, 이하 ③), 『조선문학사』1(1991, 이하 ④) 총 4편이며 인용 시 출판년도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표시하기로 한다.

북한문학사에서는 대체로 〈쌍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주로 장르, 작가 및 창작시기, 작품론, 작가론에 대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순서를 감안하여 먼저 북한문학사에서 주목하는 〈쌍녀분〉의 장르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수이전체 문학의 대표적 작품

북한의 〈쌍녀분〉논의는 문학사 연구의 흐름에 따라 수이전체 문학의 문학적 위상과 성격을 서술하면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쌍녀분〉을 꼽고 있다. 먼저 1959년에 간행된 ①에서는 전기문학의 대표적인 작품군으로 『신라수이전』을 꼽으며 이것이 이후 산문 문학의 기초가 되어주면서 소설의 한 형태로 창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쌍녀분〉이 가장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통일 신라 시기의 산문의 많은 부분은 인멸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설의 한 선행 형태로서의 전기 문학(傳奇文學)의 전통이 확립되었으며 기행 문학의 걸출한 선구적 작품이 산생되었으며 또 전대의 성과물을 계승하여 많은 연대기들이 창작됨으로써 우리 산문 문학의 기초가 축성되었다.

이 시기의 전기 문학 작품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오늘날 이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진 작품들 가운데서는 『신라 수이전(新羅殊異傳)』 중에 수록되었던 「쌍녀분(雙女墳)」이 사상-예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 ①⁴⁾

그런데 위와 같이 〈쌍녀분〉의 장르적 성격을 소설에 선행하는 형태로서 ‘전기 문학’이라고 통칭한 ①과는 다르게 1977년에 간행된 ②에서는 ‘수이전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85-89쪽.

체 문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갈래를 구분하고 있다.

7세기 후반기~9세기에 나온 예술적 산문 가운데서 예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이전체 문학이다. '수이전'이라는 술어 자체가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기이한 이야기로 엮여지고 있는 이 독특한 예술적 산문은 그 주제 사상과 형상 창조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이전체 작품은 당대의 현실적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 개별적 작가의 예술적 창조물이다. 이로부터 수이전체 작품은 구전 설화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 형상들이 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현실 생활에 대한 작가의 입장과 미학적 이상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수이전체 작품은 주인공의 설정과 사건 구성에서 보통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등장시키고 그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 줄거리를 펼쳐 나가는 것이 특징적이다.

수이전체 작품에서 이러한 인물 형상과 사건 구성은 환상적인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의 예술적 해명에 귀착되고 있다. 수이전체 작품은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낭만주의적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다. 수이전체 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당대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수이전체 작품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최치원의 「두 여자의 무덤」(쌍녀분)이다. 「두 여자의 무덤」은 옛 문헌인 「태평통제」 68권의 「최치원편」에 실려 있고 또 「대동운부군옥」 15권에도 실려 있는데 「대동운부군옥」에서는 그 이름을 「선녀 흥대」라고 하였다. - ②⁵⁾

위에서 나타나듯 ①에서는 '전기 문학'의 일부로 『수이전』을 다루었다면 ②에서는 『수이전』의 작품들을 '수이전체 문학'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이전체 작품의 성격으로 구전 설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입장과 미학적 이

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 문학통사』1, 이희문화사, 1996), 107~108쪽.

상이 작품 속 인간 형상과 사건 구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그 표현기법에서 환상적인 수법에 의해 낭만주의적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다는 점을 수이전체 작품의 다른 특징으로 꼽고 있다. 부연하여 앞선 특징들은 현실에서 문제해결의 방도가 없었던 당대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 그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어 1982년에 간행된 ③에서는 ②에서 기술된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수이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이 보다 많은 지면을 통하여 풍부하게 기술되었고, 또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거론하는 특징에 대한 구체적 작품논의를 간간히 언급하며 논리적 근거를 충족시키고 있다.

수이전체 문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소재로서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어 전하는 설화가 이용되기는 하나 여기에는 작가의 예술적 허구가 작용함으로써 이야기가 설화적으로 전개되는 대신에 서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된다. 그러므로 수이전체 작품에는 작가의 사회 정치적 견해와 그의 미학적 견해가 보다 뚜렷하게 반영되면서 인간과 그 생활이 반영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수이전체 작품에서는 인간 관계와 사건의 구성을 실제적인 인간 생활의 논리에 따라 설정하고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으로 처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이전체 작품 「머리에 꽃힌 석남」에서는 고무한 봉건 도덕의 낡은 인습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정 관계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겪었던 최항이 환상적인 '환생'을 계기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행복을 누린다. 수이전체 작품 「노옹화구」에서는 인간이 그 어떠한 '비상한 재주'에 의하여 순식간에 동식물로 변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래게 하기도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재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날 진보적 문인들은 인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이상과 같은 환상에 의하여 인간의 힘과 인간의 가치를 해석하며 인식하려고도 하였던 것이다.

셋째, 수이전체 문학의 다음 특성은 묘사에서 낭만주의적 수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있다. 「두 여자의 무덤」·「머리에 꽃힌 석남」 등에서 보는 인간의 환생, 「노옹화구」에서의 인간의 신비스러운 변신, 「죽통미녀」에서 보는 육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 말소리를 들리는 환상적인 인간 등 모든 것은 중세기적 몽매·무지·미신과 결부된 허황한 환상이 아니며, 이것은 현실과 인간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려는 작가의 창작적 의도와 결부된 것이다.

수이전체 문학의 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이러한 환상적 수법을 통하여 봉건적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염원과 희망, 그러한 예속과 굴종에 대한 비판적 기분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다. 수이전체 문학의 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낭만주의적 묘사 수법을 통하여 제한적이거나 사회·자연·인간에 대한 자기의 지향을 표현함으로써 이 시기 문학의 진보적 경향과 비판적 경향을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이전체 문학은 우리 나라의 예술적 산문의 발전, 특히 소설 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③⁶⁾

위에서 나타나듯 ③의 기술에서는 논리적 개연성과 의미해석 등 수이전체 문학의 특성을 논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추가적 설명을 통해 기존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②에서 수이전체 문학의 특징으로 주목하였던 설화의 소설적 형상화, 환상적 수법과 낭만주의적 색채, 작가의 현실인식 이외의 다른 새로운 특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③의 시각은 ②에 수록된 수이전체 작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이전체 작품에 대한 ④의 논의는 대체로 ②에 기술된 내용과 비슷하다. 시간 순으로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문학사 연구저서이지만, 〈쌍녀분〉에 대한 내용은 ③에서보다 훨씬 축약되어 있다. 그리고 ②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수정만이 가해졌다는 점을 통해 문학사기술에 있어 ②의 영향력

6)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17~118쪽.

이 매우 크다는 것, 또는 개정판적 성격으로 집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세기후반기~9세기에 나온 예술적산문가운데서 형상구성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것은 수이전체이다. 수이전체작품은 당대의 현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환상적 수법으로 반영하고있는 개별적인 작가들의 예술적창조물이다. 이로부터 수이전체작품들은 구전설화적요소를 다분히 가지면서도 인간형상들이 개성적으로 보다 구체성을 띠고 창조되며 현실생활에 대한 작가의 입장과 미학적리상도 뚜렷이 표현된다. 수이전체작품들은 주인공의 설정과 시간구성에서 대체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등장시키고 그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줄거리를 펼쳐나가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을 수이전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이전체작품들에서의 이 특이한 구성방법과 인물형상은 환상적인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적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예술적해명에 귀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수이전체작품들은 랑만주의적색채를 띠게 된다. 수이전체작품들에서의 랑만주의적성격은 당대의 사회현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도를 찾을수 없었던 사회력사적조건과 함께 당대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대한 작가의 사회미학적리상과 관련되어있다.

수이전체작품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최치원이 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쌍녀분(두녀자의 무덤)>이다. <두녀자의 무덤>은 옛문헌인 <태평통재>68권의 <최치원편>에 실려있고 <대동운부군옥>의 15권에도 실려있는데 <대동운부군옥>에서는 그 이름을 <선녀홍대>라고 하였다. - ④⁷⁾

②와 비교하여 ④를 살펴보면 수이전체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성격을 당대의 사회적·역사적 상황 및 작가의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②에서는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④에서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사회

7)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279~283쪽.

미학적 이상이 나타난다고 그 긍정적인 지점을 주목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쌍녀분〉의 작가의식의 한계점과 부정적인 면모를 주목하는 시각에서 가능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시각으로 문학사 기술의 접근방향이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상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쌍녀분〉 연구는 문학작품의 장르 구분 논의가 구체화·세분화 되면서 애초에는 전기문학으로 통칭되었던 〈쌍녀분〉이 1970년대 이후로는 수이전체 문학의 장르 속에서 논의되며 그 대표적 위치를 가지게 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때 북한의 연구는 수이전체 문학의 특징으로 구전 설화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보다 인물 형상이 구체화되며, 환상적 수법과 낭만주의적 색채가 드러나는 점을 주목하여 〈쌍녀분〉의 장르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수이전체 문학의 환상성과 낭만성 이면에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현실의 부정적인 문제와 작가의 비판정신을 관련지으면서, 수이전체 문학의 진보적·발전적 성격을 조명하고 있다. 즉 〈쌍녀분〉을 작가의 현실적 입장과 미학적 이상까지 반영되어 있는 예술적 산문으로 바라보며, 문학사적 맥락에서 수이전체 문학과 소설문학의 발전을 관련지어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

3.2. 9세기 말 10세기 초 최치원의 작품

북한의 문학사 연구에서는 〈쌍녀분〉의 작자를 말하면서 작품이 수록된 『수이전』의 작자 규명에 대한 논증을 앞세워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이전』 작자 규정에 있어 가능한 경우의 여러 작자에 대해 설명한 뒤 공통적으로 최치원 원작자설을 단정하고 있다. 한편 작자에 대한 논의는 ①과 ②에서만 이루어지고 이후의 논의에서는 재거론 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 ①과 ②의 결론이 ③과 ④의 시점에서는 기초적인 작품배경이 되어 이후 〈쌍녀분〉 논

의에서 정설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①에서는 『신라수이전』의 작자 미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각 관련 자료에서 언급되는 여러 작자의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신라수이전』의 작자에 대하여 권문해는 『대동운부군옥』에서 최치원의 저작으로 밝히고 있으며, 각훈은 『해동고승전』에서 박인량의 작품을 인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최치원과 박인량이라는 두 작가가 동시에 『수이전』의 작가 후보 위치에 놓이게 되어 작자미상에 있어 논의의 쟁점을 야기한다. 그런데 ①의 집필자는 박인량의 학문적·문학적 위치를 강조하며, 그 이유를 들어 그가 최치원이 저작한 『신라수이전』을 정리·증보한 것이리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신라 수이전』의 작자에 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권문해(權文海)의 『대동 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은 이를 최치원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은 박인량(朴寅亮)의 수이전을 인용하고 있다.

박인량도 이규보(李奎報)가 최치원, 박인범(朴仁範)과 함께 비로소 시인으로서의 성가를 해외에 떨친 사람들의 하나로 손꼽고 있는만치 고려초기의 우수한 시인이다. 『태평통재(太平通載)』 기타에 전재되어 있는 여러 편의 수이전의 작품들은, 기실 최치원의 수이전을 박인량이 정리증보한 것인 지도 모른다. -①⁸⁾

그 다음으로는 최치원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져 있는 점과 최치원의 개인적인 삶의 경력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작품의 서술, 7언의 장가가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현적 특징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이전』의 〈쌍녀분〉은 최치원이 창작한 전기적 작품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85-89쪽.

『대동 운부군옥』 권 15의 「선녀홍대(仙女紅袋)」는 『태평통재』 권 68의 「최치원」(이 항목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볼 때, 우리는 「쌍녀분」이라고 부른다)의 경계를 기록한 것인바, 양자는 모두 최치원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태평통재』는 이야기의 전후에 최치원의 약력까지 첨부하여 쌍녀분 사건을 중심으로 한 최치원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추측컨대 처음 최치원이 일인칭으로 쓴 전기적(傳奇的) 작품을 뒤에 전기체(傳奇體)로 증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하간 「쌍녀분」은 최치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주인공들이 시로써 문답하며 마지막에 가서 사건의 경과와 주인공의 감회를 노래한 주인공의 창작으로 된 7언의 「장가(長歌)」를 들고 있는 그 특이한 형식으로써 다른 수이전 작품들과 구별되며 그 장가가 율수현 남쪽 경계의 초현관(招賢館) 앞 언덕에 있었던 '쌍녀분'이란 고층을 방문한 최치원의 실제 경력과 무관계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또 최치원 자신이 아니면 그런 장가를 창작하기 곤란할 것도 명확하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우리는 『태평통재』의 「최치원」의 전후 부분 즉 최치원의 약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체로 최치원의 원작이 거의 훼손 또는 개변되지 않은 채 전하는 최치원의 창작으로 단정하고 이것을 「쌍녀분」이라고 부른다. ①⁹⁾

그리고 ①은 〈쌍녀분〉이 『수이전』 계열의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다고 하며 〈쌍녀분〉의 작자인 최치원이 『수이전』의 전체 작가이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수이전』 계열의 작품이 도합 9편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남한에서 흘러져 전해내려 오는 『수이전』의 일문(逸文)들을 모아 중복되는 것을 계산하여 12편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과는 수적으로 3편의 차이가 있다.¹⁰⁾ ①의 마지막에서는 ‘두 개의 수이전’은 『고본수이전』 또는 『신라수이전』으로 일컬어져 오는 최치원의 통일신라 시대 『수이전』과 박인량의 고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85-89쪽.

10) 12편에 해당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阿道傳 ② 圓光法師傳 ③ 寶開 ④ 崔致遠(쌍녀분) ⑤ 延鳥朗細鳥女 ⑥ 脱解 ⑦ 花王 ⑧ 竹筒美女 ⑨ 老翁化狗 ⑩ 首挿石柁 ⑪ 虎願 ⑫ 心火繞塔

시대 『수이전』에 해당한다는 점, 수록된 〈쌍녀분〉을 제외한 『수이전』의 나머지 작품들이 대부분 설화장르에 속한다는 점, 전승설화를 문자로 고착한 작품이 인멸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쌍녀분〉의 최치원 작자설을 단정하고 있다.

「쌍녀분」은 다른 「수이전」 계열의 작품들과 구별된다. 「수이전」 계열의 작품은 도합 9편에 달하는바 「쌍녀분」 이외의 작품들은 최치원의 창작으로 인정될 수 없다. 두 개의 수이전이 있는 사실도 그 이유의 하나로 되려니와 작품의 대부분이 일종의 설화들에 속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

문자로 설화가 전승되는 경우라도 설화를 처음으로 고착시킨 사람은 다만 그가 고착시킨 그 작품의 작가일 뿐이다. 그가 고착시킨 작품이 인멸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작품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은 계승자의 작품이다. -①¹¹⁾

이후 ②의 논의에서는 ①에서와 같이 여러 근거를 들어서 최치원이 〈쌍녀분〉의 작자임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후의 여러 문헌들에서도 기록되어 전하는 바 〈쌍녀분〉이 오랜 시간 널리 전승되었으며 그러는 와중에 여러 본의 변종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은 「삼국유사」, 「증보문헌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문헌들에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며 이 과정에 이러저러하게 보충 윤색되고 여러 가지 변종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 작품의 창작에 대하여 최치원이라는 설도 있고 고려 초기의 박인량이라는 설로 있으나 작품의 사상 예술적 특성과 여러 문헌 자료들을 비교 고증하여 볼 때 그 원작은 9세기 말~10세기 초에 활동한 최치원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②¹²⁾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85-89쪽.

①과 ②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쌍녀분〉 작자 및 창작시기에 관한 북한의 문학사 연구의 입장은 최치원 설과 박인량 설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료적·문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최치원 작자설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창작시기 또한 최치원이 창작한 것으로 규명함으로써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의 통일신라시대로 소급하여 제시한다.

이후 ③과 ④의 논의에서 이 부분이 더 이상 계속적인 연구대상으로서 논의 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초적인 작품설명으로 제공될 뿐이다.

「두 여자의 무덤」은 9세기에 활동한 최치원에 의하여 씌어졌다. 작품에는 율수 현위로 있는 최공과 옛 무덤의 주인공들인 팔랑과 구랑이 등장한다. -③¹³⁾

이러한 점과 다른 연구논문으로의 검증 분석 시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한의 〈쌍녀분〉 연구에서는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신라시대의 최치원이 창작한 작품으로 규정화 되어 그것이 문학연구의 상식선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가부장적 봉건 윤리도덕에 대한 비판

본격적인 작품해석에 들어가면서 북한 문학사는 〈쌍녀분〉의 작품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쌍녀분〉을 작중 화자의 섬세한 감성과 두 여자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상황과 연결하여 현실을 고발하거나 및 비판하는 반봉건적인 주제적 측면을

1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108쪽.

13)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전지, 1995), 119쪽.

강조한다.

①에서는 〈쌍녀분〉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인간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옹호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세기적 이데올로기의 구속을 들고 있다. 그리고 팔랑과 구랑의 죽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에 항변하는 행위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한 짝을 만나고자 했던 염원이 작품 속에서 귀신이 되어 좋은 짝, 최치원을 만나면서 환상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작품을 꿰뚫고 있는 기본 빠포스(파토스)¹⁴⁾는 인간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온갖 중세기적 이데올로기의 구속으로부터 옹호하려는 고상한 인도주의적 사상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내와의 결혼에 죽음으로써 항변한 두 처녀의 '넋'이 주인공을 만나 비로소 풀리는 경위는 그들의 진실한 염원이 환상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 ①¹⁵⁾

다음으로 ②에서는 〈쌍녀분〉에 대한 설명에서 ①에서의 제시한 중세기의 이데올로기적 구속이라는 논의 맥락을 이어나가 가부장적인 봉건 윤리 도덕의 부당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봉건적 윤리 도덕에 대해 개성의 자유를 구속하고 개인에게 비극적 운명을 강요한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과 동일한 시각으로 작품의 주제의식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팔랑과 구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압적 결혼이 ①에서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였음이 문제가 되는 반면에 ②에서는 재물에 눈이 먼 아버지가 두 딸의 의사에 관계없이 치부(致富)를 기대하고 장사치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을 강행한다는 점이 문제

14) 빠포스 [(러시아어)pafos] - [명사]〈문학, 북한어〉 작품 전반에 일관되어 있는 열정.(각주 필자 보완)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85-89쪽.

시 되고 있다. 그리고 봉건사회에서 2중3중으로 예측되어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여성들을 비극적 운명의 체현자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가치를 작품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다.

작품은 이처럼 한 지방 관료인 최공과 이미 죽은 두 여자의 기이한 상봉,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불행과 비극적 운명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봉건 도덕의 부당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팔랑과 구랑은 원래 이 지방의 큰 부호인 장씨의 딸들이었다. 치부욕에 눈이 어두운 장씨는 두 딸을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돈 많은 장사치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다. 소금장수와 차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된 팔랑과 구랑은 아버지의 강압에 불만을 품고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결국 팔랑과 구랑은 꽃다운 청춘을 피우지 못하고 쓸쓸한 별관에 자리잡은 무덤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작품에서 팔랑과 구랑은 가부장적인 봉건 윤리 도덕의 희생물로, 봉건사회에서 2중, 3중으로 예측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여성들의 비극적 운명의 체현자로 그려지고 있다. 유교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봉건 도덕은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여 여자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봉건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생활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자와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름 없는 두 여자의 무덤, 비극적 운명의 체현자들인 팔랑과 구랑의 무덤은 이러한 봉건적 윤리 도덕의 불합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작품은 기구한 운명의 당사자들인 팔랑과 구랑의 형상을 통하여 개성의 자유로운 발육을 억제하는 봉건 윤리 도덕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것과 함께 중세지적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 ②¹⁶⁾

③에서는 ②에서 제시된 봉건 도덕의 문제성을 유교 도덕과 낡은 생활인습이라는 문제로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쌍녀분>의 내용 속에는 유교

1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108~109쪽.

도덕에서의 부교를 어기고 아버지가 택한 혼사를 죽음으로 반대한 두 자매의 죽음에는 불만과 원한이 품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의 논의를 이어 봉건 유교 도덕의 고루한 규범 강요 속에서 여성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당했음을 지적한다. 한편 팔랑과 구랑의 기구하고도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봉건적 유교 도덕 때문에 어떻게 고통받고, 또 대항해 왔는지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③에서는 〈쌍녀분〉은 유교가 전파되어 봉건적 강요가 시작되던 당시의 상황과 문제인식이 반영되어 창작된 작품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작품은 옛 무덤의 주인공들인 팔랑과 구랑의 기구한 운명을 보여준다. 그들의 아버지 장씨는 그 지방의 부호로서 두 딸이 나이 들었을 때 혼처를 각각 소금 장사와 차 장사한테 정하였다. 그러나 팔랑과 구랑은 유교 도덕에서 '부교'를 어기고 아버지가 택한 혼처를 반대하며 끝끝내 불만과 원한을 품은 채 무덤의 주인공들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두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시기 유교 도덕과 낡은 생활 인습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 인간들은 유교 도덕 관념을 어떻게 반대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봉건 통치배들은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유교 교리를 설교하며 그에 대한 신봉을 강요하면서 인민들을 봉건 도덕의 고루한 규범에 얽매어 놓으려고 하였다. 봉건 유교 도덕의 강요로 인하여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으며, 그 어떠한 올바른 의견도 제기할 수 없었다. 더우기 봉건 사회에서 여성들은 유교 도덕의 소위 '부도'·'삼종지도' 등으로 말미암아 2중 3중의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낡은 사회의 병집으로 인하여 여인들은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봉건 유교 도덕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고유하고 아름다운 도덕적 품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이전체 작품인 「두 여자의 무덤」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유교의 전파로 인민들이 봉건적인 질곡에 얽매이기 시작한 시기에 창작된 것이다. -③¹⁷⁾

또한 ③은 <쌍녀분>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왜곡하거나 이상화하여 묘사했던 보수적 문학과 다르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벗어나려는 지향성을 심도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가치를 두고 있다. 한편 봉건 유교 도덕에 대한 비판정신이 작품의 주된 사상주제적 기조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민들의 형상 창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한계적 측면도 함께 고찰하고 있다.

수이전체 작품 「두 여자의 무덤」은 이 시기 진보적 산문 문학이 도달한 사상 예술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사상 예술적 특성을 첫째로 이 시기 사회 현실이 제기한 기본 문제의 하나인 봉건 유교 도덕의 질곡에 대한 비판 정신에 기초하여 당대 현실을 반영한 데 있다. 우리 나라의 고전 문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급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수이전체 작품 「두 여자의 무덤」은 아직 봉건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민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봉건 사회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이상화하여 묘사하는 보수적인 문학 경향과는 달리 현실을 비판적 입장에서 묘사하면서 봉건 유교 도덕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향을 비교적 심도있게 반영하고 있다. 수이전체 작품인 「두 여자의 무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 주제적 경향과 현실의 예술적 반영에서의 비판적 입장은 후기 문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③¹⁸⁾

④ 또한 앞선 논의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①②③의 논지를 수용하며 팔랑과 구랑을 봉건적인 윤리도덕의 희생물이 된 비극적 운명의 체현자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봉건적 윤리도덕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며 땅속에 묻힌 두 여인은 당대

17)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19~120쪽.

18)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19~120쪽.

여성들의 불행한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풀어내고 있다.

작품에서 팔랑과 구랑은 가부장적인 봉건윤리도덕의 희생물로, 봉건사회에서 2중3중으로 예측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여성들의 비극적운명의 체현자로 그려지고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름 없는 두 여자의 무덤, 거칠은 땅속에 주인없이 묻힌 비극적운명의 체험자들인 팔랑과 구랑의 처지는 이러한 봉건적윤리도덕의 불합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작품은 기구한 운명의 당사자들인 팔랑과 구랑의 형상을 통하여 야속한 세상에서 속절없이 시들고있는 여성들의 불행한 처지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개성의 자유로운 발양과 생활의 아름다운 리상을 무지하게 짓밟고 억제하는 봉건도덕과 윤리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중세기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생활적지향도 반영하고 있다. - ④¹⁹⁾

①②③④의 서술에 나타난 주제 및 내용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문학연구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이상, 민족의 고유한 품성을 침해하는 봉건적 윤리 도덕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녀분>의 주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3.4. 인물 창조와 내면 묘사의 문학적 형상화

북한 문학사는 먼저 <쌍녀분>의 인물 형상이 구전설화의 캐릭터 보다 구체화됨을 지적하며 섬세한 여성적 형상화 방법이나 세련된 묘사를 들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있다. 이어 <쌍녀분>의 소설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작품의 서술이 지문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을 들어 산문 발전과정의 초기작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279~283쪽.

①의 기술에서 작품의 형상화와 문학적 예술성을 논하는 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비해 ②와 ④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작품 속의 팔랑과 구랑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④는 ②와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시대적으로는 제일 최근의 것이지만 ②와 같이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팔랑과 구랑은 당대 사회의 가장 천대받고 압박받는 근로 여성의 형상으로는 그려지지 못하였다. 작품은 또한 봉건 관료인 최공을 학식있고 시와 문장에 밝으며 인정이 깊고 고상한 도덕적 품모를 가진 '이상적 인물'로 내세우고 그로 하여금 팔랑과 구랑의 평생 소원을 실현시켜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배계급 출신의 선비였던 작가의 계급적 입장과 사상 미학적 이상의 예술적 구현이다. 그러나 「두 여자의 무덤」은 주제 사상에서 뿐 아니라 형상 창조와 예술적 묘사에서도 이전 시기의 산문 작품에 비형 새로운 경지에 이르고 있다. - ②²⁰⁾

그러나 작품에서 팔랑과 구랑은 가장 천대받고 억압당하는 근로녀성의 형상으로 그려지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리상과 꿈도 부유층의 생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작품은 봉건관료인 최공을 학식있고 시와 문장에 밝은 <리상적인 인물>로 내세우고있으며 이 <리상적인 인물>의 이른바 고상한 도량과 인품에 의하여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팔랑과 구랑의 원망과 평생에 간직하였던 소원이 실현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④²¹⁾

②와 ④에서는 논의의 맥락을 따라 팔랑과 구랑은 반봉건 윤리도덕에 항거하다 희생된 비극적인 여성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가장 천대받고 억압당한 근로 여성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형상화에 있어 한계성을 가진다고 한다. 즉, 팔랑과 구랑은 부유한 계층의 인물이며 최치원도 관료

2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108~109쪽.

21)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279~283쪽.

라는 고위계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짝이 된 인물상 또한 고상한 학식과 귀족의 품위를 가진 이상적 인물로 내세워지고 있다는 점 등이 〈쌍녀분〉이 가지는 작품 형상화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형상 창조의 예술적 묘사에 있어서 이전 시기의 설화 작품들에 비해 새로운 수법으로 표현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환경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 등장 인물들의 외형 묘사와 내면 묘사의 세밀성 등이 그 새로운 측면의 하나이다. 더욱이 작품 전개에 있어서는 서사적 묘사에 곁들여 서정시들을 적절하게 배합한 독특한 수법을 취하고 있다. 서정시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성격적 특질을 부각시키고 사건전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며 〈쌍녀분〉의 예술성을 고양시킨다. 즉 ②에서는 〈쌍녀분〉의 예술적 형상의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도 예술적 산문의 초기 형태로서 결과적으로 중세 소설의 발생과 발전을 촉진하는 밑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여자의 무덤」은 주제 사상에서 뿐 아니라 형상 창조와 예술적 묘사에서도 이전 시기의 산문 작품에 비형 새로운 경지에 이르고 있다.

작품에서는 환경 묘사가 비교적 생동하고 진실하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등장 인물들의 외형 묘사와 함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도 일정하게 시도되고 있다. 작품은 형상 창조에서 서사적 묘사와 서정시들을 적절하게 배합한 독특한 수법을 취하고 있는데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 서정시들은 등장 인물들의 성격적 특질을 부각시키고 사건 전개를 위한 계기들을 지어주며 주제 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데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시기 수이전체 문학의 창작 성과와 경험들은 중세 소설의 발생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 되었다. 7세기 후반기~9세기에 출현한 예술적 산문 형식의 작품들은 그 발생 초기에 있었던 것만큼 아직 많이 창작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형상 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다. 그러나 현실을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반영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새로운 예술적 산문이 출현한 것은 이 시기 문학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서 중세 문학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②²²⁾

위와 같이 ②의 논의는 〈쌍녀분〉이 수이전체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과 연결하여 형상화 수법의 새로운 면을 조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③의 서술이다. ③은 가부장적 봉건 윤리 도덕의 강요에 의해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질곡이 팔랑과 구랑의 삶으로 형상화되었으며 오랫동안 묻혀 있는 두 남자는 봉건 유교 도덕의 무거운 병집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대 인민들의 진보적 사상과 염원이 두 남자가 환생하여 뜻을 이루는 환상적인 문학적 계기로 귀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듯 ③은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나아가 진보적 문학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들어 〈쌍녀분〉에 나타나는 팔랑과 구랑의 인물 창조에 깃든 주제적 측면을 연결하고 그 문학적 형상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작품은 재산에 눈이 어두운 부호인 아버지의 강요에 의하여 불만과 원한을 품고 가부장적 봉건 윤리 도덕의 희생자로 된 두 여인의 형상을 창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묻혀 있는 팔랑과 구랑은 이러한 봉건 유교 도덕의 무거운 질곡과 병집의 상징이며, 그들이 환상적인 계기에 의하여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여 뜻을 이루는 것은 봉건 도덕의 질곡과 봉건 사회의 병집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염원과 당대 진보적 문학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 주제가 가지는 진보적 의의가 있으며 두 여인의 형상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 ③²³⁾

2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108~109쪽.

23)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19~120쪽.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은 수이전체 문학 이전의 산문 창작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었던 ‘초상묘사’, ‘행동묘사’ 등과 같은 외형적 묘사만으로는 불가능한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듯 복잡하면서도 의미 있는 인물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쌍녀분〉에서는 외형 묘사와 함께 체험과 정서, 내면세계와 같은 이면 묘사 수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③은 〈쌍녀분〉의 형상화 수법의 예술성이 〈화왕계〉(꽃왕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에도 유의미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는 산문 문학의 현실 반영적 기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예술적 산문의 시초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쌍녀분〉의 문학적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것이다.

둘째, 「두 여자의 무덤」의 사상 예술적 특성은 산문 문학에서의 형상 창조의 원칙을 초보적이거나 구현함으로써 산문 문학의 현실 반영의 기능을 제고시킨 동시에 예술적 산문의 시초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 있다. 이 작품은 형상 창조에서 선행 시기 예술적 산문들 「꽃왕이야기」에 비해 볼 때에 일정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봉건적 유교 도덕의 질곡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품고 있는 팔랑과 구랑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많은 힘을 돌리고 있다.

작가는 두 여인의 이러한 지향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결한 품성을 강조하여 보여주며, 다른 편으로는 그들과 아버지 및 최공과의 관계를 비교적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두 여인의 원한 많은 운명을 통하여 그들의 정당한 지향을 짓밟아 버린 봉건 유교 도덕의 질곡에 대한 비교적 힘있는 비판을 시도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기이한 환생을 통하여 그 지향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의의 있는 팔랑과 구랑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선행 산문 창작에서 많이 이용된 초상 묘사라든가 행동 묘사만으로는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외형 묘사와 함께 그들의 체험·정서·내면 세계를 보여주면서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 ③²⁴⁾

24)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전지, 1995), 119~120쪽.

이렇듯 ‘수이전체’ 작품인 〈쌍녀분〉의 예술적 산문으로서의 성과는 ‘창작 우화’인 〈화왕계〉(꽃왕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 진보적 산문 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 두 작품은 김시습의 소설 창작, 임제의 우화 소설 창작에 직접적인 창작 경험을 넘겨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 시기 예술적 산문 작품들이 이룩한 성과는 극히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이전체’ 작품인 「두 여자의 무덤」은 창작 우화 「꽃왕이야기」와 함께 우리 나라 진보적 산문 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작품들을 계기로 우리 나라 진보적 산문 문학은 봉건 사회 현실의 예술적 반영의 기능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창작적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이 시기 우화 문학과 수이전체 문학은 후기 김시습의 소설 창작과 임제의 우화 소설의 창작 등 중세기 고전 소설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창작적 경험을 넘겨 주었다.- ③²⁵⁾

이상의 서술에 나타난 인물 창조와 내면 묘사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문학연구에서는 〈쌍녀분〉에 나타난 현실 반영적 형상화 수법을 주목하여 대표적인 수이전체 문학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후대 소설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준 초기 예술적 산문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큰 의의를 두고 있다.

3.5. 최치원에 대한 작가론적 논의

이어 작자인 최치원에 대해서도 작가론적 비평을 하고 있는데 인민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들어 최치원의 작가적 한계를 비평하기도 한다. 한편 계급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

25)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19~120쪽.

호하였음을 주목하여 뛰어난 소양을 가진 진보적 지식인, 사실주의적 시정신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조망하고 있다.

①에서는 작품 속에서의 최치원과 현실 속에서의 최치원 사이 관계를 허구적 인물과 실재적 인물간의 구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두 남자와의 하룻밤 인연을 잊지 못하면서도 한편 그것에 연연하는 자기 심정을 채찍질 하는 것이 일견 모순적 형상화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어 이것은 사랑과 연민의 감정에 휩싸인 주인공 최치원과 청운의 뜻을 품고 타지에서 유학하는 하는 청년 최치원 사이의 모순적 갈등이 작품에 드러난 것이라 한다. 또 인간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옹호하는 작가 최치원과 고루한 유학자들의 번거로운 시비를 차단하려는 유학자 최치원의 고충과의 모순도 덧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 고충은 작가 최치원의 문학정신의 불철저성과 관련되어 있다며 작가의 문학적 세계관에 대한 한계점을 시사한다.

주인공이 하루 밤의 사랑을 못내 잊지 못하면서도 ‘요망한 여우에 연연하는’ 자기 심정에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일견 모순인 것 같으나 이것은 작품의 기본 뼈포스의 구현자로서의 주인공 최치원과 ‘청운의 뜻을 품고 남의 나라에 유학 온 청년 최치원과의 모순이며 또 인간 개성의 자유분방한 발현을 옹호하는 작가 최치원과 고루한 유학자들의 번거로운 시비를 봉쇄하려는 유학자 최치원의 고충과의 모순이다. 이 경우에 그 고충이 그의 문학 정신의 불철저성과 관련하여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 ①²⁶⁾

이에 이어서 ③은 팔랑과 구랑의 인물 형상이 근로 인민의 형상에 가깝지 않음을 근거로 들며, 두 남자의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제시된 작품 속 최치원 또한 봉건적 지식과 교양에 젖은 청년 관료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85-89쪽.

점에서 두 주인공 인물형상을 극도로 이상화 시킨 작가 최치원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계급적 한계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때 작품 속 최공은 작가 최치원이 자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인물상임을 지적하는데 이로써 실재 작가의 계급적 입장과 작품 속의 인물의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형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견해를 옳게 평가해야 한다. 작품에서 두 여자는 근로하는 인민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작가는 두 여인과 젊은 봉건 유생 출신인 지방 관료 최공과의 애정 관계를 설정하고, 두 여인이 그에게서 이상적인 대상을 찾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최공을 이상적인 인물로 보게 되는 이유는 그가 '심오한 이치'를 체득하고 있으며, 문장과 시에 능하고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공은 결국 봉건적인 문화와 지식으로 교양된 봉건 지식 청년 관료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최공과 두 여자를 극도로 이상화한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을 명백히 찾아보게 되며 동시에 최공이야말로 작가 자신의 예술적 구현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등장 인물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같은 진보적 측면과 제한성을 계급적 입장에서 정확히 평가 분석해야 한다.- ③²⁷⁾

이렇듯 앞선 논의에서는 주로 작가 최치원의 한계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논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④에서는 인물형상화의 제한성 너머에 있는 작가 의식의 진보적 측면을 부각한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그려낸 점, 팔랑과 구랑을 그것에의 희생적 인물형상으로 창조한 것, 또한 그들과 애정결연을 맺는 부분 등을 들어 비극적 운명 체현자들을 통정하는 작가 최치원의 사상미학적 이상이 구현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최치원의 전체적인 사상적 기조는 진보적인 측면

27)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19~120쪽.

이 보다 우세함을 들어 실재 작가의 세계관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과 제기한 문제의 이러한 예술적해명은 물론 지배계급출신의 선비였던 작가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는 제한성이라고 할수 있다. 동시에 여기에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부정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대하며 이 불합리한 현실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비극적운명의 체현자들을 통정하는 그의 사상미학적리상이 주도적으로 구현되어있는것 만큼 전체적인 사상적지향에서는 진보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할수 있다. - ④²⁸⁾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북한의 문학 연구에서 작가 최치원에 대한 평가는 지배계급 출신의 관료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작가적 계급의식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작품 속 인물형상 창조와 문제의식에도 한계점을 남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인물의 형상화와 애정결연 서사를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극적 운명의 인물에게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가졌던 작가 최치원의 사상미학적 이상을 들어 세계관의 진보적인 지향성을 들춰내고 있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남한의 연구사적 흐름을 정리하기에 앞서 이상에서 살펴 본 북한의 <쌍녀분>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학자들은 <쌍녀분>에 대하여 수이전체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그 장르적 성격을 규정하였고,

28)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279~283쪽.

작자와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9세기 말 10세기 초에 활동한 최치원에 의해 씌어졌다고 단정하였다. 이어 가부장적 봉건 윤리도덕이 팽배한 현실상황에 대한 비판정신과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성으로 작품의 주제를 찾았다. 그리고 수이전체 산문의 대표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이전 시기의 설화 작품들에 비하여 외형묘사의 생동성과 내면 묘사의 세밀성, 상징적 인물창조, 서정시를 통한 서사적 묘사 등이 〈쌍녀분〉의 문학적 형상화 수준과 예술성을 고양시킨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작가 최치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계급의식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도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희생된 비극적 인물을 통정하였던 사상미학적 이상의 진보적 지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렇듯 작품의 장르구분, 작자 및 창작시기 규정, 작품의 외·내면적 해석, 작가론적 논의에 해당되는 기존 학계의 거시적 연구 방향이 최근의 개별 논문으로 재조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쌍녀분〉에 대한 시각은 공통적인 견해로 수렴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남한 문학사에서 〈쌍녀분〉 연구는 우리문학사의 초기 소설사 정립문제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는 문제적 작품으로 대두하여 아직도 그 논의의 끝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쌍녀분〉에 대한 남한 학계의 입장은 장르적 성격, 소설기점사 문제, 작자 및 창작시기 규정, 작품 형상화 및 인물 해석, 비교문학적 고찰과 전고 수용양상, 작가의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적, 양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왔다. 예를 들어 작품의 장르를 수이전체 문학이라고 규정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나는 북한의 주체문학성과 비교하여 볼 때, 남한은 당대 중국의 전, 전기, 지괴 등으로부터의 여러 문학적 영향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흐름 속에서 〈쌍녀분〉의 문학적 위상을 주목한다. 또 작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작품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치원이나 작자로 표기되었던 박인량, 그리고 나말여초 전기소설의 창작과 유통과정 속에서 제3의 새로운 인물인 최광유를 거론하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작품의 창작시기도

달라지는데, 거론된 문인들이 활동했던 나말여초나 고려 말, 또 조선 초에 쌍녀분 설화 및 최치원 관련 설화들이 조선시대 미상의 소설작가를 통해 다시 창작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의견 등으로 세분된다.

이렇듯 〈쌍녀분〉에 대한 남한 문학연구의 내용은 여러 시각으로 산개되어 있는데다가 한 작품의 여러 문학적 의미에 대해 심오하고 섬세하게 고찰되어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한 북한의 〈쌍녀분〉 연구에 대응시켜 비교하기에는 여러 층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더러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논의해 왔던 북한의 연구 주조와 비견되는 남한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방향의 큰 맥락을 훑어보기로 한다.

4.1. 나말여초 전기의 소설 기원에 대한 고찰

먼저 〈쌍녀분〉에 대한 서사문학사적 위상 정립에 있어 그 장르적 성격이 주된 논의가 된 소설사기점의 논쟁이 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설과 같은 설화가 기록된 작품으로 보는 견해, 설화와는 다른 별도의 수이전체 문학으로 구별하는 견해, 신라 말에 발생한 대표적 전기소설(傳奇小說)로 이를 나말여초 소설사 기점의 대표적 초기 소설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상치되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수이전』을 구비전승으로 전해져 오던 설화가 기록된 일종의 전설집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이때의 서사문학사의 발전경로는 설화에서 소설로의 이행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로써 초기소설사의 기점을 나누는 작품은 『금오신화』가 되고 시기는 15세기 무렵이 된다.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은 〈쌍녀분〉의 주인공이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고, 이와 관계된 이야기가 서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환상적이고 기이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수이전』 편찬자의 문학적 수식을 통해 한문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었

다는 설명을 보태고 있다.²⁹⁾

두 번째 견해는 <쌍녀분>을 전기소설(傳奇小說)로 보고 나말여초의 소설사를 여는 기점으로서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입장이다.³⁰⁾ 이

29) 이러한 논지의 대표적 학자로 김태준, 조동일 등이 있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雜編과 殊異傳의 내용은 고대 조선인의 소박한 환상과 神異怪奇한 傳說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古代傳說集이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며 『수이전』을 고대전설집으로, 일문 속에 남아 전승되는 <쌍녀분>을 전설과 같은 설화양식의 장르로 규정하였다.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30쪽.)

그리고 조동일은 자신의 장르이론에 기초하여 <쌍녀분>을 전설(傳說)로 파악했다. 그의 문학 갈래를 따르면 전설은 자아와 세계가 세계의 우위에 입각해서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소설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와 세계에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쌍녀분>을 명혼전설(冥婚傳說)이라 하고, 이를 거쳐 후대의 명혼소설(冥婚小說)이 발전한 것이다. 명혼전설과 명혼소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명혼전설은 작품외적 세계를 증거물로 이용하고 자아에 대한 세계의 우위에 입각하여 전개되지만 명혼소설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에 의거하지 않고 세계의 일방적 우위를 거부하면서 전개된다. 여기서 <쌍녀분>은 최치원이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인물인 최치원이 지니는 증거력에 의해 이야기가 이해되도록 최치원에 관한 사실이 서두와 결미에 첨부되어 있다는 점, 쌍녀분에 가서 호기심으로 시를 써 놓음으로써 뜻하지 않던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명혼전설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37~226쪽.) 한편 조동일은 이후 『한국문학통사』에서 명혼전설로 보던 견해를 수정하였는데 신라 말기 ‘전기(傳奇)’라는 새로운 문학갈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김현감호>, <조신이야기>과 함께 『수이전』의 <쌍녀분>을 들고 있다. 구비전승 되던 설화가 기록됨에 있어 그대로 옮겨 적는 자료보고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 개인의 문장력과 취향에 따라 작품 창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전기’를 “문학적 수식을 의도적으로 가미해 글로 정착시킨 설화”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전기’는 문학적 수식 때문에 설화의 단순한 정작과 구별되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양상은 설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소설과는 다른 점에서 새로운 문학사적 위치를 가진다. 그리고 당나라에서나 신라에서나 전기는 소설로의 선행 형태로서 공통적인 구실을 했지만 신라의 그것은 편린만이 남아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요컨대 <쌍녀분>은 “신라말쯤에 생겨나 고려에 들어와서도 계속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전기의 좋은 본보기”로서 『삼국유사』에 있는 <조신(調信)>보다 “수법이 더욱 능란”한 “문학적 수식”이 보태진 작품이지만 김시습의 소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제4판), 지식산업사, 2005, 225-226, 371쪽.)

30) 이러한 견해의 논자로는 지준모, 조수학, 임형택, 이현홍, 김종철, 박희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쌍녀분>의 전기소설적 특징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연구사적으로 여러 번 검토되어 왔다. 소설사의 기점을 나누는 효시가 되는 작품으로 『수이전』일문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인데 조수학은 唐代 艷情類 傳奇小說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선굴>과 <쌍

에 전기(傳奇)라는 장르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며 전기를 소설(小說)의 하위유형 장르로 여겨 전기소설(傳奇小說)이라 지칭한다.³¹⁾ 그리고 〈쌍녀분〉을 『수이전』의 여러 지괴(志怪)류 작품들과 다른 전기소설로 보고 설화 장르³²⁾ 및 소설 『금오신화』³³⁾ 등을 대비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았다.

녀분)을 비교하여 비슷한 서사구조와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또 한편으로는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 〈쌍녀분〉을 비교하면서 서사적 구성과 소설적 면모를 새롭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수학, 「최치원전의 소설성」, 『영남어문학』2, 영남어문학회, 1975.)

- 31) 지준모는 『금오신화』가 나온 조선시대에서 〈조신전〉등 전기소설이 창작된 나말여초시대로 한국 전기소설의 시원을 서서 787년에서 880년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서 지준모는 전기의 서사적 조건으로 6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풀 六朝의 志異작품은 귀신이나 인간의 이야기를 간단히 묘사한데 반하여, 전기는 작가의 의식적 창작으로 다방의 문학적 기교가 발휘되어 있다. ② 전기는 이미 인간의 현실적 사회생활의 범위로 진보된 것이다. 혹 신선이나 귀신에 의탁한 애정문제도 실지는 자유연애사상의 변형일 뿐이다. ③ 인물은 소박한 농민이 아니고 상업발전에 따르는 일반 소시민형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상인·무뢰한·강도·기녀·시정배 등이다. ④ 상업사회의 소시민계층에서 대두하는 개인주의는 작품 속의 인물을 개성적인 것으로 한다. 곧 개인생활을 묘사한다. ⑤ 사건 속에서 인물의 활동은 팝진하여 독자의 공감을 강력하게 환기한다. ⑥ 단순한 消遣이 목적이 아니고 작자의 창작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 『어문학』32, 한국어문학회, 1975, 131쪽.)

정학성은 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傳奇)는 사대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창작물로서 전아미려한 文言文(漢古文)으로 씌어졌고 단편적 형식을 이루고 있는 서사체이다. 둘째, 작품 내용에서는 주로 봉건사회 속의 사대부 혹은 귀족계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작중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전개되는 사건의 구성이나 묘사에 있어 神異 즉 비현실적·환상적 요소나 낭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이에 예술적 허구가 가미된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 열전들이 단순한 설화의 체류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재창작된 『수이전』류의 새로운 개편이며, 『신라 수이전』이 김척명, 박인량 등에 의해 계속 운문, 개작되어 왔다는 것, 또 전기소설의 형태가 완비된 〈쌍녀분〉의 존재를 결합하여 나말여초의 전기발생설을 한국소설의 출발점을 5세기 가량 앞당길 수 있는 검토과제로서 신중하게 조명하였다. (정학성,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253-256쪽.)

- 32) 임형택은 『금오신화』로부터 소설의 출발을 잡아야 할 이유와 그것을 정설로 굳혀둘 이유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전기(傳奇)와 『금오신화』 사이의 양식상의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화와 소설 사이의 모호한 구분에서 비롯되는 개념상의 혼란에 대해 분별하기 위하여 설화와 전기소설(傳奇小說)을 구분하며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즉 설화에 비해 전기소설은 작가의 창작성 및 문식(文飾)이 가미되고, 사회현실이 보다 풍부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소설의

특히 〈쌍녀분〉만의 소설 장르로서의 본질 및 변별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는데³⁴⁾ 이를 통해 지피서사에 속하는 『수이전』 일문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전기(傳奇)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작품세계에는 불합리성과 傳説적인 神異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만,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합리성의 바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101~02쪽.)

33) 김종철은 『수이전』이 창작된 시기부터 〈홍길동전〉이 창작된 17세기 이전까지를 '傳奇小說'의 시대라고 일컬었다. 이때 『수이전』의 찬자를 박인량으로 보고 그가 활동했던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의 기간 동안에 전기소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쌍녀분〉을 비롯하여 〈조신〉과 같은 『수이전』 일문의 작품들은 설화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초기소설로 주목되어 왔던 『금오신화』의 성격과 통하는 점이 많음을 들어 논거로 삼았다. 그 까닭으로는 작품의 중심이 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증거물의 증거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비현실계의 인물과 교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역설적인 화합에 있음을 들었다. 즉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비현실계의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갈등은 『금오신화』의 방식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중 주인공 최치원은 역사적 실존 인물을 지칭하는 개별적 인물이라기보다 당대의 고독한 지식인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형상화 되었다는 점을 들어 〈쌍녀분〉의 초기 전기소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다국어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다국 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경인문화사, 1988.)

34) 〈쌍녀분〉의 소설적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논의한 학자로 먼저 이현홍을 들 수 있다. 이현홍은 〈쌍녀분〉의 플롯을 서두-발단-전개-절정-결말의 다섯 단계 구성으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과정들이 사건의 필연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 인과관계로 맺어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때 史前的 요소와 傳奇的 요소의 자연스런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雙女墳記』라는 怪奇譚을 환상적인 내부 서사로 두면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최치원을 이 서사의 앞뒤에 배치하여 서두와 결말로서의 도입역자 및 종결역자로 처리하고, 그로 인해 인과적 필연성과 함께 독자에게 그럴듯함(plausibility)의 환상에 젖어들게끔 한다고 설명한다. 즉 서두와 결말의 史前的 요소와 내부서사에의 傳奇化된 설화적 요소가 작자의 현실적 작의성과 허구적 충동, 그리고 작품내적 필연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쌍녀분〉의 전기소설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소설로서 갖춰야 할 제반적 특성으로 ①개인의 창작품이라는 점, ②역자소설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 ③현실적, 지리적, 자연적 배경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 ④詩歌가 많이 개입되며 또 그것이 분위기를 위한 단순한 서정적 장식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진행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 ⑤사건이나 행동이 生⑥의 一斷面을 다루고 있다는 점, ⑥사실 보고적 이야기가 아닌 장면적 이야기라는 점, ⑦성격묘사 및 대화가 중요시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쌍녀분〉의 空間構造 분석을 통해 史前的 요소와 傳奇的 요소가 時空의 이동과 상관관계를 맺으며 전개된다는 점, 이에 시공적 구조와 역자소설적 구조가 일치한다는 점, 시공의 이동과 최치원의 의식 변모가 인과관계로 맺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時空 배경의 이동에 따라 작품의 내용도 관련하여 변모함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연유를 바탕으로

(쌍녀분)이 소설(전기소설) 장르에 속하는 작품임을 거듭 강조하며 『금오신화』 소설기원 설에 대한 재고를 제시한다. (이헌홍, 「최치원전의 전기소설적 구조」, 『수련어문학집』9,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수련어문학회, 1982, 181~182쪽.)

또 다른 학자로 박태상은 (쌍녀분)에서 팔랑과 구랑이 강제적 결혼에 저항하는 갈등과 최치원이 신라말기 혼탁한 정치현실과 민중들의 삶의 피폐화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내적 갈등이 함께 주목한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세계가 파편화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소설로서의 장르적 측면이 찾고 있다. 이어 초기 고소설의 전형적 인물형상인 ‘문사형 인물’이 최치원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성취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주인공의 자기 실현욕구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 점, 중국전기소설을 패러디 하면서 자기비판 능력 갖추고 발전한 점, 마지막으로 설화 서술태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예언의 기법이 (만복사저포기)에서도 발견되는 것에 비해 (쌍녀분)은 예측에 의존함으로써 사실적인 서술태도를 보여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에 가깝다고 논증하였다. 한편 (쌍녀분)의 애정소설로서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액자소설의 작품구조를 지니며 애정소설의 다섯단계 패턴(만남-친밀감 형성-열정으로 진전됨-성적결합 여부-사랑의 지속 또는 단절)이 나타난다는 점, 사랑의 행태에서는 사랑의 삼각이론에 부합되는 확고한 애정소설적 양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태상, 「태평통재 소재 최치원전 연구」, 『고소설연구』1, 한국고소설연구회, 1995.)

전기소설을 ‘중세기에 형성된 최초의 소설양식’으로 보는 박희병은 한국 전기소설의 성립시기를 나말여초로 규정하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전기소설 작품으로 (쌍녀분)을 꼽고 있다. 그는 설화와 전기소설간의 차이에 대해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전기소설의 특징으로 첫째 인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서술되는 점, 둘째 ‘시간의 본질’이 성장과 변화, 형성으로 표상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작품이 종료되면서 작중 인물의 변화나 정신적 성장이 나타나는 점,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전환이 ‘내면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점으로 설명된다. 셋째, 전기소설의 주인공 대부분은 고독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문제의식이나 현실적 처지와 매개하여 문제성을 내면화하여 드러낸다. 넷째, 작품창작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주제로, 치밀한 플롯 구성으로, 인물의 개성적 浮彫로, 매개적 인물의 다양한 활용, 곡진하고 섬려한 문체 등으로 구현된다. 다섯째, 분위기를 중시하는 감각적이고 화려한 문어체의 특별한 한문체가 있다. 이는 서정적 경사와 시적응결, 압축미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문체에서도 야담계한 문단편 및 설화기록물과 명백히 구별된다. 여기서 (쌍녀분)이 전기소설인 이유가 더욱 깊게 파헤쳐 지는데 먼저 인물의 외면과 내면세계를 그림으로써 성격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든다. 또 여러 편의 시를 통해 심리상태와 마음의 결을 섬세히 드러내는데 설화에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두 여인과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최치원의 삶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삶의 전환이 야기 되는 점과 고독, 외로움, 悲恨, 적막감이 표현되는 점 또한 설화와 다른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주제의식, 일대기적 구성, 인물의 개성 부각, 시의 삽입 등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구현되는데 특히 화려하고 수식적이며 서정적인 문체는 문체면에서도 전기소설적 특징을 나타내어 준다. 이에 (쌍녀분)은 설화 장르가 아닌 대표적인 전기소설 작품에 해당한다.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여타 작품들과 다르게 〈쌍녀분〉은 소설사적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전기소설이 된다. 여기의 주된 근거로는 〈쌍녀분〉이 작가의식이 반영된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점과, 액자소설적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작중인물이 당대의 전형적 인물을 대표하면서도 개성적이고 미학적 특질을 가진다는 점, 서술에 있어 화려하고 섬세한 문체로 묘사되거나 대화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 작품의 주제에서 정신적인 변화 또는 성장의 경지가 구현된다는 점 등이 주로 주목되었다. 한편 지괴에 대한 장르개념의 정의를 다시금 명확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설화वाद, 지괴서사와도 다른 〈쌍녀분〉의 전기소설적 성격에 대해 조명하기도 하였다.³⁵⁾ 〈쌍녀분〉에는 작가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때 기존의 인식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명혼세계의 인간에 주목하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현실과 작품 속의 비현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 1992.)

35) 유정일은 지괴서사와 〈쌍녀분〉과의 변별적 거리를 확인하고, 작품의 전기소설사적 의미에 대해 살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지괴서사와 전기소설은 모두 초월적 세계를 서사화할 수 있는 같은 장르이지만 각각의 창작의도가 다르기에 충돌 없이 공존하며 시대를 담아낼 수 있었다. 이에 독자 또한 수용적인 면에서 두 장르를 모두 필요로 했다. 그리고 두 장르의 지향하는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르적 거리를 보이게 된다. 이 분기점에 〈쌍녀분〉이 놓여 있다고 하며 〈쌍녀분〉은 비현실적 세계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창작의도’에 있어 지괴서와 변별되는 자질을 가짐을 논증하였다. 전기소설인 〈쌍녀분〉은 지괴서사인 여타 『수이전』일문들과 다르게 작자의 창작의도에 의해 허구적 서사를 지향하는 문학적 지향을 가지고, 삽입시시가 유기적으로 서사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또 지괴서사에서 환상적 서사 이면에 존재하는 시대적 실재성이나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주인공의 비현실적 일화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에 비해 전기소설은 그 허구적 서사를 창조해낸 작가의 목소리와 문학적 역량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즉 전기소설의 기층 장르인 지괴서사의 장르적 성격을 벗어나 서정적 허구서사를 지향한 한국전기소설의 전범이 된 〈쌍녀분〉의 소설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서사 내에 시사가 유기적으로 삽입되고, 전기적 주인공으로 회재불우지사가 등장하는 식의 전기소설적 서사규범이 이미 〈쌍녀분〉에서 구현되었음을 부연한다. 한편, 〈쌍녀분〉이 갖는 문학적 한계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허구적 인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과 중국 전기소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비밀상적 성격의 일화가 역사인물지괴로 정착된 것과 연관하여 우리의 전기소설이 외재적 영향력에만 의존하여 성립되어 온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서사적 전통성의 맥락을 유지하며 그 속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시사하는 양면적 가치가 있다는 것에 문학사적 의의를 두고 있다. (유정일, 「《수이전》일문 〈최치원〉의 장르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어문학』87, 한국어문학회, 2005, 434-435쪽.)

실적 세계를 연결하는 점에서 지괴와는 달라진다.³⁶⁾

그러나 나말여초의 전기소설 발생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설화와 전기의 차이를 양분하여 설화가 아닌 전기를 바로 소설로 연결하는 등식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말여초 이래 15세기 이전의 서사문학사의 발전과정이 전기소설의 일변도로만 해석되는 시각에도 이의를 표한다. 특히 『금오신화』와 〈쌍녀분〉을 비교하여 과연 동일한 선상에서 동질적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말여초 이후 조선 초기까지 4, 5세기 달하는 전기소설 작품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남긴다.³⁷⁾

36) 정출현은 지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그것과 〈쌍녀분〉이 다른 지점을 중점으로 논지를 전개하며 지괴와 전기가 구분되는 지점 작품을 놓고 있다. 지괴(志怪)에 대한 남한 문학계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괴는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신(神)·선(仙)·귀(鬼)·괴(怪)·요(妖)·이(異)와 같은 신화·고사·전설을 문인지식층이 수집·가공하여 완전한 형태로 정착시킨 단형서사이다. 지괴라는 서사에는 귀신·요괴·신선이 세계 저편 아딘가에 존재하는 실체인지 아닌지, 또는 삶과 죽음의 경계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당대 지식인의 진지한 사유가 담겨 있다.” 그런데 〈쌍녀분〉에서는 이러한 지괴와는 다른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바로 작가 자신이 구축해놓은 서사 세계의 주인공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의 질적 상승, 또는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즉 단지 유명세계의 공존을 믿고 이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작품 속에 투영하여 창작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괴류 서사의 초점이 비현실 세계, 유명세계라는 외부의 거대한 ‘세계’ 그 자체에 맞추어지고 있다하면, 〈쌍녀분〉은 그와 같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삶과 연결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으로까지 연결 짓고 있다. 이러한 자각, 인식과 사교의 전복은 팔랑과 구랑, 두 원혼녀와의 만남과 이별 이후 부귀공명을 갈망하던 욕망의 공간이었던 중국을 작별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덧없음과 무욕에 대한 다짐을 하고 속세를 떠나 흰 구름 속으로 깃들겠다는 의지에서 정신적 전환의 성숙한 경지를 찾을 수 있다. 또 『태평통제』에 실려 전하는 『수이전』의 〈쌍녀분〉은 중국 당나라 때의 전기소설 〈유선굴〉, 〈심경〉, 〈낙신전〉과 분위기나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임씨전〉과 〈진랑비〉의 구절을 직접 인용했다는 데에서도 전기소설로서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출현,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지평과 나말여초 서사문학」 -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 『새민족문학사강좌』01, 창비, 2009, 94-101쪽.)

37) 나말여초 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학자로는 장효현과 김현양을 들 수 있다. 장효현은 고전소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를 17세기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금오신화』 이후부터 본격적인 소설시대가 시작된다는 관점이다. 이로써 『수이전』에서

세 번째 견해는 『수이전』 일문의 작품들이 일반적인 설화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과는 양식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여 이를 설화와 구별하여 ‘수이전체 문학’이라는 장르적 독자성을 부여한다. 이는 구비설화의 서사적 양식이 수이전체 문학과 같은 서사적 산문의 단계를 거쳐 소설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으로, 〈쌍녀분〉이 곧 초기소설사의 기점을 나누는 작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쌍녀분〉의 장르적 성격 규명에 있어 주로 설화와 전기소설로 나누어 살폈던 그간 학계입장에 대하여 ‘수이전체 문학’이라는 대안적이고도 독자적인 우리문학사의 새로운 문학 장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북한문학사의 주체문화적 입장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³⁸⁾

『금오신화』까지의 시대는 서사문학사에 있어 소설시대로 전화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단계, 질적 변화가 모색되는 단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에 ‘전기’와 더불어, ‘우연’ ‘전’ ‘잡록’ 등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시기의 문인들의 창작욕구를 충족시켜주었던 소설 성립 이전에 존재해왔던 기록서사문학의 다양한 장르 유형으로 보아야만 ‘설화-소설’, ‘설화-전기소설’로의 단계를 상정하는 단선적 이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효현, 「전기소설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1995.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51-81쪽. 재수록)

김현양은 장효현의 논지를 이어 소설의 발전 경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설화에서 소설로’ 이행된다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소설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설화에서 소설로의 이행을 매개하는 다양한 서사 장르종의 발생과 교섭에 대해 복합적으로 사고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소설의 단초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곧 ‘소설이다’라는 진술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들어 개념정의와 범주설명에 있어 모호성이 극복되어야 하는 지점을 남긴다. 이는 고전소설과 근현대소설의 양식적, 역사적 관련성과 동질성에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명에 엄밀성을 요청하였다. (김현양, 「최치원의 장르 성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문화사연구』10, 민족문화연구소, 1997. / 김현양, 『한국 고전소설사의 거점』, 보고서, 2007, 13-39쪽. 재수록)

38) ‘수이전체 문학’이라는 장르는 남한 학자로는 박일용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 문학연구의 주조적 경향과 부분적으로 통한다. 그러나 박일용은 〈쌍녀분〉을 나말여초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지 않고,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선녀홍대〉, 〈쌍녀분 설화〉로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를 조선 시대의 작자 미상의 작가가 소설화하여 15세기경 집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창작 시기를 나말여초의 시기로 단정하고 있는 북의 논의와는 내부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일용, 『조선 시대의 애정 소설』, 집문당, 1993.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성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이상의 연구사를 통해 살펴본 바처럼 〈쌍녀분〉에 대한 남학 문학연구자들의 시각은 소설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양상은 설화, 전기, 전기소설 등 여러 가지로 의견이 상충되어 하나의 일반론으로 수렴되지는 못하였으나 소설이라는 장르 발생을 설화와 전기와 같은 장르의 발전과정과 연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태도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보다 설화를 선행적인 서사문학으로 규정하고 설화보다 인물과 배경환경, 창작의식, 갈등양상이 구체화된 형태를 소설 장르의 본질적 조건으로 구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을 유지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쌍녀분〉을 평가하는 내용은 비록 아직까지 상반되어 나타나지만 본 작품을 통해 동아시아 서사문학사의 흐름과 우리문학사의 서사적 발전과정을 유추하고자 하는 소기의 원대한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남한 학계의 소통, 남북의 인문학적 소통, 범국가적 서사문학사에서의 소통에 두루 기여할 수 있는 〈쌍녀분〉의 문학적 의의와 지속적인 연구에의 필요성이 더욱 제고된다.

4.2. 작자 및 창작시기에 대한 고찰

〈쌍녀분〉은 수록된 『수이전』의 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후의 문헌에서 이를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을 거론하고 있어 정확히 단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수이전』의 작자에 대한 후대 문헌의 언급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훈(?-1230)이 『해동고승전』에서 『수이전』의 자료를 인용한 후 작자를 고려 문종 때의 문인인 박인량(?-1096)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연은 『삼국유사』 제4권 〈원광서학〉(圓光西學) 조에서 ‘고본수이전’을 참조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당전(『속고승전』)과 향전(『삼국사기』와 『수이전』)의 두 전기에 작갑(鵲岬) 이목(璃目)과 운문

(雲門)의 사실이 없는 이유는 향인(鄉人)인 김척명이 원광법사의 전을 만들 때 함부로 혼합 기록한 것을 해동승전의 찬자가 그 잘못을 이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문해(1534-1591)는 『대동운부군옥』에서 『신라수이전』을 인용하였으며 이것의 작자를 최치원으로 가리켰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수이전』의 별본 종류에는 저술자를 알 수 없는 ‘고본수이전’과 최치원이 썼다는 ‘신라수이전’, 그리고 김척명이 일부 개작한 ‘수이전’과 박인량으로 저술자가 밝혀진 ‘수이전’ 등 네 편이 있는 것이다.³⁹⁾ 이렇듯 작자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작품이 창작된 시기 또한 나말여초에서 조선 초기까지 5세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간 속에서 여러 견해에 의해 여기저기로 어지럽게 부유하고 있다.⁴⁰⁾ 즉 『수이전』이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원본 『수이전』의 작자로 추정함에 있어 근거로 제시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것이나 완전하지 않은 유추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쌍녀분〉의 작자설은 고려 문종 때의 문인인 박인량으로 보는 경우, 여말선초 시대의 문인으로 보는 경우, 나말여초의 최치원 혹은 문인지식인으로 보는 경우 등으로 관점을 모을 수 있다.⁴¹⁾ 이와 다른 견해로는 신라 말의 유명한 시인 네 명을 거론하며

39) 조수학, 「수이전의 저술자 및 문체고」, 『한민족어문학』17, 한민족어문학회, 1990.

40) 이동환, 「쌍녀분기의 작자와 그 창작 배경」, 『민족문화연구』3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41) 오춘택, 「쌍녀분기와 최치원의 작자」, 『국어국문학』139, 국어국문학회, 2005.

〈쌍녀분〉의 저작자로는 먼저 박인량이 주목되었는데 박인량설에 속하는 학자로는 이인영, 이가원, 조윤제, 장덕순, 최강현, 지준모, 김종철 등이 있다. 여기에는 최치원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이인영, 「태평통재간권소고」, 『진단학보』12, 진단학회, 1940;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63; 지준모, 「신라수이전연구」, 『어문학』35, 한국어문학회, 1976;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다국어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다국어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경인문화사, 1988.)

다른 경우는 여말선초 시대의 미상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로 박일용이 대표적이다. 박일용은 현전하는 『수이전』 일문들이 저작자의 시각이나 참고한 선행 이본에 따라 원본 『수이전』의 내용을 변개하여 수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수이전』은 신라시대

이들의 시풍을 〈쌍녀분기〉에 삽입시와 비교한 뒤 〈최치원〉의 작자를 최광유(崔匡裕)로 추정한 논의도 있다.⁴²⁾ 또 〈쌍녀분기〉와 〈최치원〉을 각

를 배경으로 하는 기이한 사건중심의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조선 후기 야담집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편저자 또는 여타 저서 저작자에 의한 변개되어 전승된 문헌설화라고 추측한다. 그러면서 『수이전』 일문으로 전해지는 대부분의 작품을 문헌설화로 규정하고 별도로 『태평통재』 소재의 〈최치원〉은 전대의 〈쌍녀분〉 설화와 같은 『수이전』 소재 문헌설화가 『태평통재』 편자인 성임이나 그와 비슷한 조선전기의 작가에 의해 소설형태로 재창작된 것으로 본다. (박일용, 「소설의 발생과 수이전 일문의 장르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같은 논조를 가진 이경우는 『태평통재』, 『필원잡기』, 『삼국사절요』에서 저본으로 한 『수이전』은 구전되던 설화 중 신라시대의 수이담에 해당하는 사건을 자료로 편집한 이본이라 하면서 고려 말 미상의 문인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경우, 「형성기 산문 시고」,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또 한 경우로 최치원 작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김건곤, 이검국·최환, 소인호 등이 있다. 먼저 김건곤은 『신라수이전』은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 있을 당시 高駢에게 自薦하는 과정에서 高駢이 신선과 기이한 것을 좋아했으므로 자신의 文才를 과시하는 한편 그의 환심을 사서 관직으로 얻고자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치원을 모델로 한 전기 〈쌍녀분〉도 최치원 자신이 지은 것이며, 여기에는 高駢에게 자신을 두 여자 귀신과 交歡하는 대단한 인물로 내보이고자 한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쌍녀분〉에서 팔랑과 구랑에 화답하여 하룻밤을 즐긴 후 헤어지고 自慰詩를 읊는 부분까지는 최치원이 지었고, 末尾의 최치원의 은거·소요담과 만년 생애 부분은 後人이 加筆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인량의 『수이전』은 최치원의 『신라수이전』과는 별개의 것으로 述而不作의 傳記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최치원의 것을 증보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김건곤, 「『신라수이전』의 작자와 저작배경」, 『정신문화연구』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이검국과 최환은 〈쌍녀분〉의 원제가 〈쌍녀분기〉이고 이를 최치원이 고변 막료시절에 지었다고 보면서 『육조사적편류』의 〈쌍녀분기〉를 소설로 간주하였다. (이검국·최환, 「《신라수이전》 최치원본고」, 『중국어문학』33, 영남중국어문학회, 1999.) 소인호는 최치원의 당나라에서의 행적과 작품의 내용을 비교하고, 삽입시의 성격과 관습적인 어구의 활용 등을 들어 원작자가 최치원 본인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여기에는 1996년에 중국 현지에서 실시한 쌍녀분 발굴 기록과 〈쌍녀분〉에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정 및 대화나 삽입시에 표출된 구체적인 인물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작자가 직접 현지에서 체험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을 하였다는 주장을 선행하였다. (소인호, 「전기소설 〈최치원〉의 창작 경위와 문헌 성격」, 『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2000.)

42) 이러한 논지를 편 학자는 이동환으로 그의 논문에 따르면 〈쌍녀분기〉는 唐代 傳奇를 망라하여 挿入詩의 밀도가 가장 높다. 이동환은 이 점에 주목하여 신라 말의 당나라로 유학을 간 문인들의 詩를 서로 대조하여 작자를 밝히고자 하였다. 비교의 결과 愁艷한 풍격이나 押韻에의 趣向, 주로 드러나는 心象 등에 있어 崔匡裕의 시풍과 일치됨을 발견하였다. 이로 작자를 최광유로 상정하고 〈쌍녀분기〉 결미의 서술태도 분석을 통해 최치원의 만년 사생활을 近接하여 관찰할 수 있었던 최치원의 측근 후배라고 추정하였다.

기 별개의 작품으로 구별하고 전자의 작자로 최치원을, 후자의 작자로 후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근접한 박인량으로 추정하는 논의도 있다.⁴³⁾ 한편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 나말여초 시대 속에서 전기소설의 발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쌍녀분〉을 창작한 작가와 시기에 대하여 나말여초를 살았던 육두품 출신의 문인 지식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⁴⁴⁾ 한편 『태평광기』(太平廣記) 권375에 실린 〈진랑비〉(陳朗婢)와 『태평광기』 권452에 실린 〈임씨전〉(任氏傳)같은 전기소설이 『수이전』에 실린 〈쌍녀분〉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에서 나말여초 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활발한 문학 교류와 당대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주시할 수 있다. 나아가 당대의 공용어로서의

이에 작품의 창작 시기를 신라 멸망 이전 최치원의 사후에서 머지않은 시기로 규정하였다. 작품의 창작배경에는 羅唐이 함께 쇠락해가는 시기에 살았던 최치원과 최광유의失意와 孤獨, 鬱悒, 現實虛無主義에서의 契음이 근본적인 동기가 됨을 밝혔다. 한편 이 작품이 중국 江南 지방으로 유전하여 현지에 있는 쌍녀분의 故事로 자리 잡았음을 추론한다. 이러한 견해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문학사적 맥락을 여러 시인들의 시풍대조를 통해 당시의 전기소설이 창작, 유통될 수 있었던 여러 배경과 과정을 유추한 새로운 시도임에 주목할 수 있다.(이동환, 「쌍녀분기의 작자와 그 창작 배경」, 『민족문화연구』3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43) 오춘택에 의하면 〈쌍녀분기〉는 쌍녀분 유적에 관한 기문(奇文)의 제목이며, 이 기문은 최치원이 율수현위를 역임하던 시절에 지은 글이다. 그리고 이 기문을 참고하여 후대의 박인량이 〈최치원〉을 전기(傳寄)로 지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한다.(오춘택, 「쌍녀분기와 최치원의 작자」, 『국어국문학』139, 국어국문학회, 2005.)
- 44)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학자로 임형택과 박희병을 들 수 있다. 임형택은 신라 육두품 문인들이 초기에는 직접 현실을 비판하지 못하고 寓言의 형식을 빌렸는데 민간의 설화를 발견한 후로는 이것을 傳奇 양식으로 소화시켜 창작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듬어 꾸밈음을 설명한다. 이 시대를 살았던 문인들의 고뇌를 담아 당대 최치원의 역사적 고독을 한 편의 전기로 포착해낸 나말의 문인 작가를 상징하는 것이다.(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박희병은 역사적 인물인 최치원의 인간본질을 ‘고독감’이라는 측면에서 포착하여 소설화한 작자로 최치원과 대동소이한 처지에 있었거나 최치원의 처지에 공감할 만한 상황에 있던 나말여초의 육두품 출신의 문인지식인을 내세운다. 그리고 최치원이 죽은 지 그리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품을 창작했으며 작자는 최치원처럼 唐 유학을 한 육두품 출신 지식인으로 최치원보다 한 세대쯤 뒤의 후배이면서, 신라-고려 교체기에 혼란스러운 사회현실 속에서 超世的 態度를 취한 문인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박희병, 「나려시대 전기소설 연구」, 『대동문화연구』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5.)

한자를 글쓰기의 표기체계로 사용하면서도 개인이나 자국의 취향과 문화를 반영하고자 한 신라 육두품 출신의 신진 지식층과 그들이 활동했던 신라 말의 시기를 더욱 주목하기도 한다.⁴⁵⁾

이상과 같은 연구사적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쌍녀분〉의 작자 및 창작시기에 대한 남한 문학연구는 나말여초의 문인에 창작된 작품으로, 또 최치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견이 주조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쌍녀분〉의 조선 초기 창작설, 고려시대 창작설 등도 연구사에 있어 한 일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적 양상을 통해 〈쌍녀분〉작가 규정을 위한 관련 자료에의 세밀한 검토와 창작시기에 대한 정직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인물형상에 대한 해석과 서사구조적 의미 고찰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사의 맥락과 같이 〈쌍녀분〉은 소설사의 구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쌍녀분〉의 주인공인 최치원에 대한 인물해석도 여러 단계를 거쳐 왔다. 먼저 초기 연구에서는 신라 말기 실존했던 지식인 최치원의 낙척불우(落拓不遇)한 삶이 작품 속 주인공 최치원의 형상에 투영되었다고 해석되어 왔다.⁴⁶⁾ 이러한 해석은 신라 말 최치원은 곧 당대의 고독한 지식인의 대표적인 전형이 된다는 해석으로 나아갔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쌍녀분〉을 대표로 하는 전기소설의 인물성격에 대한 괄목한 만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⁴⁸⁾ 이

45) 정환국, 「나말여초의 문학사적 전환과 최치원」, 『새민족문학사강좌』01,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창비, 2009.

46)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박희병, 「나려시대 전기소설 연구」, 『대동문화연구』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5.

47)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다국어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다국 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경인문화사, 1988.

48) 박희병은 〈쌍녀분〉을 포함하는 전기소설에 나타나는 작중 전기적 인간의 특징으로 첫째,

에 따르면 〈쌍녀분〉에 나타난 남주인공 최치원은 타국으로 건너가 지방관이 되었지만 스스로를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재능이나 포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고독한 지식인이다. 최치원의 외로움은 역설적으로 타자로부터의 애정과 관심에의 결핍과 갈망으로 이어져 팔랑, 구랑과 손쉽게 만나는데 도움을 준다. 이때 최치원은 시를 통해 자신의 심리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강한 문예적 취향을 내보이는데 이것을 통해 여주인공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이들의 즉흥적이고도 충동적인 사랑은 그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이별 이후 비탄과 애조의 글을 통해 탄식을 내뿜는 모습에서 쉽게 감상에 젖는 낭만적 기질과 소심하고 나약한 인간상이 드러난다. 최치원과 관계를 맺는 팔랑과 구랑은 부호의 딸들로 아름다운데다가 詩作 능력까지 뛰어나다. 그리고 최치원의 불운한 심정을 잘 이해하고 그의 결핍과 외로움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남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⁴⁹⁾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근에는 작품과 작중인물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작중 최치원의 인물 형상에서 바람둥이 혹은 한량 같은 모습을 주목하여 불운한 지식인으로서의

외로운 존재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사랑. 둘째, 시나 사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와 연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내면성을 꼽았다. 이에 전기적 인간의 낭만적 기질은 감정의 과다분출과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태도, 쉽게 감상에 빠지며 비탄과 탄식을 내뿜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대개 소심한 면모와 나약한 인간상을 통해 소극성이 표현된다는 점. 넷째, 강한 '문예취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의 공유를 통해 정신적 유대와 애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점이다.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화사연구』7, 민족문화연구소, 1995.)

49) 윤재민은 전기소설을 기이하고도 낭만적인 공간으로 일컬으며 작가층인 문인지식인들이 작품 속에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투영했다고 본다. 근거로 전기소설 속 남자들이 만나는 여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아름답고, 남자의 심정을 잘 이해해 준다. 더욱이 남주인공과 결연하는 상대역의 여성 주인공들은 대부분 상층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상층으로부터 얻고자 갈망하는 문인지식층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성격」,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63~64쪽.)

최치원과 작품 속 작중 인물로서의 최치원 사이의 간극을 논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⁵⁰⁾ 또 <쌍녀분>에 투영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새로이 조명하면서 작품의 중층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 논의도 있었다.⁵¹⁾

<쌍녀분>에 투영된 남성주의적 시각을 외면해 온 연구자들의 남성중심적 태도를 비판하며 작품의 인물형상과 플롯구성에 반영된 남성 우위적인 위계와 성적 억압 구조를 밝히고자 한 연구도 있어 왔다.⁵²⁾ 그리고 이와 다르게 최치원이 읊은 장가 속에서 두 여인을 향한 인식에의 변화를 주목한 논의도 있었다.⁵³⁾ 그리고 주인공 최치원의 풍광한(風狂漢)적 태도와 팔랑과

50) 이러한 논지를 전개한 조혜란은 기존 남성주의적인 연구자들의 관점이 남주인공의 모습에서 불우한 측면만을 강조했음을 한계로 지적하며 이것으로 <쌍녀분>의 '남성판타지'로서 성격과 남성 주인공의 '바람둥이적 행태'가 간과되고 있음을 들추었다. 이에 <쌍녀분> 속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팔랑과 구랑의 인물형상에는 당대 남성의 성적 욕구를 비롯한 여러 남성적 욕망이 투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조혜란, 「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최치원」, 『여/성이론』, 여이연, 2003, 126~143쪽.)

51) 정규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쌍녀분>에 투영된 섹슈얼리티는 불륜적 사랑의 구도를 통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저항과 자기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 형상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작중인물이 고수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저항적 태도가 육체적 관계를 통한 쾌락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정규식, 「최치원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고소설연구」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52) 이어 김경미는 애정 전기소설의 플롯에 투영된 남성주의적 시각을 외면해온 연구자들의 남성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며 전기소설의 남성중심적 서사를 강조하였다. 논지에 따르면 <쌍녀분>은 '보호받는 혹은 구원받아야 하는 여성'과 '구원하는 남성'이 등장하는 서사가 된다. 즉 원치 않는 결혼에 대한 불만으로 요절한 두 여인의 한이 최치원이라는 재주 있는 문사의 기상을 통해 해원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방식의 패툰에 속하는 서사인 것이다. <쌍녀분>의 플롯은 작중 최치원의 성적인 충동과 충동의 일탈적 해소, 남성 중심적 입장에서의 관계 정리, 그리고 자신을 비극적 인물로 고양시키는 결말로 구성된다. 즉 간밤의 일탈적 성에도, 자신의 성적 충동도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두 여자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지난 행위는 여자들이 한을 제거해 주기 위한 대장부의 기상이었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53) 엄태식은 작품 속 장가 속에서 성적대상에 지나지 않던 팔랑과 구랑을知己로 대하는 최치원의 성찰을 찾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작중 최치원은知己의 남편을 만나지 못해 자결한 여인의 비극을 자신의 불우와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현세에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에 불합리한 속세의 세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자연에 은거하며 독서에 전념하는 최치원의 삶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에의 의지를 표명한

구량의 성적 욕망에의 적극성을 주목하여 기존의 논의방향을 인정하면서도 남성의 성적·사회적 욕망이 일방적으로 투사된 귀녀(鬼女) 또는 여선(女仙), 그리고 그 책임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하는데서 형성된 우물(尤物) 이나 요귀(妖鬼)와 비교해 보면 <쌍녀분>의 팔랑·구량은 실상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⁵⁴⁾

이상의 논의 내용은 <쌍녀분>의 주제 및 인물형상의 해석에 있어 가부장적 봉건 윤리도덕에 대한 비판의식을 주된 기조로 삼는 북한의 문학사 인식과 상통하는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먼저 <쌍녀분>을 당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 작가의 예술적 창작물로 바라보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작품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있어서도 현실적 존재인 인간과 비현실적 존재인 귀신간의 애정관계가 작품 속에서 환상적·낭만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목한다. 한편 북한의 문학연구에서 작중 최치원을 역사적 인물 최치원으로 보고 작품의 주제와 구성을 작가 최치원의 이념적·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에 비해 남한의 학자들은 작중 인물의 성격이나 주제의 형상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 아래 새로운 논지를 발전시키고 있음에 차이점을

다.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54) 박일용은 여기에 보태어 그간의 연구에서 남성 주인공과 두 여인의 만남이 최치원 스스로도 꿈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워하는 환상적 또는 비현실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작품의 실상과 거리감을 갖게 되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박일용은 여기에서 나아가 <쌍녀분>의 남성 주인공이 환상적 또는 비현실적 체험을 통해 야합적 만남을 주도해 나가는 여성 주인공들의 성적·사회적 욕망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의 의미에 대한 각성의 매개항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치원의 각성은 작품 후반의 장편 회상시, 귀국 시 지은 짧은 시, 귀국 후의 은거를 통해 완성된다고 한다. 즉 작중의 최치원이 남성중심적 성윤리의 폭압에서 비롯되는 팔랑과 구량의 성적·사회적 욕망이 현실세계에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 또한 현실에서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각성하는 것에서 <쌍녀분>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형상화 방식이 드러난다는 소견이다. (박일용, 「〈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 『한국고전연구』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논할 수 있다.

4.4. 중국 전기와의 비교문학적 고찰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은 북한의 문학연구에서도 깊게나 얇게 다루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쌍녀분>에 대한 남북 문학연구자들의 시각을 비교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외로도 북한 <쌍녀분>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남한 문학연구에서는 수차례 진행되고 있기에 기타의 연구사 검토에 포함시켜 정리한다.

<쌍녀분>과 관련된 기사는 일찍이 송나라의 『육조사적편류(六朝事迹類編)』 권13의 ‘雙女墓’라는 항목에서 ‘雙女墳記’라는 지칭으로 간략한 서사가 제시되고 있다. 또 송나라의 『京定健康志』 권43에서도 ‘雙女墳’의 위치와 ‘雙女墳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원나라의 『至正金陵新志』 권12에서는 ‘雙女墳記 崔致遠作’이라고 명시되고 그 요약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청나라 光緒7년의 『高淳縣志』의 ‘雙女墓’, 康熙 때의 『高淳縣志』 권21에 ‘雙女墓’, 民國7년 『高淳縣志』에도 ‘雙女墓’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야기가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쌍녀분기>의 존재와 전승양상, 그리고 변모의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른 시기의 기록에서 출전이 <쌍녀분기>로 되어 있고, 최치원의 저작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어 관심을 요한다. 이에 <쌍녀분>의 원작에 해당하는 작품의 제목이 <쌍녀분기>였고, 이 형태가 최치원에 의해 한 편의 전기 문학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⁵⁵⁾ 그리고 최근에는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55) 이러한 설을 제기한 소인호는 <쌍녀분기>가 해당 문헌에 수록되어 민간에 유전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설화로 정착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전기-설화 변모과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996년 중국 북경대학팀에 의해 이루어진 쌍녀분 발굴조사기록과 대조하여 <쌍녀분>창작배경에 대한 고증을 하였다. 여기서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설정과 구체적인 작품 내적 요소의 서술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쌍녀분 주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지괴의 형태로 전해지던 〈쌍녀분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전설화가 뒷날의 문인 창작자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⁵⁶⁾

한편 〈쌍녀분〉의 창작과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작품으로 중국의 전기 작품인 〈유선굴(遊仙窟)〉이 거론되었다. 〈유선굴〉은 『태평광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치원과 같이 당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 문인들에 의하여 널리 읽혔으리라고 충분히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태평광기』에 포함되어 있는 당 전기 〈임씨(任氏)〉도 수록되어 국내로 유입되기 이전부터 이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당시 활발했던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 양상을 통해 짐작되고 있다. 〈유선굴〉의 요지는 장작(張驚)이란 남자가 공무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떠나는데 여정 중 들리게 된 神仙窟에서 十娘과 五嫂를 만나 하룻밤을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는 울수현위의 관직에 있던 최치원이 초현관에서 잠시 머무르다 초현관 앞 언덕에 있는 쌍녀분의 팔랑과 구랑을 만나게 되고 이에 하룻밤의 애정을 나누고 이별한다는 〈쌍녀분〉의 줄거리와 비슷하다. 또 『태평광기』에 수록되어 있는 〈沈警〉도 이와 비슷한 골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이 둘을

변 지역에 雙塘이나 초현관 등이 남아있고, 이것이 부호의 무덤으로 전해지며 석문의 형태나 장씨 집거촌이 존재하는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작품 속에 제시된 배경과 부합된다. 이에 이와 같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한 작자가 작품을 창작하였을 것이며, 이로써 최치원이 울수현위에 부임하여 겪은 체험적 사실이 작품 형성에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소인호, 「전기소설 〈최치원〉의 창작 경위와 문헌 성격」, 『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2000.)

56) 이를 주장한 엄태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쌍녀분기〉는 이처럼 12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志怪인데, 대체적인 내용은 〈최치원〉과 동일하다. 〈쌍녀분기〉에서 서술의 초점은 최치원이 귀신인 여인들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는 두 여인이 冤死한 내력에 놓여 있다. 추측건대 울수현위에 제수된 최치원이 쌍녀분의 내력에 대해 듣고 시를 지은 일이 계기가 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다가 최치원의 사후 이와 같은 단편적인 지괴의 형태로 전하는 이야기에서 실존인물 최치원의 면모를 포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최치원〉 창작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엄태식, 『예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대조하는 비교문학적 연구도 함께 논의 되어졌다.⁵⁷⁾ 분량만을 비교하여 따져보면 〈쌍녀분〉은 약 2050자, 〈유선굴〉은 약 8500자, 〈심경〉은 약 1100자 정도로 〈유선굴〉이 가장 많고 〈심경〉은 〈쌍녀분〉의 절반 정도라 할 수 있다.⁵⁸⁾ 인물 성격의 설정에서도 〈쌍녀분〉의 팔랑과 구랑이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해 한을 품고 요절한 처녀 귀신이었다면, 〈유선굴〉의 十娘과 五嫂는 전생터로 나간 남편들이 모두 전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가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던 과부들이다. 또한 최치원이 울수현위라는 지방 관리를 맡고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작은 명망이 높았던 가문의 자제이나 기세가 영락하여 말단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⁵⁹⁾

다음으로 〈쌍녀분〉에 수용된 중국의 전기문학에 대한 연구도 찾을 수 있다. 팔랑과 구랑이 시비 취금을 시켜 최치원에게 전달한 시 구절 속에는 『태평광기』에 수록된 전기소설 작품인 〈임씨〉의 여주인공인 임희(任姬)의 사랑이 언급된다. 임희는 원래 여우로 사람으로 둔갑하여 정생과 사랑하고 그 정절을 지키다 죽음에 이른 여인이다.⁶⁰⁾ 또한 같은 구절에는 蕭史와 사

57) 〈심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경이란 자가 공무를 위해 秦隴이란 지역에 가다가 張女郎의 사당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이에 小女郎 潤玉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차용주, 「쌍녀분 설화와 유선굴의 비교연구」, 『고대어문논집』23,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58)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157쪽.

59) 이에 엄태식은 장작과 두 연인의 만남 속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한다.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158쪽.)

60) 임희의 사랑과 관련하여 팔랑과 구랑의 태도를 해석한 엄태식은 “임희가 남을 사랑한 것을 배우지 않았네.”라는 말은 “폭력을 당하여서도 실절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 죽음에 이른” 임씨의 행실을 배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생과 임씨 같은 부부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문맥의 의미를 해명한다. 이에 팔랑과 구랑이 꿈꾸는 남편상은 낭옥의 연인인 소사이며, 이와 같은 인물을 찾아 기다리다 오백 년 만에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최치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160쪽.)

랑하여 부부의 연을 맺고 통소를 붙여 용과 봉을 타고 남편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秦穆公의 딸 弄玉의 고사를 인용되어져 있다. 또 ‘陳氏之女奴’ 부분을 『태평광기』의 〈陳朗婢〉와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진랑 비가 죽은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용과 〈쌍녀분〉의 ‘翻來塚側’이 비슷하고 ‘女奴’와 ‘婢’의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⁶¹⁾

이상과 같이 〈쌍녀분〉의 비교문학적 연구 성과는 줄거리는 〈유선굴〉에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묘사 부분은 전고(典故)를 통해, 주제적 측면은 〈임씨〉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논의에까지 이르러 있는 상태이다.⁶²⁾ 이러한 시도는 자국 내로 한정되는 문학연구가 아닌 당대의 국내외 문화교류양상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함께 사용되어진 전고의 주체적 수용 양상을 같이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1) 박희병 選注, 『한국한문소설』, 한샘, 1995, 46~47쪽;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66쪽. 이에 엄태식은 근거부족을 이유로 들며 ‘女奴’를 ‘연좌 되어 官府에 沒入된 여자’로 해석하여 진나라 멸망이후 隋나라에 예속되었다 궁으로 뽑혀 嬪의 자리에 오른 陳宣帝의 딸 선화부인 진씨로 가리키고 있다. 한편 전고를 수용한 양상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최치원은 주로 두 여인의 미모에 무게를 두었고, 팔랑과 구랑은 유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부관계나 재덕을 갖춘 남녀의 결연서사를 가지고 왔다. 여기서 최치원의 ‘바람둥이’형상, 팔랑·구랑의 ‘요조숙녀’형상이 명확히 대비되어 나타난다.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164~165쪽.)

62)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170쪽.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정홍교, 『조선문학사』1,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5.2. 남한 자료

- 권문해, 『대동운부군옥』(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5.
- 김건근, 「『신라수이전』의 작자와 저작배경」, 『정신문화연구』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김광순, 『한국고소설사와 논』, 새문사, 1990.
- 김대현, 「〈수이전〉 일문과 〈수신기〉의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1, 중한인문과학연구회, 1996.
- 김승호, 「불교전기소설의 유형 설정과 그 전개 양상」, 『고소설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김정석, 『전기문학 「최치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다곡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다곡 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경인문화사, 1988.
-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

- 연구소, 1995.
- 김중렬, 「崔致遠文學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 김지선, 「『新羅殊異傳』과 六朝 志怪의 창작 토대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논집』24,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김향미, 「『신라수이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현양 외, 『역주 수이전 일문』, 박이정, 1996.
- 김현양, 「최치원의 장르 성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문화사연구』10, 민족문화연구소, 1997.
- 김현양, 『한국 고전소설사의 거점』, 보고서, 2007.
- 문홍구, 「『수이전』 일문 〈최치원〉의 재고찰」, 『고소설연구』6, 한국고소설학회, 1998.
- 민족문화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비신서 104)』, 창작과 비평사, 1991.
- 박은성, 「수이전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인량, 이동근 옮김, 『수이전 일문』, 지만지고전전출, 2008.
- 박일용, 「〈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 사회적 욕망」, 『한국고전연구』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박일용, 「명혼소설의 낭만적 경향성과 그 소설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 1992.
- 박일용, 「소설의 발생과 수이전 일문의 장르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성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박태상, 「태평통재 소재 최치원전 연구」, 『고소설연구』1, 한국고소설연구회, 1995.
- 박희병 選注, 『한국한문소설』, 한샘, 1995.
-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박희병, 「나려시대 전기소설 연구」, 『대동문화연구』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5.
-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화사연구』7, 민족문화연구소, 1995.

-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 1992.
- 설성경, 「최치원전 연구」, 『연세어문학』5, 연세대국문과, 1974.
- 소인호, 「〈최치원〉의 작자와 원작의 문제」, 『고소설사의 전개와 서사문학』, 아세아문화사, 2001.
- 소인호, 「고려시대 전기의 유형과 사적 전개양상」, 『송실어문』14, 송실어문학회, 1998.
- 소인호, 「수이전의 저자와 문헌 성격에 관한 반성적 고찰」, 『고소설연구』3, 한국고소설학회, 1997.
- 소인호, 「전기소설 〈최치원〉의 창작 경위와 문헌 성격」, 『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2000.
- 소재영, 『한국소설론』, 한국고소설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1.
- 신동훈,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본질 및 문학사적 위상」, 『국어국문학』138, 국어국문학회, 2004.
- 안창수, 「태평통재 소재 최치원의 소설성 검토」, 『한민족어문학』32, 한민족어문학회, 1997.
- 엄태식, 「최치원의 창작 배경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오대혁, 「나말여초 전기소설의 형성 문제」, 『한국어문학연구』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오춘택, 「쌍녀분기와 최치원의 작자」, 『국어국문학』139, 국어국문학회, 2005.
- 유정일, 「《수이전》일문 〈최치원〉의 장르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어문학』87, 한국어문학회, 2005.
- 유정일, 「『수이전』 일문의 분류와 장르적 성격」, 『어문학』85, 한국어문학회, 2004.
-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성격」,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 이검국·최환, 「《신라수이전》최치원본고」, 『중국어문학』33, 영남중국어문학회, 1999.

- 이경우, 「형성기 산문 시고」,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이대형, 「수이전 일문의 갈래적 성격 고찰」, 『열상고전연구』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 이동환, 「쌍녀분기의 작자와 그 창작 배경」, 『민족문화연구』3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이인영, 「태평통재잔권소고」, 『진단학보』13, 진단학회, 1940.
- 이정원, 「애정 전기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 『고소설연구』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학주, 「『신라수이전』 소재 애정전기의 사생관」, 『동아시아고대학』2, 동아시아고대학회, 2000.
- 이현홍, 「최치원전의 전기소설적 구조」, 『수련어문학집』9,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수련어문학회, 1982.
- 이혜순, 「전기소설의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 장경남, 「고소설의 이물교구담 수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23, 우리문학회, 2008.
- 장덕순, 『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81.
- 장지영, 「〈雙女墳說話〉의 소설화 양상에 관한 연구- 金東里의 『최치원』과 金仙의 『고운 최치원』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장효현, 「전기소설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연구』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 장효현, 윤재민, 최용철 지음, 『전기소설』:03-崔致遠,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7.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정규식, 「나말여초 전기문학과 최치원」, 『동남어문논집』21, 동남어문학회, 2006.
- 정규식, 「최치원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고소설연구』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정병호, 「나말여초 전기소설의 대두와 「최치원」」, 『인문과학』14,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정준민, 「최치원전의 전기 소설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정출현,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지평과 나말여초 서사문학」 -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민족문학사강좌』01, 창비, 2009.
-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 1999.
- 정학성,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정환국, 「나말여초의 문학사적 전환과 최치원」 -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민족문학사강좌』01, 창비, 200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수학, 「수이전의 저술자 및 문체고」, 『한민족어문학』17, 한민족어문학회, 1990.
- 조수학, 「최치원전의 소설성」, 『영남어문학』2, 영남어문학회, 1975.
-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 조혜란, 「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최치원」, 『여/성이론』8, 여이연, 2003.
- 지준모, 「신라수이전연구」, 『어문학』35, 한국어문학회, 1976.
-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 『어문학』32, 한국어문학회, 1975.
- 차용주, 「쌍녀분 설화와 유선굴의 비교연구」, 『고대어문논집』23,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 최강현, 「신라수이전소고」, 『국어국문학』25, 국어국문학회, 1962.
- 최귀묵, 「전기(傳奇) 다시 읽기」, 『문학치료연구』 16, 문학치료학회, 2010.
- 최남선, 『(신정)삼국유사』, 삼중당서점, 1943.
- 한영환, 「최치원전(崔致遠傳)과 유선굴」,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2,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2.
- 황혜진, 「〈최치원〉 남녀 대화의 양상과 특성」,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이원영>

국순전

1. 서지 사항

〈국순전〉은 임춘(林椿, 1147~1197)의 작품으로, 술을 의인화하여 그 내력과 행적, 그에 대한 평을 내리는 가전(假轉)형식의 작품으로, 현전하는 가전 체문학의 효시라 알려져 있다. 임춘의 사후에 이인로가 그의 작품을 모아 6권으로 엮은 『서하선생문집(西河先生文集)』 제5권, 서거정에 의해 본문 130권 42책과 목록 3책으로 편찬된 『동문선(東文選)』 제100권에 실려 있다. 〈국순전〉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 성과들을 살핀바, 남북 공히 『동문선』 수록본을 주요 연구 자료로 삼고 있기에, 본고의 내용 또한 서거정의 『동문선』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

2. 작품 개요

국순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며 조상은 농서(隴西) 사람으로, 90대조인

모(牟)는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을 먹여 살린 공이 있었다. 이에 중산후(中山侯)로 봉해져 성을 국씨라 하였다. 이후 강왕(康王)이 위에 오르자 점차로 박대를 받아 금고(禁錮)에 처해지고, 그 후대는 숨어 살게 되었으나, 위나라 초에 그의 아버지 주(酎)가 상서랑(尙書郎) 서막(徐邈)과 교분을 맺은 것으로 다시금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순(醇)의 기국과 도량은 크고 넓어, 자못 기운을 사람에게 더해주었다. 일찍이 섭법사와 온종일 담론하여 일좌(一座)가 모두 졸도 하게 만들때 비로소 유명해져 국처사(麴處士)라고 불렸는데,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였다.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 하니, 그의 애중(愛重) 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서는 임금을 취하게 하여 정치를 돌보지 않게 하고,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시론(時論)이 그를 더럽다고 하였다. 마침내 내쳐짐을 받아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이 다해 하루 저녁에 죽고 말았다. 그는 아들이 없었으나, 그의 족제(族弟) 청(淸)이 뒷날 당(唐)에서 벼슬하여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는가 하면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국씨(麴氏)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淸白)을 자손에게 끼쳐 창(鬻)이 주(周)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德)이 하늘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풍이 있다고 하겠다. 순(醇)이 들병의 지혜로 독 들창에서 일어나서, 일찍 금구(金甌)의 뿔침을 만나 술 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가(可)를 들이고 부(否)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왕실(王室)이 미란(迷亂)하여 엎어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巨源)의 말이 족히 믿을 만한 것이 있도다.”라고 하였다.¹⁾

1) 서거정, 『(국역)동문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 50-52쪽.

3. 북한의 연구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현재 남한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연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④ 정홍교,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⑤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⑥ 리성,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 『민족문화유산』, 2006년 1호.

제시된 연구들을 살펴본바,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경향을 다음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우선 장르의 구분에 있어서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장르가 확립되어 있어 〈국순전〉 또한 이에 포함된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의인전기체산문이 장르 자체에 일정한 주제지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주제지향에 따라 작품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국순전〉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로 그 주제적 측면에 집중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점들을 중심으로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소개해 본다.

3.1. '의인전기체산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연구

1959년에 간행되어 가장 앞선 시기의 연구로 확인되는 ①에서는, 남한에서 '가전'으로 분류되는 장르에 대하여 따로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고, 소설과 수필, 비평을 포함하는 '패설'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패설' 문학의 출현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패설' 문학은 조선 산문 분야에서 소설 문학의 남상(濫觴)으로 되며 수필 문학과 문학 비평의 효시(嚆矢)로 된다. '패설'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소설적 요소는 12세기 후반기 13세기에 들어 와서 활발히 창작되기 시작한 임춘(林椿)의 「국순전(麴醇傳)」, 「공유전(孔有傳)」,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麴先生傳)」, 「노극청전(盧克淸傳)」 등과 함께 근대적 소설의 선구자로 될 뿐 아니라 후기 소설 형성에 크게 작용하였으며, 수필 문학 형태로서의 사실주의 작가 연암 박지원의 불후의 노작 「열하일기(熱河日記)」와 같은 근대적 잡문의 선구자의 역할을 놓았으며, 시화 형태로서의 패설 문학은 15세기 후반기의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노작 「동인 시화(東人詩話)」와 같은 문학 평론의 출발로 되었다.²⁾

인용된 내용을 보면, '패설'은 특정한 장르를 지칭하기보다는, 12세기 이후의 잡문형식으로 지어진 일련의 산문 작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순전〉을 포함한 가전 작품들 또한 이러한 패설로 구분되어, 소설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면서도 개별적인 장르로서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간행된 ②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장르로 재정립되며 그 문학사적 가치를 재고 받기에 이른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패설과 더불어 12세기 후반기~14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산문 형태의 하나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화다, 1989), 145쪽.

의인전기체 산문은 선행 시기에 이루어진 전기와 우화의 창조 경험에 의거하고 그것을 당대의 변천된 사회 역사적 현실과 새로운 사상 미학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산문 문학의 독특한 형태이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동식물이나 물건을 의인화하여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의인화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물건의 내력과 생활을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며 그를 통하여 현실 생활을 반영하는 것을 자기의 특성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의인전기체 산문은 실제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실지 있는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는 전기 작품들과는 달리 작가의 예술적 허구에 기초하여 동식물이나 물건을 의인화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점에서 전기와 구별된다.

의인전기체 산문은 또한 의인화의 수법을 쓰고 있는 점에서 우화와 공통성을 가지지만 전기 형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여 우화와도 구별된다. 우화는 많은 경우 의인화된 등장 인물들의 형상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기승전결이 있는 엮음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그러나 의인전기체 작품들에서의 이야기 줄거리는 의인화된 주인공들의 내력과 활동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엮여져 있다. 이처럼 의인전기체 산문은 전기, 우화의 예술적 수법과 서술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예술적 산문 형식으로 출현하였다.³⁾

위의 인용을 따르면, 의인전기체산문은 전기와 우화의 창작 경험이 당대의 현실과 사상 미학적 요구와 만나 성립된 '새로운 산문 형태'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의인전기체산문의 장르적 독자성을 말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 문학이 축적해온 과거의 자산에 의한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문학이 내적으로 합법칙적인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는 북한 문학연구의 대전제에 따른 것이다.

의인전기체산문은 동식물이나 물건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내력과 생활을

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희문화사, 1996), 215~216쪽.

전기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특징인데, 실재한 사람과 실제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작가의 허구에 의한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전기와 구별된다. 또한, 의인화의 수법을 쓰는 점에서 우화와 공통점이 있으나, 전기 형식을 사용하는 점에서 그와 구별된다고 한다. 따라서 의인전기체산문은 단순히 전기와 우화의 답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산문형식의 출현’이라고 평가받는다.

이에 더하여 1983년에 간행된 ③에서는 전기문학과 구별되는 의인전기체산문의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서 장르의 성격을 확고히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의인 전기체 문학은 1170년 무신 정변 이후 더욱 어지러워진 봉건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창작적 시도와 결부된 예술적 산문 형식이다. 12~13세기 일부 진보적 작가들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타 사물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전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무신 폭정하의 사회 현실에 대한 자기들의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의인화적 수법을 통하여 봉건 사회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러므로 의인 전기체 문학은 당시 현실과 인간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산문 형식의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중략)

의인 전기체 문학은 선행 시기의 전기 문학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인물이 행장이나 가문의 흥망 성쇠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은 전기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인 전기체 문학은 의인화적 수법이 이용된다는 점에서는 우화 문학과도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은 자기의 고유한 형태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작가의 예술적 허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 문학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든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므로 예술적 허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에서는 현실을 반영함에 허구가 작용해야 한다.

둘째, 의인 전기체 문학은 의인화적 수법에 의하여 형상을 창조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의인화된 형상이다. 전기 문학은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고 기록한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에서는 의인화된 동물과 식물이나

물건 등을 등장시켜 당시의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성을 풍자하고 폭로한다.

셋째, 의인 전기체 문학과 전기 문학은 사상 주제적 과업에서 구별된다. 전기 문학은 당시 봉건 사회에서 양반 계급을 내세우고 보여주기 위한 산문 형식으로서 많은 경우에 봉건 왕조와 봉건 질서의 찬양과 공고화를 주제 사상적 과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인 전기체 문학은 기본적으로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사상 주제적 과업으로 하고 있다.⁴⁾

여기서는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장르 자체가 봉건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창작의도에 결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품이 아니라 장르 자체가 일정한 주제적 지향을 지닌다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 것이다. 또 의인전기체산문의 ‘고유한 형태상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전기 문학이 실재한 인물과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 비해 작가의 예술적 허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의인화의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 전기 문학이 봉건 왕조와 봉건 질서를 찬양하고 공고화하는 것에 비해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사상 주제적 과업으로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②의 설명에 비해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적 지향성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형태상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우화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1994년에 간행된 ④에서는 ②에서 이야기한 장르 개념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특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의인전기체산문의 새로운 특징은 우선 작가의 허구에 의하여 꾸며지는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의인전기체작품에서의 이야기줄거리는 대체로 의인화된 주인공의 가계와 출생담으로부터 시작되고 흥망화복의 복

4)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165-166쪽.

잡한 생활로정과 결부된 성장과 활동과정의 구체적인 세부들로 이루어진다. 의인전기체작품들은 또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가의 평을 주고 그를 통하여 작품의 사상적지향을 강조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다.

주인공의 성격은 의인화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동식물이나 물건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그것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주인공은 긍정인물로 의인화될수도 있고 부정적인물로 될수도 있다.

의인전기체산문에서 주인공은 철저히 의인화된 가상적인 인물이나 그와 관계를 맺고있는 다른 등장인물들은 의인화된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사는 실제적인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 의인전기체산문이 등장인물 모두가 의인화된 인물로 형성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우화나 우화소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있다.

의인전기체작품들은 또한 형상창조에서 구체적인 생활세부가 도입되고 초상과 행동 등에서 묘사가 주어지고있으며 작중인물들의 대화와 작가의 지문이 일정하게 구분되고있는 점에서 일종의 소설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것으로 하여 이전시기의 다른 예술적산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⁵⁾

여기서는 의인전기체산문의 특징인 전기적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②와 ③에서 설명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가의 평’ 부분에서 작품의 사상적 지향이 강조된다고 한 점, 의인화의 대상물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해 주인공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 새롭다. 또한 ②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이 우화소설과 구별되는 점을 그 전기적 형식에서 찾은 것에 더해, 작중 인물 중에서 주인공만이 의인화된 존재라는 점을 또 하나의 구별 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하여, 구체적인 생활상의 도입, 초상과 행동 등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점, 작중인물들의 대화와 작가의 지문이 구분되는 점에서 소설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 점에서 이전시기의 산문과 차이점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5) 정홍교,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0쪽.

이처럼 북한에서는 <국순전>을 포함한 가전 작품들을, 소설을 비롯한 후기 산문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패설’의 범주에 귀속시켰다가, 그 독특한 형식으로 인해 ‘의인전기체산문’이라는 개별 장르로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의인전기체산문 자체에 현실 비판을 지향하는 선구적인 장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그 개념이 확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반봉건적 주제지향의 작품으로서 <공방전>과 함께 논의하는 경향

의인전기체산문의 장르 특성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장르 자체가 일정한 사상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비교 연구도 작품의 주제적 지향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지향에 대해 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 의인전기체소설작품들에 반영된 주제사상적특성은 첫째로, 당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인재선발, 등용에 대하여 제기한것이였다. 이 시기 진보적인 작가들은 봉건군주가 청렴결백하고 대바른 충신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간신들만을 가까이 하고있다는 사상을 작품에 담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의 정사는 돌보지 않고 권력다툼, 탐욕적인 개인향락과 치부, 부화방탕한 생활만을 일삼고 있던 당시의 봉건통치관료배들과 무능하고 암매한 봉건왕의 더러운 생활리면을 이모저모 들추어 폭로비판하는데 집중하였다.

의인전기체소설 <<국순전>>의 주인공은 술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국순의 먼 선조인 보리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행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향락적인 생활을 폭로비판하고있다.(중략)

의인전기체소설 <<공방전>>도 그 내용은 <<국순전>>과 같은 사상주제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주인공은 돈(염전)이다. 그는 땅속깊이 파묻혀 있던 쇠

돌의 손자이고 철의 아들이다. 그의 후대에 와서 나라의 높고 주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맡은 일은 힘써 하지 않고 탐욕스러워 돈을 굶어모으고 사람들을 돈만 아는 시정배, 건달군으로 만들었고 또 권세있는자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아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⁶⁾

위의 내용처럼, 인재 선발과 등용의 문제와 관련한 문제로서 부패한 봉건적 통치자들과 무능한 봉건 군주에 대한 비판을 그 첫째로 꼽으며, 그와 관련한 작품으로 <국순전>과 <공방전>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덕성에 대한 찬양을 그 두 번째 주제지향으로 꼽는다.

의인전기체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둘째로 작품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서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며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항상 강직하고 결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윤리도덕을 찬양한 것이다.

리규보의 <청강사자현부전>, 리곡의 <죽부인전> 등은 저부기, 참대를 주인공으로 의인화한 작품으로서 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작품에서 형상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윤리적인 문제들을 보여주었다.⁷⁾

위와 같이, 사회에서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며 강직하게 살고 있는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도덕성에 대한 찬양을 주제지향으로 삼은 작품으로 <청강사자현부전>, <죽부인전>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위도식하는 봉건관료에 대한 비판을 그 셋째로 꼽고 있다.

의인전기체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셋째로, 아무런 재간이나 능력도

6)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7)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없이 높은 벼슬자리를 타고앉아 하는 일 없이 라태한 생활에 빠져 무위도식 하는 기생층적인 봉건관료들의 생활을 풍자폭로한 것이다.(중략)

특히 무위도식자, 라태한 생활에 빠진 양반관료들을 풍자비판한 작품은 성간의 《용부전》이다.(중략)

용부는 주인공을 의인화한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형상적이름이다. 어쨌든 《용부전》은 의인전기체소설들이 활발히 성행하던 시기에 그 풍조속에서 그 시대의 부정적사회현실과 무능력한 봉건관료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사상적 공통성을 가지고 창작된 작품이며 《게으른 성질》을 이름화하여 씌여진 작품이다.⁸⁾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위에서는 〈용부전〉을 꼽고 있다. 과연 〈용부전〉을 의인전기체산문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이 경우에도 그 주제는 반봉건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 사상적 지향에 대해, 크게 ‘반봉건’과 ‘도덕성에 대한 찬양’이라는 두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순전〉은 인재선발과 등용의 문제에 대한 반봉건적 주제 지향의 작품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라 같은 주제지향으로 묶인 〈공방전〉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확인된 논저 중에서는 〈국순전〉에 대한 모든 논의가 〈공방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인전기체산문의 선구적작가의 한 사람인 립춘은 《공방전》, 《국순전》 등에서 돈, 술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무신정변이후 정계의 추악한 현실을 재현하고 무인통치배들의 전횡과 부정부패행위를 폭로비판하였다.
(중략)

이로서 《국순전》은 《공방전》과 함께 후기의 의인전기체산문의 창작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④⁹⁾

8)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9) 정홍교,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1~305쪽.

의인전기체소설 《공방전》은 주인공 공방의 생활을 객관적묘사를 통해 여러모로 보여주면서 그의 개성적성격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주인공의 운명을 사회력사적 관계속에서 밝히고있다. 주인공 공방은 탐욕한자로서 나라의 정사에는 관계없이 재물을 끌어들이고 돈으로 벼슬도 사고 파는 매관매직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형상하였다.

《국순전》 역시 주인공이 부화방탕한 생활로 나라의 정사를 망치는 간신들의 성격을 전형화하였으며 그의 멸망의 운명을 보여주었다.-⑤¹⁰⁾

《공방전》에서는 권모술수로 국가재정을 장악하고 비행을 저지르다가 쫓겨나는 공방일가의 운명을 통하여 부귀출세에 환장한 나머지 인재등용제도와 법질서를 혼란시킨 무신통치배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발가벗으며 《국순전》 역시 국순일가의 흥망을 통해 통치배들의 방탕한 생활풍조와 그릇된 인재등용으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⑥¹¹⁾

인용된 부분을 보면, 〈국순전〉과 〈공방전〉이 같은 주제의식으로 묶여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④와 ⑤의 경우에는 다른 의인전기체산문 작품들까지 모두 언급하면서도 두 작품에 대한 논의가 시종일관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논의의 전제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두 작품을 묶어 이야기한다. 또, 다른 작품들에 대한 언급도 두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④의 내용에 두 작품 모두 임춘이 지은 것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작품이 같은 작가에 의해 지어졌기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두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의 경우에 작가인 임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작품을 묶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10)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11) 리성,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 『민족문화유산』, 2006년 1호.

생각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⑥의 경우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이라 하여, 논저의 제목에서부터 두 작품을 병치시키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춘에 대한 작가론적 측면의 논저이므로 두 작품을 함께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내내 두 작품을 마치 같은 작품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국순전〉과 〈공방전〉이 거의 같은 작품으로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논저에서 두 작품을 나란히 언급하면서도 각각을 비교해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주제적 지향으로 묶인 두 작품을 함께 언급하면서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순전〉과 〈공방전〉이 함께 논의되는 경향을 통하여, 북한에서는 작품 각각의 소재나 서사의 차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 만큼 작품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우위에 놓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3. 반봉건적 주제지향에 따른 ‘국순’의 부정적 형상에 대한 논의

의인전기체산문은 장르 자체에 공통된 주제 사상적 특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순전〉은 ‘반봉건’의 주제 지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제는 〈국순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작품이 지닌 반봉건적 주제의식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한다.

〈국순전〉은 주인공 국순의 행적에 대한 설명이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국순의 인물형상과 행적이며, 작품의 해석 또한 국순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 것에 집중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순의 원형인 ‘술’의 내력이나 특성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국순의 바탕에 놓인 ‘술’은 오로지 주제의식을 구현해내는 국순의 인

물형상으로서만 의의를 지니게 된다.

다음에 제시된, ④의 설명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 술을 의인화한 부정적주인공인 국순은 간신의 전형이다.

국순은 본래 벼슬을 탐내지 않고 《의젓하고 깨끗한 덕》을 백성들에게 전하던 보리의 후손으로서 못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연회때에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가 쓸쓸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벼슬길에 나서면서부터 출세와 공명을 꿈꾸었고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자 임금의 마음을 틀어잡고 좌지우지하는 간신으로 변해버리었다.

그는 술로 임금을 유혹하여 정사를 망치게 하고 일이 잘못되는것을 보면 서도 입을 다물고 임금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 득세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충신들이 국순을 원수처럼 미워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¹²⁾

이와 같이 주제적 측면에 집중한 이해는, 주인공 ‘국순’의 인물 형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기반을 둔 내력이나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특징보다는, 작품상에서 그려지는 ‘국순’이라는 인물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중점을 두게 한다. 부정적인 사물인 술이 의인화되었기에, 국순은 그대로 부정적인 주인공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의인화된 대상물과 주인공의 형상 관계는 이렇듯 명료하게 설명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혹,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이 언급된 것이, ‘술’이라는 사물의 장점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설명을 보면 그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겠다.

작품에서 주인공 국순의 형상은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으로 임금의 환심을 얻어 권력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충신들을 모해하며 임금을 방탕하게 만들어 국사를 망치고 종당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신의 부정적인 성격

12) 정홍교,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4쪽.

적 특질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성격의 규정을 주지 않고 이야기의 전진과정에 성격의 부정적측면을 심화시켜 점차 뚜렷하게 밝혀냄으로써 예술적품위를 한결 돋구어주고 있다.¹³⁾

말하자면, 어린 시절 국순의 선한 행적은 ‘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결국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 국순의 인물형상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장치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신의 전형으로 형상화되는 국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를 중용한 임금과의 관계에까지 이어져, 〈국순전〉을 ‘봉건 통치에 대한 비난’이라는 체제 저항적인 주제로 나아가간 작품이라 이해한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인공 국순과 무능한 임금과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권력의 최고지리에 올라 허세를 부리던 임금의 암둔성과 무능력, 그것이 정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있다.¹⁴⁾

간신인 국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중용하여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한 임금의 무능함도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며, 이것이 봉건 통치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순전〉의 체제 비판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주인공 국순의 부정적 형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의인전기체소설 《국순전》의 주인공은 술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국순의 먼 선조인 보리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행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향락적인 생활을 폭로비판하고 있다.

국순의 조상들은 처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백성들을 돕는 일에 공로도

13) 정홍교,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5쪽.

14) 정홍교,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5쪽.

있었다. 그러나 후대들에 이르러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벼슬에 올라 왕과 더불어 밤낮 취해다니고 부화방탕한 생활만을 일삼았다. 욕심도 많아 재산을 굶어 모으는데도 솜씨가 있었다. 결과 나라안이 어지럽게 되고 자신도 망했다. 소설의 이야기는 단순히 술의 해독작용에 대한것만이 아니다.(중략)

주제는 갑신정변이후에 들어왔은 고관대작의 벼슬아치들의 이야기이며 제기하고있는 사상은 바로 권세와 탐욕,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고있던자들로 하여 초래된 후과와 함께 무능력한 봉건통치자 왕이 간신들을 가까이 하는 그릇된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¹⁵⁾

여기서는 국순의 선조인 보리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행적이, 그대로 봉건 통치자들의 향락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실제의 작품 속에서 국순의 가문은,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친 바가 더 많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저에서는 국순의 가계가 나라에 대대로 악영향을 끼쳐온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봉건적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국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남한에서 <국순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교술인가 소설의 과도기적 양태인가'라고 하는 장르 구분의 문제에 대한 연구로서 여타의 가전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것이 그 하나이다. 이는 북한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이 소설적 특징을 분명히 지니

15)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고 있으며, 소설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서사 장르로서 확정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가전을 교술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소설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내어 놓는다. <국순전>에 대해 반봉건적 주제지향을 지닌 의인전기체산문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주제의식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북한학의 해석과는 달리, <국순전>에 대한 남한학의 연구는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동일한 대상을 의인화한 이규보의 <국선생전>과 비교하여 그 특질을 뚜렷이 하는 방향의 연구가 있다. 이는 북한에서 <국순전>을 같은 주제지향을 지닌 <공방전>과 묶어서 논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순전>에 대한 남한학의 연구가 앞에서 소개한 북한학의 연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4.1. ‘가전’의 장르 구분과 그에 따른 작품 해석상의 태도

<국순전>의 장르를 구분함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가전(假傳)’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전’이라는 명칭은 장르적 속성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그 작품 형식상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사서의 열전에 해당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북한에서 의인전기체산문을 우리 문학의 내적 발전에 의한 고유의 문학 양식으로 보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당나라 한유의 <모영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¹⁶⁾ 북한의 주장이 의인전기체산문을 설화에서 소설을 잇는 산문 발전 단계의 중간 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가전의 발생에 대한 남한학의 논의는 그 장르의 구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낳고

16) 안병설, 「가전에 대한 이견 산고」, 『명지어문학』7, 명지어문학회, 1975.

있다.

가전의 장르 구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에 따라 교술문학이라는 입장, 서사문학으로서 소설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입장, 그 외에도 가전을 독립성을 지닌 별도의 장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가전을 교술문학으로서 바라보는 경우, 가전의 기본 성격이 사물을 의인화해 사람인 듯 다루면서 그 일생을 ‘전(傳)’으로 서술한 글이므로, 등장시킨 사물을 잘 알아야만 이해될 수 있고, 작품 자체로서의 유기적인 전개는 갖추지 않고 있는 점이 교술문학이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한다.¹⁷⁾ 가전의 소설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그 서술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물이나 주제의 형상화에 있어서 작가의 표현 욕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점이 그 서사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¹⁸⁾ 마지막으로 가전을 별도의 장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가전이 일반 의인작품이나 우화와는 정반대로 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인간에게는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설화를 수용했으나 설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소설과도 다른 특질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지닌다고 보며, 그 우연적 특성에 주목하여, 새로이 ‘우연산문’이라는 장르에 가전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¹⁹⁾

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제3판), 121~122쪽.

18) 김광순은 가전을 의인소설의 한 종류로서 다루고 있으며 (김광순, 「한국 의인 문학의 사적 전개와 성장(상·하)」, 『국어국문학연구』15·16, 국어국문학연구회, 1967.), 김현룡은 그의 논저에서 〈국순전〉에 대하여 ‘소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순전〉이 소설 장르로 구분된다는 그의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또한, 윤기홍은 가전의 갈래 특성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가전이 ‘서술성’에 기반을 둔 양식임을 인정하면서도 후대에 이르러 규범의식을 지양하고, 점차로 작자의 표현 욕구를 폭넓게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 그 서사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순한 설명의 차원이 아니라 작자의 표현 욕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적 면모를 찾고 있는 것이다. (윤기홍, 「가전체 문학의 갈래와 소설적 전환」, 『목원어문학』 제8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19) 안병렬은 가전과 전기, 가전과 우화, 가전과 소설을 각각 비교하여 형식 면에서의 고유한

이처럼 가전의 장르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국순전>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순전>과 가전을 교술문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주인공인 ‘국순’에 대한 이야기로서 작품을 살피기보다는, ‘술’에 대한 이야기로서 ‘술의 행적’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국순전>에 나타난 술의 행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하나는 국순의 큰 도량과 남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재간 등, 긍정적인 측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돈을 거두어들이는 모습, 하루 저녁에 죽고 마는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다. 이 두 가지 행적은 술에 관한 것이면서 사람에게 관한 것이다. 술은 흥을 돋워주지만 너무 마시면 나라마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를 문제 삼는 이면적인 설정에서는 이와는 다른 주장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다. 벼슬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도 송양을 받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벼슬을 해서 나라를 망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 군주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작자가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아 마땅하다고 말한다.²⁰⁾

반대로, <국순전>을 소설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술’의 특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내용 면에서의 속성을 드러내 가전문학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가전은 일반 의인작품이나 우화와는 정반대로 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인간에게는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설화를 수용했으나 설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소설과도 다른 특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안병렬, 「가전문학과 타장르와의 비교고찰」,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2001.)

김창룡 또한, 중국 가전과 한국 가전을 망라하여 가전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 형식과 외부적 형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가전이 설화·소설과는 다른 독립된 장르라는 주장을 폈다.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또, 윤주필은 가전의 우언적 특성에 주목하여, 새로이 ‘우언산문’이라는 장르에 가전을 포함시키고 있다.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언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2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제3판), 122~123쪽.

관심보다는 작가의 창작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초점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국순전〉을 ‘간사한 정객을 비꼬아 꾸짖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려는 목적성을 지닌 소설’이라고 하여 작가의 창작의도에 집중한 작품 해석을 보여준다.²¹⁾ 또, 〈국순전〉이 술을 의인화하여 그 행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술로 인해 빚어지는 세태를 골계적으로 희화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술을 가까이하고 삶을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면서도, 그로 인해 빚어지는 폐해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삶을 골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고자 하는 문인들의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기도 한다.²²⁾

앞서 〈국순전〉에 대한 북한의 연구들을 살펴본바, 이와 같은 남한의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국순전〉을 의인전기체산문의 효시로 보고, 이후의 의인전기체산문과 후대의 소설문학으로 이어지는 소설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라고 확고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국순전〉을 비롯한 가전 작품들의 갈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지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작품의 해석 태도에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국순전〉이 지향하는 바를 봉건적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순의 긍정적인 형상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다. 국순의 행적은 오로지 당대 통치계층의 무도함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이해를 보이기도 한다. 의인화된 소재에 집중한 해석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술의 이중적인 특성을 드러내어 그것을 통해 인간의 도리에 대한 사유나 개인적인 지향을 나타낸다고 보기

21)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22) 윤기홍, 「가전체 문학의 갈래와 소설적 전환」, 『목원어문학』 제8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도 한다. 또 작가의 창작의식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소외된 지식인으로서 임춘이 느껴야 했던 불합리한 세태에 대한 절망이나 조소가 들어있다고 보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4.2. <국순전>을 <국선생전>과 함께 논의하는 경향

남한에서는 가전 작품들을 논의할 때에 의인화된 소재별로 묶어 작품군으로 다루거나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다.²³⁾ <국순전>의 경우는 ‘술’을 소재로 한 작품유형 연구의 대상으로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어 주로 <국선생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²⁴⁾ 이러한 비교연구는 두 작품의 내용

23) 채성숙은 대나무를 소대로 한 가전 8편을 대상으로 한·중 비교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 연구는 크게 내용과 구조, 주제비교 연구로 이루어졌다. 작품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개별 작품의 개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같은 제목을 가진 <죽부인전>의 경우 각각의 독자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채성숙, 「한·중 죽류가전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유기옥은 ‘문방사우’ 가전을 묶어서 상호 통시적인 연계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유기옥, 「문방사우의 문학적 변용」, 『어문학연구』 제1집, 우석대 어학연구소, 1996.)

24)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비교한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김란희,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선자,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국어국문학연구』7집,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국어국문학과, 1981.
- 김종근,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나타난 출퇴관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연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 이강욱, 「국순전과 [국생원전의 서술방식과 세계관」, 『다국어수용선생회갑기념 고소설연구』, 간행위원회, 1988.
- 이승호, 「가전체소고-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 『국어국문학지』제16집, 문창어문학회, 1979.
- 정소화, 「한·중 술 소재 가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수하,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중국어문학』3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
- 하경희, 「술 의인화 가전의 문학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과 사상, 작품의 형성배경을 비교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거나²⁵⁾, 몇 가지의 비교 항목을 설정하여 두 작품을 세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⁶⁾

한편으로는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지은 임춘과 이규보를 비교하여 작가론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무신 집권에 의해 몰락한 문벌귀족 계층으로서 방외인적인 삶을 살았던 임춘과, 무신 집권세력에 의해 중용되어 문인으로서의 영애를 누린 이규보의 생애와 작가의식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주목하여 <국순전>에 대한 <국선생전>의 모작 가능성을 부정하고 두 작품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²⁷⁾ 작자에 따른 두 작품의 출퇴관을 비교한 연구도

문, 2002.

25) 김현룡은 그의 논지에서 두 작품의 내용, 사상, 그리고 형성상의 비교문학적 측면을 고찰하며, 후대 작품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순전>은 간사하고 아부하는 정객들을 비꼬아 꾸짖고, 아울러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려는 목적성의 소설인 데 비하여, <국선생전>은 미천한 몸으로 성실히 행동하여 발탁되고 충애가 지나침을 당하여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나 뉘우칠 줄 아는 인간, 그래서 국난을 당하며 다시 백의종군하여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하는 그야말로 견기이작(見機而作)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훈적인 작품이라 하였다.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26) 조수학은 두 작품을 비교하여 대조표를 만들었는데, 주인공, 시조, 가족 관계, 성격, 기본, 교우관계 등과 공과에 이르기까지 총 1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며 각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수학,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 영남대 영남중국어학회, 1981.)

또한 김선자는 두 작품의 내용, 인물, 구성, 배경, 주제, 사상의 측면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선자,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국어국문학연구』7,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81.)

27) 이승호는 임춘의 <국순전>과 이규보의 <국선생전>이 거의 비슷한 제재와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후작인 <국선생전>이 선작인 <국순전>을 모방한 작품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은 전혀 다른 성질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국순전>의 저자인 임춘은 무신란으로 몰락한 구귀족에 속하는 인물인데 반해 <국선생전>의 저자인 이규보는 무신란과 함께 대두하기 시작한 신진 세력에 속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임춘의 문학이 몰락한 선비의 자위책이었음에 비하여 이규보의 문학은 진출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임춘과 달리 이규보는 현실을 허망하게 보는 관념론을 비판하고, 현실 자체와

이루어졌다.²⁸⁾ 또,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우언적 독해를 통해 가전을 읽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²⁹⁾

이처럼 남한에서는 〈국순전〉을 주로 이규보의 〈국선생전〉과 묶어 논의 하면서 두 작품의 차이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같은 소재를 의인화한 작품들을 한 유형으로 묶어 논의하는 남한 가전연구의 경향에 따른 것이며, 무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엇갈린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두 작가, 임춘과 이규보의 차이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같은 소재와 형식을 빌어 지은, 서로 비슷한 작품을 면밀하게 비교함으로써 두 작품의 세세한 특질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북한에서는, 같은 작가에 의해 동일한 주제적 지향으로 창작된 의인전기체산문의 효시로서 〈국순전〉과 〈공방전〉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같은 주제의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두 작품을 함께 다룸으로써 그 주제의식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순전〉을 〈국선생전〉과 함께 논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선생전〉의 결말부에 주인공의 성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북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의인전기체산문의 주제사상적 지향, 즉 ‘봉건적 통치 질서에 대한 비판’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봉건적 체제를 옹호하는 작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활동을 긍정하는 신흥사대부의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본다. 이러한 문학사상의 차이가 두 작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승호, 「가전체 소고-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 『국어국문학지』제16집, 문창어문학회, 1979.)

28) 김중근,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나타난 출퇴관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29)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언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리 성, 「중세 첫 의인전기체산문 <공방전>과 <국순전>」, 『민족문화유산』, 2006년 1호.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석문호, 「고려시기 의인전기체소설의 발생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1999년 2호.
- 정홍교, 『조선문학사』2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5.2. 남한 자료

- 강중탁, 「가전소설연구」, 『논문집』11집, 전주대학교, 1982.
- 김건근, 「고려 가전문학의 성립과정」, 『정신문화연구』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84.
- 김광순, 「한국 의인 문학의 사적 전개와 성장(상·하)」, 『국어국문학연구』15·16, 국어국문학연구회, 1967.)
- 김란희,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선자,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국어국문학연구』7집,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 김종균,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나타난 출퇴관 비교 연구」, 『한국문학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창룡,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앤씨, 2006.
- 김창룡, 『고전명작 비교읽기: 한중가전』,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창룡, 『우화의 뒷풍경: 가전독법』, 박문사, 2010.
-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65집, 국어국문학회, 1974.
-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상)」, 『국어국문학』15집, 국어국문학회, 1956.
- 안병렬, 「가전문학과 타장르와의 비교고찰」,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2001.
- 안병설, 「가전에 대한 이견 산고」, 『명지어문학』7집, 명지어문학회, 1975.
- 유기옥, 「문방사우의 문학적 변용」, 『어문학연구』 제1집, 우석대 어학연구소, 1996.
- 윤기홍, 「가전체 문학의 갈래와 소설적 전환」, 『목원어문학』8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 윤용식, 「서하임춘문학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윤주필, 「〈국순전〉·〈국선생전〉의 우언적 독해」,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2007.
- 이강옥,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서술방식과 세계관」, 『다국어이수봉선생회갑기념 고소설연구』, 간행위원회, 1988.
- 이승호, 「가전체소고-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 『국어국문학지』제16집, 문창어문학회, 1979.
- 정소화, 「한·중 술 소재 가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94(제3판).
- 조수학, 「〈국순전〉과 〈국선생전〉 비교연구」, 『중국어문학』3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
- 채성숙, 「한·중 죽류가전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 하경희, 「술 의인화 가전의 문학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홍윤>

만복사저포기 萬福寺樗蒲記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만복사의 윗놀이

1. 서지 사항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전하는 5편 가운데 첫 번째의 작품으로, 북한에서는 애정윤리적 주제를 생동하게 그린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작품 명칭은 남한에서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원제목인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그 명칭이 〈만복사의 윗놀이〉로 변화하였다.

현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초기 문학 연구 자료는 1959년 과학원에서 편찬한 『조선문학통사』인데, 여기서도 남한과 같이 〈만복사저포기〉로 명시하고 있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으로 문학 연구에서 거론한 모든 작품의 명칭이 남한과 동일하다. 이후 1977년에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에서는 〈만복사의 윗놀이〉로 명명하고 있다. 이 명칭은 이후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작품 개요

남원에 양생이라는 총각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만복사의 동쪽에 살고 있었다. 양생은 부처님에게 저포놀이로 내기를 걸면서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축원을 올렸다. 부처와의 저포 내기에서 이긴 양생은 불좌 뒤에 숨어 있었다. 잠시 후 어떤 처녀가 나타나 왜적의 침입으로 수난을 겪은 사연과 꽃다운 배필을 얻는 소망을 담은 글월을 불전에 바치는 것이었다. 서로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만복사 행랑채의 판자방에 들어가 운우의 정을 나누었다.

처녀는 양생과의 백년가약을 축하하기 위한 주연을 베풀었다. 양생은 기이한 상차림을 보고 인간의 솜씨가 아닌 듯하여 괴이하게 여겼으나, 이내 곧 귀족집 아가씨가 마음을 건잡지 못하고 담장을 넘어 온 것이라며 그의 구심을 진정시켰다. 날이 밝자 처녀는 양생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는데, 도중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혼자 걸어가는 양생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처녀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처녀는 양생에게 은잔을 건네주며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라고 하였다. 다음 날 양생은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들고 있는 은잔을 보고 양생을 딸의 무덤에서 유품을 훔친 도둑으로 오해하였다. 그러자 양생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그들은 딸이 왜적으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을 양생에게 말해주었다. 양생의 의도가 미심쩍은 처녀의 아버지는 양생에게 자신의 딸을 기다렸다가 같이 오라고 하고는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그 길목에서 처녀를 기다렸다가 함께 보련사로 왔다.

그날 밤 처녀의 부모는 양생에게 자신의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밤이 깊자 처녀는 그에게 서로 생사의 길이 달라 이별하여야 된다고 털어 놓고는 사라졌다. 그제야 처녀의 부모는 양생의 말이 전부 사실임을 깨달았고, 양생 또한 그녀가 양계(陽界)의 사람이 아님을 확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잊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은잔과 더불어 처녀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재물을 양생에게 주었다.

이튿날 양생은 처녀의 무덤을 찾아가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녀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산과 농토를 팔아 매일 저녁 그녀를 위한 제를 올렸다. 하루는 처녀가 다시 나타나 자신이 이웃 나라에서 남자로 환생하였다고 하며,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부탁하였다. 양생은 처녀를 잊지 못해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하지만, 그 후로의 소식을 들은 이가 없었다.

3. 북한의 연구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에서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개별 연구는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 다만 1959년 이후 출간된 문학사들을 통해 이 작품에 대한 북한 연구의 성과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만복사저포기〉 연구 성과들을 찾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화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④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⑤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3.1. 『금오신화』의 창작과 유통

『금오신화』는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지은 한문소설집으로,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의 5편이 전한다. 지은 연대는 저자가 31~36세(1465~1470년) 사이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은거하였으므로, 그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김안로의 『용천담적기』에 집필과 석실에 보관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 석실에 보관한 책은 이후 금세 민간에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향유 사실은 16세기말까지의 몇몇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 학계에서는 주로 위에 든 김안로의 언급과 다음의 『퇴계언행록』의 기록으로 그 창작 경위와 유통에 대해 논증한다.

퇴계가 일찍이 하곡(荷谷) 허봉(許篈)의 물음에 답하여,

“梅月別是一種異人 近於索隱行怪之徒 而所值之世適然 遂成其高節耳 觀其與柳襄陽書 金鰲新話之類 恐不可太以高見遠識許之也(『退溪言行錄』)¹⁾”

라 한 것으로 보아 『금오신화』가 퇴계의 繙讀을 거쳤다면 완전히 석실 속에서 신비물로 된 것은 아닌 듯하다.²⁾

이러한 작품의 창작과 유통에 대한 관심은 북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남한의 연구 성과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 보인다.

《금오신화》는 한질의 단편소설집으로서 원본의 일부는 잃어버리고 현재 다섯편만이 남아있다. 그 개별적작품들이 각기 어느 해에 창작되었는가

-
- 1) 매월당은 특별한 일종의 이인이다. 궁벽한 것을 캐내고 괴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까이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게 하였다. 마침내 높은 절개를 이루었을 뿐인데, 류양양에게 보낸 글과 금오신화 부류를 보건대 아마도 높은 견해와 넓은 학식을 가졌다고만 말할 수 없을 듯하다.(퇴계언행록)
 - 2)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163쪽.

를 정확히 고증할수는 없으나 동시대 사람인 김안로(?~1537)가 자신의 《룡천담적기》에서 김시습이 《금오산에 들어가 책을 저술하여 석실(돌로 만든 방)에 두면서 후세에 반드시 김시습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것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그 책은 기이한 이야기에 뜻을 담은것》이라고 쓴것이라든가, 그 작품집의 표제를 《금오신화-금오산의 새 이야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자가 경주 금오산에 머물러있을 때에 창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 류희령의 《대동연주시격》에도 밝혀져 있다.³⁾

그런데 《룡천담적기》에서 《금오신화》는 작가자신이 석실에 숨겨둔 것으로 되어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 알려지고 읽히었던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6세기에 저술된 《대동운부군옥》이나 《대동연주시격》에 《금오신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서, 그리고 현적복이 자기의 《현은산일기》(1585.7.26)에서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금오신화》를 읽었다.》고 쓰고있는데서 이 작품이 이 시기에 이미 전국적범위에 전파되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금오신화》는 국내에서 독서가들의 주목을 끌었을뿐만아니라 일찌기 일본에도 전해져 1653년에 일본어로 번역출판되어 널리 읽히었다.⁴⁾

북한에서도 김안로의 『용천담적기』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창작 시기를 작가가 경주 금오산에 은거한 1465년 여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남한보다는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평안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현적복의 『현은산일기』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면서 전국적인 유통의 증거를 삼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의 출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학계에서 『금오신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학사 기술에 집중되어 있고 개별 논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가운데 『금오신화』의 창작 시기

3)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0~201쪽.

4)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1~202쪽.

와 전승 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가 있어 눈길을 끈다.

《금오신화》가 어느 돌방속에 어떻게 보관되어있었는가는 잘 알 수 없지만 작가가 사망한 후 30년어간에 발견되어 1520년대부터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16세기에 편찬된 여러 문헌들에 《금오신화》에 대한 자료가 수록된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금오신화》와 관련된 기록자료들은 리행(1478~1534년) 등이 1530년경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안로(1513~1537년)의 《룡천담적기》, 리황(1501~1570년)의 《퇴계언행록》, 권문해(1534~1591년)의 《대동운부군옥》, 류희령(16세기)의 《대동연주시격》, 어숙권(16세기)의 《패관잡기》, 권별(16세기)의 《해동잡록》, 현적복(16세기)의 《현은산일기》, 민주면(16세기)의 《동경지》등에 실려있다.⁵⁾

북한의 학술지 『민족문화유산』에 수록된 글에서는 그 창작시기에 대한 두 견해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작가가 31세 때 금오산에 칩거하면서 집필했다는 설과 말년에 다시 금오산에 들어가 창작하였다는 두 견해를 두고 전자가 합리적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 유통의 과정도 여러 기록 자료들을 찾아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은 사실과 일본에서의 간행 사실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1927년 『계명』(19호)에 대충본이 국내에 소개된 사실까지 밝히고 있다. 다만 소개자인 육당 최남선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에서 이 작품의 창작과 유통에 대한 시각이 남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작가의 사후에 지식인들 사이에 유통되던 작품이 임란 이후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증보문헌비고』의

5) 한인영,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금오신화>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에 대한...」, 『민족문화유산』, 2008, 4호.

예문고 등의 도서목록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희귀본이 임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세 차례 간행⁶⁾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내에 『금오신화』가 소개된 것은 육당 최남선이 『계명』 19호(1927년)에 게재하면서이다. 이 영인본은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1884년(명치 17년) 동경에서 출간된 대총본(大塚本)으로서, 상하권 2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후 남한에서도 다른 저본이 발견된 적이 없었고, 정병욱교수는 이러한 일본 출간본의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본인이 수집한 필사본전기집⁷⁾ 속에 포함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을 상호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하고 일본판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확인하고 있다.⁸⁾

북한의 문학 연구에서도 해방이전에 국내에 소개된 이 대총본을 대상 텍스트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단 이후 북에서 출간된 어떤 기록에도 『금오신화』 판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의 공통된 논의에 추가될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모두 『금오신화』의 조선시대 출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임란 이후 일서(逸書)가 되어 조선 후기 전혀 읽힌 기록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999년 중국 대련도서관에 보관된 조선간본⁹⁾ 『금오신화』가 최용철교수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조선에서도 명종년간에 윤춘년(1514~1567년)이 편찬을 맡아서 목판본으로 출간된 것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북한 학계에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상호 교류가 되어야 할 내용이다.

6) 최용철은 일본에서 간행된 판본을 승응본(1653년), 만치본(1660년), 관문본(1673년), 명치본(1884년)의 4종으로 제시하면서, 만치본과 관문본의 판본 내용이 동일하므로 세 차례의 간행으로 보자고 하였다(『『금오신화』 조선간본의 간행과 전파, 『한국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아세아문화사, 2001).

7) 정병욱교수가 1952년 수집한 『신독재전기집(慎獨齋傳奇集)』이다.

8) 김시습, 『금오신화』, 아세아문화사, 1973(정병욱, 「금오신화해제」).

9) 최용철교수는 중국 대련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시대 간행 목판본을 조선시대 유일하게 간행된 판본이므로 ‘조선간본’으로 명명하자는 견해이다.

결국 『금오신화』는 작가 김시습이 1465년 즈음에 경주 금오산에서 창작하여 석실에 감추어 두었는데, 사후 30년 즈음인 1520년부터 민간에 유통되어 읽히기 시작하였고, 명종조 때에 목판본으로 출간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임란을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사라지고, 이것이 일본에 유출되어 세 차례의 출간을 거친 후 육당에 의해 대충본(명치본, 동경본)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다시 유통하게 된 것이다.

3.2. 초기 소설로서의 〈만복사저포기〉

북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가 『진동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김시습의 독창적인 재능과 사상을 보여 준 예술작품이라며 높이 평가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생규장전〉을 들어 초기 소설로서의 면모를 포착하고 있으나, 간혹 〈만복사저포기〉에서 드러난 그 특성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1959년에 출간된 『조선문학통사』와 1977년에 출간된 『조선문학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1982년 『조선문학사』에서는 〈만복사저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기 소설로서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나라 고전 소설은 또한 선행 시기 예술적 산문에서의 성격 창조의 예술적 성격과 구성 조직의 경험을 이어받으면서 발생 발전하였다. 7~14세기의 예술적 산문의 작가들은 창작에서 인간 성격을 생동하도록 진실하게 묘사하는 데 힘을 들였다. 그들은 작품의 등장 인물들을 점차 그들의 사회적 처지와 환경과 결부하여 묘사하려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 고전 소설은 바로 선행 시기 예술적 산문이 이룩한 이러한 창작적 경험을 이어받으면서 발생 발전하였다. 이시기 소설은 그 주제 사상적 경향과 묘사 방법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갈래는 꿈의 형식으로 된 단편 소설이다. 김시습(1435~1493)의 단편

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만복사 옷놀이」·「남염부주 이야기」·「용궁의 상량잔치」등과, 임제(1549~1587)의 「원생몽유록」은 다 꿈의 형식으로 씌어진 소설로서 소설 발생 초기의 하나의 창작 경향으로 되었다.¹⁰⁾

『금오신화』를 시작으로 선행 시기 예술적 산문의 특성을 이어받으면서 주제와 기법적인 측면에서 소설적인 면모를 갖추어 갔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그 중 우화 소설이나 군담 소설의 면모를 갖추어 간 작품들과 더불어 꿈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만복사저포기〉를 들고 있다. 실제 〈만복사저포기〉는 주인공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가리켜 꿈의 형식이라고 규정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죽은 처녀와의 사랑을 다룬 환상적 기법을 꿈의 형식이라고 말한 듯하다. 초기 소설들의 경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명혼소설적 면모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제금오신화(題金鰲新話)〉를 근거로 하여 김시습이 구현해낸 새로운 문학 형식의 특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시습의 문학에 대한 견해와 창작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모방과 도식을 반대하고 새로운 문학 형식을 탐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설이라는 문학 형태의 작품들을 쓰게 된 것이다. 김시습이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쓴 서정시 「금오신화에 쓴다」가 잘 보여주고 있다.

.....

간긴 이 밤중에
등반불 돋귀 놓고
향불을 피워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글을 쓰노라

10)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36~237쪽.

옥당의 벼슬길은 잊은 지 오래고
산 깊고 물 깊은 데 단정히 앉았으니
밤은 점점 깊어 가네
향로에 향 피우고
지필묵 펼쳐 놓고
구수한 새 이야기를 고비고비 엮어 가노라.

이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시습은 자기가 쓴 소설 「이생과 최랑의 사랑」, 「남염부주 이야기」, 「용궁의 상량 잔치」 등의 작품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글”·“구수한 새 이야기”라고 하였다.

〈중략〉

김시습이 「이생과 최랑의 사랑」, 「만복사의 웃놀이」 등의 작품을 쓰게 된 것은 그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폭넓게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당대 인민들의 미학적 요구받아들여 새로운 소설 형태를 탐구하였기 때문이다.¹¹⁾

〈제금오신화〉의 구절을 통해 김시습의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 『금오신화』의 작품들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당대 수용자들의 미학적 요구를 받아들여 창작한 새로운 소설 형식이 〈이생구장전〉과 〈만복사저포기〉 등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소설 형식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단편 소설집 『금오신화』는 우리 나라 고전 문학 특히 소설의 발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주제가 애정 윤리적 문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유교 도덕에 대한 비판적 경향을 띠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 나라 고전 소설은 그 발생 시기부터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오신화』의 단편 소설들은 인간 성격에 대한 묘사와 구성에서 선행 시기 문학의 전기식 및 설화적 표현의 제한성을 점차 극복하

11)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39~240쪽.

고 현실 반영과 인간 성격의 창조에서 묘사의 기능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창조의 경험은 그후 우리 나라 구전 소설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¹²⁾

『금오신화』에서 애정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들은 그 이면에 유교 도덕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으며, 인물의 성격과 그 묘사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설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1986년에 출간된 『조선고전소설사연구』에서는 『금오신화』의 작품들에서 드러난 기이한 결연 과정이 초기 소설적인 면모를 더하여 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금오신화〉의 작품들은 그 구성에서도 발생초기 소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금오신화〉의 소설들은 그 이야기줄거리의 형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즉 기연기봉의 이야기줄거리형식과 꿈의 형식의 이야기줄거리로 나눌수 있다.

기연기봉의 이야기줄거리형식은 주로 〈만복사의 웃놀이〉, 〈리생과 최랑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 애정윤리적주제의 소설에서, 꿈의 형식은 〈남염부주 이야기〉, 〈룡궁의 상량잔치〉 등 사회적문제를 반영한 주제의 소설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금오신화〉의 애정윤리적주제의 소설들은 비록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인간관계에서 각각 고유한 특색을 보여주면서도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는데서는 다 젊은 청년남녀들이 기이한 계기에 의해 서로 만나 사랑을 성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소설 〈만복사의 웃놀이〉에서 랑생과 개녕동의 녀신은 8월 한기위날 밤 연등놀이를 후 웃놀이를 계기로 서로 만나 연분을 맺으며 〈리생과 최랑의 사랑〉에서는 국한생인 리생과 최랑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시를 주고

12)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43~244쪽.

받은것이 인연이 되어 마침내 사랑을 맺는다.¹³⁾

여기에서는 『금오신화』의 작품들은 구성적인 면에서도 초기 소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하며, 기연기봉(奇緣奇逢)의 형식과 꿈의 형식이 그러하다고 밝힌다. 기연기봉 형식의 작품으로 〈만복사저포기〉를 비롯한 애정윤리적 주제의 작품들을 들고 있다. 주인공들이 기이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이 초기 소설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어 기연기봉적 구성은 우리나라의 서사문학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 고전문학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기연기봉의 이야기형식은 15세기 소설에서 처음보는것은 아니다.

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려는 창작적담구의 흔적은 이미 고구려의 〈견우와 직녀〉전설을 비롯한 구전설화작품들과 9~10세기초경에 나온 〈두 녀자의 무덤〉 등 수이전체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생략〉

이 전설은 단적으로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즐겨 기연기봉의 형식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왔다는것을 보여준다.¹⁴⁾

설화 〈견우와 직녀〉에서 뿐만 아니라 〈쌍녀분〉에 이르기까지 기연기봉의 형식은 우리나라 서사문학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이며, 초기 소설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민족의 취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행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기연기봉 형식이 『금오신화』에 이르러서는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13)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8쪽.

14)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8쪽.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15세기에 처음으로 발생한 소설의 구성이 앞선 시기의 이상과 같은 이야기형식의 경험을 이어받았다는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형식을 소설형태의 구성상요구에 맞게 받아들여 소설문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데 있다.

〈생략〉

기연기봉의 이야기형식이 소설형태의 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시켜나갈수 있는 예술적형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금오신화〉의 애정류리적주제의 작품들은 소설의 형태상 요구에 맞게 기연기봉의 이야기형식을 한걸음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다.¹⁵⁾

『금오신화』는 앞선 시기와 같은 형식을 갖추었다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 이야기 형식을 소설 형태에 걸맞게 변용하였다고 밝히며 그 문학사적 의의를 거론하고 있다. 『금오신화』를 통해 기연기봉의 이야기 구성 방식이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생규장전〉을 대표작으로 여겨왔던 북한에서 1982년 『조선문학사』에서부터 〈만복사저포기〉도 연구 자료로서 주목하고,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초기 소설로서의 면모를 들어 문학사적 의의를 언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3. 봉건적 유교교리를 벗어난 자유로운 연애

북한에서는 〈이생규장전〉과 더불어 〈만복사저포기〉를 『금오신화』 작품 중 애정윤리사상을 담은 작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개 봉건적 유교교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하는 작품으로 설명한다. 먼저 1959년에 출간된 『조선문학통사』와 1977년에 출간된 『조선문학사』에서 〈만복사저포기〉를 소개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15)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8~39쪽.

또한 「만복사 저포기」에서 죽은 처녀와 양생(梁生)간의 사랑이라던가 「이생 규장전」에서 이생(李生)과 최랑의 사랑 등은 봉건적인 당시의 유교적 구속을 벗어나 남녀간의 결합에 있어서 자유로운 연애 관계를 주장하여 개성의 해방에 대한 작가의 지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¹⁶⁾

5편의 단편소설들은 그 주제 사상과 예술적 특성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두 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복사의 윷놀이」, 「이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은 사랑에 대한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며, 「남암부주 이야기」, 「용궁에 갔다 온 이야기」는 환상적 수법으로 봉건 유교 사상에 기초한 작가 자신의 사회 정치적 견해와 이상을 형상적으로 반영한 소설들이다.¹⁷⁾

그 주제의식에 따라 애정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만복사저포기〉를 들고 있으면서, 〈이생규장전〉이나 〈취유부벽정기〉와 더불어 당시의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적 지향이 드러난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만복사저포기〉에서 드러난 두 남녀의 사랑을 봉건적 가치관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의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복사저포기〉에 드러난 반봉건적 의식에 대한 논의는 김춘택이 저술한 『조선고전소설사연구』(1986)에서도 이어진다.

작가는 바로 이상과 같은 소래를 가지고 크게 두 갈래의 주제 즉 애정론리적주제와 사회정치적인 주제의 소설들을 썼다.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소설들가운데서 〈만복사의 윷놀이〉, 〈리생과 최랑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 세편은 애정론리적주제의 작품들이다.

소설 〈만복사의 윷놀이〉는 호남의 명승지인 남원에 사는 랑생이라는 젊은이가 연등회라는 민속놀이날에 한 아름다운 녀인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7쪽.

1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56쪽.

되는 이야기이다.

〈생략〉

만복사의 부처와 옷놀이를 하여 이긴것이 계기로 되어 그날밤 랑생과 처녀가 처음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랑생은 비록 의아스럽고 괴이 짝은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처녀의 아름다운 용모와 의젓한 태도로 보아 〈필연코 어떤 귀가집 처녀가 어른들 몰래〉 담을 넘어 집을 빠져나온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생략〉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봉건적도덕규범과 생활인습이 지배하던 당대사회에서는 실현될수 없었던 청년남녀들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고루한 봉건도덕을 강요하는 당대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있다.¹⁸⁾

애정윤리적 주제의 작품으로 분류하면서 각 장면을 들어 작품의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이생규장전〉에 못지않게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양생과 처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당대의 현실에 실현될 수 없는 결연이 〈만복사저포기〉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하며, 간접적으로 당대의 봉건의식을 비판한다고 해석하였다.

단편소설집 〈금오신화〉는 우리 나라 고전소설의 발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금오신화〉의 소설들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이 직접 사회정치적 문제를 담고있는 경우는 물론 애정윤리적문제를 다룬 작품의 경우에도 비판적경향을 강화함으로써 발생초기의 소설문학으로 하여금 당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생략〉

그리고 애정윤리적주제의 소설들인 〈리생과 최량의 사랑〉, 〈부벽정의

18)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24~25쪽.

달맞이), 〈만복사의 율놀이〉 등도 〈남녀칠세부동석〉을 강요한 봉건도덕이 지배하던 당대의 사회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남녀청년들의 순결한 사랑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봉건유교도덕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악폐를 비판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고전소설은 그 발생초기부터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한 당대 인민들과 진보적작가들의 요구에 맞게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었다.¹⁹⁾

그리고 봉건적 유교사상에 반하는 그들의 사랑은 당대의 수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발전된 초기 소설로서의 면모라고 평가하며, 이 작품들로 말미암아 고전소설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1991년에 김하명이 주필한 『조선문학사』에서는 상세한 작품 분석과 더불어 앞선 논의들과 유사한 견해가 펼쳐진다.

〈만복사저포기(만복사의 율놀이)〉, 〈리생규장전(리생과 최랑의 사랑)〉, 〈취유부벽정기(부벽정의 달맞이)〉, 등 3편은 청춘남녀간의 애정륜리문제를 주제로 하여 폐쇄된 봉건유교도덕을 반대하는 사상을 밝혀낸 작품이며 〈남염부주지(남염부주이야기)〉, 〈룡궁부연록(룡궁의 상량잔치)〉 등은 환상세계의 묘사를 통하여 작자의 사회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고있다.

〈생략〉

김시습은 남녀간의 애정륜리를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봉건적인 유교교리에서 벗어나 참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남녀주인공들의 행동을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문과 재물을 기준으로 부모들의 리기적관점에서 강요되는 봉건적인 결혼에 대치시키고있다.²⁰⁾

여기에서는 〈이생규장전〉와 〈취유부벽정기〉와 더불어 〈만복사저포기〉

19)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43쪽.

20)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쪽.

는 봉건적 유교 교리에 저항하여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청춘남녀를 보여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사되었던 당대의 결혼 풍습을 폐쇄적인 봉건의식으로 평하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의 결연을 참다운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처녀와 양생이 만나는 장면을 특별히 거론하며 작가의 봉건적 남녀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소설에서는 개령동 처녀신이 시녀에게 하는 말에서, 그리고 량생에게 술을 권하며 〈만강홍〉 한곡을 새로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한 그 가사의 내용에서 작가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었다.

처녀는 량생과 이야기하며 즐기고있을 때 찾아온 시녀에게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돌보아준 덕분〉으로 한 어진분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인해서는 안된다고 비록 옛날 법전에서 가르치고있으나 이렇게 사사로운 자리에서 맞이하게 되는것도 또한 평생의 기이한 연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만강홍〉에서는 지난날의 외로움과의 대비에서 오늘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다.²¹⁾

처녀가 지은 노랫말에서 그들의 결연에 대해 처녀 스스로 유교적 교리에 벗어난 만남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럼에도 그 인연에 기뻐하고 있는 처녀에게서 작가의 반봉건적 견해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를 청춘남녀들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결연 과정을 보여주며 당대의 봉건적인 남녀관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지점 역시 초기 소설로서 선대보다 발전된 주제의식과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만복사저포기〉를 인정하고 있는 북한의 연구 경향으로 이해된다.

21)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3쪽.

3.4. 애국심과 자주성을 지향한 인물 설정

북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에서 봉건적 유교교리에 대한 비판의식과 더불어 왜적에 대한 저항정신과 애국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1959년 『조선문학통사』에서 부터 이러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중세 문학의 환상적이며 상징적인 수법을 빌려서 작가의 애국심과 해방적 지향을 훌륭히 반영하고 있다.

실례로 「만복사 저포기」에 나오는 처녀 귀신이나 「이생 규장전」에 나오는 최량의 형상은 모두 왜적과 홍두군(紅頭軍) 등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으나 그들의 고결한 품성과 강毅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 주고 있다.²²⁾

<이생규장전>의 최량이나 <만복사저포기>의 처녀는 모두 왜적의 침입으로 희생당한 인물들이며, 그 피살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결하고 의로운 정신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이어 1986년 출간된 『조선고전소설사연구』에서는 처녀의 수난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녀인은 인간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고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목숨을 잃은 개녕동 처녀신이였다.

1380년에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던 왜적들은 그때에 명성이 높았던 과학자이며 애국자인 최무선장군의 화공에 의해 패배당하자 호남땅에 무리로 흩어져 로락질을 일삼았다. 처녀도 바로 이러한 간악한 왜적들을 반대하여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개녕동 처녀들중의 한사람이였다.²³⁾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5~236쪽.

23)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24~25쪽.

〈만복사저포기〉의 처녀가 피살된 정황을 실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그 현실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왜적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가련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그녀의 언행을 들어 그 성품을 평가한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보는것처럼 주인공 량생은 처녀가 부처앞에 바친 〈발원문〉을 본 그때로부터 그 녀인은 이미 오래전에 왜적앞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저승의 인간이라는것을 알고 그에 대하여 측은한 위구심도 가지며 의혹심도 품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량생은 그 녀인을 끝끝내 그렇듯 사랑하게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처녀의 인간다운 성격때문이었다.

〈생략〉

주인공 향생이 연등놀이가 끝난후 사람들의 흔적도 없는 만복사의 뜨락에서 처음으로 처녀를 만났을 때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 여기 왔나 이까?〉 라고 묻자 처녀는 〈…그대는 아름다운 배질을 만나면 그만일터이온데 성명은 알아 무엇하십니까.〉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신분이나 가문도 개의치 않는 처녀의 소탈한 성품을 잘 보여준다.

처녀의 이러한 성격적특성은 작품의 이야기가 진척되고 그들사이에 다정한 말들이 오고감에 따라 〈비록 소박한 저의 몸차림이오나 가특한 님의 사랑을 백년토록 간직하며 밥 짓고 옷을 지어 일생동안 안해로서의 도리를 닦으려 하였던것이옵니다.〉라고 하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말은 그들사이에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졌을 때 처녀가 한 말이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처녀의 꾸밈새 없으면서도 절절하고 소박하며 근면하고 능동적인 성격을 엿볼수 있다.

소설은 남녀청년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뿐아니라 기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처녀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있다.

처녀의 아버지가 량생에게 나라에 쳐들어온 원수들앞에서 지조를 지켜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기 딸에 대해 들려주는 비통한 이야기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²⁴⁾

24)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6쪽.

여기에서는 작품의 각 구절을 제시하면서 처녀의 소박하고 능동적인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며, 왜적에 항거하다가 피살된 지점에서 처녀의 인간다운 성품이 부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녀의 저항정신과 더불어 양생이 처녀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량생은 처녀와 만나 서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처녀가 삼년전에 왜적과 싸우다가 쓰러졌던 개녕동까지 직접 걸어가는 과정에 처녀는 이 세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

그렇지만 량생은 처녀와의 사랑을 측은한 것으로, 괴이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처녀의 아름답고도 우아한 표정과 의젓한 태도, 더우기 나라에 쳐들어온 원수들의 마수앞에서도 떳떳이 할거해나선 그 정신은 처녀에 대한 량생의 끊을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더 돋구어줄뿐이었다. 소설 〈만복사의 윗놀이〉는 이렇듯 주인공 량생과 개녕동 처녀와의 기이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비록 인간관계는 환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청년남녀들 사이에 맺어진 깨끗하고 끊을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생동하게 펼쳐보고있다.²⁵⁾

여기에서는 양생이 처녀가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애정을 거둘 수 없었던 이유에 그녀의 저항정신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청춘남녀가 일구어낸 사랑 역시 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애국애족적 지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속되었는데 김하명의 『조선문학사』(1991)에서는 처녀의 가련한 처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복사 부처앞에서 좋은 연분을 맺게 해달라고 비는 개녕동 처녀의 애끓는 하소연은 왜적의 침입으로 겪게 된 수난과 관련되어 있었다. 선녀처럼 아름답고 의젓한 처녀가 부처에게 비는 글의 사연은 참으로 절절한 것이었다. 그 글에서는 먼저 지난날 나라에서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하여 왜적의

25)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25쪽.

침입을 자주 받았다는것, 적들이 부락을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하여 친척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하였으나 자신은 연약한 몸으로 떠날수 없어서 깊은 골방안에 들어앉아 목숨으로 자기 몸을 깨끗이 보존하였다는것, 그러나 부모들이 딸자식의 수절을 그다지 대견스레 여기지 않고 공벽한 산골에 버려두어 거칠은 풀속에서 외롭게 지내온지가 벌써 3년째나 된다는 것, 그리하여 달밝은 가을밤에도 꽃피는 봄철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청춘을 헛되이 보내온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대하여 썼다.²⁶⁾

왜적의 침입과 부모의 방치로 인한 그녀의 수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처녀가 지내온 세월의 아픔을 절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왜적에게 항거하다가 피살당한 처녀의 수난 과정과 양생과 처녀의 사랑이 견고해지는 과정이 부각된 지점에서 작가의 애국 애족적 지향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3.5. 환상과 현실이 배합된 기법으로 그려진 청춘남녀의 사랑

북한 문학사에서 〈만복사저포기〉의 명혼담적 요소는 환상적으로 구현된 기법으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이 작품은 남녀의 환상적 만남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면서 그 사실주의적인 면모를 인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1986년 김춘택의 『조선고전소설사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설 〈만복사의 윷놀이〉는 얼핏 보기에는 부모를 여윈 한 총각이 부처와 윷놀이를 하여 이긴것이 인연이 되어 한 선녀를 사랑하게 된 전설과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소설은 결코 하나의 기이한 전설적이야기에 머물고있지않다.²⁷⁾

26)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203쪽.

김춘택은 이 작품이 지닌 전기적 요소를 들어 전설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코 전설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김하명 역시 『조선문학사』(1991)에서는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양생과 처녀가 처한 정황과 비현실적인 결연과정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설 <만복사의 옷놀이>는 경상도²⁸⁾ 남원땅에 사는 로총각 량생과 개녕동 처녀의 환신이 만복사 부처에게 빌어 사랑관계를 맺고 소원을 성취하는 이야기이다.

량생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 결방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기가 소원이어서 연등놀이하는 날 이곳 풍속대로 만복사 부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입때껏 그의 소원성취를 가로막은 중한 장애물은 미천한 가문과 권세와 재물이 없는 가난이었다.

<생략>

이글에서 볼 때 결국 귀가집 딸인 이 처녀의 행복을 짓밟은 원흉은 왜적이고 아직껏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까닭은 부모의 무성의와 몰리해였다. 량생의 경우나 이 처녀의 경우나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장애는 좀처럼 극복할수 없는것이기에 소설에서는 이 두 청춘남녀의 소원성취가 부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처럼 환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미었다.²⁹⁾

가난한 양생과 왜적의 공격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희생당한 처녀의 처지는 봉건사회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였다고 말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결연을 성취하는 과정을 부처의 도움이라는 환상적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전기적인 요소가 짙은 <만복사저포기>는 북한에서 문학작품 평가

27)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6쪽.

28) 남원은 본래 전라도 지역의 고장이나, 이 책에서는 '경상도'로 소개되어 있다.

29)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203쪽.

에 있어 증점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리얼리즘적인 요소도 고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먼저 김춘택의 『조선고전소설사연구』(1986)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소설들에는 작품마다 각이한 주제사상적 내용이 밝혀져있기는 하나 그러한 내용들은 작가가 살고있던 15세기의 사회현실과 연결되어있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소설들은 작가자신이 직접 다녀본 일이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고장들인 평양, 개성, 경주, 남원 등지를 배경으로 하고 당대 우리나라의 자연, 풍속, 력사, 전설, 설화들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것들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경우에도 당대 우리나라의 청년남녀들, 상인, 학생, 학자 등을 기본으로 하고있다.³⁰⁾

여기에서는 『금오신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이 우리나라로 설정되어 있는 지점을 들어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신분 역시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금오신화』는 작가가 살았던 15세기 조선사회가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김하명 역시도 먼저 『금오신화』 전반에 드러난 리얼리즘적 요소를 밝히는 데에 현실적인 인물 설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현실적인 환상세계의 묘사를 도입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다 작자가 전국 각지를 류랑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생활 체험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꾸리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애국적이며 반봉건적인 사회정치적 및 도덕윤리적 견해를 구현하였다. 작품들에 등장하는 남원의 량생, 송도-개성의 리생과 최랑, 송도의 흥생, 경주의 박생, 고려때 송도사람인 한생 등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살며 활동한 현실적인 인간들이다.³¹⁾

30)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24쪽.

31)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쪽.

『금오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은 실제 우리나라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작가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이 반영된 형상이라고 설명한다. 전기적인 요소가 짙으면서도 등장인물을 현실적으로 설정한 『금오신화』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 설정뿐 만 아니라 인물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그 기법이 지닌 리얼리즘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먼저 그 현실적인 인물 묘사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량생과 개녕동의 처녀, 리생과 최랑 그리고 박생과 한생 등은 각각 다 종전의 인물전기나 설화들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라 소설이 묘사한 생활속에서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인간들이다.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주의깊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인물전기작품들에 흔히 나오는 가문과 가계를 소개하는 지루한 기록이든가 <공명출세담>과 같은 흔적은 거의 찾아볼수 없는것은 물론 설화작품들에서 자주 보는 인물에 대한 평면적이며 설화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극복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소설들에는 인간을 보여주는데서 묘사대신에 추상적인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불필요한 사건들을 라렬한 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금오신화>에 나오는 소설들은 전반적으로 인간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묘사하여 보여주려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³²⁾

현실감 있는 인물 설정이나 그 묘사는 선대의 서사문학이 지닌 설화적인 면모를 탈피한 지점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김춘택은 <만복사저포기>의 장면 묘사 역시 현실감과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평한다.

32)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5쪽.

작가 김시습은 바로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량생과 처녀사이의 기이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도세밀하게 엮어나가면서 처녀의 성격을 드러내보 이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서 량생과 처녀와의 대화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처녀의 성격적특성과 그의 내면세계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생략〉

소설 〈만복사의 웃놀이〉는 이러한 대화법을 행동묘사와 작가의 지문 등과 적절하게 배합하여 처녀의 그 인간다운 성격미를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암만해도 인간세상은 아닌것같이 생각되었으나 그 처녀에 대한 끊을수 없는 애정으로 하여 조금도 다른 의심을 품으려고는 생각 하지 않은〉 량생의 성격도 설득력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금오신화〉의 작품들은 수이전체작품인 〈두 녀자의 무덤〉과 달리 소설형태의 형상적요구에 맞게 성격창조에서 대화의 기능을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다.³³⁾

생동감 있는 장면 묘사와 더불어 대화체로 서사를 이끌어 가는 기법은 이 소설이 지닌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그 기술방식이 서사 전개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리즘적인 면모가 소설의 형식적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하명의 『조선문학사』(1991)에서도 〈만복사저포기〉의 기법에 대한 위와 같은 견해가 펼쳐지고 있다. 현실감 있는 묘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설에서는 량생이 처녀가 시녀를 시켜 뜨락에 자리를 깔고 차려 놓은 주안상을 마주하고 의아스럽고 괴이쩍은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처녀의 말씨나 웃는 모습이 청초하고 아름다우며 응모와 태도가 너무나 의젓하므로

33)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6~37쪽.

이는 필연코 귀가집 처녀가 어른들 몰래 빠져나온것이라고 짐작하고 더는 그를 의심하지 않으며 서로 백년가약을 맺고 개령동에 가서도 끊을수 없는 깊은 애정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소설 <만복사의 웃놀이>는 이렇게 현실적인것과 환상적인것을 서로 엮 바꾸어 그리면서 남녀청년들의 진실한 사랑을 봉건적유교교리에 대치시키고 있다.³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정밀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며, 이 작품은 리얼리즘적인 요소와 전기적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만복사저포기>는 1986년에 출간된 『조선고전소설사연구』에서부터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기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기적인 면모와 리얼리즘적인 면모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청춘남녀의 사랑이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으로 평가하여 왔던 것이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북한 문학계에서 발표된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연구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초기 소설적 면모와 비판 의식이 반영된 작품 설정 및 전기적 요소와 리얼리즘적 요소가 배합된 기술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연구들과 견주어 살펴볼 만한 남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34)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3쪽.

35) '3.1. 『금오신화』의 창작과 유통'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남한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북한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금오신화』의 창작과 유통 과정에 대한 남한

4.1. 애정전기소설로서의 〈만복사저포기〉

초기 소설로서의 위상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문학계와 달리, 남한에서는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전기 문학적 맥락에서 최초의 소설로 인정할 것인지, 그 보다 선대의 〈최치원〉과 같은 작품들을 소설의 효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 되었던 것이다.

조윤제는 〈최치원〉은 작자가 불분명 한 것뿐 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소설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여서 설화의 영역을 넘지는 못하고 있으며, 비로소 『금오신화』의 형태가 소설의 체제를 구비하였다고 하였다.³⁶⁾ 주왕산 역시 『금오신화』를 전기소설의 백미이자, 최초의 소설로 성공한 일작이라 주장하였다.³⁷⁾ 이어 조동일 역시 나름의 소설장르이론을 도출하여, 자아와 세계의 상호우위에 입각한 대결이라는 규정에 합당한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였다.³⁸⁾ 이러한 견해는 80년대 이후 〈최치원〉을 소설의 기원으로 보는 학설에 밀려 그 타당성을 잃어갔고 『금오신화』는 전기소설의 발전형으로서 그 문학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박희병은 『금오신화』가 전기소설의 비약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으며³⁹⁾, 김종철은 전기 소설의 완성된 형태라고 역설하기도 하였다.⁴⁰⁾ 박일용은 당대 지식인으로서 지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소외감의 서사적 표현은 전기소설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보기도 하였는데⁴¹⁾ 이는 〈만복사저포

연구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다.

36)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48.

37)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3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2권, 지식산업사, 1983.

39)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40)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 문제」, 『고소설연구논총』, 다국 이수봉 선생 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8.

41)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제28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기)에서도 발견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가 정착되어 현재에 와서는 ‘전기소설’이라는 용어의 일반화가 이루어졌으며, 남한에서 〈만복사저포기〉는 애정전기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4.2. 작가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비극성

북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의 자유연애사상적인 결연방식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담겨진 형상으로 보았다. 남한에서도 1950년대 후반에는 『금오신화』가 자유연애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정병옥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성 해방, 자유연애의 제창, 인습·미신·패도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긴 작품이라 하였으며, 김기동은 현대의 단편소설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유연애사상이 발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작가의 의식이 〈만복사저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북한의 논의와 견줄만한 남한의 논의로는 작가론적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금오신화』에 대한 작가론적 연구들은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에 결부시켜 작품에 대해 논의한 성과들이 있다.

먼저 김시습의 생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김시습의 생애는 ‘수학기, 방랑기, 금오기, 실의기, 만년’이나, ‘생장수학기, 일차 방랑기, 금오산 정착기, 환속기, 이차 방랑 종년기’, 혹은 ‘수학기, 방랑 운둔기, 좌절기, 환속기’ 등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른 작품의 특성이 포착되기도 하였다.⁴³⁾ 그리고 김시습이 추구한 사상적 행로에 따라 불교적·유교적·

42) 정병옥, 「김시습연구」, 『인문사회논문집』 제7집, 서울대학교, 1958.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정연사, 1959.

43) 정병옥, 「김시습연구」, 『인문사회논문집』 제7집, 서울대학교, 1958.

정주동, 『매월당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이재수, 「금오신화고」, 『한국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69.

도교적 관점으로 작품이 분석되기도 하였다.⁴⁴⁾ 뿐만 아니라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에 드러난 김시습의 세계관과 애정관을 읽어낸 연구⁴⁵⁾가 발표된 바 있으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그 비극성과 성심리를 분석한 연구⁴⁶⁾도 있다.

작가의 사회적 위치나 처한 상황과 연결하여 작품을 분석한 논의는 북한의 견해와 비교되는 측면이 명확하다. 정병옥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 『금오신화』의 작품들이 김시습의 절의와 저항정신이 담겨져 있으며 현실과의 타협 문제에 대한 이념적 갈등과 자기 번민이 작품화 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⁴⁷⁾ 임형택은 작가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으로 인해 사회와의 대립에서 개인이 패배하는 비극이 그려진 것이라고 하였으며⁴⁸⁾ 조동일 또한 그의 철학과 사상에 결부시켜 작품의 비극성을 해석하기도 하였다.⁴⁹⁾ 박일용은 〈만복사저포기〉의 양생과 같은 조선전기 명혼소설들의 인물들은 모두 당대 소외된 지식인의 모습이며, 현실에서 객관적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이 낭만적 형태의 비판의식을 소지함으로써 낭만적 소설형식을 창출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⁵⁰⁾

이렇게 남한에서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작가의 이상에 대한 지향이 작품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북한에서 지적한 김시습의 비판의식에 대한 견해와 유사하며, 이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 그러한 서사적 전개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북한

44) 박태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애정모티프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유승국, 「매월당의 유학 및 도교사상」, 『대동문화연구』113호, 1979.

최삼룡, 『한국 초기 소설의 도선사상』, 한국철학사, 1987.

45) 박태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애정모티프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46) 윤성현, 「금오신화에 드러난 비극성과 감취진 성심리」, 『우산어문학』제2집, 상지대학교, 1994.

47) 정병옥, 「김시습연구」, 『인문사회논문집』 제7집, 서울대학교, 1958.

48)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석사학위논문, 1971.

4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50)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1993, 집문당.

의 논의에서 심화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4.3. 인물 형상화에 대한 남한의 논의

북한은 〈만복사저포기〉의 인물들이 지닌 형상이 왜적에 대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족적 지향이 반영되어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를 처녀가 생전에 겪은 수난과 처녀에 대한 양생의 애정에서 찾고 있었다. 이와 비교될 만한 남한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문학계에서 양생은 감상적이고 사색적이며,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⁵¹⁾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양생에 대해서 불행한 자가 더욱 불행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극적인 인물로 보기도 하며, 부지소종(不知所終)으로 처리된 양생의 생애 종말이 결국 현실을 초월하지 못한 범인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하였다.⁵²⁾ 양생을 처녀에 대한 애정의 열정을 지닌 인물로 보는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그가 지닌 비극적 이미지와 감상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있었다.

처녀에 대한 남한 문학계의 관점을 살펴보면, 작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족 처녀로 보거나, 재, 색, 덕을 갖춘 한국적 이상형의 여인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⁵³⁾ 처녀의 수난이 왜적의 횡포와 부모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 북한 문학계와 달리, 남한에서는 처녀의 정체성을 여귀(女鬼)나 비명횡사한 원귀(冤鬼)로 규정하면서, 부처에게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던 처녀의 소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원한의 실체를 애정적 욕망의 좌절이로 보았다.

51) 정주동, 『매월당 금오신화 연구』, 신아사, 1965.

이재호, 『금오신화』, 을유문화사, 1972.

52) 김일렬, 「김시습과 금오신화」,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1.

최삼룡, 『한국 초기 소설의 도선사상』, 한국철학사, 1987.

53) 정주동, 『매월당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그리고 처녀의 욕망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며, 처녀가 당시의 윤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연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귀의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⁵⁴⁾ 저항정신을 지닌 면모를 들어 처녀의 성격을 인간적이라고 평가한 북한과 달리, 남한 문학계에서는 그보다 인간 본연의 성적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처녀의 성격과 처지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4.4.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북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는 전기적인 요소와 리얼리즘적인 요소가 배합된 기법으로 구현된 초기 소설작품으로 인정해왔다. 남한에서는 그 현실적인 설정이나 정밀한 묘사 방식에 대해서 작가의 사상이 개입되어 새로운 장르 형식이 탄생된 것이라고 보았다.

임형택은 작가의 ‘기일원론(氣一元論)’의 사상이 현실주의적 작품으로 표출되었다고 하였으며, 조동일은 그의 기일원론의 사상이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장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병수는 『금오신화』가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생활 경험이 작품에 깊게 반영되어 있다는 북한의 논의와 유사한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⁵⁵⁾

작품의 보다 리얼리즘적 요소에 대해 그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하고 있는 북한의 문학 연구 경향과 달리 남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가 구현해 내는 ‘환상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성룡은 전기소설작품에 내

54) 정주동, 『매월당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강종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여인상』, 『인문과학연구논총』제12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55)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민병수, 『김시습론』, 형설출판사, 1977.

재된 환상성을 구조주의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였는데, 순환구조, 종속구조, 개방구조 중 <만복사저포기>가 개방구조의 환상적 이야기에 속한다고 하였다.⁵⁶⁾ 캐서린 흄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적 형식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 윤경희의 연구⁵⁷⁾나, 그 ‘머뭇거림’의 환상성은 독자의 미감을 사로잡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역설한 신재홍의 연구⁵⁸⁾ 등은 그 환상성에 대한 남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대변해준다.

<만복사저포기>의 기술방식에 관한 북한의 논의와 구분되는 남한의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전설과 같은 장르에 담겨져 있는 전기적인 요소가 <만복사저포기>에 남아 있긴 하지만, 생동감 있는 묘사 기법으로 구현해내어 리얼리즘적 면모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데에 반해, 남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의 기술 방식이 독자로 하여금 ‘환상성’에 몰입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만복사저포기>를 비롯한 초기 전기소설에서는 인물이 지닌 ‘문제적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긴장감이 유발되고, 독자들은 환상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석한 김용기의 논의가 그것이다.⁵⁹⁾

<만복사저포기>의 섬세한 묘사나 대화체 구성에 주목한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작품에 시(詩)와 사(辭)를 삽입한 기법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왔다. 삽입시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일렬은 삽입시에 대해서 발생기 소설로서의 장르적 미숙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⁶⁰⁾ 반면 작품 속의 시를 대화나 행위의 기능을 한다⁶¹⁾고 보는 김갑진의 견해에 이어, 작품에서 차지하는 삽입시의 기능에

56) 김성룡, 「한국 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57)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 제4집, 한국고전연구회, 1998.

58) 신재홍, 「금오신화의 환상성에 대한 주제론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제1집, 청관고전문학회, 1999.

59) 김용기, 「〈萬福寺樗蒲記〉의 敘述技法과 人物 性格의 形象化 方式 研究」, 『우리文學研究』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

60) 김일렬, 〈김시습과 금오신화〉,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1.

61) 김갑진, 「『금오신화』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한국어문학』 제12집, 영남대학교, 1986.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기법에 대해 서사와 서정의 결합된 방식으로 서정성과 내면성을 부각시킨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현실의 질곡을 내면심리화하는 서정적 서사 양식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⁶²⁾ 대체로 남한에서는 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삽입시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내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만복사저포기〉의 의미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 북한의 문학계와 구별될 만한 특징이었다. 〈이생규장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북한의 문학계와 달리, 남한에서는 〈만복사저포기〉 개별 작품에 대한 관심 또한 그에 못지 않다. 발생 초기의 소설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하는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 〈만복사저포기〉는 이상을 꿈꾸는 작가의 의식이 환상성을 중심으로 구사된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애정전기소설의 완성작으로서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고 할 수 없는데, 남한과 북한의 문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만복사저포기〉를 우리나라 소설 발전에 디딤돌이 된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강상순, 「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어문논집』 제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5.2. 남한 자료

- 강상순, 「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어문논집』 제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 강중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여인상」, 『인문과학연구논총』 제12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 김성룡, 「한국 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김용기, 「〈萬福寺楞蒲記〉의 敘述技法과 人物 性格의 形象化 方式 研究」, 『우리文學研究』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1.
-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 문제」, 『고소설연구논총』, 다곡 이수봉 선생 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8.
- 민병수, 『김시습론』, 형설출판사, 1977.
-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 양상」, 『민족문화연구』 제28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박태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애정모티프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신재홍, 「금오신화의 환상성에 대한 주제론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제1집, 청관고전문학회, 1999.
- 유승국, 「매월당의 유학 및 도교사상」, 『대동문화연구』 113호, 1979.
-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 제4집, 한국고전연구회, 1998.
- 윤성현, 「금오신화에 드러난 비극성과 감춰진 성심리」, 『우산어문학』 제2집, 상지대학교, 1994.
- 이재수, 「금오신화고」, 『한국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69.
-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정병욱, 「김시습연구」, 『인문사회논문집』 제7집, 서울대학교, 1958.
- 정주동, 『매월당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권, 지식산업사, 1983.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 최삼룡, 『한국 초기 소설의 도선사상』, 한국철학사, 1987.

<박재인 · 황승업>

이생규장전 李生窺牆傳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리생과 최량의 사랑

1. 서지 사항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에 전하는 5편 가운데 두 번째의 작품으로, 남북한의 문학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작품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5편의 작품 가운데 〈이생규장전〉과 〈남염부주지〉를 문제적 작품으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생규장전〉에 대한 작품 명칭은 남한에서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원제목인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시대에 따라, 혹은 집필자에 따라 그 명칭이 변화하였다. 북한의 문학사 중 현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초기의 것이 1959년 과학원에서 편찬한 『조선문학통사』인데, 여기서도 남한과 같이 〈리생규장전〉으로 명칭하고 있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 상황이므로 문학사에서 거론한 모든 작품의 명칭이 남한과 동일하다. 이후 1977년에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에서는 〈리생의 사랑〉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명칭은 1986년 정홍교 주관의 『조선문학개관』¹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82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편찬한

『조선문학사』¹에서는 <리생과 최랑의 사랑>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명칭은 이후의 문학사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문학계에서 표준 명칭화한 듯하다.

북한의 문학사 집필진 중 고전소설 분야의 필진은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김하명·정홍교, 김일성종합대학 소속으로 김춘택이 주도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주체사상 정립 이후 한문식의 작품 명칭을 한글식으로 바꾸는 분위기 속에서 <리생의 사랑>(정홍교)과 <리생과 최랑의 사랑>(김춘택, 김하명)이 아울러 쓰이다가 결국 후자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남북이 모두 육당에 의해 소개된 일본 대충본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작품 개요

개성의 재주 많은 소년 선비 이생은 성균관을 나가던 길에 최낭자의 경치 좋은 정원을 담 너머로 엿보는데, 누대 주렴 속에서 수를 놓던 최낭자가 이생과 눈길을 주고받으며 연애시를 지어 부른다. 이것을 들은 이생은 흥분하여, 성균관에서 돌아오던 길에 화답시를 적어 던진다. 이에 최낭자는 날이 저물면 그곳으로 오라고 다시 편지를 전한다. 날이 저물어 이생이 담 아래 오자 밧줄에 대바구니를 묶어 이생을 집안으로 끌어 들인다. 그리고 최낭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끌려서 두 사람은 다락에서 운우의 정을 나눈다.

이생은 사흘간 집을 비운 것을 부친이 알고 꾸중할 것을 염려하여 급히 돌아가니, 부친은 이생이 학문을 게을리 하고, 두 집안의 지체가 맞지 않고 질책하면서 울주 농막으로 쫓아 보낸다. 몇 달간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생을 만날 수 없던 최낭자는 상사병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여

부친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한다. 이에 최낭자의 부친은 이생의 집에 매파를 놓아 청혼하는데, 이생의 집에서는 가세가 기우는 것을 이유로 두 번을 거절하다가 세 번째 허락한다.

두 사람을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이생은 과거에도 급제한다. 그런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가족과 피난하다가 이산이 되고, 최낭자는 홍건적의 검탈에 맞서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생은 아내가 죽은 줄은 알았으나 생시 모습으로 돌아 온 아내의 환영(幻影)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모의 시신을 거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린다. 최낭자가 저승에서 기약한 말미가 다 되어 떠나자 이생은 아내의 시신을 찾아 장례하고 곧 따라 죽는다.

3. 북한의 연구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에서 <이생규장전>에 대한 개별 연구는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 『금오신화』 전반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생규장전>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1959년 이후 출간된 문학사 기술 과정에서 보이는 내용들을 통해 북한 연구의 성과들을 도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이생규장전> 연구 성과들을 찾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④ 정홍교·박중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⑤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 ⑥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⑦ 한이영,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금오신화>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 에 대한...」, 『민족문화유산』, 2008년 4호.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 수록 5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모든 문학사에서 빠짐없이 기술되고 있다. 그 논의의 초점은 대체로 세 분야로 집약된다. 주제의 측면에서 자유연애를 통해 현실을 비판했다는 점과 주인공 인물 창조가 생동적으로 개성화되었다는 점, 현실 묘사가 뛰어나며 소설다운 구성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 세 범주로 북한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생규장전>은 개별 작품으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금오신화』라는 단편소설 집 속에 포함된 한 편의 작품이므로, 작품의 출현과정에서는 『금오신화』 전체를 논의하고 있어,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3.1. 산문 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 등장한 소설의 시초

북한의 문학사에서도 남한 문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는 『금오신화』 소설 기원설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전소설의 최초 연구자로서 『조선소설사』를 집필한 김태준이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재직하였으므로, 남북이 공히 그 자장(磁場)에 놓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지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최초의 소설로서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그 기원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생규장전〉과 〈남염부주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경향이 크다.

중세소설의 출현은 또한 봉건 시기 산문 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15세기 이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이전체 문학, 우화 문학, 전기 문학, 의인전기체 문학 등 다양한 산문 형태들이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 중세 소설은 이러한 앞선 시기의 산문 문학이 이루어 놓은 창작 성과와 경험을 섭취하여 발생 발전하게 되었다. 「이생의 사랑」과 「남염부주 이야기」를 비롯한 김시습의 소설들(중략),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중세 소설이 다른 나라 소설 작품의 모방에 의하여 발생한 듯이 사태를 왜곡하는 반동적 견해에 대한 타격이 된다.¹⁾

이 시기 소설문학은 패설에서 갈라져 나와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중세소설의 출현은 봉건시기 산문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서 수이전체문학, 우화문학, 전기문학, 의인전기체문학 등 산문형태들의 창작 성과와 경험을 기초로 삼고 있다.²⁾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금오신화』를 두고 ‘전기문학의 백미’라고 극찬하였다.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이 평가의 의미를 확대하면서 이전의 설화체 산문과는 다른 소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설의 형성이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를 모방했다는 혐의이다. 김태준은 『금오신화』의 한 편을 『전등신화』에 넣어도 얼른 골라내지 못할 듯하다.³⁾고 먼저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의 주체사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을 크게 강조하고 나선다.

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54쪽.

2)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진달래, 1988), 133~134쪽.

3) 김태준, 박희병 교수,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61쪽.

북한의 문학 연구에서는 고전문학 작품들의 중국문학 영향을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결과 비교문학이라는 연구 방법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우리 산문문학의 역사 속에 있던, 수이전체 문학과 우화 문학· 전기 문학· 의인전기체 문학(가전체)의 창작 기반과 경험을 토대로 자체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59년에 출판된 ①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①에서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의 논의를 대체로 수긍하여 ‘이 작품은 명 나라 시인 구우가 당의 전기문학을 계승하여 지은 『전등신화』를 방불케 하는 작품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1970년 이후에 출판된 ②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절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예 『전등신화』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졌으며, ‘명 나라 구우’라는 작가에 대한 구체적 사실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다른 나라 소설 작품’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모방론을 과감하게 ‘반동적 견해’라고 단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모방설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1986년에 출판된 ④에 와서는 그 언급 자체가 사라지고, 단지 ‘산문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서 『금오신화』가 형성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김태준의 『금오신화』 발생의 논의를 이처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언급한 ‘그것이 한자로 표현되었을망정 조선에 배경을 두고 조선의 인물과 풍속을 그대로 묘사한 점에 있어서 본서의 성가(聲價)가 더욱 높⁵⁾’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시습은 이와 같이 중국의 선진 문학을 받아들이는 데 민감하였으나, 그가 창작한 『금오신화』는 어디까지나 그의 독창적인 재능과 사상을 보여준 예술작품으로 특징적이다. 특히 우리 강토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조선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4쪽.

5)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61-62쪽.

사람들의 생활 감정과 정신 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민족적 특징을 훌륭히 살리고 있다.⁶⁾

이 작품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현실적인 환상세계의 묘사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다 작가가 전국 각지를 류랑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꾸리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애국적이며 반봉건적인 사회정치적 및 도덕윤리적 견해를 구현하였다. 작품들에 등장하는 남원의 량생, 송도-개성의 리생과 최랑, 송도의 흥생, 경주의 박생, 고려때 송도사람인 한생 등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역사적시기를 살며 활동한 현실적인 인간들이다.⁷⁾

1959년에 출판된 ①에서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전등신화』의 모방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위와 같이 그 가운데서도 작가의 주체적인 면모가 살아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②나 ④에서는 『금오신화』의 발생 과정에 대한 김태준의 논의 자체를 배제시켰다가 1991년 출판된 ⑤에서는 배경과 인물 설정의 생동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인물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사실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

북한 문학사에서 『금오신화』의 발생이 중국 작품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 산문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라는 예시를 <이생규장전>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단편소설 《리생의 사랑》은 봉건유교교리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며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저애하는 봉건적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표현한 작품이다.(중략)

작품은 이 주제사상적 내용과 환상적 수법, 이야기 줄거리 조직과 형상적 특성 등에서 수이전체작품인 최치원의 《두 녀자의 무덤》과 유사한 점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4~235쪽.

7)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3쪽.

이 많다. 이것은 이 소설이 《두 녀자의 무덤》의 창작적 성과와 경험을 계승하고 그것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소설 《리생의 사랑》은 주인공들의 성격창조에서 설화체의 서술을 현저히 극복하고 행동과 심리에 대한 비교적 생동한 묘사를 줌으로써 개성화와 일반화를 결합시키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지고 이야기 줄거리가 기승전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과 성격의 논리에 맞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연현상과 풍물묘사에서도 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이점에서 《리생의 사랑》은 최치원의 《두 녀자의 무덤》과는 달리 소설의 형태상 특성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리생규장전-리생과 최랑》 등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작가가 뚜렷한 창작의식을 가지고 사회현실에서 골라잡은 일정한 소재를 자기의 상상력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인물의 성격형상과 구성조직, 생활묘사에서 설화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⁹⁾

〈이생규장전〉이 주제 사상적 내용과 환상적 수법, 이야기 구성 방식이 〈쌍녀분〉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서 창작 성과와 경험을 계승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곧, 산문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의 좋은 예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생규장전〉이 〈쌍녀분〉보다 발전된 소설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물의 성격 창조가 설화의 단계를 벗어났다고 본 것이다.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인물의 개성화와 더불어 일반화를 구현했다는 점, 이야기의 구조가 인물 설정과 유기적이라는 점,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소설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발생한 『금오신화』의 작품들을 북한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는 입장이다.

8)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진달래, 1988), 135쪽.

9)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0쪽.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5편의 소설을 주제사상적경향에 따라 크게 2개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만복사저포기(만복사의 웃놀이)》, 《리생규장전(리생과 최량의 사랑)》, 《취유부벽정기(부벽정의 달맞이)》등 3편은 청춘남녀간의 애정클리문제를 주제로 하여 폐쇄된 봉건유교도덕을 반대하는 사상을 밝혀낸 작품이며 《남염부주지(남염부주이야기)》, 《룡궁부연록(룡궁의 상량잔치)》등은 환상세계의 묘사를 통하여 작자의 사회정치적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¹⁰⁾

주제적 특징을 들어서 앞의 세 작품은 애정전기로 보는 입장이고, 뒤의 두 작품은 작가의 사회정치적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김하명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②와 ④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만 위에 제시한 ⑥에서는 ‘봉건 유교 도덕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비판적 시각으로 진전¹¹⁾시키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①에서 ‘다섯 편은 그 주제와 내용이 각이하다¹²⁾’고 보는 시각을 일축하고 지나치게 단순 구조화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문학사에서는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은 기존의 산문 문학과는 다른 소설로서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의 산문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물로 보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등신화』 모방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을 가하고, 인물과 배경 설정이 주체적이라는 김태준의 견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다섯 편의 작품을 주제적 특성에 따라 <만복사저포

10)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3쪽.

11) 현재 《금오신화》에 실려 전해지는 5편의 단편소설들은 그 주제사상과 예술적 특성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두개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만복사의 웃놀이,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은 자유로운 사랑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들이며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에 다녀온 이야기》는 작가자신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이상을 환상적 수법으로 반영한 소설들이다. (② 256쪽, ④ 135쪽)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출판사, 1959(화다, 1989), 235쪽.

기)와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는 애정소설의 범주로,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은 작가의 사회정치적 주제를 부각 시킨 작품들로 구조화하여 논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생규장전>은 전자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남염부주지>는 후자의 대표작으로 논의하고 있다.

3.2. 자유로운 사랑 추구-표면주제, 반침략 애국사상 구현-이면주제

북한 문학사의 서술 방식 중 가장 비중을 두는 영역이 주제 사상적 경향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중 <이생규장전>은 애정윤리 주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죽은 처녀와 양생간의 사랑이라던가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량의 사랑 등은 봉건적인 당시의 유가적 구속을 벗어나 남녀간의 결합에 있어서 자유로운 연애 관계를 주장하여 개성의 해방에 대한 작가의 지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생과 최량의 열렬한 사랑은 병란을 만나 최량이 죽은 뒤에도 환체(幻體)로 나타나 둘 사이의 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개가를 올리고 있다.¹³⁾

북한 문학사 전체에서 <이생규장전>의 주제를 자유로운 사랑 지향, 애정윤리 문제를 통해 봉건 유교 도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59년 출판의 ①에서는 애정전기소설로 보는 견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곧, 현실의 청춘남녀가 유교적 구속을 거부하면서 자유로운 연애를 성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 열렬한 사랑의 결실을 전란으로 죽은 최량자가 사후에 환생하여 못다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남한의 연구 성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7쪽.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작품 후반부 명혼담의 비현실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이견이다.

소설은 다음부분에서 당시 봉건사회에서는 좀처럼 허용될수 없는 이들 청춘남녀의 애정이 날로 더욱 깊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중략) 소설의 기본주제는 여기서 해답이 주어졌다고 말할수 있으나 그 뒤에다 하나의 사건을 첨부하여 이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중략)

소설의 이 마지막부분은 최랑의 개성적특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사랑이 극진함을 보여주는데 일정한 보탬이 없지 않으나 환상적으로 꾸며낸 비현실적인 이야기로서 한갓 후일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뒤끝에 환상적인 이야기가 첨부되어있기는 하나 소설 <<리생과 최랑의 사랑>>은 인물관계와 형상창조, 이야기줄거리의 조직, 갈등의 설정과 해결이 기본적으로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말할수 있다.¹⁴⁾

작품의 전반부에서 자유 연애 사상을 내세워 봉건 사회의 폐쇄성에 반대하는 주제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작품이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후반부에서 명혼담을 설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그 기능이 두 사람의 사랑의 진실함을 강조하는 장치라고 인정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작품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후반부의 명혼담을 후일담으로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는 북한의 문예이론이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 대한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는 김춘택에 의해서 도출되었다.

남녀 청춘들의 애정 관계의 범위에서나마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발생 초기의 우리 나라 소설 문학의 비판적 경향을 강화한 것이

14)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6~207쪽.

다. 이 소설은 그 어떤 큰 역사적 사건이나 또는 폭 넓은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생과 최랑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인간의 개성을 억누르는 봉건 도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진보적인 지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랑의 형상을 통하여 반침략 애국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중략)

이것은 작가가 주인공의 애정을 그저 관조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애정 윤리의 범위에서나마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봉건 도덕에 대한 비교적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주제 사상의 진보적 경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 사상의 진보적 경향은 최랑의 운명과 결부된 반침략 애국 사상으로 인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중략) 최랑은 여성의 몸이지만 외적 앞에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소설은 최랑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유구한 역사에 걸쳐 간직해 온 우리 인민의 애국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주제 사상의 이러한 특성은 이 작품이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바닥에 사회적 문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이 논의에서는 작품의 주제를 표면주제와 이면주제로 층위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작품의 주제를 애정전기소설로 본다는 시각에, 작가가 당대의 현실 문제를 투영하고자 했다는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두 주제의 관계를 표면과 이면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남녀 사이의 자유연애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이려는 진보적인 지향을 찾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되었을 때 최랑자의 진보적인 성향은 반침략 애국 사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견해이다. 곧, 작가는 자신의 사랑에 적극성을 보이는 최랑자를 설정하여 이생과의 사랑을 성취하도록 장치하면서, 후반부에 국가 전란 사건을 설정하여 진취적인 최랑자를 통해 반침략 애국사상을 구현하도록 했다는 것이

15)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40~241쪽.

다. 이는 인물 설정과 사건의 배치가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이 작품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3.3. 주인공의 성격창조의 개성화와 일반화

북한 문학사에서 〈이생규장전〉의 주인공 인물의 성격 창조와 그에 대한 평가는 모든 참고 문헌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능동적인 최랑자와 우유부단한 이생으로 진단하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에 나오는 처녀 귀신이나 〈이생규장전〉에 나오는 최랑의 형상은 모두 왜적과 홍두군(紅頭軍) 등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으나 그들의 고결한 품성과 강毅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 주고 있다. 침략군에게 붙들린 최랑이 겁탈하려고 덤벼든 도적을 향하여 “이리때 같은 아귀들아 나를 잡아 먹어라. 내 차라리 승냥이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너희 개돼지 무리의 짝이 되겠느냐?”고 웨친 이 말에는 조선 여성의 전통적인 고상한 품성과 함께 열렬한 애국심이 안받침되어 있다.¹⁶⁾

1959년에 출간된 ①에서는 여주인공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외적의 겁탈 위기에서 의연히 맞선 행위를 고결한 품성과 강毅한 정신으로 보았고, 이것이 곧 조선 여성들의 전통적인 품성으로서 애국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문학사에서 작품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김정일이 「영화예술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6쪽.

《문학에서 응당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려야 할 인간의 사상감정 세계를 스쳐버리면 자연히 형상을 놓치게 되며 작품에는 생경한 론리만 남게 된다. 문학에서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과 함께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야 한다》(《영화예술론》, 10페이지)¹⁷⁾

앞서 언급한 것은 최남자의 고결한 품성과 강인한 의지는 조선 여성의 그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반화된 성격 창조라고 볼 수 있다면, 김정일은 비반복적인 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문학 창작과 작품 분석에서는 인물 성격의 개성화와 일반화가 주된 화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소설작품들은 선행한 패설작품들에 비하여 인물형상들의 사상감정세계를 보다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리고 있으며 그 다섯편의 소설중에서도 《리생과 최랑의 사랑》의 주인공 리생과 최랑의 형상은 가장 개성적인 성격으로 생동하게 그려졌다.

리생과 최랑은 같이 유교교리에 도전하여 부모의 눈을 속여가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사랑을 맺으며 마침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선진적인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서로 같지 않으며 고유한 개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권세가의 무남독녀인 최랑의 성격은 대담하고 정열적이고 리생과의 관계에서도 능동적이다. 최랑의 이러한 행동에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슬기롭고 외유내강한 민족적인 성격적특성이 생동한 개성으로 일반화되어있다. 이 최랑의 성격에 비하여볼 때 리생은 유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유교교리에 얽매어 사고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약한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중략)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의식과 행동은 그가 받은 유교교육에 의하여 빚어진 성격적특성의 개성화라고 보아야 할것이다.¹⁸⁾

17)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2쪽.

18)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2~214쪽.

이생과 최낭자의 성격이 개성화와 일반화를 모두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최낭자의 과감하고 정열적인 성격은 매우 개성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슬기롭고 외유내강하는 민족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반해 이생의 연약함·우유부단함·비겁함은 유교 교육의 결과로서 빚어진 개성화된 성격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비적인 성격 창조가 〈이생규장전〉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개성적인 성격 창조는 소설 이전의 설화체 산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소설로서의 독창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설 「이생의 사랑」은 최랑과 이생 등 주인공들의 성격 창조에서 설화체의 서술을 현저히 극복하고 그들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비교적 생동한 묘사를 줌으로써 개성화와 일반화를 결합시키는 데에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중략)

작품의 주제 사상의 예술적 천명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여주인공 최랑이다. 최랑은 유교 교리와 봉건적 유교 도덕 규범에 항거해 나선 ‘이단자’의 형상이다.

최랑의 긍정적인 성격의 특질은 포악한 외적에게 결사적으로 항거하는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랑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에는 절조를 끝까지 지킬 뿐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운 품성이 반영되어 있다.¹⁹⁾

결국 최낭자의 적극적인 성격은 이단자의 형상으로 개성화되어 있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운 품성이 반영되었으므로, 개성적인 최낭자의 성격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성격을 일반화하여 도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인물 성격의 개성화와 일반화는 사건과 긴밀하게 얽힌 인물 구도, 생동하는 묘사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이것이 설

1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56~257쪽.

화와 소설의 차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전 시기의 산문문화과는 달리 인물의 성격 창조가 특출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제한성도 엿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은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비교적 생동하고도 진실되게 묘사함으로써 발생 초기 소설 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인간 성격의 창조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 소설은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과 시대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묘사하는 데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의 부족한 점은 특히 주인공 최랑과 이생 사이의 사랑에 대한 묘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가는 최랑을 중심으로 하는 애정관계를 묘사하는 데 양반들의 향락적인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중략)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작가는 불필요한 고사와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하여 최랑과 이생의 성격을 현실을 떠나서 이상화하고 있으며 인간 성격의 묘사에서 도식을 면할 수 없었다.²⁰⁾

최낭자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잘 설정하였고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창조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평가이다. 그 제한성은 양반문화의 향락적인 분위기로 최낭자를 묘사한 것에 두고 있다. 불필요한 고사와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현실계의 인물 성격과는 유리된 이상화된 인물로 도식화되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전란으로 죽음을 맞은 후 환생한 최낭자가 현실의 문제에 매진하지 않고 남편과 더불어 글을 지으며 사랑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물 성격의 결함²¹⁾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성격 창조의 제한성은 유학자로서 성장한 작가의 한

20)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41-242쪽.

21) 그러나 외적에게 참혹하게 희생된 최랑이 환상적으로 재생하여 이생과 만났을 때 사회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글이나 지으며 화답하는 것으로 낙을 삼은 것은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 봉건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의 성격의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58쪽).

계로 규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최량과 이생의 성격의 제한성은 작가 자신의 세계관의 제한성의 반영이다. 봉건 유교 사상을 신봉하고 있었던 김시습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부모들의 약속과 강요에 의하여 혼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봉건 도덕의 불합리를 일정하게 비판적으로 대하면서도 봉건적인 유교 도덕의 규범들을 철저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²²⁾

유교 사상을 신봉하던 김시습이 자유연애 사상을 통해 봉건 도덕의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비판하고 있지만 그 규범들을 철저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향락적인 양반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참고한 문학사 전반에서 모두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3.4. 현실재현을 통한 소설다운 짜임새 확보

북한 문학사에서 〈이생규장전〉의 특징적인 요소로 현실재현의 장치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산문문학과는 차별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다.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의 사상예술적성과와 혁신적의의는 또한 전시기의 패설작품들이 많은 경우 설화자의 이야기로 꾸러져있는것과는 달리 인물형상을 생활속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보다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있는것이다. 환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조차도 그 정황과 인간관계,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실감이 나게 생활적

2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희문화사, 1996), 258쪽.

으로 그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이 현실 그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²³⁾

『금오신화』가 이전의 패설작품들과 구별되는 지점을 묘사에 두고 있다. 이전의 작품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되었다면 여기에 와서부터는 인물의 형상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재현은 인간계가 아닌 환상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독자들이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금오신화』 5편의 작품 가운데 〈이생규장전〉의 전반부 자유연애 이야기가 현실계의 이야기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 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와 혁신적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같은 주제인 《만복사의 웃놀이》나 《부벽정의 달맞이》에 비하여 당대 봉건사회의 현실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보다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보여주었다는데 있다. 《리생과 최랑의 사랑》에서도 환상적인것의 묘사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대 현실에서는 실현될수 없는 갈등의 해결과 관련된 마지막 종결부분만이 그렇게 되어있고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기본은 주인공 리생과 최랑사이에 사랑을 맺고 끝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 《만복사의 웃놀이》와 《부벽정의 달맞이》에서 주인공의 사랑의 대상은 처음부터 현세에서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지만 《리생과 최랑의 사랑》에서는 남녀주인공이 다 현실적인 인간이다.²⁴⁾

수이전체 문학이 환상계를 다루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금오신화』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도 역시 그 배경이나 인물은 환상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생규장전〉은 네 작품들과 달리 현실계의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작품에서 직면한 현실도 당대의 생활상으로

23)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4쪽.

24)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4~205쪽.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후반부에 환상적인 요소가 설정되었지만 소설의 전체 즐거기가 이생과 최낭자가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고 현실계 사건이 주를 이룬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남녀 주인공이 모두 현실계의 인간이라는 점도 이 작품이 여타 작품에 비해 소설적인 면모를 갖게 되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김춘택이 주도한 ④에서는 〈이생규장전〉의 소설적 구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소설은 구성에서 소설다운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우선 전래하는 인물 전기적 구성의 굳어져 버린 틀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 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구성을 짜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인민 설화가 창조한 소박하고도 선명한 구성 조직인 사건을 나선형식으로 반복하는 이야기 방식을 이용하여 주인공 최랑과 이생의 성격을 점차적으로 깊이있게 밝혀 나가고 있다. 소설은 그들이 처음 만나는 계기, 두 번째 다시 만나고, 세 번째 다시 만나는 계기를 통하여 그들의 개성적 성격의 특성을 하나하나 전개시켜 밝히고 있다.

이 소설을 또한 단편 소설이 요구하는 간결하고도 집약적인 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인물의 전기식의 틀을 극복하고 첫머리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주인공의 애정 관계를 설정하고 주제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환경 묘사와 사건 전개도 등장 인물들의 성격적 특성을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간결하게 하고 있다.

소설의 구성을 될수록 간결하고도 집약적으로 짜려는 시도는 소설 안에 적지 않은 서정시들을 인입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소설 안에 들어온 서정시들은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서사적 묘사를 보충하고 심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중략) 특히 서정시들은 대부분 대화시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인공의 심리정서 상태를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⁵⁾

25)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43쪽.

먼저 소설의 구조에 있어서 이전의 전기체(傳記體) 서술이 아닌 사건 위주의 도입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대기 구성이 갖는 지루함을 단편 소설로서 극복하여 이생과 최낭자의 첫 대면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간결하고 집약적인 구성이 단편소설의 특성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전의 설화체의 산문문학이 단순구조임에 반해 이 작품에 와서는 여러 단편구조가 반복되거나 얽혀 복합구조를 가졌다는 것도 소설의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서구의 소설 이론에서 제시하는 소설의 플롯에 대한 논의로서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깊이를 더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설의 특성으로 서정시의 삽입을 들고 있다. 지루한 이야기 서술 방식으로 주인공의 심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시를 통해 서사적 묘사를 보충하고 심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논리이다. 결국 운문과 산문의 교직이 이 작품이 가지는 단편소설로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북한의 문학사에서 중국소설의 영향을 부정하는 가운데 발생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운문과 산문의 교직은 당나라 전기(傳奇) 문학의 특성으로서 문학적 효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 형태적인 특성으로 서정시가 소설에 삽입되어 간결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북한의 국문학계의 연구 활동은 대체로 사회과학원의 문학연구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자의 개별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두 기관에서 정한 논점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수준에서

개별 논의가 대중적인 글쓰기 형식으로 평이하게 작성되고, 이러한 논고들이 대중 문예지에 수록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생규장전>에 대한 북한 연구 성과도 대체로 북한 문학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남한의 학계 풍토는 다양성이 인정되므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소설집으로서 『금오신화』를 논의하면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생규장전>과 <남염부주지>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개별 작품 다섯 편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실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생규장전>은 여타 작품에 비해 작품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 속에 특히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생규장전>에 대한 연구 쟁점을 주제·인물 성격 창조·현실묘사 방법의 층위에 한정적으로 두는 데 반해 남한의 연구 성과들은 비교문학적 논쟁·작품구조와 비극성의 상관성 논의·작가 생애와 관련지은 우의성 연구·애정소설로서의 위상 등에 대해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 다양한 문학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과 주인공 인물들을 분석한 연구 성과들이 산출되어 있다.

4.1. 비교문학적 논쟁 - 『전등신화』의 모방인가?

<이생규장전>에 대한 초창기 남한 학계의 연구 쟁점은 『금오신화』 소재 5편의 작품이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 소재 작품들의 모방작이라는 시각이었다. 이후 이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문학의 내재적 발전 과정에서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우리 문학의 독창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에 학계의 중론이 모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는 잦아든 상태이다.

이러한 모방론의 시작은 작가와 동 시대를 살았던 김안로의 『용천담적기』

의 기록에서 기인한다.

김시습이 금오산에 들어가 책을 지어서 석실에 비장해 두고 이르기를, 후세에 반드시 나를 아는 자 있으리라 했는데, 그 글은 대체로 述異寓意로서 『전등신화』를 본받아 지은 것이다.²⁶⁾

그리고 최남선이 대충본을 국내에 출판 소개하면서 덧붙인 해제가 학계의 논쟁을 제기하는 시발이 되었다.

『金鰲新話』란 결코 卓越한 大作이랄 것이 아니며 先儒의 說과 같이 明初 瞿佑의 『剪燈新話』에 依한 一傳奇니 그 體制와 措辭上에서뿐만 아니라 入題命意와 取材設人에까지 『剪燈新話』를 藍本으로 하였다.²⁷⁾

육당의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김태준은 최초의 고소설사인 『조선소설사』에서 일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의 변론을 덧붙인다.

『금오신화』가 『전등』을 모방하였다 함은 그의 체제와 내용이 흑사(酷似)함으로써 말함이니 만일 『금오신화』의 한 편을 『전등신화』에 넣어도 얼른 골라내지 못할 듯하다.(중략) 그러나 『금오신화』에서 취할 점은 그것이 한자로 표현되었을망정 조선에 배경을 두고 조선의 인물과 풍속을 그대로 묘사한 점에 있어서 본서의 성가(聲價)가 더욱 높고 매월당의 그 쇠락(灑落)한 의사를 다른 부유(腐儒)와 함께 논할 수 없다.²⁸⁾

모방설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지리적 배경과 주인공 인물, 풍속이 조선의 것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일부의 독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26) 入金鰲山著書 藏石室 日後世必有知峇者 其書大抵 述異寓意 效剪燈新話等作也(김안로, 『용천담적기』)

27) 최남선, 「금오신화 해제」,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28) 김태준, 박희명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61~62쪽.

러한 견해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후의 고소설사의 공통적인 시각이다.²⁹⁾ 그래서 최남선은 ‘환골탈태론’³⁰⁾을, 박성익의는 ‘재창작론’³¹⁾을, 조운제는 ‘『전등신화』의 자극에 의한 전통의 발전’³²⁾이라는 견해를 통해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표절이거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란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소설 발생 이전의 설화나 전기(傳奇) 등의 내부적인 동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출현의 동인은 『전등신화』의 모방이라는 입장을 떨치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학계의 통론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분석이 개별 연구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생규장전>은 『전등신화』의 <위당기우기>와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가 김태준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박성익의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위당기우기> 이외에 <취취전(翠翠傳)>, <금봉채기(金鳳釵記)>, <연방루기(聯芳樓記)>, <추향기(秋香記)>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³³⁾ 이재수는 <이생규장전>의 전반부는 『전등신화』의 <연방루기>를, 후반부는 <애경전(愛卿傳)>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³⁴⁾ 김현룡은 이러한 단순 모방의 근거를 찾는 것과는 시각을 달리하여 『태평광기』와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생규장전>이 『전등신화』의 <연방루기>와 <애경전>, <위당기우기>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태평광기』에서 소재를 취해 온 요소도 많음을 밝혔다. 곧, 『전등신화』의 <애경전>과

29)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박성익,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30) 최남선, 「금오신화 해제」,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31) 박성익,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고대문리논집』 3, 고려대 문리과대학, 1958.

32)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6.

33) 박성익,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고대문리논집』 3, 고려대 문리과대학, 1958.

34)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7.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후반부는 『태평광기』의 〈당훤(唐喧)〉 설화의 영향을 받은 요소가 많음을 밝혔다.³⁵⁾

이러한 모방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비교문학적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금오신화』 작품의 전기적 요소가 『전등신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전기적 전설에서 각기 비롯되었다는 시각,³⁶⁾ 『금오신화』의 창작이 우리의 설화를 비롯한 전통적 양식에서 기인하였다는 시각³⁷⁾ 등은 내재적 발전론으로 연구 관점을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작가 김시습의 사상을 일원론적 주기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설의 발생을 논의한 시각³⁸⁾과 주기론적 존재론과 주리론적 윤리관의 결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생규장전〉이 출현하였다는 논의³⁹⁾는 모방설을 위축시켰다.

결국 남한의 학계에서는 초창기 『전등신화』 모방설이 연구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계승론, 내재적 발전론, 작가의 철학적 고뇌의 산물 발생론 등으로 시각이 전환되었다. 이는 북한의 학계와 유사한 전철을 밟은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1959년 『조선문학통사』 이후에는 모방론을 강하게 비난하다가 최근에는 문학사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강경한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대비가 된다.

4.2.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를 통한 비극성을 구현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는 개별 작품론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작품의 구조가 비극성을 구현하는데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시각이 다수를

35)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7.

36) 임형택, 「현실주의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서울대 국문학회, 1971.

37) 이석래, 「금오신화의 전개적 고찰」,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간행위, 1968.

38)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39) 김일렬, 「금오신화 고찰」, 『조선전기 언어와 문학Ⅲ』, 형설출판사, 1976.

접한다. 이 작품이 주인공 인물의 결합과 이별의 과정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이혜순은 작품의 구성을 결합과 이별의 3단계로 도식화하면서 삶과 죽음의 대조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설명하였다.⁴⁰⁾ 임형택은 작품의 구조를 이생이 시골로 쫓겨 가고 최낭자가 상사병으로 눕는 상황, 전란으로 최낭자가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 최낭자가 영원이 이생의 곁을 떠나는 상황의 세 차례 시련과정으로 보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비극이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⁴¹⁾

김일렬은 작품 속의 결합과 이별의 반복을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상승과정에서 성취된 행복이 하강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좌절되는 비극적 도식의 작품으로 설명하였다.⁴²⁾

조동일은 주인공들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가운데 소설의 특징인 자아와 세계의 대결 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이별과 죽음, 그리고 난리 때문에 겪는 고통을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명혼소설(冥婚小說)의 구조를 적절하게 배치하였다고 보았다.⁴³⁾

이러한 작품구조와 비극적 결말에 대한 논의는 그 착안지점이 남북이 흡사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최낭자의 반봉건 투쟁의식과 반외세의 주체성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남한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4.3. 작가 김시습의 저항의식을 우의적으로 투영

작가의 의식이 작품에 투영된다는 논의는 남북의 문학연구에서 공통적으

40) 이혜순, 「금오신화에 나타난 인귀교환설화의 유형적 고찰」, 『이승녕선생고희기념논총』, 국어국문학회, 1977.

41) 임형택, 「현실주의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서울대 국문학회, 1971.

42) 김일렬, 「금오신화 고찰」, 『조선전기 언어와 문학Ⅲ』, 형설출판사, 1976.

4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

로 무리 없이 수용되고 있다.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작가 김시습의 대변자로서 우의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논의가 남한 연구에서는 일군을 이룬다.

정주동은 이생이 곧 김시습 자신으로서 작품 속의 울분이 자신의 심정적 우의의 표현이고, 여인의 유해를 거두어 달라는 당부는 단종의 참사를 우의한 것으로 보았다.⁴⁴⁾ 김용덕은 절의를 흠모하고 있는 이생은 김시습이며, 최낭자의 죽음에 대한 동기도 정조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들어서 세조의 왕위 찬탈과 관련된 우의적 작품으로 보고 있다.⁴⁵⁾ 설성경도 이생을 김시습으로, 최낭자를 단종을 비롯한 계유정난의 희생자로 대응시켜 작품의 우의성을 논의하였다.⁴⁶⁾

이러한 연구 시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설중환은 용의 분석심리학을 이론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작품 속의 소극적인 이생은 김시습의 모습으로 보고, 소극적인 이생이 적극적인 인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생이 원래 소극적이었으나 무의식 속에서 적극적인 여인을 만남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변모해 가는 것으로 읽으면서 우의성을 내세우고 있다.⁴⁷⁾

김창현은 작품을 구조와 전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이생과 최낭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작가 김시습이 의리나 신의에 대해 지녔던 집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것은 그가 세종과 맺은 특별한 관계, 단종폐위로 인한 상흔, 버릴 수 없었던 입신출세와 국가경영의 꿈이 복잡하게 얽혀 생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작품을 작가 김시습과 그가 충절을 바치고자 했던 세 왕(王)의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로도 읽으면서, 〈이생규장전〉은 작가가 가장 절실하게 토로하고 싶었던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 때문에 이

44)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신아사, 1965.

45) 김용덕, 「이생규장전 연구」, 『한국어문학탐구』, 민족문화사, 1983.

46)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47) 설중환, 「이생규장전-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 2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작품은 『금오신화』에서 가장 강렬한 비극성을 보인다고 보았다.⁴⁸⁾

북한의 연구에서는 이생을 단지 나약한 유생으로 보고 강인한 주체성을 가진 최남자와 대비적 시각으로 보는 데 비해 남한에서는 이처럼 작가 김시습과 긴밀하게 연결 지으면서 우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북한의 경우는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을 작품과 거의 연계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남한의 연구 시각과는 다르다.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9.

김하명, 『조선문학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한이영,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금오신화>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에 대한...」, 『민족문화유산』, 2008년 4호.

48) 김창현,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의 비극성과 그 미학적 기제 -낭만성과 비분강개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28집, 온지학회, 2011.

5.2. 남한 자료

- 곽정식·이복자, 「李生窺牆傳의 寓意性 考察」, 『인문과학논총』 8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김광순, 『한국 고소설사와 론』, 새문사, 1999.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 김수성, 「금오신화의 자연 배경고-전등신화와 비교적 입장에서-」, 중국학보 9, 한국중국학회, 1968. -전등신화와 자연 배경 비교
- 김용덕, 「이생규장전 연구」, 『한국어문학탐구』, 민족문화사, 1983.
- 김일렬, 「금오신화 고찰」, 『조선전기 언어와 문학Ⅲ』, 형설출판사, 1976.
- 김종균,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출판사, 2005.
- 김창현,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의 비극성과 그 미학적 기제 -낭만성과 비분강개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28집, 온지학회, 2011.
- 김태준, 박희병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김현룡, 「이생규장전과 정현조 노녀(奴女) 설화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대한 새로운 시각」, 『건국어문학』 9, 10권, 건국어문학회, 1985.
-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7.
- 박성의,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고대문리논집』 3, 고려대 문리과대학, 1958.
-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결혼과 절사(節死)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박태상, 「『金鰲新話』에 나타난 매월당의 世界觀과 愛情觀 연구-〈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0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5.
- 백 완, 「이생규장전의 시간구조적 주제구현기법 고찰-순서, 지속, 빈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권, 한국고소설학회, 1997.
- 백명숙, 「이생규장전 연구」, 『수련어문논집』 5권, 수련어문학회, 1977.

-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 설중환, 「이생규장전-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 2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한국고소설의 조명』, 한국고소설연구회(편), 아세아문화사, 1990.
-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 여세주, 「이생규장전에서 문제된 성도덕관념」, 『한민족어문학』 31권, 한민족어문학회, 1997.
- 윤경희, 「이생규장전의 구조적 연구-삼입시가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권, 한국고소설학회, 1997.
- 윤영옥, 「금오신화의 연구」, 영남대 대학원, 1967. -금오신화 전반에 대한 학위논문
- 이명구, 「이생규장전과 전등신화 비교」, 『성대문학』 8, 성균관대학교, 1961.
- 이상구, 「이생규장전의 갈등구조와 작가의식-『전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6.
- 이석래, 「금오신화의 전개적 고찰」,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이승녕박사송수기념사업위원회, 1968.
- 이우성, 「김시습의 금오신화」, 『사상계』 12, 사상계사, 1964. - 작가, 작품 경계, 작품 인물의 인간상.
- 이재수, 「금오신화론고」, 『가람이병기박사송수논문집』, 가람이병기박사송수논문집간행위원회, 1966. -전등신화와 비교 연구
-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7.
- 이현국,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생규장전」, 『어문학』 통권 제68호, 한국어문학회, 1999.
- 이혜순, 「금오신화에 나타난 인귀교환설화의 유형적 고찰」, 『이승녕선생고회기념논총』, 국어국문학회, 1977.
- 임형택, 「현실주의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서울대 국문학회, 1971.
- 정주동, 「금오신화에 대한 의문집」,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김시습 생애, 판본, 제작 시기, 귀신관 연구.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신아사, 196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6.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진무현, 「이생규장전의 원형비평적 접근고」, 『국어국문학』 5집, 동아대학교, 1982.
 최남선, 「금오신화 해제」,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최숙인, 「李生窺牆傳 연구-作品에 나타난 人物들의 性格과 葛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0.

<김종근>

취유부벽정기 醉遊浮碧亭記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부벽정의 달맞이

1. 서지 사항

〈취유부벽정기〉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전하는 5편 소설 가운데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취유부벽정기〉에 대한 남북한 연구 흐름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앞서,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에서 동일한 작품을 가리키는 명칭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원제목인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시대에 따라, 혹은 집필자에 따라 그 명칭이 변화해왔다. 북한의 문학사 중 현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초기의 것은 과학원에서 1959년에 편찬한 『조선문학통사』인데, 여기서는 남한과 같이 〈취유부벽정기〉로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 시기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 상태이므로 문학사에서 거론한 모든 작품의 명칭이 남한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리라 본다. 이후 1977년에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에서는 〈취유부벽정기〉를 〈부벽정의 달맞이〉라는 한글식 작품명으로 바꾸어 부른다. 그리하여 1986년 정홍교 주관의 『조

선문학개관』 이후로는 〈취유부벽정기〉가 아닌 〈부벽정의 달맞이〉로 작품명이 고정된다.

〈취유부벽정기〉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공간적 배경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 작품이기도 하다.¹⁾ 이를테면, 부벽정은 부벽루의 별칭으로 평양에 자리한 누대로 그곳은 홍생과 기씨녀가 각각 고구려와 고조선을 회상하도록 이끈 곳이며, 부벽정을 지나갔던 인물들을 회상하며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부벽정은 홍생과 기씨녀가 시공을 초월하며 조우할 수 있었던 신비로운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취유부벽정기〉에서 부벽정이라는 공간이 작품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유부벽정기〉는 개성의 홍생이 평양의 부벽루로 와서 겪는 초현실적 경험을 다루고 있는 유기형식의 소설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²⁾

2. 작품 개요

개성의 부호였던 홍생은 나이가 젊고 얼굴이 잘생겼으며 글을 잘 지었다. 어느 한가위 날에 홍생이 친구들과 함께 피륙과 면사를 배에 싣고 평양 저자에 팔러 갔다가 물건을 다 팔고 배를 강가에 대어 놓고 있었다. 그것을 본 평양성의 기생들은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홍생에게 추파를 던졌다. 그 때 성중에 살던 홍생의 친구 이생이 홍생을 불러 잔치로 대접하였다. 잔치에서 돌아온 홍생은 깊은 밤에 문득 옛날 당나라 시인 장계의 시 〈풍교야

1) 『금오신화』에 수록되었던 다른 작품의 주요배경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요배경은 전라도 남원, 〈이생규장전〉과 〈용궁부연록〉의 주요배경은 송도(개성), 〈남염부주지〉의 주요배경은 경주이다.

2)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박)이 떠올라, 맑은 흥취에 따라 홀로 작은 배를 저어 부벽정으로 향하였다.

홍생이 부벽정에 올라 옛 고을을 바라보다 ‘맥수지탄’의 정취에 빠져 단숨에 여섯 편의 시를 읊었다. 그 여섯 편의 시는 외딴 배에 있는 과부도 울릴 만한 내용이었다. 홍생이 시 읊기를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멀리 서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홍생은 자신의 시 읊는 소리에 어느 절간의 스님이 듣고 내려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서쪽을 바라보았다.

그 때 달빛을 받으며 미모의 여인이 두 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걸어오고 있었다. 홍생은 얼른 뜰아래로 내려가 담 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남쪽 난간에 멈추어 서서 작은 소리로 시를 읊고는 시녀에게 이곳에서 좀 전에 시를 읊던 사람은 어디갔느냐고 물었다. 홍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늘게 기침소리를 냈다. 여인은 기침 소리 나는 곳으로 시녀를 보내어 홍생을 맞이하였다.

홍생이 여인의 앞으로 가자, 여인이 방금 전에 읊었던 시를 다시 들려달라고 했다. 홍생이 시를 하나하나 다시 외어주자 여인이 곧이어 화답시를 지어 주었다. 홍생이 여인의 시를 듣고 기뻐하며 여인의 성씨와 가문을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은 은나라 임금의 후손인 기씨녀라면서 아버지가 위만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 왕업이 끊어졌을 때 자결코자 했는데 신인(神人)을 만나 불사약을 얻어 달나라 항아의 시녀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기씨녀의 사연을 들은 홍생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나라 왕손이신 선녀를 모시고 시를 창화(唱和)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하였다.

곧 이어 홍생은 기씨녀가 읊어준 시를 되뇌며 이번에는 ‘강정추야완월(江亭秋夜玩月)’구절이 들어간 시를 지어달라고 간청했다. 그 말을 들은 기씨녀가 붓을 적셔 단번에 썼는데 마치 구름과 연기가 서로 찬란히 얽힌 듯하였다. 시를 다 지은 기씨녀는 붓을 던지고 공중에 높이 솟아 사라졌다. 기씨녀는 시녀를 통하여 옥황상제의 지엄한 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홍생

에게 전달하였고, 곧 이어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땅을 휘감더니 홍생과 함께 하였던 시도 빼앗아갔다.

홍생은 좋은 인연을 얻었으나 가슴 속에 쌓인 이야기를 못다 한 것이 아쉬워 기씨녀와의 만남에 관한 시를 읊조렸다. 시를 다 읊고 난 홍생은 다시 배를 저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홍생은 친구들에게는 낚시를 하고 돌아왔으며, 기씨녀와의 만남의 사연을 홀로 간직했다.

그 뒤 홍생은 부벽정에서 만났던 기씨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몸져눕고 말았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홍생의 꿈 속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부벽정에서 만났던 기씨녀가 옥황상제에게 홍생을 천거하여, 홍생이 하늘의 종사관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홍생은 그 꿈을 꾸고 나자 곧 일어나 기씨녀와의 사연을 글로 남기고 집안사람을 시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닦도록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을 피우고 뜰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리고 홍생은 곧 세상을 떠났다. 그때가 마침 9월 보름이었다. 홍생은 죽은 지 수일이 지나도록 얼굴빛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홍생의 모습을 보고 홍생이 신선을 만나 죽음에서 해탈한 것이라고 전했다.

3. 북한의 연구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취유부벽정기>가 아니라 <부벽정의 달맞이>라고 작품을 가리키면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북한연구사에서 <취유부벽정기>에 관한 논의는 『금오신화』와 함께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논의도 남한처럼 치밀한 논증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작품을 쉽게 이해시키려는 취지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래서 언뜻 보기에는 작품에 대한 언급이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 자료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취유부벽정기〉에 관한 북한연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북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바라본 〈취유부벽정기〉에 관한 생각의 편린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 ②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 ③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
| ④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이상 4가지 북한 연구 자료들은 출간시기에 따라 일련번호를 매긴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선행 연구물이나 자료를 모아 본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위에 제시된 연구물에 한정하여 ①과 ③의 내용은 3.1에서 ②와 ④의 내용은 3.2에서 주로 소개하며 정리하기로 한다. 이들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취유부벽정기〉란 작품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취유부벽정기〉로 환기되는 역사의 흥망성쇠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시공을 초월한 애정에 대한 경우이다. 덧붙이자면, 전자가 작품의 틀에 해당될 수 있는 역사관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작품의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애정관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3.1. 〈취유부벽정기〉로 환기되는 역사의 흥망성쇠

북한에서는 〈취유부벽정기〉란 작품명이 시대에 따라 달리 불리고 있다. 이를테면 1959년에 나온 『조선문학통사』에서는 〈취유부벽정기〉로 언급되지만, 그 뒤의 저작인 『조선문학개관』이나, 『조선고전소설사연구』, 『조선문학사』에서는 〈부벽정의 달맞이〉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는 〈취유부벽정기〉를 〈부벽정의 달맞이〉라고 논의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남한 연구사에서 지칭되는 작품명과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취유부벽정기〉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다음에서는 〈취유부벽정기〉를 고조선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조상의 위업을 다룬 작품이라고 이해한 북한 연구의 한 내용이다.

「취유부벽정기」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고 특히 우리 조상들의 업적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홍생(洪生)이 부벽루에 올라 지은 시에 “동산에 달이 솟고 까막까치 나는데 밤은 깊어 찬 이슬이 옷을 적신다 천년문물과 인걸도 간곳없고 만고강산에 성곽도 옛 모습이 아니구나 동명왕은 하늘에 올라 돌아오지 않거나 전설만이 퍼져서 어디로 가는가 금수레와 기린마는 자취조차 없는데 수레 예던 길 길풀만 육어져 종이 홀로 돌아가네” 라든가³⁾

위는 〈취유부벽정기〉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특히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취유부벽정기〉는 평양이라는 고도(古都)에 어려 있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감정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 감정은 오랜 역사의 되새김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그래서 홍생은 부벽루에 올라 지은 시를 통하여 평양의 부벽루에서 활약하던 영웅은 이제 저 멀리 전설 속으로 사라져 갔음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낸 것이다. 위 인용된 내용에서 ‘동명왕이 하늘에 올라 돌아오지 않거나 전설만이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6~237쪽.

퍼져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한 부분에는 고구려의 시조이며 영웅이었던 주몽이 하늘로 떠난 것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는 전설로만 떠올릴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깃들여 있다.

“수나라 장병의 낮은 여울을 따라 울고 백성들의 원혼은 매아미 소리가 되었구나”라고 하여 고구려의 용성과 국방에서 을지문덕, 연개소문 등의 공훈을 찬양하고 있다. 또한 여주인공인 선녀의 입을 통하여 위만(衛滿)이 침략행위를 저주하고 소위 기자(箕子)의 후예인 그도 동명왕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등은 종래의 유학자들의 사대주의적 견해와 엄격히 구별되며 거기에는 작가의 애국적인 주체적 입장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⁴⁾

동명왕으로 언급된 영웅들에 대한 환기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구려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마다 외적을 물리쳤던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으로 이어진다. 특히 ‘수나라 장병의 낮은 여울을 따라 울로 백성들의 원혼은 매아미 소리가 되었구나’라는 구절을 공훈의 찬양이라고 분석한 내용은 <취유부벽정기>에서 흥생이 지은 시가 맥수지탄에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환기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선녀의 시를 통해서도 위만의 침략행위에 대한 단호함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를 통하여 <취유부벽정기>가 중국에 대항하는 주체적 애국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강조하는 논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취유부벽정기>가 한편으로는 영웅들이 활약했던 영광스러운 과거를 환기하는 작품임이 강조되고 있다.

주인공 흥생은 고려 때 송도에 살던 부자로서 풍도 있고 글짓기도 잘하는데 8월 추석을 맞이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배에 천을 싣고 실과 교역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와서 대동강가에 머물렀다. 옛친구 리생이 차린 연회에서 술에 얼근히 취한 흥생은 배에 돌아왔으나 좀처럼 잡들 수 없어서 조그만 쪽배를 타고 달빛을 즐기며 강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다가 부벽정에 올라 옛 도읍의 허물어진 성터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를 담아 시 여섯 수를 지었다.

제왕의 궁전터엔 가랑잎만 우수수
돌층계 굽은 길에 구름이 머흐레라

춤추던 정자에는 잡풀만 우거지고
답너며 지는 달에 까막소리 스산하네

풍류스런 지난 일이 진토로 되었구나
적막한 빈 성터엔 가시덤불뿐이로세

다만 강물만이 예대로 흘러가네
바다로 바다로 예대로 흘러가네

이 두 번째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섯 수의 시의 기본정서는 흥성하던 옛나라에 대한 그리움이다. 거칠은 성벽에 옛모습 남아있건만 들레엔 잡풀이 우거지고 대동강의 흐름도 흐느껴.....인걸은 간데없고 풍경은 쓸쓸하여 서정적 주인공의 가슴을 저미는 듯한 회고의 정을 자아내며 시는 구절구절 애수에 어려 있다.⁵⁾

〈취유부벽정기〉에 담겨 있는 부벽정이라는 공간은 역사의 자취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동시에 부벽정은 번성하던 왕조가 쇠한 뒤에 어떤 흔적만이 남아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된 내용에서는 〈취유부벽정기〉의 흥생이 부벽정에 올라 지은 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면서, 부벽정이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5)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7~208쪽.

서글픔을 자아내는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에 따라 홍생이 지었다는 여섯 편의 시 중에서도 두 번째 시를 예로 들면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회고의 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이 이제는 볼 수 없는 번영스러웠던 왕조에 대한 애환을 시에 담고 있다는 것에서, 홍생이 실은 금오신화의 저자인 김시습이 품고 있었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논의에서는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의 태도로부터 〈취유부벽정기〉의 작가였던 김시습의 역사인식을 탐색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은 옛 왕조의 자취를 보며 누구나 느낄만한 역사의 흥망성쇠를 반추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취유부벽정기〉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흥망성쇠, 그 중에서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흥성하였던 왕국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되고 있다.

3.2. 〈취유부벽정기〉의 애국정조와 시공을 초월한 애정

〈취유부벽정기〉가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룬 작품이라고 보는 관점과 함께 전개되어 온 것으로는 〈취유부벽정기〉가 시공을 초월한 애정을 다룬 작품이라고 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금오신화》에 실려 전해지는 5편의 단편소설들은 그 주제사상과 예술적 특성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두 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복사의 율놀이〉,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은 자유로운 사랑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들이며 〈남염부주 이야기〉와 〈룡궁에 갔다 온 이야기〉는 작가자신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리상을 환상적 수법으로 반영한 소설들이다.⁶⁾

위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연구에서 〈취유부벽정기〉 즉 〈부벽정의 달맞이〉는 양생과 귀녀와의 사랑을 다룬 〈만복사저포기〉나 리생과 최씨녀의 사랑을 다룬 〈이생규장전〉와 같이 남녀간의 절절한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특이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취유부벽정기〉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처럼 남녀간의 애정을 표면에 드러내놓은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5편의 소설 중에서 〈취유부벽정기〉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고민할 경우에 〈취유부벽정기〉는 〈만복사저포기〉 혹은 〈이생규장전〉처럼 자유로운 사랑과 그를 통하여 행복을 꿈꾸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취유부벽정기〉는 〈남염부주지〉나 〈용궁부연록〉처럼 이념의 추구나 초월적 체험만으로 채워진 작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 《부벽정의 달맞이》도 현실적인 인간과 외적의 침입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하고 하늘에 날아올라 선녀가 된 처녀와의 기이한 상봉을 통하여 남녀간의 진실한 애정과 행복에 대한 저항을 구현한 전기적 작품이다.⁶⁾

〈취유부벽정기〉를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과 같이 남녀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으로 보게 된 이유는 작품 속 여인의 경험이 지닌 유사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는 “외적의 침입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한 여인이라는 점에서 〈만복사저포기〉의 귀녀나 〈이생규장전〉의 최씨녀처럼 불가항력적인 외적 세계의 침입 앞에서 희생당했던 여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취유부벽정기〉의 홍생과 〈만복사저포기〉의 양생과 〈이생규장전〉의 이생 등은 그런 여인들과의 만남, 이별, 해후를 이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취유부벽정기〉는 〈만복사저포기〉나 〈이생

6)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141쪽.

7)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7~208쪽.

규장전)과 같이 남녀의 진실한 애정과 행복을 추구한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홍생은 황손인 천상세계의 선녀와 한자리에서 시편을 화답하게 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다시 <가을 밤 강정에서의 달맞이>라는 제목으로 배를 시 40운을 써달라고 청하니 그 녀인은 곧 응락하고 긴 시를 단숨에 기세좋게 써놓고 시녀를 시켜 <상제의 명령이 지엄하여 란새 타고 떠나립니다. 정답을 다 못하여 이내 마음도 섭섭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고 문득 하늘 높이 솟아 어디로인지 날아가 버렸다.

소설 <부벽정의 달맞이>는 이와 같이 주제사상적 과제에 있어서 <만복사의 윷놀이>, <리생과 최랑의 사랑>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하면서도 예술적 형상수준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홍생과 천상선녀와의 상봉은 남녀간의 애정윤리 문제를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적 바탕우에서 타당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다 환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두 인물의 지행과 정열도 뜨겁지 못하고 현실감을 덜 준다. 그것은 여주인공의 성격향상이 진실치 못한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⁸⁾

그렇지만 <취유부벽정기>는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와의 비교에서는 예술적 형상수준에서 뒤쳐지는 작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처럼 평가받게 된 이유는 <취유부벽정기>의 홍생과 기씨녀의 상봉이 <만복사저포기>의 양생과 귀녀의 만남이나, <이생규장전>의 이생과 최씨녀의 만남처럼 애정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홍생과 기씨녀의 애정이 돈독하게 그려지지 못했다는 평가는 기씨녀가 홍생에게 시를 써주고 바로 하늘로 떠났다는 내용과도 결부된다. 게다가 위에 나타난 것처럼 여주인공의 성격이 진실하지 못한 탓이라는 언급은 북한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여인의 태도를 생각해 한다. 이를테면,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는 귀신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고자 탐돌이를 하는 여인과 죽어

8)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7~208쪽.

서도 남편이 그리워 돌아오는 부인이 등장한다. 이들 여인들은 모두 애정이라는 것을 살아 있을때나 죽은 뒤에나 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그것을 지키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비하여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는 그와 같이 절절한 애정을 갈구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기씨녀의 태도로 인하여 <취유부벽정기>가 홍생과 천상선녀의 사랑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실현이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미미하다는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소설 <부벽정의 달맞이>는 고구려의 옛수도였던 평양을 배경으로 하여 송도의 젊은 상인인 홍생과 한 선녀와의 기구한 사랑을 보여준다. 홍생은 남도의 포목으로 북도의 비단과 교역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평양에 왔던 김에 부벽루에 올라 8월 한가위 달맞이를 한다. 모란봉의 달밤은 밝기도 하여 대동강의 물결이 비단결처럼 곱게 흘러내린다. 홍생은 시도 읊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 풍치좋은 옛 성터에서 감개무량한 하룻밤을 보내다가 뜻밖에도 먼 옛날 외래침략당시에 선녀로 되었다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 선녀는 그자신의 말대로 결코 <꽃이나 달의 요사스럽고 간사한 화신>은 아니었다. 선녀는 달 뜨고 은하수 맑은 이 좋은 밤에 시도 읊고 산천도 즐기면서 그윽한 정회를 마음껏 풀겠다는 심정으로 하늘의 옥경으로부터 이곳 부벽정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젊은이들은 옛 성터의 아름다운 풍경을 찬미하는 시와 노래를 함께 지어 부르며 오고가는 다정한 사랑의 감정을 도래하였다. 그들이 지어 부른 노래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으며 <비단으로 수놓은 듯 아름다운 강산>이며 <쪽빛처럼 푸른 물결을 담아 흐르는 대동강>의 수려한 풍경과 이끼끼 옛성터를 노래하고 자랑할수록 아득한 그 옛날부터 이 강토에 처들어와 로락질을 일삼던 외적에 대한 저주와 원한의 격정으로 솟구쳐올랐다. 소설은 두 젊은이들사이에 토로된 이러한 애국적 심정을 그들이 시로 주고받는 시와 노래를 통하여 밝히면서 바로 이러한 애국적 심정이 그들로 하여금 총각과 선녀라는 환상적인 인간관계의 장벽을 허물고 순결한 사랑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9)

9)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1~32쪽.

그렇지만 〈취유부벽정기〉에서 중요한 것은 흥생과 기씨녀의 애정이 단지 남녀간의 애정에 머물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선녀는 달 뜨고 은하수 맑은 이 좋은 밤에 시도 읊고 산천도 즐기면서 그윽한 정회를 마음껏 풀겠다는 심정.... 부벽정에 내려왔다”고 기술한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의 정회를 풀고자 인간계로 내려온 선녀는 인간인 흥생과 시와 노래를 함께 지어 부르면서 애국적인 심정을 교차시키고, 정신적 교류를 완성시킨다. 무엇보다 흥생과 기씨녀가 인간남자와 선녀라는 서로간의 차이를 허물고 정신적 교감이 가능했던 것이 애국적인 정조와 외적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눈여겨 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취유부벽정기〉는 애국 정조에서 이어진 교감이 시공을 초월한 애정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남한연구사를 검토하기 앞서 북한연구와 남한연구와의 차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연구에서는 〈취유부벽정기〉가 『전등신화』와 관련되었다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남한 연구에서는 〈취유부벽정기〉가 『전등신화』에 실려 있는 〈등목취유취정원기(藤穆醉遊聚景園記)〉와 〈감호야범기(鑑湖夜泛記)〉라는 두 작품이 혼합되며 반복과 차이, 지속과 변주의 면모를 갖춘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다.¹⁰⁾ 둘째, 북한 연구에서는 〈취유부벽정기〉를 김시습의 역사 경험과 견주어 논의하는 경우

10)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집, 2006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가 적은데 비하여, 남한연구에서는 <취유부벽정기>에 등장하는 홍생이란 인물이 김시습의 역사 경험을 토로하는 분신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¹¹⁾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남북한에서 유사하게 논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첫째, <취유부벽정기>의 부벽정이 역사인식의 공간이라는 점은 남북한 연구자들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관심사이다. 둘째, <취유부벽정기>에 등장하는 홍생과 기씨녀의 애정에 대한 관심도 남북한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 남한 연구에서 <취유부벽정기>는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 나타난 초현실적 세계로의 동경을 혼합하고 있는 작품으로 논의된 바 있다.¹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취유부벽정기>를 통하여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고구려의 흥망성쇠와 김시습이 경험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에 관한 논의와, <취유부벽정기>의 홍생과 기씨녀의 애정과 그를 통한 홍생의 천상계로의 승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¹³⁾ 이 과정에서 <취유부벽정기>에 관한 모든 연구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논의의 편의상 남한연구사 중에서도 특히 북한연구의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1) 이가원, 『금오신화』, 통문관, 1959;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민족문화사, 1961; 이재수, 「금오신화고」, 『한국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2;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 석사논문, 1971; 문상기, 「김시습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1; 엄기주, 「유가의 소설적 대응양상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12)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집, 2006.

13)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에는 박일용의 다음 논의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등목취유취경원기·감호야범기와와의대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6쪽. “<취유부벽정기>는 『금오신화』 다섯 작품 가운데 연구자들의 시각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작품이다. 예컨대, 이 작품을 남주인공 홍생과 여주인공 기씨녀 사이의 역설적인 사랑을 그린 것으로서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처럼 명혼소설로 파악하려는 작업, 그리고 기자와 기씨녀의 행적, 그리고 고조선과 고구려를 그리워하는 홍생의 의식이 지니는 사상적 역사적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는 작업이 상반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4.1. <취유부벽정기>를 통해 보는 역사와 허구의 거리, 그리고 애상적 정조

<취유부벽정기>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와 허구의 거리를 조명하고자 한 노력은 주인공 홍생의 신분에 대한 논의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주인공 홍생이 개성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왕조의 교체로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고려 유신들의 일부가 ‘隱於商’ 했다는 점을 들어 홍생을 이러한 개성인 풍토에서 성장한 인물로 인식하거나,¹⁴⁾ 개성상인은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도 교양을 지닐 수 있었다고 이해한 것을 들 수 있다.¹⁵⁾

인물구성에서 箕子女를 여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긴 箕子王을 세조에게 왕위를 뺏긴 端宗에 비의했기 때문이다. 관서 유람 중 평양에서 기자왕 추모시를 많이 쓴 것은 端宗追慕의 情을 담은 것이다.¹⁶⁾

위 인용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의 필연적 등장장구도는 단종 추모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형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취유부벽정기>는 역사적 배경이 작품의 의미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설이다. 물론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에도 왜구, 흉건적 등 역사적 사건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소설 플롯에 작용하지

14)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서울대학교 국문학회, 1971, 41쪽.

15) 이흥무, 「금오신화에 나타난 원형적 심상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53쪽.

16) 강신구, 「『金鰲新話』 속의 詩歌 研究」, 『국어국문학』 9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303쪽.

는 않았다. 그러나 〈취유부벽정기〉에서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 자체가 바로 소설의 의미와 직결되고 있다. 그리고 〈취유부벽정기〉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과 아울러 이 소설의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 평양이라는 지역적 배경이다.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공간이 이 소설의 의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¹⁷⁾

게다가 〈취유부벽정기〉는 역사적 배경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물론 금오신화의 다섯 편 모두에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역사를 회고하면서 홍생과 기씨녀의 극적 만남이 견고해지는 〈취유부벽정기〉의 서사 흐름은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취유부벽정기〉의 ‘부벽정’은 공간경계역의 성격을 지닌다. 그곳에는 고조선 이래 우리 역사가 시간주름을 이루며 존재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기 전의 홍생은 현실적 자아의 성격이 강했으나, 그곳에 들어선 순간 현재와 과거가 이어진 시간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 자아로 변모한다. 그는 겹쳐진 시간 주름 속에서 그곳을 스쳐갔던 사람들, 즉 단군, 기자, 주몽 등을 끌어내어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심리적 공간을 경험한다. 이것은 주로 시의 형태로 드러나다가,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홍생의 역사적 자아는 특수한 의상(意象) 혹은 형상으로 창조된다.¹⁸⁾

〈취유부벽정기〉의 특성은 동일한 공간에서 부유하는 혹은 거쳐 갔던 역사적 인물들과의 조우를 연상하고, 홍생과 기씨녀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역사적 인물들과의 조우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취유부벽정기〉는 역사와 허구의 겹침을 통해 과거와의 연결 고리의 이어짐과 그를 통하여 확장될 수 있는 극적 만남을 시현해보인 작

17) 권순열, 『醉遊浮碧亭記 研究』, 『인문과학연구』 14집, 1992, 162쪽.

18)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22쪽.

품인 것이다.

4.2. 〈취유부벽정기〉의 홍생과 기씨녀와의 연정, 그리고 초월적 의지

〈취유부벽정기〉는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처럼 연인 혹은 부부 간의 강렬한 사랑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녀 주인공인 홍생과 기씨녀의 은근한 연정이 잘 다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취유부벽정기〉는 명혼소설의 하나이며, 홍생과 기씨녀의 역설적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¹⁹⁾ 동시에 〈취유부벽정기〉는 남녀간의 끊어질 수 없는 애정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그 애정이 홍생이 천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잘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홍생과 기씨녀의 만남과 연정은 곧 홍생의 초월세계로의 진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箕氏女는 세속을 떠난 선녀이면서도 인간적 향수와 망국의 비애에 잠겨 洪生과 감정면에서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다. 이같은 측면에서의 감정의 공유는 그들의 사랑을 신비스럽고 고차원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한다.²⁰⁾

그래서 홍생이 만나는 기씨녀에 대한 형상은 오묘하게 그려진다. 그녀는 세속을 초월한 선녀이면서 세속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이면을 갖고 있다. 그녀가 홍생과 서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사라진 왕조에

1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그 문학과 사상』, 강원대출판부, 1989;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20) 문영오, 「『금오신화』에 굴절된 한의 고찰-〈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0집, 1987, 18~19쪽.

대한 그리움이라는 공통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선녀와 통하게 되는 공통관심사의 확장은 단순히 인간계의 세속적 사랑에 머물지 않고 신비스러운 사랑으로 옮겨가게 한다.

홍생과 의식에서 공통되었던 그녀는 왕계천녀로서 지고지귀한 여성이었다. 사랑의 지고한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이생전과 만복기와 달리 전혀 성애가 수반되지 않아서 서운한 느낌이 없지도 않다.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숭고하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한 것이었다. 인생이 덧없고 유한한데 비하여 그들이 지향한 사랑의 세계는 숭고하고 영원하다. 선녀와의 만남으로 숭고하고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데 그러나 그 사랑은 선계에서 달성될 수 있다. 즉 기씨녀는 순수하고 고귀한 여성을 상징하여 그들의 만남이나 홍생의 죽음은 숭고하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답적인 세계는 감상주의와 회고조로부터 전환된 것이었다²¹⁾

그렇기에 <취유부벽정기>의 홍생과 기씨녀의 관계에서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에 등장하는 성애적인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의 사랑의 견고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홍생과 기씨녀의 사랑이 죽음 그 너머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원한 사랑의 한 표징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더욱이 지고지귀함을 이미지화한 기씨녀의 등장으로 그 영원한 사랑은 숭고함이라는 이미지를 덧입는다. 그에 따라 <취유부벽정기>는 숭고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화자가 고조선의 패망을 직접 겪은 유민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처럼 고조선의 패망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망국의 슬픔이 극에 달할 것 같은 화자가 천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고국의 터에 와서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오히려 인간 세상

21)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서울대학교 국문학회, 1971.

사의 덧없음에 놀라면서 애상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처럼 덧없는 세상사를 보면서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초월적인 존재처럼 인간 세상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씨의 태도는 이념에 얽매어 천여 년 전의 상황과 현실을 동일시하면서 고뇌하는 홍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화자의 체험을 수용하여 화자처럼 천년 후의 시각으로 거리를 두고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각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것처럼 각성을 했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의 삶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의 존재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홍생은 기씨처럼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초월을 꿈꾸게 되는데, 화자는 그러한 홍생에게, ‘천도 복숭아 익는 봉래산 언덕’(桃熟蓬丘)에서 그리고 푸른 바다가 마를 때(碧海乾)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여 초월이 과연 얼마나 지난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도록 환기한 것이다.²²⁾

동시에 홍생과 기씨녀의 만남은 남녀간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초월의 계기로 이어진다. 기씨녀가 회상하는 고조선의 패망의 역사와 천년 뒤에 다시 부벽정에서 느끼는 회감은 그녀에게 남아있던 인간사에 대한 미련을 걷어내게 하고, 그녀를 바라보는 홍생은 이념에 얽매어 있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홍생은 기씨녀와의 만남 이후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부침하다가, 기씨녀의 소개로 이어진 선계로의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취유부벽정기〉는 홍생과 기씨녀와의 아련한 사랑에서 초월적 의지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22)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49~450쪽.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
(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5.2. 남한 자료

- 강신구, 「『金鰲新話』 속의 詩歌 研究」, 『국어국문학』 9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1989.
국역 매월당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순열, 「醉遊浮碧亭記 研究」, 『인문과학연구』 14집, 1992.
김문희, 「愛情 傳奇小說의 文體 研究」, 서강대 박사논문, 2003.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집,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9.
김창현, 「『금오신화』의 체재에 나타난 창작방법과 비극적 낭만성」, 『人文科學』
45집, 2010.
문복희, 「〈醉遊浮碧亭記〉에 나타난 金時習의 詩世界」, 『인문과학연구』 27집,
2010.
문상기, 「金時習研究」, 동아대 박사논문, 1991.
문영오, 「『금오신화』에 굴절된 한의 고찰-〈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
유부벽정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0집, 1987.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집, 한국
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등목취유취경원기·감호야법

- 기와의대비를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 설중환, 『금오신화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소인호, 「려말선초의 전기문학」, 고려대 박사논문, 1996.
-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그 문학과 사상』, 강원대출판부, 1989.
-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26, 1994.
- 엄기주, 「유가의 소설적 대응양상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 오대혁, 「『金鰲新話』의 연구 : 禪思想的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06.
- 윤채근, 「소설적 주체의 성립과 그 발전」, 고려대 박사논문, 1992.
- 윤희진, 「〈취유부벽정기〉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중국어문학』 18집, 1990.
- 이가원, 『금오신화』, 통문관, 1959.
- 이대형, 「金鰲新話의 서사방식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1.
- 이복자, 「『금오신화』의 우의성 연구」, 경성대 박사논문, 2004.
-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사, 1981.
- 이석래,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의 모방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탐색 1-평양」, 『한국학논집』 33집, 한양대한국학연구소, 1999.
- 이재수, 「금오신화고」, 한국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2.
-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 임한용, 「〈醉遊浮碧亭記〉研究」, 『한국문예비평연구』 2집, 1998.
- 정상균, 「金鰲神話 研究」, 『어문집』 26집, 1993.
-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 연구』, 민족문화사, 1961.
-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집, 2006.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최귀묵, 『김시습의 글쓰기 연구』, 소명출판사, 2002.
-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과 초월의 문제」,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3.
- 최삼룡, 「醉遊浮碧亭記의 仙界憧憬」, 『국어문학』 24집, 1982.

최원기, 「韓國文學上에 나타난 男女和答唱」, 『어문집』 15, 1975.

최중운, 「幻夢小説의 類型構造와 創作動因」, 대구대 박사논문, 2001.

한영환, 『한중일 소설의 비교연구』, 정음사, 1985.

<강미정>

남염부주지 南炎浮洲志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남염부주이야기

1. 서지 사항

〈남염부주지〉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이야기 가운데 네 번째 작품으로, 북한에서는 작가 김시습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및 철학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염부주지〉에 대한 남한에서의 작품 명칭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원제목 그대로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라고 명명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시대와 집필자에 따라 작품 명칭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북한의 문학사는 1959년 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한 『조선문학통사』이다. 여기서는 작품 명칭을 남한과 동일하게 〈남염부주지〉로 명명하고 있다. 이후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 1977년에 발간된 『조선문학사』에서는 〈남염부주이야기〉로 명명하고 있다. 이후 발행된 문학사 및 연구들에서는 〈남염부주이야기〉로 통일하여 사용하거나, 〈남염부주이야기〉, 〈남염부주지〉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작품 개요

경주에 사는 박생은 일찍이 유학에 뜻을 두어 글공부를 하였지만 과거에는 합격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박생은 항상 마음속으로 불평을 품고 있고 권력 앞에서 좀처럼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아 그를 교만하고 편협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솔직하고 순수해서 그 지방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하였다. 또한 그는 일찍부터 불교, 무당, 귀신 등에 의심을 품고 세상에는 하나의 이치밖에 없다는 ‘일리론’이란 논문을 지어 극락, 지옥, 무당, 귀신 등을 부정하였다.

그러던 하루는 박생이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염부주란 곳에 와 있었다. 염부주에 가게 된 박생은 그곳의 주인인 염왕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사상적인 담론을 나누게 되었다. 박생과 염왕의 담론은 첫째로는 공자와 석가의 인물평에 대한 것, 둘째로는 귀신의 문제, 셋째로는 천당과 지옥, 윤회의 문제, 넷째로는 삼한의 흥망에 관한 것이었다. 박생은 염왕과의 대화를 마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염왕은 박생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부주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왕위를 물려주었다.

염왕과의 대화가 끝나고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수레가 넘어지면서 박생이 놀라 깨니 이 모든 게 한바탕의 꿈이었다. 그 뒤, 박생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해 가사를 정리하고 얼마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장차 박생이 염라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3. 북한의 연구

북한에서 논의된 <남염부주지> 관련 연구들 중 현재 남한에서 확인 가능한 논저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④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⑤ 김하명, 『조선문학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⑥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⑦ 정은경, 「중세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9년 3호.

제시된 논의들을 살핀 바, 북한에서 <남염부주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장르적 측면, 환상성, 인물의 형상화 방법, 주제적 특성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이와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남염부주지>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소개한다.

3.1. ‘몽유록’ 소설로서의 장르화

<남염부주지>는 몽유록 형식과 관련하여 소설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의 발생과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소설이 발생하게 된 합법칙적 과정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당대의 미학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 둘째, 진보적인 문학사조가 발생하였다는 점. 셋째, 선행시기의 창작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고전소설은 첫째로, 당대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인간과 그 생활을 폭넓고 진실하게 반영하려는 탐구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중략) 둘째로, 15~16세기의 진보적인 문학사조와 창작경향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발생하였다. (중략) 셋째로, 선행시기의 다양한 예술적산문의 창작경험을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설의 요구에 맞게 계승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¹⁾

그 중, ‘몽유록’ 양식은 새롭게 등장한 진보적인 문학사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학사조 및 창작경향은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로 나타나는데, 그 중 낭만주의적 경향은 ‘몽유록’ 양식과 관련이 깊다. 그 중에서도 <남염부주지>는 <용궁부연록>과 함께 낭만주의 경향이 소설 발생에 미친 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나라 고전 소설의 발생에서 낭만주의적 경향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 소설 발생 초기의 작품들인 「남염부주 이야기」·「용궁의 상량잔치」 등은 단적으로 이 시기 진보적인 창작 방법인 낭만주의가 소설 발생에 미친 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단편 소설들은 모두다 꿈의 형식(몽유록)을 가지고 인간 성격과 그의 생활을 낭만주의적으로 묘사하면서 작가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상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하여 종래의 산문들의 고루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²⁾

1)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7~11쪽.

2)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35쪽.

발생초기의 소설 창작에서의 낭만주의적경향은 창작에서 비판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봉건적 예속과 굴종을 방해하는 인간의 반항정신을 낭만주의적으로 표현하고 꿈의 형식과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리용하여 이른바 <<정통문학>>의 고루하고 진부한 기성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³⁾

위에서는 <남염부주지>가 꿈의 형식을 통해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낭만주의적으로 묘사하면서, 종래의 산문들이 지닌 고루한 틀을 깨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지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꿈의 형식을 통해 형식상의 자유를 꾀하고,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강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염부주지>는 이러한 발생 초기과정에서 꿈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설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북한 문학연구사에서 나타난 ‘몽유록’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문학연구사에서는 꿈의 형식을 빌린 소설 작품들을 ‘몽유록’의 형식이라고 명명하면서 고전소설의 발생 초기인 15~16세기에 이와 같은 형식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남염부주지>를 비롯한 이 시기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몽유록 형식이 발생 초기의 소설문학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으로 이해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학 연구사에서는 이러한 몽유록 형식을 지닌 작품들에 대해, 단순한 형식의 차원을 넘어 ‘몽유록소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설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몽유록소설’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몽유록소설이라고 하면 꿈꾸는 사람-몽유자가 꿈세계(몽유 세계)에서 체험한 사실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미는 소설양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몽유록소설은 꿈을 소재로 한 것으로 하여 <<구운몽>>, <<옥루몽>>과 같은 몽자소설들과 함께 <<꿈형식소설>>이라는 하나의 통칭

3)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1쪽.

속에 포함시켜 다루어왔을뿐 그것을 따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소설양식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심화시킨적은 없다.⁴⁾

여기서는 꿈꾸는 사람이 꿈속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한 소설 장르를 ‘몽유록소설’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몽유록소설’은 기존에 〈구운몽〉, 〈옥루몽〉 등의 몽자소설과 함께 ‘꿈형식소설’이라는 통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독자적인 문학 양식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가, ‘몽유록소설’이라는 독자적인 소설양식으로 재평가되면서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몽유록소설이 탄생하게 된 맥락에 대해서는 역사·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다음의 내용은 그에 대한 설명이다.

몽유록소설의 발생은 첫째로, 15~16세기의 사회력사적환경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울분, 사회정치적리상을 보다 자유롭게 토로할수 있는 새로운 소설양식의 탐구를 요구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중략)

현실에 대한 울분과 꾀보이지 못한 사회정치적리상을 자유롭게 토로하기 위하여 모색하고 탐구한것이 바로 몽유록소설양식이였다. 그것은 꿈이 현실과 관련을 가지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구의 세계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매우 적중하고 유리하였기 때문이다.⁵⁾

당시 시대적 상황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정치적 이상을 드러내어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에,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몽유록소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몽유록소설의 발생과정에 나타난 이와 같은 맥락은, 작품 전반에 흐르는 주제의식과도 연결된다고 여겨진다.

4)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5)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첫째로, 꿈과 같은 비현실적이며 가상적인 세계에서 봉건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강력하고 예리한 비판을 실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략)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비판의 대상을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존재인 국왕과 그를 둘러싼 근친세력들, 고위관료들로 설정하고 무자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⁶⁾

즉, 몽유록소설은 사회적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려는 방편으로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작품 전반에 그러한 불만을 일으킨 존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몽유록소설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행시기의 산문작품들의 영향을 받는 일정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에 존재했던 산문문학 중에서 꿈과 관련된 작품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면서 몽유록소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몽유록 소설의 발생은 선행시기의 산문문학과도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 꿈은 현실세계와 관련을 가지지만 현실적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론리적표상이 나타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꿈의 비론리성은 꿈의세계를 현실과 두절된 세계로 인식하게 하였고 따라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모순들을 꿈의 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작품장작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문학발전의 일정한 단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고전문학작품들 가운데는 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꿈 속의 일을 해석하여 현실의 일을 알아맞히는 것과 같은 해몽과 관련한 내용의 작품들이 위조로 나타났다. 후기신라의 설화작품인 《황룡사9층탑》이라든가 고려의 서로하작품인 《은혜깊은 사슴》, 《거북이의 보은》과 같은 작품들은 몽유록소설의 창작근원을 말해주는 설화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략) 다음에는 단

6) 정은경, 「중세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 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9년 3호.

순한 해몽이나 태몽과 관련한 설화의 체모에서 훨씬 벗어나 거의나 몽유록 소설의구성에 접근한 예술적산문들이 나타났다. 수이전체 소설 《조신의 일생》과 의인전기체소설 《정시자전》은 산문문학발전의 이러한 합법칙 적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⁷⁾

북한에서는 산문문학의 유기적인 발전과정을 일컬어 고전소설 발전의 합 법칙성이 성립하고 있다고 말한다. 몽유록소설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꿈 을 소재로 한 산문문학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작품들에는 현실적 모 순을 꿈 형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꿈에 관 한 선행시기의 설화로는 〈황룡사 9층탑〉, 〈은혜깊은 사슴〉, 〈거북의 보은〉 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연구사에서 각각 수이전체소설과 의인전기체소 설로 명명한 〈조신의 일생〉(조신설화)과 〈정시자전〉 역시 몽유록소설의 발 달 과정에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보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꿈과 관련된 설화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수이전체소 설, 의인전기체소설들에서 몽유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후기의 산문문학 발전에 영향을 주어 〈몽유록〉이라는 완비된 구성을 가진 몽유록소설이 발 생발전하였다고 말할수 있다.⁸⁾

이렇듯 몽유록소설은 갑자기 생겨나거나 다른 나라의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의 자생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몽유록소설의 발생 원인과 발생 과정을 전제로 하여, 몽유록소설로서 〈남염부주지〉가 지닌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우선, 〈남염부주지〉를 몽유록소설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7)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8)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급하고 있다.

‘몽유록소설’이라고 할 때에는 꿈꾸는 사람-몽유자가 꿈 세계에 들어가 는 입몽부분과 꿈에서 깨어나는 각몽부분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 꿈 속의 사건이 작품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야하며 이 꿈속의 사건이 작품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하나 조건이 성립될 때만이 몽유록소 설이라고 말할수 있다.

(중략)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꿈을 꾸는 입몽계기도 <하루는 방안에서 등잔을 돌고 독서하다가 베개에 의지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꿈에서 깨어나는 각몽부분도 <이미 문을 나오는 수레를 끄는 자가 미끄러져 수레가 엎어지는 바람에 놀라 깨니 한바탕 꿈이었다.>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⁹⁾

위의 견해를 살펴보면 몽유록소설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설의 구성 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몽유록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몽)과 꿈속에서의 이야기를 거쳐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각몽)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염부주지>는 그와 같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몽유록소설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남염부주지>를 몽유록소설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남염부주지>는 몽유록소설의 발생시기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제로 북한 연구에서는 <남염부주지>를 <용궁부연록>과 더불어 몽유록소설의 발생 과정상 가장 앞선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고전소설사에서 몽유록소설의 발생시기는 리조시기인 15~16세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에 와서 김시습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룡궁의 상량잔치>, <남염부주이야기>로부터 첫걸을 땀 몽유록 소설은 16세기에 들어와서 심의의 <대관제몽유록>, 립제의 <원생몽유록>

9)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등을 거쳐 17세기에는 〈몽유달천록〉, 〈강도몽유록〉, 〈수성궁몽유록〉(운영전), 〈괴생몽유록〉, 〈금산사몽유록〉 등 허다한 작품들을 남기었다.¹⁰⁾

15세기 김시습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의 상량잔치〉, 16세기 심의의 〈대관제몽유록〉과 립제의 〈원생몽유록〉 등의 창작은 이시기에 몽유록소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¹¹⁾

북한의 연구에서는 〈남염부주지〉의 창작시기를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과 함께 15세기로 보는데 이에 따라 몽유록소설의 발생시기 또한 15세기로 보고 있다.

3.2. 환상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

몽유록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남염부주지〉의 환상성에 대한 논의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염부주지〉는 꿈속의 이야기라는 점과 이계의 저승공간인 염부주의 설정, 가상의 신격인 염왕의 설정 등에서 환상적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환상성에 관하여 북한의 연구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환상성 그 자체를 작품이 가진 한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작품에 대하여 사실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인데, 〈남염부주지〉가 꿈이나 염부주와 같은 환상적 공간을 통해 주제의식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 공간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환상 속의 공간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실주의적 기법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①과 ③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다음에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0)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11)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물론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나 구성 조직을 비롯한 예술적형상형식에서도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과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우선 당대의 봉건사회현실을 계급적모순과 대립관계에서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정당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살아난 환신과 교제한다든가 남염부주와 룡궁과 같은 비현실적인 환상세계의 묘사를 통한 주제사상적과제를 실현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¹²⁾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남염부주지〉는 작품의 구성과 형상화에 환상성이 크게 개입하여 현실적인 주제의식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못하였으므로 작품의 한계성과 미숙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는 환상적 방법을 이용한 것은 작가의 의도된 결과라는 견해이다. 〈남염부주지〉의 환상적 공간은, 환상을 통해 사상과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노력에 의해 구현된 것이므로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높게 평가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②의 언급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금오신화》의 소설들은 그 소재가 현실세계의 인간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승》의 환상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있다. 무신론자였던 김시습이 이러한 신비로운 환상을 받아들인 것만큼 우리는 그가 이러한 《저승》의 세계와 《귀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중략) 김시습 자신이 《저는 본래 불교나 도교와 같은 이단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매월당집》)라고 쓴것처럼 그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무신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매월당집》에 실려있는 수많은 시작품만 보아도 거기에서는 작가가 신비로운 《저승》이나 환상세계를 그대로 믿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탕유관서록》, 《탕유관동록》, 《탕유호남록》등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시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현실생활을 소재로 한 것이다.¹³⁾

12) 김하명, 『조선문학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15쪽.

여기서는 작가인 김시습의 다른 저서와 작품을 통하여 그가 환상세계를 그대로 믿지 않았던 진보적인 무신론자로서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신론자인 김시습이 환상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환상적 방법을 사용한 데는 특정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시습이 환상을 통해 의도한 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실 김시습이 기이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소설을 쓴 것은 그러한 환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과 지향을 반영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우에서 본 꿈의 형식도 바로 작가 김시습이 환상을 중요한 예술적 수법으로 리용하려는 탐구과정에 나온 이야기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무신론자인 김시습이 환상적 방법을 사용한 데에는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술적 기법을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주의 기법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환상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한계로 지적한 것과 달리, 작가의 사상적 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상성이 오히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3.3. 사회 비판적 인물로서의 박생과 염왕

북한에서는 <남염부주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논의할 때, 박생을 주로 김시습의 분신으로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3)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41쪽.

14)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42쪽.

박생의 생활 경로와 성격적 특질은 많은 점에서 작가 자신을 방불케 한다. 이 소설은 박생을 통하여 작가 자신의 창작적 견해와 사회 정치적 이상을 피력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남염부주이야기》는 김시습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및 철학적 견해를 등 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박생은 가상적인 인물이지만 작자 김시습 자신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남염부주지〉의 인물 형상화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작가인 김시습이 주인공 박생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염부주지〉에 대한 논의는 당시 김시습이 처해 있던 현실을 무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소설 속에 형상화된 박생에 대한 평가도 작품 속에 드러나는 고유한 성격이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 현실 상황에 비추어 작자인 김시습이 처한 시대적 환경과 관련된다. 〈남염부주지〉를 김시습의 사상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박생에 대한 논의는 작가 김시습의 분신으로서 그의 사상과 현실 태도를 어떻게 대변하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한편 ④에서는 박생이 죽은 뒤 염왕으로부터 염부주의 왕위를 이어받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둘 사이의 왕위 계승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염라대왕은 장차 박생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을 약속한다. 이것은 작가 김시습이 주인공 박생으로 하여금 단순히 당대사회의 부정면을 까밝히고 저주하는 비판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간악한 자들을 남염부주의 뜨거운 화염과 차거운 얼음장 속에서 속하고 속죄하고 단죄하는 외로운 실천

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58~259쪽.

16) 김하명, 『조선문학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09쪽.

자로 등장시키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

박생이 염왕이 되는 과정을 그의 사회 비판적 견해가 발휘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석함으로써, 단순히 비판적 지식인에 머무르지 않고 비판의식과 행동적 면모를 모두 가진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염왕 역시, 작가가 가진 철학적·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등장하고 있음이 강조된다. 즉 염왕은 박생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박생처럼 작가의 사상과 현실태도를 대변하는 다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선비란 본시 정직하고 의지가 굳어 세속에 굽히지 않는 활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당세에 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한탄하면서 염라국을 선비 박생에게 다스리라고까지 말하는바, 이는 모두 단종에 대한 세조의 찬탈을 반대하여 완곡하게 말한 것이다. (중략) 염라대왕의 이 말은 곧 김시습의 정치적 견해를 말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인민을 존중히 해야 한다는 작가의 인민적 입장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¹⁸⁾

등장인물인 박생과 염왕 모두 김시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염부주지〉는 두 인물의 대담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작가의 분신인 박생과 염왕은 박생이 염부주를 찾아오는 것을 계기로 서로가 가진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대화의 방식은 한쪽의 이야기에 대해 다른 한쪽이 긍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담의 형식은 작가의 주장과 사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7)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4쪽.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237~238쪽.

염라대왕은 «나라를 다스리는자는 폭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백성들이 비록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을 품고있나니 이것이 쌓이고쌓이면 필경에는 터질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횡과 폭적을 일삼는 왕들의비행을 까뻑한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라가 처한 비통한 처지와 운명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자 박생은«요즘 인간세상에는 간악한 신들이 날뛰면 큰 란리가 계획되어남에도 불구하고 웃자리에 앉은자들이 협박과 위협으로써 착한 일을 하는듯이 가장한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폭군과 더불어 그 밑에서 아부하는 간신들의 죄행을 날카롭게 폭로한다.¹⁹⁾

이처럼 북한에서는 <남염부주지>의 인물 형상과 그 평가에서, 박생과 염왕 모두 작가의 사상과 견해를 대변하는 역할로 형상화된 인물들이며,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물들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3.4. 사회·종교적 주제의 구현

북한의 <남염부주지>에 대한 연구에서 그 주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중에서, <남염부주지>는 주제적으로 <용궁부연록>과 짝을 이루어, 사회 정치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작품을 ‘애정물리’ 주제의 소설과 사회정치적인 주제의 소설로 구별 짓는데, <남염부주지>를 <용궁부연록>과 함께 사회정치적 주제를 구현하는 소설로 본다.²⁰⁾

19)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3쪽.

20)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1쪽.

다른 세 작품(〈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이 ‘애정윤리’를 주제로 한 것과 달리, 사회와 정치의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남염부주지〉에 대한 북한의 연구사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다. ③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주인공 박생은 환상적인 존재인 염라대왕의 대화를 통하여 천당과 지옥을 설교하는 불교의 ‘화복향응설’의 허황성을 통쾌하게 폭로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인민들을 억압하는 봉건왕권이란 인민들의 반항에 의하여 붕바람에 얼음처럼 녹아버리고 말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²¹⁾

여기에서 〈남염부주지〉의 주제의식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교의 ‘화복향응설’의 허황성을 폭로한 것이고, 둘째, 봉건왕권에 비판이 그것이다. 우선, 당시의 종교적 차원의 주제의식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박생과 염왕이 미신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서 이러한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다음의 글에 이러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소설은 또한 봉건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불교와 무당, 귀신 등 종교와 미신의 허황성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소설은 박생을 일찍부터 불교의 천당지옥설과 무당, 귀신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인간으로 설정하고 그가 쓴 논문과 그의 질문에 대한 염라대왕이 대답을 통하여 부처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제를 올려 죽은 넋을 제사 지내거나 왕에게 기도하고 돈을 태우는 등 종교적 의식과 미신이 허망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²²⁾

21)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35쪽.

이상에서는 종교나 미신에 대한 무의미함을 폭로하는 것이 〈남염부주지〉의 중요한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박생은 이미 저서를 통해서 종교나 미신 같은 것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염왕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④의 연구에서는 미신에 대한 의심을 품고서 종교와 미신의 문제에 대해 염왕에게 질의하는 박생과, 이에 대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대답한 염왕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

원래 미신에 대해 의심을 품고있던 박생은 세상에선 «천상에는 천당이 라는 안락한곳이 있고 지하에는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것이 과연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어찌 이 우주밖에 다시 다른 우주가 있으며 이 세계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세상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빌기 위하여 재물을 랑비하면서 귀신이며 부처에게 공양하는 짓은 부질없는 일일뿐아니라 이른바«깨끗한 정토»로 하여금 부화방탕을 일삼는 랑장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엄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대답하였다.²³⁾

박생의 질문에 대해 미신과 불교의 세계가 없다고 대답하는 염왕의 모습은 결국 미신과 종교가 허황한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에서는 〈남염부주지〉의 주제가 당대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과 종교와 미신의 허황함에 대한 경고로서 이해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는 정치 사회적인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박생과 염라대왕의 이러한 대화속에는 간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고 폭정을 일삼으며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조 정치하의 어지러운 현실이 폭로되고 있으며 반동적인 봉건 통치배들에 대한 비난이 뚜렷이

2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60쪽.

23)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3쪽.

표현되고 있다.²⁴⁾

여기에서는 비판의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비판의 대상은 세조를 포함한 봉건 세력들이며 이들이 비판받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잡고 백성에게 폭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에 대해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염라대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폭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비록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을 품고있나니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필경에는 터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횡과 폭정을 일삼는 왕들의 비행을 까밝힌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라가 처한 비통한 처지와 운명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자 박생은 «요즘 인간세상에는 간악한 신하들이 날뛰며 큰 란리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윗자리에 앉은자들은 협박과 위협으로써 착한 일을 하는 듯이 가장한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폭군과 더불어 그 밑에서 아부하는 간신들의 죄행을 날카롭게 폭로한다.

주인공 박생과 염라대왕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이야기들은 두말할 것 없이 작가 김시습 자신의 사회정치적 견해이며 간신과 폭군이 전횡에 대한 폭로비판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와 그 간신들에 대한 작가 자신의 울분과 저주인 것이다.²⁵⁾

염라대왕의 이 말에는 세조가 폭력으로써 나아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취착하는 비도덕적이며 반인민적인 처사에 대한 비판이 비껴있으며 작가 김시습의 인도주의적 인본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염라대왕의 말에는 «명이란 하늘의 명»으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미 운명지어진 것으로 보는 제한성이 있지만 여기서

2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59~260쪽.

25)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3쪽.

봉건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폭력적진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통치자가 인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진보적인것이였다.

염라대왕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힌 조서를 내리고 신하들에게 그를 왕태자의 레으로써 바래주도록 분부하고나서 다시 박생에게 이번 걸음에 수고가 많았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한 이야기들을 인간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여 그 황당한 짓들을 일소하여버리도록》하라고 격려하는것은 작자가 이 환상적인 남염부주왕국에서 벌어진 사건의 묘사를 통하여 당시 세조통치하의 봉건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⁶⁾

위에서 보면 이 작품은 당시 정치세력을 왕위를 찬탈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진보적인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남염부주지>의 이러한 비판적 경향이야말로 고전소설의 초기작으로서 이 작품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로 평가하기도 한다.

비판적경향을 강화함으로써 발생초기의 소설문학으로 하여금 당대사회의 요구에 맞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 《남염부주지》, 《룡궁부연록》등은 비록 작품의 이야기는 꿈의 형식으로 엮여져있으나 작가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형식을 가지고 당대 사회의 불합리성 특히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썩인 폭군과 간신들의 비행,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미신과 종교의 허황성을 비교적 힘있게 비판하고 있다. (중략)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고전소설은 그 발생초기부터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한 당대 인민들과 진보적작가들의 요구에 맞게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었다.²⁷⁾

26) 김하명, 『조선문학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11쪽.

27)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43쪽.

〈남염부주지〉의 비판의식은 한 작품의 특징으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고전소설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끝으로, 북한에서는 〈남염부주지〉가 갖는 주제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사상적으로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는 북한 문학 연구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다.

소설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은 봉건 유교 사상에 기초한 ‘어진 임금’의 ‘덕치’와 ‘선정’에 대한 염원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중략) 이것은 소설에 ‘인민에 대하여 말한 것이 결코 근로 인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대변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민본’ 사상을 주장하였으며 ‘인민의 나라’란 ‘어진 임금’의 덕치 밑에서 백성들이 그에 순종하면서 사는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⁸⁾

당대 사회의 불합리성, 특히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한 폭군과 간신들의 비행에 대한 비판을 중요한 의의로 삼는 북한의 문학 연구사에서, 〈남염부주지〉가 유교적 질서 혹은 왕도정치의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북한에서 〈남염부주지〉에 대한 연구는 몽유록 소설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거나, 작가의 사상을 반영한 사상소설이란 점을 바탕으로 작가와의 관련성에

2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희문화사, 1996), 260쪽.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은 남한 연구사에서도 유사하게, 작품에 작가의 특정 주장이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시습의 사상과 주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김시습의 생애와 관련성을 찾거나 김시습의 다른 저서들과 작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때문에 남한의 연구도 작품의 미학적 특징이나 문체, 구성 등을 고려하거나 작중인물의 성격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았다. 북한의 연구와 비교될 수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4.1. 장르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²⁹⁾

북한에서는 <남염부주지>에 대해, 같이 수록된 <용궁부연록>과 더불어 ‘몽유록 소설’로 확정하고 그것이 15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남염부주지>를 몽유 양식을 가진 소설로서 인정하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말하는 몽유 양식은 몽유 모티프 혹은 현실-꿈-현실의 몽유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서술 유형을 말한다.³⁰⁾

몽유록에 대한 연구는 남한의 연구자들에게 일찍부터 관심을 끌어온 영역이다. 초기의 연구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주로 소설사나 소설론에서 꿈 소재의 문학으로 범주화하여 간략하게 제시되었다.³¹⁾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에서는 인접 장르들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장르로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9) 장르적 특성에 관하여 여러 책에서 몽유록, 몽유 양식의 작품, 몽유록 소설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몽유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0)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26쪽.

3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79쪽; 박성의, 『한국대소설사』, 일신사, 1958, 280쪽;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431~432쪽;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271~208쪽.

다음 시기에 이르러 몽유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몽유록을 몽자루소설과 다른 것으로 비교·분석하면서 하나의 소설 양식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몽유록의 주제, 구성, 작자 및 몽유자의 공통적 성격, 사상적 경향 등이 몽유록 양식의 핵심 요소로서 제시되었다.³²⁾ 이는 이후의 몽유록 연구를 촉발시킨 선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몽유록의 장르 규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몽유록에서 꿈은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서사 장르와는 차이가 있어 교술적 장르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논의³³⁾가 제기되어 몽유록을 서사로 볼 것인지 교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논의에서는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 한해서 꿈 안의 사건과 밖의 사건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 작품을 이해하는데 사실적 예비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주인공이 등장하여 일관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서사로 인정되는바, 다른 몽유록과는 다르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남염부주지>를 다른 몽유록 소설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북한의 견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몽유록의 개별 작품들을 분석 고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몽유록을 꿈 서사방식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논의한 시도들이 있었다. 꿈의 구조를 통사적 구조와 병립적 구조로 거론하고 몽유전기류, 몽유록류, 몽환류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³⁴⁾와 몽유문학의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여 분류한 연구가 진행³⁵⁾되었다. 또한, 작품군 사이의 개별성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며 소설사적 관

32) 장덕순, 「몽유록 소고」, 『국문학통론』, 신구출판사, 1963.

33)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34) 강준철, 「꿈서사 양식의 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9.

35) 이월영, 「꿈소재 서사문학의 사상적 유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점에서 몽유록을 연구한 것³⁶⁾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몽유록 소설이 15세기에 지어진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서 출발하여 그 전통이 이어진다고 말하는 북한과는 달리 몽유록이라 말하는 소설 부류는 몽유 양식을 지닌 작품들의 하위부류 중 하나이며 16세기에 등장한 〈원생몽유록〉을 그 출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 환상성에 대한 연구

〈남염부주지〉가 가진 환상성에 대해 남한의 학계에서는 꿈 혹은 저승의 공간을 다룬 환상 문학이라고 인정하고 그러한 환상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에는 〈남염부주지〉의 환상 공간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이자, 현실의 비극에 대한 인식을 더욱 심화하는 공간으로 보는 논의³⁷⁾가 있으며, 몽유록 소설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의 미학적 효과에 대한 논의³⁸⁾도 있었다. 이 논의에서는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이 “환상적 체험이 주는 경이감이나 의아심을 통해 독자에게 심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환상적 체험 가운데 주인공들의 욕망 성취 과정이 또한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한편, 환상성의 문제를 공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남염부주지〉를 이승의 인물이 저승을 다녀온 이야기인 ‘저승체험담’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논의³⁹⁾도 있다. 이는 〈남염부주지〉가 저승체험담이 조선전기에 이르러 소설

36) 몽유 양식의 작품들을 몽유전기소설, 몽유록, 몽유장편소설 세 가지의 하위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남염부주지〉는 몽유전기소설의 속하는 장르로서, 이는 13세기에 『삼국유사』나 『수이전』에서 초기형태가 나타나 『금오신화』를 거쳐 『기재기이』에서 완성된 하위부류 중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몽유록’은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원생몽유록〉 이후에 나타난 하위부류를 말한다(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46~47쪽).

37) 임수현,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환상성 연구」, 『西江語文』 제15집, 서강어문학회, 1999.

38)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73쪽.

화 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저승과 귀신을 부정했던 김시습이 현실의 모순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허구화의 방편으로 민간의 저승체험담을 역설적 차원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았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전체 작품의 환상적 경험을 폭력적 세계를 경험한 인물들의 도피로 보고 있는 논의⁴⁰⁾에서는 남염부주지 역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인물이 세계에 대한 인식론에 신념을 갖지만 결국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것으로 보고, 환상세계로부터의 권력 승계나 신념의 승인 형식으로 이상적 합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고전소설에서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성과로, 몽유모티프를 가진 작품 전반에 대한 환상성 연구⁴¹⁾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염부주지〉에 대하여 ‘현실적 인간계와 초월적 선계의 경계 허물기’라고 말하면서, 대극적인 공간인 현실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에 환상성이 내포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의 환상은 주인공 박생, 더 나아가 작가 김시습의 원망과 결핍에서 시작되며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구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3. 주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

작품이 작가의 특정 사상과 경험을 직접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염부주지〉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작가인 김시습의 사상과 세계관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견해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주인공 박생과 염왕 사이의 대담에 초점을 두어 작품을 해석하면서 박생이 김시습

39) 소인호,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우리문학연구』 제27집, 우리문화회, 2009, 103~130쪽.

40)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 『한국문학의 환상성』, 돈암어문학회, 2003, 7~37쪽.

41) 김미령, 『몽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환상성 연구』, 문학들, 2010, 145~157쪽.

의 분신이며, 박생과 염왕 사이의 담화는 김시습의 사상과 세계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보았다.⁴²⁾ 〈남염부주지〉와 김시습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견해들은 더 나아가 〈남염부주지〉를 당대의 현실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논의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논의들은 작가인 김시습이 처해있던 당대의 현실문제 즉,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 생육신으로서의 김시습의 독특한 위치를 작품에 대입시켜 작품을 해석한다.⁴³⁾ 이러한 남한의 연구 방법은 북한의 연구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염부주지〉가 작가의 사상을 반영한다는 것에 더해, 김시습의 사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남염부주지〉에 반영된 주제를 봉건제도와 세조 세력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미신과 불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에 일리론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유교나 불교에 관한 사상이나 귀신론 등이 무시되거나 생략되었다. 반면 남한의 연구는 김시습의 저작들과 관련지어 작품 속에

42) 이와 같은 논의로 정주동은 “〈남염부주지〉는 주인공이 바로 작자인 것과 같이 그 안에 실려 있는 사상은 바로 작자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축약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임형택은 “〈남염부주지〉에 이러한 김시습의 현실주의 사상을 요약한 느낌이 든다”고 해석하였으며, “박생이 염왕과 나누었던 이야기는…… 김시습의 생각과 일치하며 “박생과 염왕은 매월당의 분신”이므로 “남염부주지는 매월당의 사상을 압축하고 있”다고 한 소재영, “남염부주지는 김시습의 성리학 사상을 집약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한 김명호 역시도 마찬가지로, 박생과 염왕 사이의 오고가는 담화 내용이 작가 김시습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민족문화사, 1983;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 석사논문, 1971;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그 문학과 사상』, 강원대출판부, 1989;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일지사, 1984; 김용덕, 「〈남염부주지〉의 구성분석」,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43) 이러한 논의로 조동일은 “당시의 정치적 장벽에 대한 항변”이라고 하였고 김명호는 “시군에 대한 암암리의 비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 설성경은 박생과 염왕을 각각 김시습과 세조에 대한 우의로 해석하였고, 엄기주는 “염왕의 논변이 김시습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면서 염부주가 당대 현실을 우의하는 것으로서 염왕의 왕위 선위는 세조를 비판하고 이상적인 군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일지사, 1984).

반영된 작가의 사상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김시습의 성리학적 관점, 귀신론, 치국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교 및 불교적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기일원론적 입장에서 현실주의적 세계관으로 작품을 해석한 논의⁴⁴⁾와 이기이원론의 차원에서 해석한 논의⁴⁵⁾가 있었다.

또한 『금오신화』와 김시습의 귀신론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자⁴⁶⁾들에 의해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왔다. 여기서는 <남염부주지>과 관련된 귀신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김시습의 귀신론은 유교적 귀신관을 바탕으로 하여 주기론(主氣論)적 전개과정을 통해, 도교와 불교가 융화되는 방향으로 구현된 것이라는 견해⁴⁷⁾가 있다. 이에 반해 주리론(主理論)사상을 바탕으로 하되 귀신을 바른 기의 굴신영허(屈伸盈虛)하는 작용으로 보고, 특히 유혼(遊魂)이란 귀신에 대해서는 사(邪)한 기가 화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견해⁴⁸⁾가 제시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김시습의 귀신론은 『금오신화』, 특히 <남염부주지>에서 말하는 귀신론과 일치하는바, <남염부주지>의 연구를 작자의 생애나 사상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44)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서울대학교, 1971.

조동일, 「소설의 성립과 초기소설의 부형적 특징」,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45)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35집, 일지사, 1984.

46) 정주동, 「김시습의 귀신관과 도교관」, 『도남조운제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64.

이혜순, 「금오신화에 나타난 인귀교환소설의 유형적 고찰」,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탐출판사, 1977.

김미란, 「금오신화에 나타난 여귀」, 『연세어문학』 9·10합집, 연세대학교문과, 1977.

설중환, 「금오신화의 귀신」, 『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 한샘, 1992.

47) 최삼룡,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귀신설」, 『국어문학』 제23집, 국어문화회, 1983.

48) 윤승후, 「김시습의 귀신론과 『금오신화』 - 「남염부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1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있다.

앞선 논의들이 성리학적 배경에서 그 논리를 찾은 것과는 달리, 귀신담론이 지속해서 출현하게 된 이유를 밝히려는 연구⁴⁹⁾도 진행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이계체험과 명혼교구를 다룬 이야기를 ‘유명서사’라 일컬으면서 이러한 유명서사가 출현하게 된 데에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작가 자신의 음울한 내면세계가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밖의 논의로는 <남염부주지>가 지닌 반어적 어조와 반어적 구성에 주목하여 박생을 깊은 혼란에 빠져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인물로 보는 견해⁵⁰⁾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남염부주지>를 사상소설로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남염부주지>가 유가 이념을 실천하려는 주인공의 부조리한 현실 체험과 세계관적 회의,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터득해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견해⁵¹⁾도 있다.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김하명, 『조선문학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49) 정출현, 「15세기 귀신담론과 유명서사의 관련양상- 김시습의 「귀신론」과 「남염부주지」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동양한문학회, 2008.

50) 진경환, 「〈남염부주지〉의 반어」,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51) 박일용,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의 이념과 역설」, 『고소설 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 정은경, 「중세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9년 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 (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5.2. 남한 자료

- 강준철, 「꿈서사 양식의 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9.
-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35집, 일지사, 1984.
- 김용덕, 「〈남염부주지〉의 구성분석」,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박성의, 『한국대소설사』, 일신사, 1958.
- 박일용,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의 이념과 역설」, 『고소설 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 소인호,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우리문학연구』 제27집, 우리문화회, 2009.
-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그 문학과 사상』, 강원대출판부, 1989.
-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 윤승후, 「김시습의 귀신론과 『금오신화』 - 〈남염부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1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 이월영, 「꿈소재 서사문학의 사상적 유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 임수현,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환상성 연구」, 『西江語文』 제15집, 서강어문학회, 1999.

-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 석사논문, 1971.
- 장덕순, 「몽유록 소고」, 『국문학통론』, 신구출판사, 1963.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민족문화사, 1983.
- 조동일, 「소설의 성립과 초기소설의 부형적 특징」,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진경환, 「〈남염부주지〉의 반어」,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 최삼룡,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귀신설」, 『국어문학』 제23집, 국어문학회, 1983.

<한상효>

용궁부연록 龍宮赴宴錄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룡궁의 상량잔치

1. 서지 사항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다섯 작품 가운데 마지막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최남선(崔南善)이 일본에서 간행된 대충본 『금오신화』를 발견하여, 1927년 잡지 『계명(啓明)』 19호를 통해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 목판본은 1884년(고종 21) 동경에서 간행된 것으로 상·하 2책으로 되어 있다.

북한 문헌에서는 ‘룡궁의 상량잔치’라고 한다. 1959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과학원출판사, 1959)에서는 ‘용궁 부연록’ 제목을 붙였다. 그러다 1977년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에서는 ‘룡궁에 갔다온 이야기’라고 하였다. 1991년 김하명의 『조선문학사』3(사회과학출판사, 1991)에서는 ‘용궁부연록(룡궁의 상량잔치)’로 표시하였다. 1991년 이후에는 ‘룡궁의 상량잔치’라고 부른다.

2. 작품 개요

〈용궁부연록〉은 글 잘하는 선비 한생이 용왕의 명을 받은 관원을 따라 용궁에 가서 상량문을 쓰고 잔치를 한 다음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글을 잘 지어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선비 한생이 거처하던 방으로 어느 날 홀연 청삼을 입고 복두를 쓴 관원 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온다. 두 사람은 송도 천마산에 있는 박연의 용왕 명을 받고 한생을 모시러 온 관원이었다. 한생은 관원이 준비한 날개 달린 준마를 타고 용궁으로 따라간다. 용궁에 간 한생은 용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가회각에서 용왕의 덕성을 찬양하고,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상량문을 지어 용궁의 사람들을 감탄하게 한다. 한생은 윤필연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윤필연에서는 용궁사람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시를 지어 경연을 벌인다.

십여 명의 미인이 춤을 추면서 부르는 〈벽담곡(壁潭曲)〉, 십여 명의 총각이 부르는 〈회풍곡(回風曲)〉, 용왕이 한생에게 술을 권하며 부르는 〈수룡음(水龍吟)〉, 광개사와 현선생의 노래가 이어진다. 이어서 용왕의 초대를 받고 온 조강과 낙하, 벽란의 세 신이 지은 시가 읊어지고, 마지막으로 한생이 장편시 20운을 지어 윤필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윤필연이 끝나고 난 뒤 한생은 용왕에게 부탁하여 용궁 구경에 나선다. 한생은 구슬과 옥으로 장식된 10층의 조원루를 돌아본다. 조원루의 높은 곳은 오직 용왕이 신력으로만 오를 수 있는 곳이어서 한생은 칠층까지만 구경한다. 조원루에 이어 용광이 하늘에 조회할 때 의장을 정돈하고 의관을 치장하는 능허각에 들린다. 능허각에는 온갖 물건을 진동하게 하는 북이며,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비를 내리는 물항아리 같은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다. 한생은 시험해보려 하였지만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이라 시험

해 볼 수 없었다. 한생은 우레를 맞은 뇌공, 번개를 맞은 전도, 바람을 맞은 풍백, 비를 맞은 우사를 만나보려 하지만 이들은 오직 용왕에 의해 소집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조원루와 능허각에 이어 용왕이 칠보를 간직한 창고에 이른다. 용의 형상을 새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창고에는 한 시간 남짓을 둘러보아도 다 볼 수 없었다. 한생은 돌아보기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한다. 집으로 돌아오며 꿈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 한생은 용왕에게서 받은 구슬과 빙초를 찾아본다. 구슬과 빙초가 있음을 확인한 한생은 더 이상 세상이 명예와 이익에 뜻을 두지 않고 명산에 들어가니 한생이 어디에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3. 북한 연구

북한에서 <용궁부연록>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작가 김시습의 창작세계 혹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른 작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김시습의 문학은 “주제력력의 넓이와 문학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나 그 사사예술성의 높이와 후세에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 나라 중세문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하나를 이룬다”고 할 정도로 높게 평가한다.¹⁾

『금오신화』의 가치를 밝히는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 가운데 <용궁부연록>의 가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용궁부연록>과 관련한 대해 언급한 북한의 문학사 및 개별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금오신화』에 관한 기술은 1991년 사회과학출판사에 발간한 15권 『조선문학사』의 제3권 『조선문학사』3 제6장 ‘김시습의 창작과 단편소설집 <금오신화>’라는 별도의 장으로 소개하고 있다(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161쪽).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 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③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④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⑤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 ⑥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1. <용궁부연록>의 소설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용궁부연록>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점은 소설사적 위상에 관한 것이다. 『금오신화』가 고전소설의 출발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용궁부연록>도 『금오신화』에 실린 다른 작품과 함께 고전소설의 가치와 의미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은 15세기에 발생하였다.……우리 나라 소설문학에 서는 15세기의 김시습이 창작한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와 16세기의 립제가 창작한 우화소설들인 《재판받는 쥐》, 《꽃력사》, 《시름에 싸인 성》 등이 고전소설의 발생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²⁾

그러나 김시습은 이와 같이 중국의 선진 문학을 받아 들이는 데 민감하였으나, 그가 창작한 『금오신화』는 어디까지나 그의 독창적인 재능과 사상을 보여준 예술작품으로 특징적이다. 특히 우리 나라 강토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활 감정과 정신 세계를 생동하게 보여 줌으로써 민족

2)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7쪽.

적 특징을 훌륭히 살리고 있다.³⁾

15세기후반기에 들어와서 소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나라 중세산문문학 발전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중세소설은 15세기이후의 력사적현실과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우리 나라 중세소설의 발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첫 작품들은 《리생의 사랑》을 비롯하여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단편소설들이었다.⁴⁾

우리 나라 중세소설의 새로운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리생의 사랑》을 비롯하여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단편소설들이다. …김시습은 15세기를 대표하는 재능있는 시인이었을뿐아니라 중세소설 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였다. 김시습의 창작에서 《금오신화》는 대표적인 단편소설집이다.⁵⁾

《리생의 사랑》, 《남염부주이야기》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시습의 단편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다양한 인간형상과 비교적 짜인 구성조직을 통하여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나감으로써 소설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시초를 열어놓은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⁶⁾

《금오신화》는 15세기의 이름난 시인이며 소설가였던 김시습(1435~1493년)이 창작한 여러편의 소설들(《만복사의 웃놀이》, 《리생과 최랑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남염부주이야기》, 《룡궁의 상량잔치》)을 실은 리조시기의 첫 단편소설집으로서 우리나라 중세소설문학발전에서 차지하는 문학사적위치가 매우크다.⁷⁾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화다, 1989), 234~235쪽.

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45~246쪽.

5)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140~141쪽.

6)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143쪽.

7) 한인영, 「〈류규한 력사, 찬란한 문화〉 《금오신화》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에 대한」, 『민족문화유산』, 2008년 4호.

북한 문학사에서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을 최초의 소설로 규정한다. 최초의 소설로 규정하는 것은 『금오신화』의 단편소설들이 “인간 성격에 대한 묘사와 구성에서 선행 시기 문학의 전기식 및 설화적 표현의 제한성을 점차 극복하고 현실 반영과 인간 성격의 창조에서 묘사의 기능을 높이게 되었”기 때문으로 본다.⁸⁾

김시습은 시인으로서 15세기 시문학의 절정을 이루었을뿐아니라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의 작자로서 우리 나라 소설문학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뛰어난 소설가이기도 하였다. 다시말하여 김시습은 선행시기 산문장작과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의미의 소설의 형태상특성을 기본적으로 갖춘 새로운 예술적산문작품을 처음으로 창작한 공로자이다.⁹⁾

김시습은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 갖추어야 할 형태적인 특성을 기본적으로 갖춘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환상적인 수법으로 이야기를 그렸지만 『금오신화』는 인민들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활 감정과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설이 창작됨으로써 15세기 후반에 들면서 역사적 현실과 인민들의 사상 미학적 요구를 반영한 중세 산문 문학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나 구성조직을 비롯한 예술적형상형식에서도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과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우선 당대의 봉건사회현실을 계급적모순과 대립관계에서 현실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정당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이미 세

8)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34~235쪽.

9)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0쪽.

상을 떠난 사람이 되살아난 환신과 교체한다든가, 남염부주와 룡궁과 같은 비현실적인 환상세계의 묘사를 통하여 주제사상적과제를 실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제한성은 또한 봉건군주를 신성화하거나 인간의 운명이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하여 이미 규정되어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리생과 최랑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인물의 성격창조에 응당한 관심이 돌려지지 않고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단편소설들은 이러한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예술적산문의 발전력사에서 오늘의 문예학적개념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상특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¹⁰⁾

북한에서 김시습은 ‘유물론적 철학체계를 수립’ 한 인물로 평가된다. 즉 김시습이 철학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자기의 풍부한 현실 체험과 사색을 바탕으로 유물론적인 철학체계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철학적 체계가 바탕이 되었기에 김시습의 소설은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기초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애국적이고 반봉건적인 견해를 구현할 수 있었다.¹²⁾ 김시습은 사회에 대한

10)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5쪽.

11) “김시습은 이 기간에 특히 철학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구내외의 철학유산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속에서 생활한 자기의 풍부한 현실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하여 유물론적인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에 쓴 시 《방본잡》, 론설 《애민의》, 《인군의》, 《인신의》, 《형정의》, 《인재설》, 《생재설》, 《천지편》, 《태극편》, 《신귀설》, 《생사설》 등은 김시습이 철학가로서나 경세가로서 아주 정밀하고 심오하며 그 밑바탕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170쪽).

12) “이 작품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현실적인 환상세계의 묘사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다 작가가 전국 각지를 류랑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꾸리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애국적이며 반봉건적인 사회정치적 및 도덕윤리적 견해를 구현하였다. 작품들에 등장하는 남원의 량생, 송도-개성의 리생과 최랑, 송도의 흥생, 경주의 박생, 고려때 송도사람이 한생 등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살며 활동한 현실적인 인간들이다.”(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쪽).

비판정신과 낭만적인 방법으로 당대 사회현실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보여 줌으로써 종래 산문의 고루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³⁾

3.2. 환상, 환설적(幻設的) 기법에 대한 연구

북한 문학사에서는 <용궁부연록>을 비롯하여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을 ‘환설적(幻設的)인 소설’로 규정한다. 환설이란 환상적인 내용의 이야기라는 의미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환상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인민생활을 예술적으로 개괄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인민생활의 현실을 그리되 환상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은 시대적인 제약으로 설명한다. 시대적인 제약으로 드러낼 수 없는 현실 문제를 환상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산문에서 다른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패설작품의 성행과 함께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와 같이 소위 환설적(幻設的)인 소설의 창작이다.

중국에서도 환설적인 소설 작품의 창작에 대하여 “변이지담(變異之談)은 육조(六朝)에 성하였는데 많이는 전설들을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어서 반드시 공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당(唐) 나라 사람들에 이르러 비로소 의식적으로 기(奇)를 즐겨하고 소설을 빌려 문재(文才)를 기탁(寄託)하였다” [「필총(筆叢)」]고 쓰고 있는바 우리 나라에서 소설적인 환설은

13) “우리 나라 고전소설 발생에서 낭만주의적 경향은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소설 발생초기의 작품들인 「남염부주 이야기」·「용궁의 상량잔치」 등은 단적으로 이 시기 진보적인 창작 방법인 낭만주의가 소설의 발생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단편소설들을 다 꿈의 형식(몽유록)을 가지고 인간 성격과 그의 생활을 낭만주의적으로 묘사하면서 자각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상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하여 종래의 산문들의 고루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35쪽).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이르러 처음 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설에의 길을 열어 놓은 『금오신화』는 획기적인 개인 단편집으로서 당시 인민들의 정신 생활을 예술적으로 개괄한 고전적 유산으로 빛나고 있다.¹⁴⁾

물론 『금오신화』에 들어 있는 만복사 저포기(萬福寺楞瀟記), 이생 구장전(李生窺牆傳), 취유 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 부연록(龍宮赴宴錄) 등 다섯 편은 그 주제와 내용이 각이하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주옛 문학의 환상적이며 상징적인 수법을 빌려서 작가의 애국심과 해방적 지향을 훌륭히 반영하고 있다.¹⁵⁾

〈만복사저포기(만복사의 옷놀이)〉, 〈리생구장전(리생과 최랑의 사랑)〉, 〈취유부벽정기(부벽정의 달맞이)〉 등 3편은 청춘남녀 간의 애정윤리 문제를 주제로 하여 폐쇄된 봉건유교도덕을 반대하는 사상을 밝혀낸 작품이며 〈남염부주지(남염부주이야기)〉, 〈용궁부연록(룡궁의 상량잔치)〉 등은 환상세계의 묘사를 통하여 작가의 사회정치적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¹⁶⁾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편의 작품은 북한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환상세계를 묘사하였지만 현실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환상세계를 묘사하였지만 그것들은 모두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체험에 기초하여 창작한 이야기로 꾸며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정치적 이고 도덕윤리적인 견해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평가는 고전소설에서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고전소설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점·꿈 해몽 등의 민속적인 요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 (화다, 1989), 231~232쪽.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 (화다, 1989), 235쪽.

16)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쪽.

17)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02쪽.

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북한에서는 고전소설 〈심청전〉에 대해서 “소설에서는 또한 적지 않게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형상들이 그려지고 있다. 작품에서는 산천에 제를 지내고 심청을 낳는 것, 꿈풀이로 행복과 불행을 점치는 것, 심청의 얼굴을 그린 족자의 변화를 보고 그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 남경장사군들이 향로의 안전을 위하여 처녀를 바다제물로 바치고 제를 지내는 것 등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형상들이 적지 않게 묘사되어 있다”¹⁸⁾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용궁부연록〉은 이후 몽유록소설의 발생을 촉진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조선 몽유록의 발생은 대체로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있는 《룡궁의 상량잔치》, 《꿈에 본 남염부주》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어 심의의 《대관재몽유록》, 립제의 《원생몽유록》, 윤계선의 《달천몽유록》 등 많은 몽유록소설들이 창작되었다.¹⁹⁾

조선고전소설사에서 몽유록의 발생시기는 리조시기인 15-16세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에 와서 김시습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룡궁의 상량잔치》, 《남염부주이야기》로부터 첫걸음을 뗀 몽유록소설은 16세기에 들어와서 심의의 《대관재몽유록》, 립제의 《원생몽유록》 등을 거쳐 17세기에서는 《달천몽유록》, 《강도몽유록》, 《수성공몽유록》(《운영전》), 《괴생몽유록》, 《금산사몽유록》 등 허다한 작품들이었다.²⁰⁾

몽유록이 하나의 소설양식으로 출현한 것은 15-16세기이다.

15세기 김시습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의 상량잔치》, 16세기 심의의 《대관재몽유록》과 립제의

18) 박헌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문예출판사, 1991, 228-229쪽.

19) 손혜훈, 「의인전기체소설 《정시자전》의 특성과 문학사적의의」, 『조선어문』, 2007년 1호.

20)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원생몽유록》 등의 창작은 이 시기에 몽유록소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원래 몽유록은 구성에서의 독특한 수법으로 탐구된 소설양식이다. 몽유록소설이라고 할 때에는 꿈꾸는 사람-몽유자가 꿈세계에 들어가는 입몽부분과 꿈에서 깨어나는 각몽부분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 꿈속의 사건이 작품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런 조건이 성립될 때만이 몽유록소설이라고 말할수 있다.²¹⁾

몽유록 소설은 이조시기인 15-16세기 인데, 〈용궁부연록〉이 창작된 15세기 이후 몽유록 소설에 영향을 미쳐 16세기에 들어와 〈대관재몽유록〉, 〈원생몽유록〉 등의 몽유록 소설이 나왔고, 17세기에 이르러 〈달천몽유록〉, 〈강도몽유록〉, 〈수성궁몽유록〉 등이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3.3. 현실반영문학에 대한 연구

〈용궁부연록〉은 환상적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은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금오신화』의 작품은 어디까지나 조선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한다.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의 사상예술적성과와 혁신적의의는 또한 전시기의 패설작품들이 많은 경우 설화자의 이야기로 그려져있는것과는 달리 인물형상을 생활속에서 보여주고있으며 생활을 현실그래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보다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있는 것이다. 지어 환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조차도 그정황과 인간관계,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실감이 나게 생활적으로 그리고있는 것으로 하여 독자들이 현실 그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²²⁾

21)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22)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1쪽.

이러한 평가는 『금오신화』를 창작한 김시습에 대한 평가와도 일치한다. 북한에서 김시습의 시와 산문은 민족적 정서로서 애국심이 반영되어 있고, 조선의 역사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했으며, 인민의 입장에서 중세 정치를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문학사에서 김시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김시습의 사회적 신분’, ‘현실 문제를 창작으로 다루는 태도’, ‘유물론적 철학체계가 반영된 작품 창작’,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작품 창작’ 때문으로 정리된다. 김시습은 “한미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국내외의 철학유산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생활한 자기의 풍부한 현실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하여 유물론적인 철학체계를 수립”하였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된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²³⁾ 현실 반영이라는 점에서 김시습이 창작한 현실을 반영한 시문학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²⁴⁾

물론 우리는 『금오신화』의 매편마다에 얽혀져 있는 기적과 괴이들을 중세기적인 전기 문학의 일반적 특징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가 보여 준 상징적 우의성도 중세문학의 특징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의 세계를 통하여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의 이상을 표현하였다는 데 바로 김시습의 문학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시대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김시습은 당시의 통치 계급의 입장과는 다른 비판적 견지에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작가인 동시에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꿈과 낭만을 가진 시인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인민 생활에 대한 깊은 동정, 그리고 개성 해방에 대한 지향으로 관통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작가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놀라운 기교로 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²⁵⁾

23)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170쪽.

24) “김시습이 남긴 시에는 15세기 후반기 날로 로골화되어가던 사회적모순이 생활적형상으로 뚜렷이 재현되어 있으며 봉건관료통치에 항거하는 당대 인민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김하명, 『조선문학사』 3, 사회과학출판사, 1991, 179쪽).

오늘 전하는 5편의 단편소설들은 그 주제사상과 예술적특성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두개 부류로 나누어볼수 있다. 《만복사의 윷놀이》,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은 사랑에 대한 봉건적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며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에 갔다운 이야기》는 환상적수법으로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한 작가자신의 사회정치적견해와 리상을 형상적으로 반영한 소설들이다.²⁶⁾

현재 《금오신화》에 실려 전해지는 5편의 단편소설들은 그 주제사상과 예술적특성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두개부류로 나누어볼수 있다. 《만복사의 윷놀이》,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등은 자유로운 사랑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는 소설들이며 《남염부주이야기》와 《룡궁에 갔다운 이야기》는 작가자신의 사회정치적견해와 리상을 환상적수법으로 반영한 소설들이다.²⁷⁾

〈용궁부연록〉의 소설적 기법인 환설은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우화적 수법’, ‘풍자적 수법’이었을 뿐이라고 본다. 〈용궁부연록〉은 우회적 수법을 활용하여 ‘이상사회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고, ‘꿈과 비현실적이며, 가상적인 세계’ 안에서 현실을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룡궁의 상량잔치》 역시 민간의 박연폭포전설과 결부된 룡궁의 환상적인 이상국을 설정하여 당대의 불합리하고 어지러운 현실에 대치되는 《어진 정치》가 실시되는 이상사회에 대한 념원을 반영한 소설이다.²⁸⁾

김시습의 《남염부주이야기》나 《룡궁의 상량잔치》의 이야기가 실재한 인물과 가상적인 인물사이에서 벌어진다면 립제의 《원생몽유록》은 실재한 사건, 사실에 기초하고 실재한 인물들사이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있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1959 (화다, 1989), 238쪽.

2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48쪽.

27)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141쪽.

28)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다는 것이다.²⁹⁾

몽유록소설은 꿈이라는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세계를 작품전개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예술적형식의 측면에서뿐만아니라 주제사상적내용의 특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특성을 갖는다.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첫째로, 꿈과 비현실적이며 가상적인 세계에서 봉건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강렬하고 예리한 비판을 실현하고있는데 있다.³⁰⁾

김시습이 <용궁부연록>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현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세조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세조 통치에 대한 불만을 문학적 기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³¹⁾

소설 <룡궁의 상량잔치>도 환상적인 룡궁에서 벌어진 기이한 이야기를 통하여 세조통치에 대한 작가의 불만을 표시하고있지만 <남염부주 이야기>와는 달리 룡궁의 생활을 량만주의적 정서와 색조를 가지고 보다 밝고 화평스러운것으로 그리었다.³²⁾

소설에서는 이렇게 룡궁의 화려한 생활이 미화되어있지만 한생이 룡궁 구경을 하는 과정에서 번개치는 거울, 우뢰 울리는 북, 바람을 내는 풀무, 비내리는 비자루 등을 보면서 <<왜 구름을 쓸어엮에는 기구는 설치하지 않았는가>>고 안내자에게 물어보는 말을 통하여 작자 김시습의 세조통치에

29)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30) 정은경, 「중세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9년 3호.

31) “15-16세기 소설창작에서 많이 쓰인 우화적수법과 풍자적수법등은 바로 소설창작에서의 사실주의적경향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는 묘사수법이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의 발생과정은 사실주의적경향뿐만아니라 중요하게는 량만주의적경향과도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소설발생초기의 작품들인 <<남염부주 이야기>>, <<룡궁의 상량잔치>> 등은 이 시기 진보적인 창작방법인 량만주의가 소설의 발생에 미친 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0쪽).

32)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4쪽.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또 그 《구름》을 없앨수 없는 무능력을 은근히 개탄하였다.

〈용궁부연록〉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은 〈룡궁의 상량잔치〉에서 ‘주인공 한생의 성격과 운명’은 김시습의 그것과 다름이 없고, 한생이 초대받아 갔던 용궁의 자리는 ‘세종때 궁전에까지 초대를 받아갔던 작자 자신의 체험세계를 재현한 것’이고, 한생이 용궁을 구경하면서 안내자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한생은 용궁을 구경하면서 신기한 기구를 보았는데, 기구 중에 ‘왜 구름을 쓸어버리는 것이 없냐고 물어본 것은 ‘구름’을 ‘세조’에 비유하여 ‘구름을 쓸어내지 못하는 무능력’을 은근히 개탄하였다는 것이다.³³⁾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용궁부연록〉에 대한 남한의 연구 경향도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용궁부연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용궁부연록〉을 독립된 작품으로 놓고 접근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셋째는 몽유록소설과의 비교 연구이다.

4.1. 〈용궁부연록〉 연구 경향

〈용궁부연록〉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가 개별연구보다는 『금오신화』에

33)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12쪽.

수록된 다른 네 작품과의 연계성 속에서 진행되었다. 『금오신화』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김시습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 즉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상대적으로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작품 가운데도 독립적인 연구가 가장 적은 작품이기도 하다. 독립적인 연구가 가장 적은 것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의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품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의 과다함, 그리고 서사적 건개의 단조로움 등” 〈용궁부연록〉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의 통로가 만만치 않은 것도 독립적인 연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³⁴⁾

“『금오신화』는 〈만복사저포기〉부터 〈용궁부연록〉에 이르는 다섯 편을 한의 완결된 작품으로 구성해서 세조의 정변 이후 세상에서 이탈해 나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까지의 삶 모두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려했다”는 것으로 보는 안창수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안창수는 『금오신화』는 〈만복사저포기〉부터 〈용궁부연록〉에 이르는 다섯 편을 한의 완결된 작품으로 구성해서 세조의 정변 이후 세상에서 이탈해 나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까지의 삶 모두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려했다고 분석한다.³⁵⁾

〈용궁부연록〉의 작품 세계는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세종과 문종, 단종 그리고 김시습의 관계를 우의하였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생의

34) 안창수,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용궁부연록〉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경일남, 「용궁부연록의 우의성 제고」,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전성운,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의 연희와 서사 전개」,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회, 2009가 있다.

35) 안창수,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65쪽.

수혜는 김시습이 세종과 문종의 은혜를 입은 것에 비견되며, 작품은 불합리한 현실을 우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³⁶⁾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같은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용궁부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문물을 세종대의 그것과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생이 김시습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4.2. 김시습의 의식 지향과 관련한 연구

전성운은 『금오신화』가 작가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체를 실현하고자 했던 결과물로 본다.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는 모순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찾는 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금오신화』의 매력을 현실과의 관계가 아닌 곳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금오신화』의 문체 분석을 통해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문체를 지향하였음을 밝혔다. 『금오신화』에는 다양한 문체가 사용되는데, 각각의 문체는 김시습이 지향하고자 했던 문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금오신화』는 다채로운 문학양식을 동원하여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이다.³⁷⁾

〈용궁부연록〉은 화려한 문체와 여러 편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화려한 문체와 시에 얽힌 정조는 작품 해석의 실마리가 된다. 안창수는 〈용궁부연록〉이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마지막인 다섯 번째 작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용궁부연록〉에 수록된 시의 정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에 나타난 정서는 애조의 정서로서 세조의 정변 이후 절망과 비애

36) 전성운,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의 연희와 서사전개」,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회, 2009, 171쪽.

37) 전성운, 「문체적 측면에서 본 『금오신화』의 지향과 의미」, 『어문논집』 제57집, 민족어문학회, 2008.

에 사로잡혀 있던 김시습이 자연과 벗하며 살아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 했던 심경을 작품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를 통해 김시습이 드러내려 했던 김시습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³⁸⁾ 그 결과 〈용궁부연록〉은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었던 한생이 용궁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며,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연과 벗하여 살아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확보한 작품”으로, “세조의 정변 이후 절망과 비애에 사로잡혀 있던 김시습이 자연과 벗하며 살아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 했던 심경을 작품화한 것”으로 파악한다.³⁹⁾

4.3. 문체 및 서사구조와 관련한 연구

전성운은 〈용궁부연록〉이 작가가 처한 현실을 우의하는 작품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용궁부연록〉의 서사구조에 주목한다. 〈용궁부연록〉은 상량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임을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용궁부연록〉의 서사 구성은 상량식의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용궁부연록〉은 ‘상량문 및 축문쓰기 → 상량고사(축하여) → 상량 → 주변 둘러보기’와 같은 상량식을 고려한 서사전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상량식과 일치하는 작품의 서사전개에서 한생의 심리 상태를 추출할 수 있는데, 한생의 심리상태는 ‘경이 → 극한 → 왜소의 자각 → 선계 동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삶에 대한 성찰로 나온 것이므로 〈용궁부연록〉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용궁부연록〉의

38) 안창수,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65쪽.

39) 안창수,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66쪽.

귀결이 허무와 선계동경이라고 하여서 삶의 허무를 말하거나 선계 동경을 지향한 작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역설적으로 현실의 횡포에 저항하거나 대결하는 것만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용궁부연록>은 연희의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시사(詩詞)의 활용, 경이와 극환을 토대로 한 삶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라는 것이다.⁴⁰⁾

4.4. 비교 연구

<용궁부연록>은 몽유록소설로서 용궁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다녀온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은 여타 몽유록소설이나 신선사상이 반영된 작품과의 비교 연구 대상이 된다. 유기옥은 <용궁부연록>과 『기재기이』에 실린 <최생우진기>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최생우진기>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주인공 최생이 진인 진경을 만나본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제목과 구성은 <용궁부연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생우진기>에는 신선사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더욱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구조화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⁴¹⁾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최생우진기>은 <용궁부연록>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생우진기>은 도선적 인물로 변이시킨 등장인물의 성격, 구체적이고 세밀한 배경묘사, 사건구성과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도선사상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40) 전성운,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의 연희와 서사전개」, 『어문연구』60, 2009, 193쪽.

41) 유기옥, 「〈崔生遇眞記〉의 構造와 意味-龍宮赴宴錄과 比較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학』 제27집, 한국언어학회, 1989.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박헌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문예출판사, 1991,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손혜훈, 「몽유록소설의 발생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7년 3호.
- 정은경, 「중세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9년 3호.
-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화다, 1989).

5.2. 남한 자료

- 경일남, 「용궁부연록의 우의성 제고」,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 김선영, 「〈용궁부연록〉의 만의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류종국, 『몽유록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87.
- 박희병,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설중환, 『금오신화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매월당학술논총』,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 심경호,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 안창수,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 유기옥, 「崔生遇眞記의 構造와 意味-龍宮赴宴錄과 比較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학』 제27집, 한국언어문학회, 1989.
- 임치균, 「〈용궁부연록〉의 환상체험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12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전성운,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의 연회와 서사전개」,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회, 2009.
- 전성운, 「다시보는 고소설사1 : 『금오신화』의 창작 방식과 의도 - 〈만복사저포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 전성운, 「문체적 측면에서 본 『금오신화』의 지향과 의미」, 『어문논집』 제57집, 민족어문학회, 2008.

<전영선>

수성지 愁城誌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시름에 싸인 성

1. 서지 사항

〈수성지(愁城誌)〉는 조선초 백호(白湖) 임제(林悌:1549~1587)의 작품이다. 〈수성지〉의 이본으로는 목판본 1종, 목활자본 1종, 필사본 29종, 총 31종이 있다. 이본들 사이의 편차는 별로 크지 않다. 1617년(광해군 9) 임서(林愔) 간행의 『백호집(白湖集)』 목판본이 현재 전하고 있는 이본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작자 임제(林悌)의 문집에 실려 있다는 점에서 원본에 가까운 이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한국문집총간』 58권에 영인되어 있다.¹⁾

2. 작품 개요

〈수성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장효현 외 편, 『우연우화소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10~12쪽;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45~246쪽.

천군(天君)이 강충(降衷) 원년(元年)에 즉위(卽位)하니 인(仁)·의(義)·예(禮)·지(智)가 각각 그 단서(端緒)를 채워서 직무 수행을 잘 하여, 희(喜)·노(怒)·애(哀)·락(樂)은 발(發)하기를 다 절도(節度)에 맞게 하였고, 시(視)·청(聽)·언(言)·동(動)은 예법에 맞게 사물(四勿)로서 제어되었다. 2년 뒤 주인옹(主人翁)이 천군에게 상소하기를, 태평하다고 문방사우(文房四友)만을 벗삼아 놀지 말고 단충(丹衷)에 힘써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천군이 받아들이는 듯하였으나 끝내 우유(優遊)를 멈추지 않았다. 주인옹이 다시 와서 오관(五官) 칠정(七情)을 잘 다스려 중화(中和)를 이루어서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천군이 크게 깨닫고 사단(四端)·칠정(七情)·오관(五官)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직책을 소홀히 한 데 대하여 사과하면서 처음처럼 잘 다스려 줄 것을 당부하며 연호(年號)까지 복초(復初)라고 고치었다. 복초(復初) 원년(元年) 추팔월(秋八月)에 천군이 무극옹(無極翁)과 더불어 주일당(主一堂)에 앉아서 오묘한 이치를 연구하고 있는데 칠정(七情) 가운데 애공(哀公)이 와서 감찰관(監察官)과 채청관(採聽官)의 합소(合疏)를 올렸다. 수기(愁氣)가 내습(來襲)해서 세상이 수심(愁心)으로 가득 찼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천군이 상소문을 보고 심기(心氣)가 불편해지자 무극옹이 떠났다. 천군은 수심을 이기지 못하여 의마(意馬)를 타고 팔극(八極)을 주유(周遊)하려 하였으나 주인옹의 만류로 중지하고 반묘당(半畝塘)가에 머물렀다.

이때 격현(膈縣)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흉해(胸海)에 파도가 일어서 태화산(泰華山)이 바다 가운데로 밀려갔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천만이나 어른거린다고 했다. 이색(顏色)이 초취(憔悴)하고 형용(形容)이 고고(枯槁)한 굴원(屈原)과 용모(容貌)가 관옥(冠玉)같은 송옥(宋玉)이 와서 천군의 땅 한 귀퉁이에 성을 쌓고 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천군이 이를 허락하고 감찰관(監察官)과 뇌괴공(磊괴公)에 명하여 거처할 성을 쌓게 하

니 두 사람은 흥해의 바닷가로 떠났다.

이로부터 천군은 두 사람을 잊지 못하고 출납관(出納官)으로 하여금 늘 〈초사(楚辭)〉를 읊조리게 하면서 다른 일은 돌보지 않았다. 추구월(秋九月)에는 친히 바닷가로 나아가 축성(築城)을 관망하였는데, 원기(冤氣)와 수운(愁雲)이 가득한 가운데 전고(前古)의 충신(忠臣)과 의사(義士)와 무고(無辜)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왕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의 이름을 수성(愁城)이라고 하였다. 그 성중에는 조고대(弔古臺)가 있었고, 또한 네 개의 문이 있었는데 충의문(忠義門)과 장렬문(壯烈門)과 무고문(無辜門)과 별리문(別離門)이 그것이었다.

이에 천군이 조고대에 올라보니 바람이 쓸쓸하고 달빛이 처량한데 네 문으로 원망과 울분을 머금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천군이 참담한 심정으로 앉아 있다가 관성자(管城子)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였다. 관성자가 명을 받고 물러나서 눈물을 머금고 서 있는데, 먼저 충의문 안을 바라보니 서리같은 기운이 서리었는데 용방(龍逢)과 비간(比干)과 기장군(紀將軍)과 제갈무후(諸葛武侯)와 범아부(范亞父)와 관운장(關雲長) 등 역대 충의(忠義)로운 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다음으로 장렬문 안을 바라보니 우리가 몰아치고 바람이 음산한데 오자서(伍子胥)와 형가(荊軻)와 항우(項羽)와 한신(韓信) 등 생전에 웅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이들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무고문 안을 바라보니 구름과 안개가 우중충하고 비와 바람이 서늘한데 무수한 원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사십만의 조(趙)나라 군사들과 삼십만의 진(秦)나라 병졸들과 이경업(李敬業)과 낙빈왕(駱賓王) 등 억울한 이들이 이루 셀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별리문 안을 바라보니 기운 해가 저문 수풀을 비추고 있는데 생이별 사이별로 낮이 나간 이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었다. 왕소군(王昭君)과 소무(蘇武)와 영위(令威)와 당현종(唐玄宗)과 우미인(虞美人)과 녹주

(緣珠) 등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때 한 사람이 관성자를 붙들고 어찌 귀신의 명부만 들추면서 이 세상 사람은 업신 여기느냐며 시 한 수를 읊었는데 큰 뜻을 품고도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내용이었다. 관성자가 그 시와 함께 네 문에 대한 기록을 천군에게 바치니 천군이 수심에 겨워서 울적하게 그 해를 다 보냈다.

복초(復初) 이년(二年) 봄 이월에 주인옹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봄이 되어서 만물이 다 새롭고 초목이 기뻐하고 있는데 임금께서 수성(愁城)에 핏박되어 오래도록 편안치 못하시니 몹시 슬픈 일이라면서 행화촌(杏花村)가에 국양(麴襄) 장군(將軍)이 장점이 많은 인재이니 등용하시면 수성을 평정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천군이 글을 읽고 국양 장군을 맞이하는 일을 주인옹에게 위임하니 주인옹은 공방(孔方)을 추천하여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였다.

공방이 명을 받고 국양 장군을 찾으니, 국양 장군이 처음에는 백안시하다가, 공방이 꾸짖기를, 지금 처음을 회복하려던 임금이 수성의 핏박을 받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이토록 무례하냐고 하자, 국양 장군은 태도를 바꾸어 시름이 있고 없음은 오직 나에게 달렸노라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 뇌주(雷州)에 이르니 때는 삼월 십오일이었다. 천군은 중서랑(中書郎) 모영(毛穎)을 보내어 국양 장군을 웅(雍)·병(并)·뇌(雷) 삼주대도독(三州大都督)과 구수대장군(驅愁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국양 장군이 모영을 시켜서 사례(謝禮)하는 표문(表文)을 올리니 천군이 기뻐하며 서주역사(西州力士)로 영적장군(迎敵將軍)을 삼아 도독(都督)의 휘하에 있게 하였다. 국양 장군이 조구(槽丘)에 올라 주허후(朱虛侯) 유장(劉章)에게 명하기를, 군령이 지엄하니 그대가 책임지고 함부로 치는 교만한 장수가 없게 하고 도망가는 늙은 병사가 없게 하라 하였다.

이에 군대가 엄숙하고 법도가 있었다. 바다 어구에 이르자 국양 장군은 모영을 불러서 격문(檄文)을 쓰게 하였다. 수성(愁城)이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내가 천군의 명을 받아서 신평(新豊)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니 격문이 도달하는 날 일찌감치 항복하는 깃발을 세우라는 내용이였다. 출납관(出納官)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격문을 읽게 하니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항복할 마음뿐이었는데 유독 굴원(屈原)만은 굴하지 않고 달아나간 곳을 알 수 없었다. 국양 장군이 바다 어구로부터 내달으니 파죽지세(破竹之勢)와 같아서 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싸우지 않아도 성안이 이미 항복하였다.

천군이 영대(靈臺)에 올라 바라보니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면서 바람은 솔솔 불고 햇별은 내리쬐는데, 슬퍼했던 이는 기뻐하고, 괴로워했던 이는 즐거워하고, 원망하던 이는 잊게 되고, 한탄하던 이는 풀리게 되고, 분하던 이는 가시게 되고, 성내던 이는 기뻐하고, 근심하던 이는 편안해 하고, 답답해 하던 이는 후련해 하고, 신음하던 이는 노래하고, 팔을 걷어붙이던 이는 춤을 추는 것이었다. 천군이 매우 기뻐하면서 관성자를 불러 지시하기를, 국양 장군의 공로는 갓을 길이 없으나 수성(愁城)의 옛 터에 축성(築城)하여 탕목읍(湯沐邑)을 삼게 하고 삼주(三州)의 도독(都督)은 그대로 두며 환(權)땅에 봉(封)하여 환백(權伯)을 삼는다고 하였다.

3. 북한 연구

북한에서는 <수성지>를 <시름에 싸인 성>으로 지칭하며 작품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북한 연구를 다루면서 주요하게 참고한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화문화사, 1996).
- ②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③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 ④ 김하명, 『조선문학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 ⑤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⑥ 김진국, 「인물소개 : 재능있는 우화소설가 립제」,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 ⑦ 류윤희, 「조선중세의인소설의 발전과 작가 립제」, 『조선어문』, 2008년 1호.

3.1.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

〈수성지〉의 창작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수성지〉와 관련된 기록들을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성지〉의 창작 시기는 창작 동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김춘택의 『조선고전소설사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에 처음 등장한다.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의 창작년대는 구체적으로 밝힌 옛날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리식(?~1647)의 《택당집》과 기타 기록들을 통하여 이 소설은 립제가 북평사로서 함경도에 가있다가 서울로 돌아온 해 1580년(립제가 32살 되던 해)직후에 창작되었다고 본다.

《택당집》에는 《립제는 병법을 즐겨했는데… 그는 준마를 타고 하루에 수백리를 달렸다. 북평사를 하다가 서평사로 옮겨간 일이 있는데 이때에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했으므로 탄핵을 받고 〈시름에 싸인 성〉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립제가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을 쓰게 된

동기를 보여준다.

그러면 립제가 북평사로 있다가 다른데로 옮겨간 때는 어느 시기로 보겠는가.

이에 대하여서는 《속관북지증보》에 나오는 《립제가 경진년(1580년)에 서평사로부터 이곳에 왔다. 같은해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서울로 가는 길에 암행어사의 앞길을 피하지 않은 탓으로 파직당했다.》라는 기록과 《북관지》에 나오는 거의 같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립제가 경진년(1580년)에 서평사로부터 북평사로 옮겨갔다는 이상 기록의 내용은 작가 립제가 자기 문집인 《림백호집》에 직접 기록한 다음과 같은 글과 일치한다.

《지난 경진년(1580년) 봄에 나는 평안도 병마서기(서평사)로 있다가 다시 성천부를 거쳐 함경도쪽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림백호집》 제3권)

이 기록과 앞에서 본 《속관북지증보》의 기록은 정확히 일치할뿐 아니라 립제가 처음에 서평사로 있다가 1580년 봄에 북평사(함경도 병마사 서기)로 옮겨갔다는 것과 같은 해에 그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서울에 갔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립제가 처음에 서평사를 하다가 북평사로서 함경도쪽으로 갔다는 것은 기타 옛 기록들에도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시기의 사람인 고경명의 문집인 《재봉집》에 나오는 《립제는… 한때 평안도, 함경도 두 도의 평사를 력임하였다.》라는 기록이 그 실례가 된다. (이상 기록으로 보아 리식이 《택당집》에서 립제가 《북평사를 하다가 서평사로 옮겨간 일이 있는데》라고 쓴 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근거로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립제가 함경도에 가서 북평사를 하다가 1580년에 서울로 가는 길에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한 까닭으로 탄핵을 받은 직후(립제가 32~33살 때)에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

2)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2~58쪽.

여기서 주로 검토하고 있는 자료들은 『택당집』, 『속관복지증보』, 『북관지』, 『임백호집』, 『재봉집』 등의 기록들이다. 특히 『택당집』의 기록은 <수성지>의 창작 시기가 임제가 북평사로 있다가 서평사가 되어 옮겨 간 때임을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때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하여 탄핵을 받은 일이 <수성지>를 창작하게 된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속관복지증보』, 『북관지』, 『임백호집』, 『재봉집』 등의 기록을 들어 『택당집』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임제는 북평사로 있다가 서평사가 되어 옮겨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평사로 있다가 북평사가 되어 옮겨 갔으며,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한 것도 임지를 옮겨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북평사로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수성지>의 창작 시기는 임제가 북평사가 된 경진년(1580년)에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로 가다가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하여 탄핵을 받고 난 직후이므로 임제가 32세인 1580년이나 33세인 1581년 무렵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성지>의 직접적인 창작 동기는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했다고 탄핵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하명의 『조선문학사』³(사회과학출판사, 1991)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수성지(시름에 싸인 성)》는 립제의 문집 《림백호집》 뒤끝에 실려 있는 우화소설로서 당대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풍유하고 있다.

택당 리식(?~1647)의 《택당잡저》에 《림제는 병법을 즐겨했는데… 그는 준마를 타고 하루에 수백리를 달렸다. 북평사를 하다가 서평사로 옮겨간 일이 있는데 이때에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했으므로 탄핵을 받고 <시름에 싸인 성>을 썼다.》라고 한 기록은 립제가 《시름에 싸인 성》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해준다.

그런데 《속관복지증보》에 나오는 《림제가 경진년에 서평사로부터 이

곳에 왔다. 같은 해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서울로 가는 길에 암행어사의 앞길을 피하지 않은 탓으로 파직당했다.»라고 한 기록과 립제 자신이 문집 《림백호집》에 남긴 글 가운데서 《지난 경진년(1580년)봄에 나는 평안도 병마사기(서평사)로 있다가 다시 성천부를 거쳐 함경도쪽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림백호집》 제3권)고 한 기록 그리고 고경명의 문집인 《제봉집》에 《림제는… 한때 평안도, 함경도 두 도의 평사를 력임하였다.》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리식의 《택당잡저》에 립제가 북평사를 있다가 서평사로 옮겨간 것처럼 쓴 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서로 연관시켜 보면 립제가 함경도에서 북평사로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려고 서울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른바 《범필》의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고 나라일을 근심하여 이 소설을 쓴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소설 《수성지》는 대체로 1580년 직후 2~3년 어간에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여기서는 김춘택의 『조선고전소설사연구』에서 논의했던 것을 좀 더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택당잡저』이라고 했던 것을 『택당잡저』라고 지칭하고 있고, 고경명의 문집을 『제봉집』이라고 잘못 표기했던 것을 『제봉집』이라고 바로잡아 언급하고 있으며, 〈수성지〉의 창작 시기를 임제가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접했다고 탄핵을 받은 해인 1580년이나 이듬해 1581년 무렵이라고 했던 것을 다소 여유 있게 잡아서 1580년 직후 2~3년 어간이라고 보는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3.2. 주제 사상적 내용 및 구성

북한의 연구사에서 〈수성지〉의 주제 사상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을 인용

3)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38~245쪽.

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 「시름의 성」에서는 봉건적인 도덕규범인 인, 의, 예, 지와 인간의 심정을 표시하는 희, 노, 애, 락 사람의 감각과 언어 행동으로서 시, 청, 언, 동 등을 의인화하고 그것들에 각각 하나의 인간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설은 이와 같은 독특한 의인화의 수법으로 당대의 사회 현실이 봉건적인 ‘충성’과 ‘의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세상이라는 것을 풍유하고 있다. 소설은 그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충신’, ‘의사’들로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모여 ‘시름의 성’을 쌓았는데 그 돌레에 원한의 기운과 시름의 구름이 자욱히 뒤덮여 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리던 반동적인 봉건 통치배들에 대한 울분을 표시하고 있다.

소설 「원생의 꿈」, 「시름의 성」, 「꽃 역사」 등에서 주어진 당대의 사회적 모순과 어지러운 정계 형편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봉건 유교 교리, 봉건적 도덕관념에 기초하여 주어졌고, ‘왕도 정치’에 대한 이상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만큼 철저한 것으로 될 수 없었다.⁴⁾

요컨대 〈수성지〉는 당대의 사회 현실이 봉건적인 충성과 의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세상이라는 것을 풍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당시 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리던 반동적인 봉건 통치배들에 대한 울분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대의 사회적 모순과 어지러운 정계 형편에 대한 폭로와 비판도 봉건 유교 교리와 봉건적인 도덕관념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이고 또한 왕도정치에 대한 이상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수성지〉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 자료는 〈수성지〉의 주제 사상적 내용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261~262쪽.

것인지를 적시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의 후반부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천군은 한 때 관성자(붓)의 입을 통하여 험악한 인간 세계를 이별하고 하늘 위로 피해 버리려고까지 하였으나 성밖에 나타난 한 인간의 만류에 의하여 괴롭고 통분하기는 하나 다시 엄연한 인간현실에도 돌아온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자기를 괴롭히는 ‘서글픔과 원한의 구름’이 뒤덮인 성곽을 ‘구수 대장(시름을 깨뜨려 버리는 대장, 여기에서는 술)과 함께 공격한다.

작품의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구수 대장을 시켜 ‘시름에 싸인 성’을 공격하게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작가 자신이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은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는바 같이 우화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봉건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불만과 울분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는 작품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의 여러 측면들을 의인화한 각이한 우화적 형상을 창조하였다.⁵⁾

여기서도 <수성지>의 주제 사상적 내용이 봉건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불만과 울분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은 하였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술로써 시름에 싸인 성을 공격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성지>가 안고 있는 주제 사상적 내용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다음 자료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의 후반부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천군은 한 때 관성자(붓)의 입을 통하여 험악한 인간 세계를 이별하고 하늘 위로 피해 버리려고까지 하였으나 성밖에 나타난 한 인간의 만류에 의하여 괴롭

5)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52~254쪽.

고 통분하기는 하나 다시 엄연한 인간현실에도 돌아온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자기를 괴롭히는 《서글픔과 원한의 구름》이 뒤덮인 성곽을 《구수 대장》(시름을 깨뜨려 버리는 대장, 여기에서는 술)과 함께 공격한다.

작품의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구수 대장을 시켜 《시름에 싸인 성》을 공격하게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작가 자신이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은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방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여주는바 같이 우화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봉건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불만과 울분의 감정을 사람의 마음의 여러 측면들을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묘사하였다.⁶⁾

앞에서 인용한 자료와 거의 똑같은 기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몇 개의 글자 정도만 바뀌었을 뿐이다. 남한의 경우와 견주어 보면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인용할 자료에서는 논의가 다소 진전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것은 주제 사상적 내용의 한계를 작품 구성의 문제와 관련지으면서 좀 더 심화된 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사람의 마음을 천군으로, 인, 의, 례, 지를 지방기관의 행정관리로 ; 희, 노, 애, 락을 중앙기관의 행정관리로 ; 시, 청, 언, 동을 의례의식을 맡은 관리로 의인화하여 부강한 나라의 리상적인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외의 대치 속에서 옳고 참된 모든것이 무고하게 짓밟히는 당대 봉건사회가 불합리하고 반인민적인 제도라는것을 풍유적수법으로 확인하였다.

소설은 주제사상적과제에 따라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부분에는 천군이 다스리는 리상적인 나라가 그려져있다. 천군이 즉위한 강충원년의 건국초기에 인, 의, 례, 지는 각기 여러 관부를 맡아서 자기

6)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2~58쪽.

직무에 충실하였고 희, 노, 애, 락은 모두 중앙기관을 총괄함에 있어서 절제 있게 일하였으며 시, 청, 언, 동은 모두 레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온갖 범절을 통제하니 나라는 화평스러운 기운에 휩싸이고 그 어떤 외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위력을 뽐내게 되었으며 온 나라 사람들은 천군을 한결같이 받들었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과 애공의 상소문을 통하여서도 이상적인 임금, 이상적인 신하에 대한 작가 립제의 표상을 구현하고있다. (중략)

소설의 둘째 부분에서는 천군의 혜택으로 만고의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수성(시름의 성)이라고 하였는데 천군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 찾아와서 살펴보고 슬픔에 잠겨 어쩔바를 몰라하는 것을 그려 보여주고 있다. (중략)

소설은 이와같은 수성의 묘사를 통하여 당대 봉건사회는 총의나 정렬이 명예로 되지 못하고 기쁨과 자랑으로 되지 못하는 세상, 이러한 까닭으로 하여 이 세상엔 슬픔과 눈물이 차넘치고 시름에 싸여있게 된다는것을 음유적으로 예리하게 적발폭로하였다.

소설의 셋째 부분은 주인공이 천군에게 장계를 올려 국장군을 구수대장군으로 삼아 파견케 함으로써 수성에 드리웠던 온갖 시름을 흘날려버리고 «전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자들은 더없이 즐거워하고 원망하며 한탄하던자들은 씻은 듯이 원한을 잊고 울분을 품고 노여워하던자들은 가신 듯이 풀리고 안타까와 고민하던자들은 현연히 기뻐하며 격분하여 팔을 걷어붙이던자들도 좋아서 춤을 추게 되었다.»는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여기서 국장군이란 술을 의인화한것으로서 말하자면 술에 취하는 방법으로 현실사회의 시름을 쫓아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사회적모순의 근원도, 그 극복방도도 알수 없었던 시대적 및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로 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는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7)

〈수성지〉가 옳고 참된 모든 것이 무고하게 짓밟히는 당대 봉건사회가 불합리하고 반인민적인 제도라는 것을 풍유적 수법으로 확인한 작품이라는 지적은 앞서 살펴본 자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

7) 김하명, 『조선문학사』3, 사회과학출판사, 1991, 238~245쪽.

한 문제를 작품의 구성과 관련지어 논의한 것은 이 자료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 작품이 주제 사상적 과제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작품의 첫 부분에서는 천군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림으로써 이상적인 임금과 이상적인 신하에 대한 작가 임제의 표상을 구현하였고, 둘째 부분에서는 천군의 혜택으로 만고의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수성이라고 하였는데, 이 수성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당대 봉건사회는 충의나 정렬이 명예로 되지 못하고 기쁨과 자랑으로 되지 못하는 세상이어서 슬픔과 눈물이 차 넘치고 시름에 싸여 있게 된다는 것을 예리하게 폭로하였으며, 셋째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술에 취하는 방법으로 현실사회의 시름을 쫓아버린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직 사회적 모순의 근원도, 그 극복 방도도 알 수 없었던 시대적 제한성과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 가치는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요컨대 <수성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둘째 부분에서 당대 봉건사회가 불합리하고 반인민적인 제도라는 주제 사상적 내용을 잘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부분에서 그 문제를 술로 해결했다고 한 것은 아직 사회적 모순의 근원이나 극복 방도를 알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후의 자료에서 이 정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전개한 것을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3.3. 천군의 성격 및 시름의 특성

북한의 <수성지>에 대한 연구에서 천군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주제 사상적 내용과 연결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물 연구의 심화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사람의 마음의 여러 측면들(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을 의인화한 독특한 우화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천군은 한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한 우화적 형상이다. 천군은 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데, 그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은 아주 광대하여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천지를 이루고 있다.

그의 '마음의 하늘'은 끝없이 높고 넓어서 화창한 날이면, '소리개 높이 날개를 뚫쳐 날고' 때로는 거만 구름이 자욱히 올라 하늘을 덮기도 한다. 그의 '마음의 땅'은 넓고도 넓어 가능에는 '고기떼 뛰노는 연못'도 여러 군데 있고, 높고 낮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이며 무연한(아득하게 너른) 들판도 있다. 땅을 적시는 흥해(가슴의 바다)는 넓고도 깊어 다른 나라의 태산과 화산 같은 것을 옮겨다 놓아도 대수롭지 않을 정도이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며 모든 풀과 나무들까지 저절로 생기를 띤다. 가을이면 금풍이 소슬하여 대지 위에 낙엽을 날린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까지나 주인공 천군의 '마음의 세계'(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도 있지만, 먼 지난날의 역사가 되살아나 나타나기도 한다.

주인공 천군을 괴롭힌 '시름에 싸인 성'이 그의 '마음의 세계'에 자리잡은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천군은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이다. 역대 통치배들이 사대주의에 물젖어(어떤 사상이나 생활 양식 같은 것이 생활에 깊이 배도록 그 영향을 받아) 제가꿈 요순 시절을 이상화하였으나, 그는 자기 나라가 요순 때보다 더 잘 다스려질 것을 바라면서 나라의 운명을 지극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그는 주인공, 무극옹 등과 더불어 인재를 논하며 국방과 인민들의 살림에 대하여 걱정하며 인관, 의관, 예관, 지관, 회관, 노관 등등이 다 자기 맡은 직무에 충실하도록 바로 잡아 준다.

주인공 천군은 높은 뜻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위풍과 권세를 모르며 부귀공명과 이욕을 증오하고 부정의에 대해서는 격분을 참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인공이 체험하는 서글픈은 한갓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며 감상적인 충격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비통한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중략)

주인공은 유교에서의 이른 바 '중용' 사상을 극력 반대하며 고루한 유교 도덕을 꺼려하는 반면에 '하늘에 소리개 날고 연못에 물고기 뛰노는' 자유분

방한 생활을 바라는 인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인공은 당대 사회에서의 각종 부정의와 불합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인간,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것을 열망하는 인간이다. 작가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의인화하는 독특한 예술적 수법에 의하여 이상과 같은 인간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작품의 주제 사상의 심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⁸⁾

먼저 <수성지>의 주인공인 천군은 단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관할 영역이 아주 광대하여 하나의 천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도 있지만, 먼 지난날의 역사가 되살아나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천군이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한 우화적 형상이라는 점을 요약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천군의 성격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천군이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였다. 역대 통치배들이 사대주의에 물젖어 제가꿈 요순시절을 이상화하였으나 그는 자기 나라가 요순시절보다 더 잘 다스려질 것을 바라면서 나라의 운명을 지극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천군이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그는 위풍과 권세를 모르며 부귀공명과 이욕을 증오하고 부정의에 대해서는 격분을 참지 못해서, 지난날의 비통한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서글픔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천군의 성격은 특히 그 마음의 세계에 먼 지난날의 역사가 되살아나 나타남으로써 시름에 싸인 성이 자리 잡게 되는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천군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군이 문제 삼고 있는 시름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천군이 체험하고 있는 서글픔 곧 시름은 한갓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며 감상적

8)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52~254쪽.

인 충격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비통한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천군의 성격과 시름의 특성에 대한 규정은 급기야 천군이 유교의 중용사상을 극력 반대하며 고루한 유교 도덕을 꺼려하는 반면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바라는 인간으로서, 당대 사회에서의 각종 부정의와 불합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인간,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것을 열망하는 인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수성지>가 이러한 인간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작품의 주제 사상의 심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천군의 성격 및 시름의 특성 규정은 이후의 논의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천군은 한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한 우화적 형상이다. 천군은 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데, 그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은 아주广大하여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천지를 이루고 있다.

그의 <마음의 하늘>은 끝없이 높고 넓어서 화창한 날이면 <소리개 높이 날개를 펴고> 때로는 검은 구름이 자욱히 올라 하늘을 덮기도 한다. 그의 <마음의 땅>은 넓고도 넓어 가을에는 고기떼 뛰노는 련못도 여러군데 있고 높고낮은 산, 깊은 골짜기들이며 무연한 들판도 있다. 땅을 적시는 <가슴의 바다>는 넓고도 깊어 다른 나라의 태산과 화산 같은것을 옮겨다 놓아도 대수롭지 않을 정도이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며 모든 풀과 나무들까지 저절로 생기를 띤다. 가을이면 금풍이 소슬하여 대지 위에 락엽을 날린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까지나 주인공 천군의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계절의 변화도 있지마는 먼 지난날의 력사가 되살아나 나타나기도 한다.

주인공 천군을 괴롭힌 <시름에 싸인 성>이 그의 <마음의 세계>에

자리잡은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천군은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이다.

력대통치배들이 사대주의에 물젖어 제가꿈 요순시절을 이상화하였으나 그는 자기 나라가 요순때보다 잘 다스려질 것을 바라면서 나라의 운명을 지극히 생각한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그는 주인옹, 무극옹 등과 더불어 인재를 론하며 국방과 인민들의 살림에 대하여 걱정하며 인관, 의관, 계관, 지관, 희관, 노관 등이 다 자기 맡은 직무에 충실하도록 바로잡아준다.

주인공 천군은 높은 뜻의 소유자일뿐만아니라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위풍과 권세를 모르며 부귀공명과 리욕을 증오하고, 부정의에 대하여서는 격분을 참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인공이 체험하는 서글픔은 한갓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며 감상적인 충격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비통한 력사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것이다.⁹⁾

인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같은 주장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천군은 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데, 그가 관할하는 영역이 광대하여 하나의 천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곳은 천군의 마음의 세계라서 지난날의 역사도 되살아나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수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또한 천군은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군이 체험하는 서글픔 곧 시름은 한갓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며 감상적인 충격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 비통한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3.4. 장르적 특성 및 문학사적 의의

〈수성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수성지〉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

9)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2~58쪽.

한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요컨대 장르적 특성은 우화소설이라는 것이고, 문학사적 의의는 고전소설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이른 시기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소설 발전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선행 시기의 우화 문학과 당시의 소설 문학의 경험에 토대하여 우화 소설이 새롭게 창작된 사실이다. 임제의 「시름에 싸인 성」·「재판 받는 쥐」·「꽃 역사」 등이 그 대표적 유산이다. 우화 소설이란 의인화의 수법을 기본적인 묘사수법으로 인간과 그 생활을 소설 문학의 요구에 맞게 묘사한 작품을 말한다. 이 시기 우화 소설이 새로 씌어지게됨으로써 발생 과정에 있었던 우리나라 고전 소설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풍부화되었다.

첫째, 이 시기 우화 소설의 특성은 비록 의인화의 수법으로나마 당시의 사회 현실과 인간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점이다. 문학 예술은 민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일정한 역사적 시대와 사회 제도,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여러 가지 예술적 수법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옛날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는 민족의 역사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둘째, 이 시기 우화 소설의 특성은 의인화적 수법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묘사의 기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우화 소설에서는 「재판받는 쥐」·「꽃 역사」에서처럼 주로 쥐·소·말·닭·기러기·매화·모란·연꽃 등 동식물들을 의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름에 싸인 성」의 경우와 같이 인간의 정신 상태와 정서 상태(즐거움·슬픔·울분 등)도 의인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우화 소설이 의인화의 범위를 훨씬 넓혔다는 것을 말한다. (중략)

셋째, 이 시기 우화 소설의 특성은 의인화의 수법을 이용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창작에서 비판적·풍자적 경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중략)

이 시기 우화 소설에서의 이러한 특성들은 우화 소설 작가들의 진보적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문학 사조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실주의적 문학

사조의 강화 발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시기 진보적 문인들은 이러한 우화적 수법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적발하고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상을 비교적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반동적 문인들과 양반 사대부들은 우화 소설의 풍자성과 사실주의적 경향성을 극력 억제하고 그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들은 오랜 시기에 걸쳐 발전해 온 인민적 우의성의 전통을 거세해 버리려고 하였다. 풍자는 사회 계급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시기 반동적 문인들은 풍자에서 사회 계급적 내용을 떼어버리고 ‘음풍영월’에 알맞는 ‘풍유적인’ 웃음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진보적인 우화 소설문학은 이상과 같은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경향을 반대하면서 봉건 사회의 각종 불합리를 의인화의 수법과 풍자적 수법을 가지고 밝힘으로써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묘사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화 소설은 이 시기 문학 특히 고전 소설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¹⁰⁾

한 마디로 말해서 <수성지>와 같은 새로운 우화소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고전소설이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고전소설이 풍부해진 양상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수성지>가 나타난 시기의 우화소설의 특징으로서 비록 의인화의 수법으로나마 당시의 사회현실과 인간생활을 생동감 있게 반영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는 <수성지>가 인간의 정신상태와 정서상태를 의인화함으로써 의인화의 범위를 훨씬 넓혔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수성지>와 같은 우화소설이 의인화의 수법을 이용하여 인간과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창작에서 비판적이며 풍자적인 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수성지>를 포함한 우화소설의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은 우화소설 작가들의 진보적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문학사조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실주

10)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헌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244~246쪽.

의적 문학사조의 강화 발전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시기 반동적 문인들은 풍자에서 사회 계급적 내용을 떼어버리고 음풍영월에 알맞은 풍유적인 웃음을 요구하였는데, 진보적인 우화소설문학은 이와같은 경향을 반대하면서 풍자적 수법으로 봉건사회의 각종 불합리를 밝혔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후의 논의는 이상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6세기 소설발전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선행시기의 우화문학과 당시의 소설문학의 경험에 토대하여 우화소설이 새롭게 창작된 사실이다.

림제의 《시름에 싸인 성》, 《재판받는 쥐》, 《꽃력사》 등이 그 대표적작품이다.¹¹⁾

이상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화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봉건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불만과 울분의 감정을 사람의 마음의 여러 측면들을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묘사하였다.

작가는 우선 인간의 마음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인간의 정서, 감정을 의인화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인간 심리 일면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유교, 불교 등의 교리에 의하여 해석된 추상적이며 도식적인 인간의 마음을 해설한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 속에 살아숨쉬는 생동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실감있게 의인화하였다.¹²⁾

비록 간략하게 요약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수성지〉와 같은 우화소설의등장이 16세기 소설 발전에서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 〈수성지〉는 인간의 마음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한 의의가 있다는 점, 〈수성지〉가 현실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생동감 있게 의인화하였

11)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2~58쪽.

12)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2~58쪽.

다는 점 등은 앞서 인용한 자료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인용할 자료는 논점을 〈수성지〉의 작가 임제로 옮기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앞서의 논의들과 동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작가 립제의 문학사적위치는 그가 당대의 부패한 현실을 재치있는 우화적형상을 통하여 예리하게 비판폭로한 우수한 우화소설들을 창작한 중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우화소설가라는데 있다. (중략)

립제는 자기의 소설들에서 당시의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다루면서 주로는 봉건왕과 집권통치배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그것을 독특한 의인화수법에 의한 우화적형상을 통하여 펼쳐보여주었다. 여기에는 호방한 성격과 온갖 부정의에 대하여 풍자조소를 날리는 뛰어난 해학적기지를 지닌 립제의 성격미와 사상적립장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립제의 작품들에는 작가의 세계관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제도하에서 빛어지는 온갖 전횡과 사회적병집의 근본원인을 옹계 밝히지 못하고 그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도들을 언급하지 못한것 등 일련의 부족점들도 있다.

그러나 우화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이후시기 활발히 진행된 우화소설창작에 직접적영향을 준 립제의 작품들은 우리 민족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고있다.¹³⁾

여기서 〈수성지〉의 작가 임제의 문학사적 위치를 당대의 부패한 현실을 우화적 형상으로 예리하게 비판 폭로한 우화소설을 창작한 가장 대표적인 우화소설가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수성지〉에 대한 자리매김으로 치환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제의 문학사적 위치가 그의 호방한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수성지〉에 등장하는 천군의 성격 규정과 겹쳐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계도 지적하고

13) 김진국, 「인물소개 : 재능있는 우화소설가 립제」,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 때문이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제한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임제와 그의 우화소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임제와 그의 우화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후에도 비슷한 논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 인용할 자료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우화소설’이라고 지칭했던 것을 ‘의인소설’이라고 바꾸어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편소설양식’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눈에 띈다.

립제는 또한 우리 나라 중세의인소설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립제에 의하여 창작된 의인소설의 예술적형식을 분석연구하는것은 우리 나라 중세의인소설의 발전정형을 고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그것은 소설문학이 왕성하게 창작되지 못하고 소설을 정통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기에 립제에 의하여 중편양식의 소설이 창작됨으로써 우리 나라 소설문학이 보다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기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 중편소설양식이 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선행한 소설창작의 일정한 경험에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현실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립제의 역할도 무시할수 없다. (중략)

립제에 의하여 창작된 의인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의인대상의 폭을 넓혀 등장인물들을 설정한 특색있는 작품이다. 이전시기 의인소설에서는 주로 동식물을 의인화하는것이 보편적현상이였으며 경우에 따라 자연현상이나 물체를 의인화하였다. 그러나 《시름에 싸인 성》에서는 이전시기 의인소설에서는 볼수 없었던 인간의 마음과 성질, 감정정서까지도 의인화함으로써 의인화의 대상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작품은 인간의 마음을 천군 즉 왕으로 의인화하고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정서라고 할수 있는 인, 의, 례, 지와 희, 노, 애, 락, 애, 오, 욕(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을 각각 그의 신하들로 의인화하였을뿐아니라 기타 눈, 귀, 입, 팔, 다리 등 인체기관과 벼루, 붓, 술, 돈도 의인화하고 있다.

의인소설 《시름에 싸인 성》은 인간의 성질과 인체기관에 이르기까지 의인대상의 영역을 새롭게 확대함으로써 그 이후시기 립영의 《의승기》, 정기화의 《천군본기》, 정창익의 《천군실록》, 정태제의 《천군연의》 등 《천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천군》계렬의 의인소설군을 형성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첫 작품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¹⁴⁾

요컨대 중세의인소설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는 데 임제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 시기 중편소설양식이 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선행한 소설 창작의 일정한 경험에 있다고 보겠지만 현실을 폭 넓고 깊이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임제의 역할도 크다는 것, 임제의 〈수성지〉는 이전 시기의 의인소설이 주로 동식물을 의인화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인간의 마음과 성질, 감정 정서까지 의인화함으로써 의인화 대상을 새롭게 개척하였다는 것, 그리고 〈수성지〉는 이후에 등장하는 임영의 〈의승기〉, 정기화의 〈천군본기〉, 정창익의 〈천군실록〉 정태제의 〈천군연의〉 등 천군계렬의 의인소설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첫 작품이라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인용한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단지 ‘우화소설’이라고 하던 것을 ‘의인소설’이라고 하고, ‘중편소설양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

그런데 다음에 인용할 자료에서는 임제의 〈수성지〉가 사실주의적 요소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적 요소도 적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수성지〉에 대하여 사실주의적 작품이라는 점은 강조했어도 낭만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4) 류윤화, 「조선중세의인소설의 발전과 작가 립제」, 『조선어문』, 2008년 1호.

이와 함께 립제는 의인소설창작에서 사실주의와 함께 낭만주의창작방법도 재치있게 활용한 작가라고 볼수 있다.

지난 시기 대부분의 의인소설들은 형상적비유를 전제로 하여 사실주의적으로 씌어졌다고 볼수 있으나 립제에 의하여 창작된 《시름에 싸인 성》은 낭만주의적요소가 적지 않은 작품으로서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낭만주의의 표현은 주인공 《천군》의 이상적인 성격이 특이한 환경속에서 창조된 것이다.

여기서 모든것이 평화롭고 풍족한 이상적인 나라 《마음의 나라》에서 올바른 정사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돌보는 천군은 진보적문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봉건군주의 형상이다.

천군은 충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정사를 잘하려면 인재들을 등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며 국방과 백성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돌리고 이욕과 권세를 모르며 부귀공명을 탐내지 않고 부정의에 대하여 격분을 금치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이상이 체현된 인물이다.

립제는 형상수법도 의인소설의 특성에 맞게 활용한 재능있는 작가였다.

의인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형상수법으로서는 의인화의 수법, 풍자의 수법, 과장의 수법, 환상의 수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의인화의 수법은 의인소설의 기본형상수법으로서 그를 떠나서 의인소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의인소설의 사상예술성은 의인화의 수법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¹⁵⁾

〈수성지〉의 낭만주의적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천군의 이상적인 성격이 특이한 환경 속에서 창조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족한 이상적인 마음의 나라에서 올바른 정사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돌보는 천군, 이욕과 권세를 모르며 부귀공명을 탐내지 않고 부정의에 대하여 격분을 금치 못하는 천군은 당시 진보적인 문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봉건 군주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수성지〉가 낭만주의적 요소가 많다는 점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한 것은 〈수성지〉의 특성

15) 류윤화, 「조선중세의인소설의 발전과 작가 립제」, 『조선어문』, 2008년 1호.

에 대한 견해의 측면에서나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견해의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장임에 틀림없다.

4. 남한 연구와의 비교

4.1.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

〈수성지〉의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를 추정하는 데 『택당집』의 기록을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는 것은 남한의 연구에서나 북한의 연구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구에서는 『속관북지증보』, 『북관지』, 『임백호집』 등의 기록을 두루 참조하여 『택당집』의 기록이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성지〉의 창작 시기를 임제가 함경도의 북평사로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가는 길에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하고 탄핵을 받은 1580년이나 그 직후 이삼년 어간이라고 잡고 있는데 비해서, 남한의 연구에서는 오직 『택당집』의 기록에만 의지함으로써 기록의 오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의 연구에서는 『택당집』의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밝힌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서 〈수성지〉의 창작 시기와 창작 동기는 모두 임제가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하고 탄핵을 받은 사실에서 찾고 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의 연구에서는 『택당집』의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어서, 임제가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하여 탄핵을 받은 사실과 〈수성지〉의 창작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는 견해,¹⁶⁾ 탄핵과 〈수성지〉의 창작과는 관련이 없지만 평생

16)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76쪽; 소재영, 「백호임제론」, 『민족문화연구』 8, 고

동안 기이하고 큰 일이 많았음을 보이려고 지은 것이라는 견해,¹⁷⁾ 임제가 암행어사의 앞길을 범하여 탄핵을 받은 일과 <수성지>를 창작하여 자신을 드러낸 일 등이 임제가 평생 동안 보여준 기이하고 큰 일의 예가 된다는 견해¹⁸⁾ 등이 있다. 그리고 남한의 연구에서는 <수성지>의 내용에 착안하여, 창작 동기를 탄핵을 받은 일과 관련을 짓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이미 이십여년 전에 제출되었는데,¹⁹⁾ 그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여전히 『택당집』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²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애초에 『택당집』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았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조차 소홀히 넘기면서 앞 사람의 해석을 그냥 답습하기를 거듭했기 때문이다.²¹⁾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4, 101쪽;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138쪽; 김광순, 「임백호의 생애와 문학」, 『건국어문학』 제9·10합집, 1985, 53쪽;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41쪽; 권순공,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318~319쪽;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23쪽; 조구호, 「<전군전>과 <수성지> 비교연구」, 『남명학연구논총』 제12집,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3, 193쪽.

- 17)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72쪽; 오상태, 「<수성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제9집, 대구대학교 외국어연구소, 1994, 1쪽;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영남어문학회, 1996, 94쪽.
- 18)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46~248쪽.
- 19) 안병렬, 「가전체소설 작품연구」, 『안동대학논문집』 제7집, 안동대학교, 1985, 74쪽.
- 20) 신호열·임형택, 『역주 백호전집(하)』, 창작과비평사, 1997, 1046~1047쪽에서는 <수성지>가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원생몽유록>과 통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창작시기를 임제가 28세 무렵인 1576년 <원생몽유록>을 지었을 때로 잡고 있다. 이러한 견해 역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 21) 내용상 『택당집』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한 안병렬도 탄핵사건과 <수성지>의 창작을 관련시키는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안병렬, 「가전체소설 작품연구」, 『안동대학논문집』 제7집, 안동대학교, 1985, 74쪽. 『택당집』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이동근, <수성지>,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51쪽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영남어문학회, 1996, 94쪽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며,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

4.2. 주제 사상적 내용 및 구성

남한의 연구에서 〈수성지〉의 주제 사상적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연구 방향과 비슷하게 봉건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주장들도 있지만,²²⁾ 관점을 달리하여 임제 자신의 불우를 탄식한 작품이라는 주장들도 있으며,²³⁾ 성리학적 이념의 파

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46~248쪽에 이르러서 해석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 22) 소재영, 「백호임제론」, 『민족문화연구』 제8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4, 104쪽, “〈수성지〉는 이미 백당이 논급한 바 조정에 대한 불만,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현실 저주의 울적한 심정을 우원한 비유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중략) 시대적 부조리에의 저항이 본심일지도 모른다.”; 김광순, 「임백호의 생애와 문학」, 『건국어문학』 제9·10합집, 1985, 53쪽,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작품에다가 풍자의 수법으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현실도피에서 그쳤다가보다는 현실풍자의 수법으로 그의 인생관의 일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조덕근, 「수성지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무능한 군주와 충의 허망함을 드러내면서 당시 세태를 역설적으로 풍자하였다.”; 오상태, 「〈수성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제9집, 대구대학교 외국어연구소, 1994, 9쪽, “고루한 생각을 지닌 도학자나 정통파 문인들과는 달리 천성이 고매조연한 그로서는 무엇에 앞서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작품을 통해 토로해 갔던 것이다. (중략) 불합리한 제도나 지배계층의 타락상을 비판한 작품의 구체적 실상은 작품의 서두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55쪽, “임제는 자신이 뜻을 펴지 못한 세상에 대해 울분을 느꼈고, 그러한 세상이 된 원인을 모색한 결과 ‘왕위찬탈’이라는, 사대부들이 굳게 믿었던 유교의 역사철학을 붕괴시킨 이 사건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그가 뜻을 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울분과, 세조의 왕위찬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분만은 불가분의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임제는 〈수성지〉에서 자신의 핵심적 울분 두 가지를 토로해내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었으며, 그 두 가지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 23)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에서, 1939, 76쪽, “우원한 비유로 자기의 불우를 탄식한 것이다.”;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8, 173쪽, “조정에 대한 불평과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펴볼 수 없는 현실을 우원한 비유로 쓴 작품이라고 하니만치 세상 개탄하는 우수로 가득찬 자기의 심경을 표현해 보고자 한 것이다.”; 조윤제, 『국문학사』, 탐구당, 1962, 242쪽, “이것은 오로지 그의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기의 역량을 시원히 펴어볼 수 없는 현실을 저주한 것인데”;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78쪽, “〈수성지〉는 작가 임제가 선형적 원리나 비판적 역사 의식의 어느 쪽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으로서의 문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반영한다.”;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탄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주장들도 있고,²⁴⁾ 또는 오히려 성리학적 이념의 실현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주장들도 있고,²⁵⁾ 순수하게 시름에 대한 탐색

영남어문학회, 1996, 112쪽,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작품은 백호가 현실 속에서 고뇌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일생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4) 임형택, 「이조전기 한문학」,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8, 296~298쪽, “왕도정치 또는 심성수양으로 표현되는 동양의 봉건이념은 당착된 역사 속에서 파탄에 이름을 나타내었다.”;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심성수양에 의해서 세계의 안정을 꾀하던 성리학적 처방은 완전히 무위로 돌아갔으며, 봉건이념은 역사 현실과의 괴리를 수습하지 못하여 파탄을 보인 것이다.”;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40쪽, “이렇게 볼 때 심성과 세계의 선형적 질서 즉 천리에 대한 ‘경’을 그 요체로 삼고 있는 성리학의 엄숙주의를 희필(또는 희학적 어조)로 깨뜨리고 있는 이 작품의 탈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우리는 성리학의 낡은 세계관·인간관에 대한 풍자 또는 성리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패러디(parody)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순궁,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331~332쪽, “우선 〈수성지〉는 교훈적 알레고리가 아닌 풍자적 알레고리의 형태를 보여주며, 그것은 형이상학적 내면세계만이 아닌 역사적 구체성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략) 그 풍자의 대상은 넓게는 봉건이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당대 사림정권의 명분주의를 겨냥한 것이다.”;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37~138쪽, “〈천군전〉의 일방적인 대립 관계가 ‘천도(理)의 구현’이라는 이념적 이상의 외화된 형식이라면, 〈수성지〉의 반어적 대립 관계는 ‘천도에 대한 회의’라는 탈이념의 외화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김유미, 「〈수성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152쪽, “천도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수성지〉가 성리학적 심성론의 발현이 아니라 역사 행적 속에서 느껴지는 불만과 슬픔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한 작품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에 집중한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성지〉의 파격적인 결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성리학적 심성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함께 추구해야 할 정신적 목표감을 상실한 자아의 자기 위로를 볼 수 있었다.”

- 25) 황패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6, 157쪽, “현실의 불만이나 저주를 위주로 한 작품이 아니며, “형이상학적 내면세계를 인격화”한 작품이다.; 안병렬, 「가전체소설 작품연구」, 『안동대학논문집』 제7집, 안동대학교, 1985, 75쪽, “그러면 〈수성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이는 Happy ending이다. 결코 울분이나 탄식이나 우수로 짜여진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쫓아내고자 몸부림치는 내용이다. 그보다도 존심양성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이것이 안 될 때 국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고 그런 뒤에는 또 모두 제 위치로 돌아가 나라가 태평해지는 내용이다. (중략) 이러한 백호가 그의 거작인 〈수성지〉에 이러한 박식을 이입시켰던 것이라고 보면 본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성에 대한 작자의 설명에 주안을 두었다고 하겠다. 불우의 탄식이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불우에 관한 것도 필자가 보기에는 불우의 탄식이라기보다 오히려 불

을 한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⁶⁾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지게 되는 이유는 <수성지>의 구성 가운데 어느 대목을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느냐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수성(愁城)이 역사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대목을 주목하게 되면 봉건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주장이나 작가 자신의 불우를 탄식한 작품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천군(天君)이 혼란에 빠졌다가 안정을 찾는 과정 전반을 주목하게 되면

우를 초월한 달자의 해학이라고 함이 옳을 것 같다.”; 조구호, 「〈천군전〉과 〈수성지〉 비교연구」, 『남명학연구논총』 제12집,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3, 187쪽, “〈천군전〉과 〈수성지〉는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한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심성의 근본 요체를 ‘천군(天君)’으로 명명하여 그 작용하는 바의 지향점과 경계해야 할 바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자는 천군의 작용을 경(敬)과 의(義)에 의한 심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호기확충(豪氣擴充)에 의한 심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 26) 전성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424~425쪽, “요컨대 〈수성지〉 연구 결과를 역사(현실), 정치, 작가 자신의 불우, 천도와 성리학적 심성론으로 치환되는 봉건 이념, 선험적 원리 등이라고 선험적으로 가정하지 않는 연구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성지〉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시름의 성에 대한 기록(愁城誌)이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시름’의 탐색과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428쪽, “기존 연구자들은 대부분, 〈수성지〉의 시름 형성을 역사 모순과 현실의 문제라는 중세 봉건 이념의 모순, 혹은 역사철학적 관점에서의 보편적 원리 혹은 선험적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저주 혹은 풍자와 역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실질적 전개면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름의 본격적 발현은 작가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의 변화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을을 맞이하여 못물상은 시름과 조락을 겪게 된다. 반악과 같은 아름다움의 상실과 젊음의 상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본원적 슬픔에 빠지게 한다. (중략) 이것은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발생의 원인이 역사와 현실, 중세 이념 등에만 있지는 않았음을 뜻한다.” 432쪽, “그런데 이쯤 이르게 되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정체는 모호해져 버린다. 의제(義帝)를 살해한 인물로 사림의 갖은 지탄을 받는 항우를 시름의 구체적 내용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리나 성리학적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치 않다. (중략) 이것은 시름이란 것이, 천도가 실현되지 않는 역사 현장의 모순됨을 고민하는 와중에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39쪽, “작가는 〈수성지〉를 통해 시름이란 존재론적 본원의 영역에 속하는 그 무엇임을 진지하게 탐색한 것이다.” 445쪽, “시름이 이성적 질서의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었던 것처럼, 시름에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불가능함을 술과 문체를 통해 드러내 보인 것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술의 등장물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나, 문체의 돌변이 급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성리학적 이념의 파탄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주장이나 또는 성리학적 이념의 실현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며, 시름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대목이나 과정을 주목하게 되면 시름에 대한 탐색을 한 작품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성지〉의 주제 사상적 내용이나 구성에 대하여 남한의 연구가 북한 연구에 비해서 다양한 것은 〈수성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3. 천군의 성격 및 시름의 특성

천군의 성격에 대한 북한 연구의 핵심은 천군이 요순(堯舜)보다 더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인간으로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유교의 중용 사상이나 유교 도덕을 꺼리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바랄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의 각종 부정의와 불합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것을 열망하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연구에서는 천군이 선험적(先驗的)이고 추상적(抽象的)인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經驗的)이고 구체적(具體的)인 존재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고,²⁷⁾ 독서 내지 문사(文史)의 저술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정한 일에 곧잘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강개지사(慷慨之士)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고,²⁸⁾ 보편적인 성격

27)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37~38쪽, “심성의 유기적 질서·조직을 총체적·통일적 국면에서 상징하고 있는 천군은 이 감·정의 활동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며, 그의 통치 질서(심성의 통일적 질서)를 교란하게 된 ‘수성(시름)’도 애당초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마음의 나라 속에 들어서게 된다. (중략) 그러므로 천군이 다스리는 마음의 나라는 고정·불변하는 성격이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추상적 질서로서 존재하는 심성으로부터 외부 세계와 특정한 방식으로 교섭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심성으로 전환되는 변형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28)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60쪽,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천군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독서인이다. 또한 문·사의 저술활동에도 힘쓰며, 때로는 독서 내지 저술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정한 일에 곧잘 비분강개하는 인물이다. 요약하자면, 천군은 강개지사인 것이다.”; 김유미, 「〈수성

의 인간이 아니라 작가인 임제 자신을 투영한 개성적인 성격의 인간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고,²⁹⁾ 천도의 구현이라는 봉쇄된 욕망의 출구 앞에서 근심하고 술로 달랠 뿐 다른 욕망의 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³⁰⁾

시름의 특성에 대한 파악은 천군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연구에서 시름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며 감상적

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134~135쪽, “〈수성지〉의 천군은 훌륭한 군주로 등장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문사(文史)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그에 따르는 신하 도홍(陶泓·벼루)과 모영(毛穎·붓)만을 특별히 총애한다. 그리고 수오(羞惡)와 시비(是非)를 밝히는 것을 좋아해, 시시비비를 따져 엄정히 대하고 지나치게 불의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다. 문제의 핵심은 천군이 의(義)와 지(智)에 치우쳐 인(仁), 예(禮)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중략) 〈수성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천군이 융통성이 적고 자긍심이 높은 인물이라는 점과, 감정에 쉽게 끌리는 기질이 잠재하는 데서 근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형상화 방법들을 통해 천군은 신의 대리자에서 격하되어 인간의 모습을 띤다.”

29)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영남어문학회, 1996, 92~93쪽, “〈수성지〉의 천군은 ‘마음의 주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작품과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 그 성격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다. 전세(前世)의 영웅재사(英雄才士)를 개상(慨想)하여 문필로 발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향유 지니는 속성이 아니다. 또 천군은 특별히 외부적 상황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본성의 발현에 있어서 어느 측면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인(仁), 예(禮)를 유보하고 의(義), 지(智)에 특별히 경도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천군의 주체적인 세계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감관(感官)은 칠정(七情)에 대해 두루 작용하는 것이지만 천군은 특히 애(哀)에 일관하고, 특별한 역사적 현실에 편애를 보이는 것 역시 천군의 개성적 인격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군을 어떤 개성적 인격의 심적 주체로 이해한다면 이는 백호 자신을 나타내는 것 외는 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0)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36쪽, “현실은 욕망의 출구가 봉쇄되어 있으므로 현실과 다른 차원의 존재적 전이를 통해 욕망의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금오신화』의 인식론이며 세계관인 것이다. 〈수성지〉의 천군 역시 ‘수성(愁城)’을 체험하고는 ‘천도(天道)’라고 하는 이념적 이상을 회상한다. ‘역사에 천도가 있는가?’라는 회의는 인간의 시간을 이념의 시간으로 등치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천도의 구현이라는 욕망의 출구가 봉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성지〉에서 천군은 봉쇄된 욕망의 출구 앞에서 근심할 뿐이다. 더 세밀히 묘사하자면 봉쇄된 욕망의 출구 앞에서 근심은 술로 달랠 뿐, 다른 욕망의 출구를 찾지 않는다.”

인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비통한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연구에서는 봉건적 정치 체제의 불합리나 역사 과정의 부조리로 인해 억울하게 좌절되고 희생된 원혼들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주장도 있고,³¹⁾ 모순된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이기보다 그것에 공감하면서 느끼는 비장감과 고립감이라는 주장도 있고,³²⁾ 세조의 왕위찬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서적 반응이라는 주장도 있고,³³⁾ 입지와 좌절이라는 작가 자신의 자기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³⁴⁾ 역사적 개인의 불우에만 집착하고 있는 감상적 태도로 말미

-
- 31)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40쪽, “외부 세계와 교통하는 이들의 활동이 개시되자마자 선형적 질서가 흔들리게 된 심성의 세계는 마침내 이들이 불러 일으킨 역사적 인물의 기억으로 인해 곁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 즉, 마음의 나라에는 자체 내의 통치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수성’이 구축된 것이다. 이 ‘수성’을 구축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봉건적 정치(지배) 체제의 불합리나 역사 과정의 부조리로 인해 억울하게 좌절되고 희생된 원혼들이며 작가는 이 ‘수성’의 묘사를 통해 초월적 천리(또는 불변의 정치·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로서 왕도정치의 이념)와는 모순되는 봉건적 정치 체제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의 실체를 낱말이 상기시키고 있다.”
- 32)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65쪽, “결국 작가에게 ‘수성’이 의미하는 것은 모순된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이기보다 그것에 공감하면서 느끼는 비장감과 고립감이다.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도 작가의 분신인 천군의 반응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 33)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53쪽, “요컨대 굴원이 수성의 축조를 시작하고 국양의 수성 격파에서 도망치는 설정 및 충의문과 무고문의 정점에 놓여 있는 두 사건(사육신과 단종 살해)을 통해 작가 임제가 〈수성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토로하고자 했던 수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성지〉에 나타난 우수와 분한은 임제가 ‘세조의 왕위찬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지니는 심리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34)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영남어문학회, 1996, 101-103쪽, “감찰관과 채정관이 소를 올렸다는 사실은 오관의 작용으로 인식되는 외부의 현실문제를 끌어오기 위한 설정이다. 그 현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히 칠정 중 애(哀)를 등장시켰다. ‘입지와 좌절’이라는 자기 자신의 삶의 궤적을 이 단락에 투사시키고자 한 의도는 수성을 구축토록 천군에게 요구하는 두 인물 즉, 굴원과 송옥을 등장시키는 데에서 드러난다. (중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군의 명으로 관성자에 의하여 기술되는 충의문, 장렬문, 무고문, 별리문의 수성문 안의 역사적 인물들도 입지와 좌절이라는 백호의 자기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인물의 나열임을 깨닫게 된다.”

암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³⁵⁾ 수성의 네 개의 문을 나누어 살피면서 장렬 문에서는 한 번의 실패로 폄하되고 만 기개있는 무인의 슬픔을, 충의문과 무고문에서는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던 사군자의 실패와 슬픔을, 별리문에서는 사회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이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³⁶⁾ 〈수성지〉의 시름은 그 발생 원인이 역

35)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29~131쪽, “임제는 〈수성지〉에서 공자나 사마천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준다. 공자와 사마천의 해법대로라면 천군이 수성에서 목도했던 불우한 역사적 인물들은 애도의 대상만은 아니다. 그들의 현실적 삶이 불우하고 기구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의 불우하고 기구한 삶에 대해 일시적인 애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칭송되고 기려져야 할 인물이며, 실제로 칭송되며 기려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천군의 수심은 그들의 개인적인 불우만에 집착하고 있는 감상적 태도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기에 수심은 그들의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확인과 추앙으로 대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진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성지〉에서 천군의 수심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진되지 아니한다. (중략) 하지만 〈수성지〉에서의 임제는 이와 달랐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름이 남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도와 행복하게 결환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한 불우는 불우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욕망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천군이 천도를 욕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욕망의 출구가 현실에 달려져 있는 것이기에 천군은 그토록 시름겨워했으며 시름을 술로 달래고자 했던 것이다.”

36) 김유미, 「〈수성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138~140쪽, “장렬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반드시 도덕성에 따라 인물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서초패왕(항우:項羽)을 들 수 있다. 작품에서는 그를 일컬어 ‘한 필의 오추마로 천하를 횡행하며 8년 전쟁을 치르더니 오강의 물결에 꿈이 깨어졌다.’고 묘사한다. 항우는 유교사회에서 한고조와 대비되어 지혜롭지 못하고 잔인한 자로 평가받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래서 화자는 한번의 실패로 인해 인물의 전 면모가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기개와 의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즉, 당대인들이 쉽게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뜻(志)있는 인간들을 나열하여 그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140~142쪽, “충의 문은 ‘아득한 고급에 일신을 돌보지 않고 순국을 하였거나 의에 나아가(就義) 인을 이룬(成仁) 이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이루 다 기록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로 일단락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자의 초점은 의에 나아가는 행동과 인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순수한 동기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중략) 즉, 의에 나아가 인을 이루려고 애쓴 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원망이 없으며 순수한 정신에서 발로한 끝없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공자가 원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백이(伯夷)에 대해, 사마천은 열전을 통해 원망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수성지〉의 화자도 자신의 입장에서 영웅인물들을 재검토한 결과 그들은 의에 나아가 인을 이루는데 가까웠

사와 현실, 중세 이념 등에만 있지 않으며 불가지적인 속성과 불가항력적인 면모를 지녔는데, 충의문의 시름은 의리를 실천하던 충의지사가 좌절하는 모순된 역사 현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장렬문의 시름은 정치적 의리나 성리학적 명분론과는 무관하게 응지를 품은 인물의 좌절에서 형성된 것이며, 무고문의 시름은 현우(賢愚)나 시비(是非)와 상관없이 역사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희생된 인물들의 시름이고, 별리문의 시름은 어떤 상황에도 존재하고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별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⁷⁾

지만 결과가 허무하므로 분명히 강한 원통함, 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중략) 무고 문에서도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던 사군자의 실패와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142~145쪽, “별리문에는 이별한 자들의 영혼이 등장한다. (중략) 이러한 미인들을 통해 당시 정치적 부정부패나 혹은 경국지색의 여성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이별의 슬픔은 신분의 고하(高下)나 도덕성에 관계하지 않으며 원인도 시간, 변절(變節), 사회·역사적 상황 등 가지각색이다. 이별에서 어떤 사회사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제시하는 것이다.”

- 37) 전성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428쪽, “기존 연구자들은 대부분, 〈수성지〉의 시름 형성을 역사 모순과 현실의 문제라는 중세 봉건 이념의 모순, 혹은 역사철학적 관점에서의 보편적 원리 혹은 선형적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저주 혹은 풍자와 역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실질적 전개란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름의 본격적 발현은 작가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의 변화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을을 맞이하여 못 물상은 시름과 조락을 겪게 된다. 반약과 같은 아름다움의 상실과 젊음의 상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본원적 슬픔에 빠지게 한다. (중략) 이것은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발생의 원인이 역사와 현실, 중세 이념 등에만 있지는 않았음을 뜻한다.” 429~430쪽, “결국 〈수성지〉에서 말하는 시름이라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름하지 않는 까닭조차 알 수 없는 불가지(不可知)의 그 무엇이다. 모든 것이 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지만 모든 것이 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또한 시름은 그것이 한 번 발현하기 시작하면 천군은 말할 것도 없고 무극옹조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본원적인 그 무엇이다. 이것이야말로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이 불가지적인 속성과 불가항력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웅변해준다.” 431쪽, “결국 충의문으로 입장하는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시름의 구체적 양상은, 역사 현장에서 천도나 보편의 선형 원리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목한 것이다.” 432쪽, “천군이 조고대(弔古臺)에 앉아 장렬문으로 들어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내용이다. (중략) 의제(義帝)를 살해한 인물로 사림의 갖은 지탄을 받는 항우를 시름의 구체적 내용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리나 성리학적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치 않다. 지탄의

4.4. 장르적 특성 및 문학사적 의의

〈수성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북한 연구의 핵심은 ‘우화소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인소설’이나 ‘중편소설양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한의 연구에서는 ‘소설(小說)’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³⁸⁾ ‘천군소설(天君小說)’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고,³⁹⁾ ‘가전체소설(假傳體小說)’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⁴⁰⁾ ‘심성가전체(心性假傳體)’라

대상이 시름의 내용인 상황은 충의문의 형상과 모순된다. 이것은 이름이란 것이, 천도가 실현되지 않는 역사 현장의 모순됨을 고민하는 와중에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34쪽, “무고문을 통해 들어오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현우(賢愚)나 행위의 시비(是非)와는 상관이 없이 역사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희생된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시름의 장(場)은 무한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작가가 시름이 무엇인가를 따져 물으면 물을수록 그 영역이 확장되고, 그 대상이 모호해져 가는 상황이 되었다.” 434쪽, “인용한 부분은 별리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이별의 종류들이자, 시름의 본령 가운데 일부이다. 이것을 보면, 이별은 어떤 상황에도 존재하고,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38)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130쪽, “이 작품의 표현은 초학자로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하며, 유창하고 평이하게 표현해 놓지 못하였고, 문장도 소설적인 문장이 아니다. 사건전개에 있어서도 소설적인 흥미를 찾아볼 수 없다. 엄밀히 따진다면 소설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448쪽, “심성론에 관한 기존 개념으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에 천군소설이라 부를 수도 있으나, 소설은 아니다.”;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35쪽, “백호 임제(1549~1587)의 소설 〈수성지〉는 당대의 대문호였던 그의 문재와 소설가로서 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작품이다.”
- 39) 김광순, 「임백호의 생애와 문학」, 『건국어문학』 제9·10합집, 1985, 53쪽, “〈수성지〉는 천군소설의 하나로서 후대의 천군소설 창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후대의 천군소설들은 그 구조, 등장인물, 주제에 있어 〈수성지〉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에 〈수성지〉의 문학적 가치는 곧 전체 천군소설의 문학적 가치로 확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 40) 안병렬, 「가전체소설 작품연구」, 『안동대학논문집』 제7집, 안동대학교, 1985, 71~72쪽, “천태산인(天台山人)이 〈화사(花史)〉를 가리켜 ‘가전체소설의 집대성’이라고 명명한 데서 생겨난, 이 ‘가전체소설(假傳體小說)’이란 장르명은 그 개념규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가전(假傳)’이란 장르에 대해 차차 바른 이해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으므로 거기 따라서 ‘가전체소설’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게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다시 말하면, 의인화는 가전처럼 잘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한 사건의 기록일 뿐 한 사람의 일대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傳)이 못되는 것이다. 가전의 다른 모든 요소는 다 갖추었는데도 단순히 전기성(傳記性)을 갖추지 못해 가전이

고 명명하기도 하였고,⁴¹⁾ 그냥 ‘심성가전(心性假傳)’이라고 부르기도 하였
고,⁴²⁾ ‘심성의인체가전(心性擬人體假傳)’ 또는 ‘심성의인가전(心性擬人假
傳)’이라고 일컫기도 하였고,⁴³⁾ ‘역사서술적(歷史敘述的) 의인체산문(擬人

될 수 없으므로 ‘가전체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또 ‘가전체소설’ 이름
의 특징도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작품이 그 제목명에서부터 ‘전(傳)’을 쓰지 않고 그 작품
의 성질을 그대로 쫓아 사(史)·지(誌)·기(記)·록(錄) 혹은 연의(演義) 등으로 나타낸
다. 〈화사(花史)〉·〈수성지(愁城誌)〉·〈의승기(義勝記)〉·〈천군실록(天君實錄)〉·〈천
군연의(天君演義)〉 등 그 문체명이 전이 아님을 솔직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중략) 둘째,
전이 아니므로 서두의 선계(先系)나 결말의 사평(史評)이 거의 필요없게 되었다. 셋째,
훨씬 장편화된 것이 많다. 넷째, 심성을 의인화한 것이 많다.”

- 41)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45쪽, “〈수성지〉는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천군전〉류의
심성가전체(心性假傳體)가 지닌 일반 구조대로 천군의 나라를 설정하고, 그 나라의 태평,
혼란,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42)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영남어문학회,
1996, 91쪽, “〈수성지〉는 갈래상 심성가전(心性假傳)에 속한다. 마음의 주체를 의인화하
여 천군(天君)이라 하고, 기타 사람의 본성과 생태적 속성을 인격화한 등장인물들로 전
체의 구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
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36~137쪽, “〈수성지〉
는 심성가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전통에
서 벗어나 있다. 마음을 의인화하는 심성가전의 특성은 〈수성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서사적 양상과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서사적 대립
구도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성지〉에 선행하는 심성가전인 〈천군전〉은 천군
(마음)을 보좌하는(구성하는) 충신과 간신의 대립을 서사화하고 있다. (중략) 〈수성지〉
도 주인공·무극옹과 수성의 여러 인물 사이의 대립과 국양장군에 의한 수성의 패퇴로
그 서사적 골격을 요약할 수 있다. 현상적인 서사적 골격만으로 볼 때 두 작품은 동일한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략) 그렇지만 〈수성지〉에서 수성의 여러 인물들은 진정
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 43) 권순궁,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313~314쪽, “고려후기에 등장한 가전(假傳)은 16세기에 이르면서 심성을 의인화한 양식
을 탄생시키게 된다. 그 첫 작품은 김우옹(1540~1603)의 〈천군전〉으로 심통성정(心統性
情)의 논리를 허구화한 것이다. 〈수성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작품이다. 그렇다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왜 이런 심성의인화 작품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중략) 〈천군전〉
내용 역시 추상적이기는 하나 충신형과 간신형이 대립되어 산란해진 마음을 경(敬)에
의해 바로 잡는다는 것이니, 이는 곧 치심(治心)이 치국(治國)이요, 치국의 방법이 곧
치심의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심성을 하나의 소유주로 파악
하여 정치현실의 원리와 연결시켰다는 데 심성의인체가전(心性擬人體假傳)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천군전〉이 지니고 있는 추상성에 있다. 심성을 의인화하여

體散文)’이라고 특칭하기도 하였고,⁴⁴⁾ ‘심성의인작품(心性擬人作品)’ 또는 ‘심성의인소설(心性擬人小說)’이라고 하기도 하였고,⁴⁵⁾ ‘심성의인산문(心

정치현실과 상응시켰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에 가서는 별다른 현실적 계기를 제시하지 못한다.” 318쪽, “실상 심성의인가전(心性擬人假傳)의 경우 형이상학적 내면세계는 그 자체로 심성론에 의거하여 완결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현실의 이러저러한 요소들과 직접 대응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성지〉는 추상적 완결성을 현실이 개입하여 깨뜨리기 때문에 강한 현실성을 띠게 된다. 바로 여기에 〈수성지〉가 갖는 특이함이 있다.”

- 44) 송병렬, 「중의적 서술방식에 따른 의인체산문과 우화소설의 관계」, 『동방한문학』 제20집, 동방한문화회, 2001, 179쪽, “이왕의 논의에서는 가전(假傳), 가전체(假傳體), 가전체소설(假傳體小說)이라는 용어로 써왔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전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데에서 취해진 것이다. 가전이라는 ‘전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양식적 가탁의 특징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그 본래의 문학적 특징인 의인체 형식이 사상(捨象)되었다. 뿐만 아니라, 〈화사(花史)〉, 〈수성지(愁城誌)〉, 〈의마부(意馬賦)〉, 〈유어매쟁춘(柳與梅爭春)〉, 〈전동군서(錢東君序)〉 등 다양한 양식의 형식을 빌린 의인체산문(擬人體散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전체라는 말로 묶어냄으로써 ‘가전’의 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냈다. 또한 의인체산문들이 의인화에 따른 중의적 서술방식을 큰 특징으로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이 명칭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의적 서술방식은 우화의 의인 형식과 차별성을 지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의인체산문의 의인 형식의 고유한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기왕에 사용했던 가전, 가전체라는 명칭이 갖는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논의의 확장을 위해 의인체산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93쪽, “필자는 가전에 해당하는 작품군을 의인체산문의 한 양식인 의인전(擬人傳)으로, 〈화사〉와 〈수성지〉 같은 작품은 역사서술적(歷史敘述的) 의인체산문(擬人體散文)으로 규정한 바 있다.” 193~194쪽, “사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줄거리를 전개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의 의인체산문인 의인전이나 역사서술적 의인체산문과 우화소설 사이에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본다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두 양식 모두 의인화된 등장 인물이 작품의 줄거리와 플롯 전개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화에 따른 서술방법은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인지 의인체산문을 우화소설의 발달과정과 동궐로 두기를 꺼려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우화소설의 의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중의적 줄거리의 양상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또한 임제의 〈화사〉나 〈수성지〉가 보여준 내용에 있어서 소설적인 우의의 성취를 후대에 어떻게 계승하였는가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면 우화소설의 전사(前史)를 우화에서만 찾는 것은 우화소설 발달의 과정을 단선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우화소설의 발달이 우화에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형식적으로는 의인체산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중략) 필자는 〈화사〉나 〈수성지〉가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소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양식적으로는 여전히 산문양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역사서술적 의인체산문이라고 규정하고, 우화소설과의 차이점을 중의적 서술방식에서 찾았다.”
- 45) 김유미, 「〈수성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124~125쪽,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의 주제에 대해 ‘당시

性擬人散文)’이라고 하기도 하였다.⁴⁶⁾ 그리고 북한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화소설(寓話小說)’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⁴⁷⁾ 이렇게 남한의 연구에서 〈수성지〉의 장르에 대한 규정이나 명칭이 다양한 것은 〈수성

의 심성윤리관과 연결시켜 유교적 심성론의 전개를 펼친 작품이라는 견해와, ‘성리학적 심성론의 파탄을 그린 작품’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수성지〉는 〈친군전〉을 비롯한 〈친군연의〉, 〈친군실록〉, 〈친군본기〉 등 기타 심성의인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단선적인 평화회복의 구조(평화→혼란→평화)를 가지고 있으며, 심성 수양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근심을 해결하지 못해 술을 마시는 것(수성지)과, 충신의 활약으로 악을 제거하고 중화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친군전)은 동일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방향의 기존 연구는 모든 심성의인작품이 성리학적 심성론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략) 앞으로의 논의는 기존 연구의 업적을 수용하면서, 현재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작품의 구조적 특징과 서술기법, 그리고 전고의 무덤을 넘어서 ‘시름의 성(愁城)’의 의미를 살펴 문학성을 재조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수성지〉의 소설사적 위상을 밝혀, 이 작품이 기타 심성의인소설(心性擬人小說)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46)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55-256쪽, “〈수성지〉는 크게 심성을 의인화한 서사적 산문계열(이하 심성의인산문이라 약칭)에 속하는 동시에, 선초에 발생한 특정한 역사적 사건(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이념적·정서적 대응을 다룬 산문의 계열에 속한다. 우선 심성의인산문 계열에서의 〈수성지〉의 위상을 살펴보자. 심성의인산문 계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사대부들은 14세기 후반의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 이후 15세기 중반의 세조에 의한 왕위찬탈, 15세기 후반부터 계속된 수차례의 사회와 같은 정치적 사건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대부들은 ‘사공(事功)’과 ‘절의(節義)’라는 가치 기준 가운데, 혹은 ‘군주에 대한 충성’과 ‘학문적 소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였던 인물들의 가치 기준이 하나의 도통(道統)을 형성하면서 조선 사대부들의 성격과 체질이 결정되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심성론에 몰두하면서 심성을 의인화하여 심성수양을 주제로 한 작품(이하 친군계 작품으로 약칭)을 창작해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성을 의인화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술과 잠을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무유유지향(無何有之鄉)을 형상화한 작품(이하 유토피아계 작품으로 약칭)을 다수 창작하였다. 후자의 구체적 작품으로는 〈취향기(醉鄉記)〉, 〈수향기(睡鄉記)〉 등이 있으며, 임제의 〈수성지〉 역시 이 계열의 작품에 속한다.”

47) 오상태, 「〈수성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제9집, 대구대학교 외국어연구소, 1994, 6쪽, “임제 역시 7C~14C에 이르기까지 의인화 수법을 적용한 작품 〈화사〉 〈서옥설〉 〈수성지〉에서 동물 식물 무생물의 의인화는 물론 인간의 정신상태와 정서상태, 신체부위 등을 의인화한 발전된 우화작품들을 창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임제에 이르러 우화소설이 전대의 우화작품에 비해 의인화의 수법이나 범위를 다채롭고 기발하게 확대 심화시켰음은 물론 의인화의 정도도 다양화된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지)가 〈천군전〉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수성지〉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북한 연구의 요체는 고전소설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강화하였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낭만주의적 요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연구에서는 〈수성지〉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논의가 〈수성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수성지〉는 천군소설의 하나로서 소설사적 단절을 막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설을 배격하던 유학자들에게 소설의 효용가치를 일깨워 주었다는 견해,⁴⁸⁾ 〈수성지〉는 역사 서술적 의인체산문으로서 중의적인 서술방식을 취하면서도 주제의식에서는 우의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화소설의 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견해,⁴⁹⁾ 〈수성지〉는 심성가전의 특성을 잇고 있으나 그 전통을 벗어나서

48) 김광순, 「임백호의 생애와 문학」, 『건국어문학』 제9·10합집, 1985, 65-67쪽, “그럼, 이같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는 〈수성지〉가 우리 소설사상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 〈수성지〉는 천군소설의 하나로서 소설사적 단절을 막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설은 『금오신화』에서 〈홍길동전〉으로 그리고 임진란후의 영웅소설, 〈구운몽〉, 〈사씨남정기〉 그리고 영정조대를 전후하여 나온 작자, 연대 미상의 소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종래의 소설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금오신화』부터 〈홍길동전〉까지의 100여년간을 소설이 창작되지 않은 공백으로 보고, 〈홍길동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사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것은 천군소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오류였다. (중략) 둘째, 당시 소설을 배격하던 유학자들에게 소설의 효용가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소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중략) 셋째, 소설을 평민이나 서민의 전유물인 양 생각하고, 유학자와 소설의 관계를 지나치게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해 온 종래의 견해에 조심스런 반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49) 송병렬, 「중의적 서술방식에 따른 의인체산문과 우화소설의 관계」, 『동방한문학』 제20집, 동방한문화회, 2001, 193-194쪽, “사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줄거리를 전개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의 의인체산문인 의인전이나 역사서술적 의인체산문과 우화소설 사이에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본다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두 양식 모두 의인화된 등장 인물이 작품의 줄거리와 플롯 전개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화에 따른 서술방법은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인지 의인체산문을 우화소설의 발달과정과 동계로 두기를 꺼려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는 충분한

천도(天道)의 구현 대신 천도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면서 현실만을 욕망의
출구로 인식하는 소설적 주체의 성립을 예고하는 텍스트라는 견해,⁵⁰⁾ 심서가

근거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우화소설의 의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중의적 즐거리의
양상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또한 임제의 〈화사〉나 〈수성지〉가 보여준 내용에 있어서
소설적인 우의의 성취를 후대에 어떻게 계승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면 우화소설
의 전사(前史)를 우화에서만 찾는 것은 우화소설 발달의 과정을 단선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우화소설의 발달이 우화에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형식적으로는 의인체산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중략) 필자는 〈화사〉나 〈수성지〉
가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소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양식적으로는
여전히 산문양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역사서술적 의인체산문이라고 규정
하고, 우화소설과의 차이점을 중의적 서술방식에서 찾았다.” 204~205쪽, “〈서옥기〉는 앞
서의 의인체산문이 보여준 중의적인 서술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화사〉나 〈수
성지〉는 중의적인 진술이 표면적 즐거리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면적인 즐거리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서술 방식이다. 즉 〈화사〉나 〈수성지〉는 〈국순전〉이나 〈국
선생전〉과 같은 의인전의 중의적인 서술방식을 취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의인체산문의
양식을 유지한 것이다. 양식적으로는 역사서술적 의인체산문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주제의식에서는 우의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인체산문의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다. 반
면 〈서옥기〉는 주제의식에서 우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식적인 측면에
서도 변화를 준 것이다. 문면에서는 표면적 즐거리를 전개시키면서 이면적 즐거리를 드
러내지 않는 방식을 버리고, 사물과 관련된 서술에서 표면적 즐거리와 이면적인 의미의
즐거리를 작품의 문면에 모두 내세우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중략) 〈화사〉와 〈수성지〉
에까지 이어진 의인체산문의 중의적 서술방식이 〈서옥기〉에 이르면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이후 우화소설과 관련하여 의인체산문의 서술방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즉 〈서대주전〉과 같은 동물 우화소설을 보면, 중의적인 서술이
분량에 있어서도 급격히 줄어든다. 이러한 서술방식의 변화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 50)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
전문학회, 2003, 131~132쪽, “임제가 살았던 시기에 성리학적 세계관을 추앙하던 사대부
들은 적어도 공자가 제시했고 사마천이 승인했던 해법을 삶의 근거로 여기고 따랐다.
명분을 위해 분투하고, 그에 따라 이름이 역사 속에 기억되는 한, 그들은 불우를 불우로
여기지 않았으며, 욕망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성지〉에서의 임제는 달랐
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름이 남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도와 행복하게 결합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한 불우는 불우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욕망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였다. (중략) 가전(假傳)의 희필적 문체를 이어받아 마치 장난처럼 쓰여진 것 같은
〈수성지〉의 세계를 경험한 독자가 오히려 비판적 정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이 같은
솔직한 토로에 내재되어 있는 심중한 무게를 떨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136쪽, “현실
은 욕망의 출구가 봉쇄되어 있으므로 현실과 다른 차원의 존재적 전이를 통해 욕망의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금오신화』의 인식론이며 세계관인 것이다. 〈수성
지〉의 천군 역시 ‘수성(愁城)’을 체험하고는 ‘천도(天道)’라고 하는 이념적 이상을 회의한

전체(心性假傳體)의 구성과 몽유록(夢遊錄)의 구성과 가전(假傳)의 구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성지>는 객관적 요건이나 마음의 수양을 중시하는 기존의 성향을 거부하고 관심의 방향을 혼란된 자기 내부로 돌리면서, 갈등과 반발을 표현하는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은 조선전기 방외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견해,⁵¹⁾ <수성지>는 심성의인체가전

다. (중략) 하지만 <수성지>에서 천군은 봉쇄된 욕망의 출구 앞에서 근심할 뿐이다. 더 세밀히 묘사하자면 봉쇄된 욕망의 출구 앞에서 근심을 솔로 달랠 뿐, 다른 욕망의 출구를 찾지 않는다. (중략) 입제와 동시대의 그리고 그 이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욕망의 출구는 현실 바깥에도 존재했었다. 그들은 다양한 상상을 통해 현실 바깥의 문을 열고 현실의 결핍을 대체했다. 심지어 현실 안에서 욕망을 실현코자 했던 유자(儒者)들의 경우에도 욕망의 출구가 현실 쪽으로만 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입제는 <수성지>에서 현실 바깥의 욕망의 통로를 상상하지 않았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보이는 관념적 상상의 통로가 엄연히 욕망을 배출하는 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제는 이를 출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136~138쪽, “<수성지>는 심성가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마음을 의인화하는 심성가전의 특성은 <수성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서사적 양상과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략) <천군전>의 일방적인 대립 관계가 ‘천도의 구현’이라는 이념적 이상의 외화된 형식이라면, <수성지>의 반어적 대립 관계는 ‘천도에 대한 회의’라는 탈이념의 외화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수성지>는 17세기 소설사의 전환을 징후적으로 예고하는 텍스트이다. ‘천도’라는 이념적 이상을 욕망하나, 욕망의 충족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회의하는 <수성지>의 서술시각은 제도적인 이념으로서의 천도와 화해불가능한 대립 속에서 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설적 주체의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다.”

51)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47쪽, “한편으로 본 작품은 소설에 대한 현대 연구자들의 관심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되었다. 허구적인 줄거리 구성, 다양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소재, 심각한 주제의식 등이 소설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주목을 끌었을 듯하다. 더구나 『금오신화』와 <홍길동전>의 다리 역할을 할 소설 작품이 마땅하게 없다는 것도 그같은 관심의 배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작품이 서사종(敘事種)에 속하는 소설은 아니더라도 단순한 가전(假傳)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 무엇보다 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심성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사물까지 다양한 소재를 허구적 장치로 모미있게 재배치하고 거기에 줄거리를 부여하여 작가의 심회를 전달했다는 것은 가전체(假傳體) 문학의 커다란 진전이다.” 58쪽, “<수성지>는 김우옹에 의해 새롭게 시도되었던 심성가전체(心性假傳體)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표면적 줄거리와 우의(寓意)의 허구적 장치 속에 역사적 인물이나 또는 의인화된 사물을 재배치하였다. 심성가전체와는 다른 계통의 문학 전통이 한 작품 안에 수용·결합된 것이다. 이같은 <수성지>의 성격은 심성가전체의 각편들이 지니는 개별적 특성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심성가전체의 일반구조를 변형시킨 것이라 보아야 마땅하다. <수성지>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작품은 뒷 시대

(心性擬人體假傳)으로서 정치원리와 연결되는 형이상학적 내면세계를 그리면서도 역사상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들과 결합함으로써 교훈적 의미를 갖는 알레고리를 넘어서서 풍자로 나아갔다는 견해,⁵²⁾ 〈수성지〉는 심성의인

에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71~72쪽, “〈수성지〉는 이같은 점에서 기본적으로 심성가전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세 단락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층위를 형성하는 이면을 지닌다. 첫 단락은 심성가전체의 구성 방법과, 조칙문(詔敕文) 또는 관부문(官府文)의 엄격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단락은 몽유록(夢遊錄)의 구성 방법과, 수식 위주의 감상문 내지 해설문의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같은 문면의 특징에 걸맞게 첫 단락은 선형적 원리의 추상적 분위기를, 둘째 단락은 모순된 역사의 비장감과 고립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반면 셋째 단락은 가전(假傳)의 구성 방법과, 첫 단락과 같은 문체이다 흥미 위주의 해설문을 가미한 이채로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본 작품은 양식적으로 성리학적 심성론을 작품화한 사림파의 심성가전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비판적인 몽유록과 희필적 성격의 가전 양식을 결합시켰다.” 77쪽, “이에 비하면 〈수성지〉는 작가의 자기고백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의 장치를 혼용하고, 16세기 사대부로서 접할 수 있는 기존 지식을 여러모로 재배치하였다. 그만큼 본 작품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나마도 매우 추상적이다. 형식적으로는 대단한 실험을 해 본 것이지만, 후대에 계승 발전되지 않았다. 작가가 시인으로서 대단하게 평가되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시대의 고독한 예외자였던 것처럼, 작가를 가장 포괄적으로 표출한 이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예외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국가적 쓰임새를 위해서도 심성의 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으로서, 〈수성지〉는 임제 문학 중에서, 더 나아가 조선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 요건이나 마음의 수양을 중시하는 기존의 성향을 거부하고 관심의 방향을 혼란된 자기 내부로 돌리면서, 갈등과 반발을 표현하는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은 조선전기 방외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52) 권순공,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311쪽, “〈수성지〉는 1617년(광해군 9) 간행된 『임백호집』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정보에서 빠진 〈화사〉나 〈원생몽유록〉에 비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방외인 문학의 계보를 이었던 허균은 ‘글자가 생긴 이래 특별한 하나의 문자다. 천지간에 스스로 모자라 이런 문자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백호를 일러 ‘성정이 넓고 기개가 있으며 남에게 얽매이길 싫어하여 세상과 어울리지 못해 불우했다.’고 했으니, 〈수성지〉는 교훈적 의미의 고려 가전(假傳)과는 달리 세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을 함의했으리라 여겨진다. 이 점에 허균이 주목했던 바, ‘특별한 문자’란 곧 이중적 의미의 알레고리(Allegory)와 이를 통한 현실 풍자일 것이다.” 313~314쪽, “고려후기에 등장한 가전(假傳)은 16세기에 이르면서 심성을 의인화한 양식을 탄생시키게 된다. 그 첫 작품은 김우옹(1540~1603)의 〈천군전〉으로 심통성정(心統性情)의 논리를 허구화한 것이다. 〈수성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작품이다. 그렇다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왜 이런 심성의인화 작품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중략) 〈천군전〉 내용 역시 추상적이기는 하나 충신형과 간신형이 대립되어 산란해진 마음을 경(敬)에 의해 바로 잡는다는 것이니, 이는 곧 치심(治心)이 치국(治國)

작품(心性擬人作品) 내지 심성의인소설(心性擬人小說)로서 첫째, 〈천군전〉의 구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인물의 성격, 사건과 갈등의 양상, 그리고 해결 방법에는 독창성을 발휘하였으며, 둘째, 슬픔이라는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표출하여 서정성을 획득하였고, 셋째, 시간적으로 현재를 중시함으로써 사실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견해,⁵³⁾ 〈수성지〉는 심성의인산문(心性擬人散文)으로서 유토피아계 작품에 속하는데, 풍부한 고사

이요, 치국의 방법이 곧 치심의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심성을 하나의 소우주로 파악하여 정치현실의 원리와 연결시켰다는 데 심성의인체가전(心性擬人體假傳)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천군전〉이 지니고 있는 추상성에 있다. 심성을 의인화하여 정치현실과 상응시켰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에 가서는 별다른 현실적 계기를 제시하지 못한다.” 315쪽, “당연한 것이 심성의인체가전은 정치현실의 구체적 계기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천군전〉은 교훈적 의미를 갖는 알레고리에 멈추고 풍자적 의미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알레고리는 일반적이고 풍자는 개별적이기에 알레고리가 풍자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획득해야 한다. 곧 역사상 구체적 인물이나 사건들과 결합함으로써만이 진정으로 풍자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와 유사한 역사적인 그리고 비유적인 이야기로부터 육신을 얻고, 또 거꾸로 역사적인 이야기의 뜻을 밝혀 줌으로써 풍자를 가능케 한다. 그러면 〈수성지〉는 어떤가?” 318쪽, “실상 심성의인가전(心性擬人假傳)의 경우 형이상학적 내면세계는 그 자체로 심성론에 의거하여 완결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현실의 이리저리한 요소들과 직접 대응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성지〉는 추상적 완결성을 현실이 개입하여 깨뜨리기 때문에 강한 현실성을 띠게 된다. 바로 여기에 〈수성지〉가 갖는 특이함이 있다.”

- 53) 김유미, 「〈수성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148-151쪽, “〈수성지〉는 최초로 심성을 의인화한 〈천군전〉의 구성적 요소(등장 인물 설정, 배경, 평화회복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성격, 사건과 갈등의 양상, 그리고 해결 방법에는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인물형에는 천군의 절대 진리성을 깨고 인간의 개성을 불어넣어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다. (중략) 또한 〈수성지〉는 내면심리를 구체적으로 표출하여 서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당시로서는 대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략) 셋째, 〈수성지〉는 시간적으로 현실을 중요시하며, 사실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군전〉은 창작 초기부터 대립과 갈등이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평화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인간적 현실에서 벗어난 미의 경지에 가치를 두고 지어진 것이다. 작품에서는 이상사회를 추구하는데, 그 이상향의 최초 원형은 과거에 있다. 그러나, 〈수성지〉에서 중점이 놓여지는 시간은 현재이다.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이 작품 서두에 나타나지만, 점차 진행될수록 과거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과 억울한 영혼들의 장(章)임이 드러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큰 비중을 가지지 아니한다.”

및 전고의 사용 등으로 서사화를 질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환백장군전〉, 〈남령전〉, 〈국청전〉 등 모의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천군계 작품에도 깊은 영향을 끼쳐서 심성론을 내세우되 흥미에 중점을 두는 〈천군기〉, 〈천군연의〉 등으로 이어졌고, 또한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이념적·정서적 대응을 다룬 산문의 계열에서 〈수성지〉는 특히 우수와 분한을 강조함으로써 낭만적 분위기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견해⁵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복한의

54)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55~257쪽, “〈수성지〉는 크게 심성을 의인화한 서사적 산문계열(이하 심성의인산문이라 약칭)에 속하는 동시에, 선초에 발생한 특정한 역사적 사건(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이념적·정서적 대응을 다룬 산문의 계열에 속한다. 우선 심성의인산문 계열에서의 〈수성지〉의 위상을 살펴보자. 심성의인산문 계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사대부들은 14세기 후반의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 이후 15세기 중반의 세조에 의한 왕위찬탈, 15세기 후반부터 계속된 수차례의 사화와 같은 정치적 사건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대부들은 ‘사공(事功)’과 ‘절의(節義)’라는 가치 기준 가운데, 혹은 ‘군주에 대한 충성’과 ‘학문적 소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였던 인물들의 가치 기준이 하나의 도통(道統)을 형성하면서 조선 사대부들의 성격과 체질이 결정되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심성론에 몰두하면서 심성을 의인화하여 심성수양을 주제로 한 작품(이하 천군계 작품으로 약칭)을 창작해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성을 의인화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술과 잠을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을 형상화한 작품(이하 유토피아계 작품으로 약칭)을 다수 창작하였다. 후자의 구체적 작품으로는 〈취향기(醉鄉記)〉, 〈수향기(睡鄉記)〉 등이 있으며, 임제의 〈수성지〉 역시 이 계열의 작품에 속한다. 〈수성지〉는 유토피아계 작품 중에서 작품의 양적 측면에서 확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고사 및 전고의 사용 등으로 서사화를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그 결과 〈수성지〉 이후 그 모의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로 김득신의 〈환백장군전〉, 이옥의 〈남령전〉, 박윤목의 〈국청전〉 등을 들 수 있다. 〈수성지〉의 문제의식이나 아이러니는 이후 유토피아계 작품에서 퇴색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머러스한 요소는 강화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성지〉는 천군계 작품 계열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 작품의 예로는 김우옹(1540~1603)의 〈천군전〉, 황중윤(1577~1648)의 〈천군기〉, 정태제(1612~1669)의 〈천군연의〉, 임영(1649~1696)의 〈의승기〉, 정기화(1786~1840)의 〈천군본기〉, 유치구(1793~1854)의 〈천군실록〉 등을 들 수 있다. 천군계 작품은 심성론의 수용태도와 관련하여 또 두 갈래로 분파되는데, 하나는 심성론 사상의 요체를 간략하게 형상화하여 심성론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심성론을 내세우되 흥미에 중점을 두는 작품이다. 후자의 예로 〈천군기〉, 〈천군연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수성지〉에 크게 영향을 받아, 천군이 환백(歡伯, 술의 의인화)에게 고난을 겪는 부분이 장편화되어 있다. 또 〈수성지〉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 백화체가 〈천군기〉·〈천군연의〉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컨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수성지〉는 우화소설(寓話小說)로서 전대의 우화작품들에 비해 의인화의 수법과 의인화의 범위, 특히 대상의 폭을 확대 심화하여 작품의 높은 형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⁵⁵⁾ 또한 〈수성지〉의 장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16세기 문학사에서 인간의 본원적 ‘시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주정적 세계에 대한 주목과 성찰을 통해 문학적 동력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16세기 문단의 낭만주의적 문학 경향에 동반된 것으로서 앞선 시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드러나는 비희의 정조나 신광한의 『기재기이』에서 드러나는 문예적 감수성 등과 동귀의 것이며, 이후 등장하는 〈주생전〉이나 〈운영전〉의 문예미학적 자장도 연관된다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⁵⁶⁾

대, 심성의인산문 계열 가운데 〈수성지〉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서사성을 확대·심화시킨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이념적·정서적 대응을 다룬 산문의 계열에서 〈수성지〉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성지〉의 관성자(管城子)가 수성을 기록하는 방식에서는 『금오신화』의 〈취유부벽정기〉의 ‘조고금상(弔古今傷, 옛 일을 조문하고 오늘날의 일을 애통해함) 수법이 차용되고 있다. 이로 보아 임제는 이 계열의 선행 작품의 독서경험을 토대로 〈수성지〉를 창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계열의 작품에서는 ‘절의’가 강조되는가 하면,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우수와 회한·고독감 등이 나타난다. 그 중 〈수성지〉는 특히 우수와 분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심미정서적인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성지〉는 낭만적 분위기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55) 오상태, 「〈수성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제9집, 대구대학교 외국어연구소, 1994, 13쪽, “심성의인화에 의한 우화소설 〈수성지〉는 전대의 우화작품들에 비해 의인화의 수법과 의인화의 범위, 특히 대상의 폭을 확대 심화하여 작품의 높은 형상성을 확보하고 있다.”

56) 전성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446~447쪽, “셋째,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의 탐색과 그 대응은 존재론적 성찰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밝혔다는 점이다. 사실 16세기 문학사에 인간의 본원적 ‘시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주정적 세계에 대한 주목과 성찰을 통해 문학적 동력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모호하고 막연한 인간 정육에 대한 섬세한 인식의 결과 이를 전면화하여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수성지〉의 문예미학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문학사적 측면이다. 〈수성지〉에서 드러난 ‘시름’에 대한 성찰은 16세기 문단의 낭만주의적 문학 경향에 동반된 것이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드러나는 비희의 정조나 신광한의 『기재기이』에서 드러나는 문예적 감수성에 대한 논란은 〈수성지〉의 시름에 대한 성찰과 궤를 이룬

5. 참고문헌

5.1. 북한 자료

-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임현영 해설, 도서출판 천지, 1995).
- 김진국, 「인물소개 : 재능있는 우화소설가 립제」,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김하명, 『조선문학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류윤희, 「조선중세의인소설의 발전과 작가 립제」, 『조선어문』, 2008년 1호.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96).
-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1, 사회과학출판사, 1986(도서출판 진달래, 1988).

5.2. 남한 자료

- 강혜규, 「〈수성지〉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제6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강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권순공, 「〈수성지〉의 알레고리와 풍자」,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 김광순, 「의인소설연구-이조의인소설의 성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 김광순, 「임백호의 생애와 문학」, 『건국어문학』 제9·10합집, 1985.
- 김광순, 「한국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성격(상)」, 『어문학』 16, 한국어문학회, 1967.

다. 요컨대 〈수성지〉는 전대의 서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낭만주의적 성향에 대한 인식의 단서들이 전면화된 것이다. 또한 〈수성지〉의 이같은 성향은 이후 등장하는 〈주생전〉이나 〈운영전〉의 문예미학적 자장도 연관된다. 요컨대 〈수성지〉에 나타나는 시름에 대한 성찰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존재하는 주정적 세계에 대한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것은 〈수성지〉만의 독자적인 현상은 아니라 하겠다.”

- 김광순, 「한국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성격(하)」, 『어문학』 17, 한국어문학회, 1967.
- 김광순, 『천군소설 연구』, 형실출판사, 1980.
- 김광순,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8.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 김유미, 「〈수성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유미, 「〈수성지〉의 서술 구조와 주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 태학사, 1997.
- 김태준, 「임제의 연문학」, 『조선어문학회보』 1-2, 조선어학회, 1931.
-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학예사, 1939).
- 김현룡, 『한국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7.
-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 김혜숙, 「〈수성지〉 소고」, 『백영 정병욱 선생 화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3.
- 남정울, 「수성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문범두, 「〈수성지〉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9집, 영남어문학회, 1996.
- 박지연, 「수성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소재영, 「백호임제론」, 『민족문화연구』 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4.
- 송병렬, 「중의적 서술방식에 따른 의인체산문과 우화소설의 관계」, 『동방한문학』 제20집, 동방한학회, 2001.
- 송병렬, 「한국 가전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심호택, 「임백호문학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안병렬, 「가전체소설 작품연구」, 『안동대학논문집』 제7집, 안동대학교, 1985.
- 안병설, 「이조심성가전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학논총』 제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 안병설, 「천군계 우언 소설의 형성과정과 특성」, 『중국학논총』 제7집,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1.

- 오상태, 「〈수성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제9집, 대구대학교 외국어연구소, 1994.
- 오은영, 「백호 임제 소설 연구-인물특성과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윤재천·김현룡, 「이조 천군계소설의 연구」, 『상명여대사범대학논문집』, 1975.
- 윤주필, 「〈수성지〉의 3단 구성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 이 식, 『택당선생속집』,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 이동근, 「수성지」,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이성규, 「〈수성지〉를 통해 본 백호의 문학의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임 제 저, 신호열·임형택 공역, 『역주 백호전집(하)』 창작과비평사, 1997.
- 임 제, 『임백호집』, 『한국문집총간』 58, 민족문화추진회, 1990.
- 임형택, 「이조전기 한문학」,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78.
-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 장효현 외 편, 『우언우화소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전개와 우언문학」, 『고소설연구』 제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전성운, 「〈수성지〉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 정승표, 「임제와 그의 한문소설」,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정학성, 「임백호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정학성, 「임백호의 〈수성지〉에 대하여」, 『도술어문』 1, 도술어문학회, 1985.
- 조구호, 「〈천군전〉과 〈수성지〉 비교연구」, 『남명학연구논총』 제12집,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3.
- 조덕근, 「수성지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조윤제, 『국문학사』, 탐구당, 1962.
- 황일근, 「임제 문학에 나타난 욕망과 시름의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황패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6.

<정운채>

찾아보기

ㄱ

- 가락국 전설 70
- 가을 밤 강정에서의 달맞이 277
- 가전(假傳) 175, 178, 183, 190, 191, 192, 193, 194, 195, 197, 242, 376, 377, 378, 382, 383
- 감호야범기(鑑湖夜泛記) 279
- 강도몽유록 298, 328, 329
- 개녕동 211, 217, 218, 220, 222, 224, 226
- 개성화 240, 244, 249, 250, 251
- 건국설화 19, 35, 63, 64, 67, 68, 72, 73, 74, 83, 89, 90, 111
- 건국신화 18, 23, 24, 25, 63, 67, 72, 73, 110, 111, 112, 116, 117
- 건국전설 67
- 견우와 직녀 212
- 계급 19, 20, 33, 35, 70, 71, 139, 145, 147, 181, 299, 324, 330, 360, 361
- 고구려 31, 39, 63, 66, 68, 69, 74, 75, 76, 77, 78, 80, 81, 82, 83, 8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9, 100, 101, 103, 104, 105, 108, 110, 111, 112, 113, 115, 268, 273, 278, 280
- 고구려건국전설 77, 78, 83
- 고립감 373
- 고조선 15, 16, 19, 21, 22, 23, 24, 25, 26, 31, 32, 33, 35, 39, 40, 41, 47, 48, 50, 51, 92, 111, 268, 272, 280, 282, 284, 285
- 고조선 건국 신화 18
- 고조선 신화 18, 20, 33, 69
- 고주몽 74, 75, 76, 83, 87, 88, 89, 101, 103
- 곰녀 19, 20, 21
- 공방전 177, 183, 184, 185, 186, 187, 191, 197
- 교술 190, 191, 310
- 교술문학 192, 193
- 구삼국사 79, 82, 83, 84, 85, 86, 87, 101, 114
-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 63, 95
- 국선생전 178, 191, 192, 193, 195, 196, 197, 381
- 국순전 175, 177, 178, 183, 184, 185, 186, 187,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381
- 국청전 385
- 귀신론 313, 314
- 금봉채기(金鳳釵記) 259
- 금오산 204, 205, 206, 208, 258
- 금오신화 150, 152, 153, 154, 156, 157, 201,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1, 232, 237,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53,
 254, 257, 258, 259, 260, 267, 268, 270,
 275, 276, 280, 282, 283, 284, 289, 297,
 298, 299, 303, 311, 312, 314, 319, 321,
 322, 323, 324, 326, 327, 328, 329, 330,
 331, 333, 334, 335, 386
 금와왕 65, 89, 93, 97, 98, 99, 102, 117
 기씨녀 268, 269, 270, 276, 277, 279, 280,
 281, 282, 283, 284, 285
 기연기봉 212
 기연기봉 형식 212
 기재기이 386
 김시습 145, 201, 204, 205, 208, 209, 210,
 216, 225, 228, 229, 242, 253, 258, 261,
 262, 267, 280, 289, 297, 298, 299, 300,
 301, 302, 306, 309, 312, 313, 314, 319,
 321, 322, 323, 324, 325, 326, 328, 330,
 332, 333, 334, 335, 336, 386
 김일성 18, 49, 50
 김일성종합대학 17, 66, 125, 177, 203,
 237, 238, 240, 256, 291, 322, 346
 김정일 18, 49, 249, 250
 꽃왕이야기 144, 145
 꿈 67, 124, 141, 163, 165, 168, 188, 208,
 209, 211, 212, 233, 262, 269, 270, 276,
 285, 290, 292, 293, 294, 295, 296, 297,
 298, 300, 307, 309, 310, 311, 321, 326,
 329, 330, 332, 350, 374
 꿈속의 이야기 298
 꿈의 형식 208, 209, 211, 292, 293, 300,
 307

L

나말여초 121, 149, 150, 151, 156, 157,
 159, 161, 162
 나말여초의 소설사 151
 낙척불우 162
 남령전 385
 남염부주이야기 289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204, 216, 237,
 241, 245, 246, 257, 268, 276, 280, 289,
 291, 292, 293,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27
 낭만적 152, 163, 229, 326, 385
 낭만주의적 색채 127, 128, 129, 131
 내재적 발전론 260

C

단군 15, 16, 17, 19, 20, 21, 22, 23, 24,
 27, 29, 30, 31, 32, 33,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4, 55
 단군 관련 설화 53, 54, 55
 단군릉 36, 44, 45, 47, 48, 49
 단군민족 37, 43
 단군설화 18
 단군신화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9, 44, 46, 50, 51, 52, 53, 56,
 57, 58, 68, 111
 단군전설 15, 19, 44, 54
 단전 355, 356, 357, 358
 단종 262, 281, 302, 306, 334

단편구조 256
 달천몽유록 328, 329
 대관재몽유록 328, 329
 대동운부군옥 121, 122, 127, 130, 132,
 159, 205, 206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121
 대충본 206, 207, 208, 238, 258, 319
 동명신화 88, 89, 90, 113, 114
 동명왕 66, 75, 77, 78, 86, 87, 95, 96,
 103, 108, 109, 272, 273
 동명왕본기 64, 78, 79, 81, 82, 84, 85,
 86, 87, 100, 101, 114
 동명왕편 63, 64, 78, 79, 81, 83, 84, 85,
 86, 87, 95, 103, 104, 106, 107, 108,
 109, 110, 113, 114, 115
 동문선(東文選) 175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161, 169
 두 녀자의 무덤 121
 동목취유취경원기(藤穆醉遊聚景園記) 279

ㄹ

룡궁의 상량잔치 211, 216, 245, 297, 298,
 319, 323, 327, 328, 331, 332, 333
 리생과 최랑의 사랑 211, 214, 215, 216,
 237, 238, 245, 247, 250, 254, 277, 323,
 325, 327
 리생의 사랑 237, 238, 243, 244, 245,
 323, 331
 림제 297, 298, 322, 328, 331, 346, 347,
 348, 349, 361, 362, 363, 365

ㄴ

만강홍 217

만복사 202
 만복사의 옷놀이 201, 210, 211, 214, 216,
 221, 222, 225, 226, 245, 254, 275, 323,
 327, 331
 만복사저포기(萬福寺袴蒲記) 201, 203,
 204, 207, 208, 209, 210,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1, 222,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46, 249, 276, 277, 280, 281, 283,
 284, 327, 334
 맥수지탄 269, 273
 명혼담 221, 247
 명혼소설(冥婚小說) 151, 209, 229, 261,
 280, 283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63
 모방설 242, 258, 260
 몽유 모티프 309
 몽유 양식 309
 몽유록(夢遊錄) 291, 292, 293, 309, 310,
 311, 328, 329, 382
 몽유록소설 293, 294, 295, 296, 297, 298,
 328, 329, 332, 333, 337
 무신론 299, 300, 313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 241
 민족자주정신 43

ㅂ

박인량 132, 133, 134, 135, 149, 158, 159,
 161
 박혁거세설화 70
 반봉건 141, 185, 187, 261
 반침략 애국사상 246, 248
 백호집(白湖集) 341

복합구조 256
 봉건왕권 304, 307
 봉건적 유교교리 213, 218
 부벽루 268, 272, 278
 부벽정 268, 269, 270, 274, 278, 280, 282
 부벽정의 달맞이 211, 214, 216, 245, 254,
 267, 268, 270, 272, 275, 276, 277, 278,
 323, 327, 331
 부여 66, 74, 76, 77, 78, 88, 90, 91, 92,
 99, 111
 북관지 347, 348, 366
 북사(北史) 64
 비교문학 242
 비극성 228, 229, 257, 260, 263
 비류국 74, 101, 103
 비장감 373, 383

人

사람의 마음 351, 352, 355, 356, 361
 사상소설 308, 315
 사실주의 178, 247, 300, 365
 사회 정치적 주제 303
 사회과학원 201, 237, 238, 256, 267, 289,
 319
 사회정치적 주제 246, 303
 산문문학 126, 241, 242, 244, 245, 252,
 253, 256, 295, 296
 삼국사기(三國史記) 63, 77, 82, 83, 84,
 85, 86, 87, 101, 114, 158
 삼국유사(三國遺事) 15, 33, 63, 82, 83,
 85, 86, 87, 122, 134, 158
 삼입시 160, 232, 233
 상량문 320, 336

새로운 산문 형태 178, 179
 서거정 175, 178
 서글픔 275, 351, 355, 356, 358
 서글픔과 원한의 구름 351, 352
 서정시의 삽입 256
 서하선생문집(西河先生文集) 175
 선녀 221, 269, 273, 276, 277, 278, 279,
 283, 284
 선녀홍대(仙女紅袋) 121, 130, 133, 157
 설화 26, 28, 35, 36, 39, 44, 45, 46, 53,
 54, 55, 68, 69, 70, 71, 75, 78, 80, 89,
 90, 91, 96, 98, 101, 111, 113, 128, 134,
 142, 150, 151, 152, 155, 156, 157, 158,
 191, 192, 212, 223, 224, 227, 244, 251,
 259, 260, 296, 311
 설화체 산문 241, 251
 성격창조 225, 244, 249, 325
 세속적 사랑 284
 세조 262, 263, 281, 302, 305, 306, 313,
 332, 333, 334, 335, 336, 368, 373, 379,
 385, 386
 세조의 왕위찬탈 368, 373, 379, 385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5, 63
 소설기원설 154, 240
 속관복지증보 347, 348, 366
 송양왕 74, 101, 103
 수서(隋書) 64
 수성(愁城) 343, 344, 345, 353, 354, 370,
 374
 수성공몽유록 298, 328, 329
 수성지(愁城誌) 341, 345, 346, 348, 349,
 350, 351, 353, 354, 356, 357, 358, 360,
 361, 362, 364, 365, 366, 367, 368, 371,

372, 374, 375, 376, 379, 380, 382, 383,
384, 385, 386, 387
수양제의 말로 71
수이전 121, 125, 127, 131, 132, 133, 134,
150, 151, 152, 153, 157, 158, 159, 161,
311
수이전계열 133
수이전의 일문(逸文) 133
수이전체 130, 138, 145, 149, 212
수이전체 문학 126, 127, 128, 129, 131,
142, 143, 144, 145, 148, 149, 150, 157,
241, 242, 254
수이전체 작품 127, 128, 129, 139
술 64, 65, 123, 188
승천 280, 285
시공을 초월한 애정 271, 275, 279
시름 344, 353, 354, 356, 357, 358, 371,
372, 375, 386
시름에 싸인 성 341
시름의 성 350, 353, 370, 379
신라수이전 122, 126, 132, 133, 159, 160
신선 270
신선사상 337
신증동국여지승람 15, 134, 206
신화 16,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1, 32, 33, 34, 44, 47, 48,
52, 67, 68, 69, 70, 71, 72, 75, 89, 90,
92, 96, 99, 104, 106, 110, 111, 115, 116
심성가전(心性假傳) 377, 380
심성가전체(心性假傳體) 376, 377, 381, 382
심성론 369, 370, 376, 378, 379, 385
심성의인가전(心性擬人假傳) 377, 378, 384
심성의인산문(心性擬人散文) 378, 379, 384,

385, 386
심성의인소설(心性擬人小說) 378, 379, 384
심성의인작품(心性擬人作品) 378, 379, 383
심성의인체가전(心性擬人體假傳) 377, 382,
384
쌍녀분(雙女墳)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2, 143, 144,
145, 148, 149, 150, 151, 152, 153, 155,
156, 157, 158,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212, 244
쌍녀분기 160, 161, 166, 167
씨족 19, 20, 21, 22, 23, 27, 28, 29, 44

○

아사달 16, 30, 31, 32, 44
애경전(愛卿傳) 259
애국애족적 지향 110, 220, 221, 230
애국정신 43
애정소설 154, 246, 257
애정윤리 213, 246, 304, 327
애정윤리적 주제 201, 212, 215
애정전기소설 227, 228, 233, 246, 248
양생 229
억압 97, 98, 141, 164, 303, 304, 306, 307
여말선초 159
역사 설화 71, 72
역사서술적 의인체산문 377, 378, 380,
381
역사의 흥망성쇠 271, 272, 274, 275
역사인식 275, 280
역사적 인물 47, 71, 151, 161, 282, 373,
382

연등놀이 211, 219, 222
 연방루기(聯芳樓記) 259
 연라대왕 301, 302, 303, 304, 305, 306, 307
 염부주 290, 301, 302
 염왕 290, 298, 300, 301, 302, 303, 304, 305, 312, 313
 영웅 64, 95, 99, 110, 116, 272, 273
 예술적 산문 127, 129, 131, 142, 143, 144, 145, 179, 180, 208, 209
 온달이야기 71
 왕도정치 308, 350, 369, 373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204, 246, 268, 276, 280, 292, 297, 303, 309, 310, 311, 319, 320, 321, 322, 326, 327, 328, 329, 331, 332, 333, 334, 335, 336, 337
 용부전 185
 용천담적기 204, 205, 257, 258
 우발수 65, 91, 97, 102
 우연산문 192, 193
 우의성 257, 262, 263, 330, 360
 우화 145, 179, 180, 182, 192, 209, 241, 322, 357
 우화문학 241, 242, 361
 우화소설 182, 322, 348, 351, 352, 355, 359, 360, 361, 362, 363, 364, 376, 379, 380, 386
 우화적 수법 331, 360
 운영전 298, 328, 386, 387
 응녀 16, 27, 28, 30, 52, 53, 56
 원생몽유록 209, 297, 298, 311, 328, 329, 331, 367, 383
 원시공동체 사회 19
 원혼 273, 343, 373
 위당기우기 259
 위서(魏書) 35, 64, 83, 114
 유교적 귀신관 314
 유기형식의 소설 268
 유리 64, 66, 74, 100, 102, 103, 104
 유물론 21
 유물론적 철학 325, 330
 유선굴(遊仙窟) 151, 156, 167, 168, 169
 유화 52, 64, 65, 74, 77, 88, 91, 92, 93, 96, 97, 98, 100, 101, 103, 106, 117
 육조사적편류(六朝事迹編類) 160, 166
 을지문덕이야기 71
 응제시주 15, 16
 의승기 364, 377, 385
 의인소설 192, 363, 364, 365, 376
 의인전기체 문학 242
 의인전기체산문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5, 186, 187, 190, 191, 194, 197
 의인체산문 377, 378, 380, 381
 의인화 175, 179, 180, 181, 182, 185, 188, 191, 192, 194, 195, 197, 350, 351, 352, 353, 355, 356, 357,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76, 377, 378, 379, 386
 이규보 78, 82, 85, 86, 87, 106, 107, 108, 110, 115, 132, 178, 191, 196, 197
 이면주제 246, 248
 이생규장전 204, 207, 208, 210, 213, 214, 215, 216, 218, 229, 233, 237, 239, 240, 241, 243, 244, 246, 249, 251, 253, 254, 255, 257, 259, 260, 262, 276, 280, 281, 283, 284, 304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204
 인간계 254, 279, 284, 312
 일반화 228, 244, 249, 250, 251
 임백호집 348, 366, 383
 임씨전 156, 161
 임제 145, 209, 341, 348, 349, 354, 359,
 362, 363, 364, 366, 367, 368, 372, 373,
 374, 378, 379, 381, 382, 385
 임춘 175, 178, 186, 187, 195, 196, 197
 입지 373

ㄸ

자유연애 152, 228, 240, 248, 253, 254
 잡문형식 178
 장가 132, 133, 164, 203
 장편 서사시 87, 106, 107
 재봉집 347, 348, 349
 저포놀이 202
 전(傳) 191, 192, 376, 377
 전기(傳奇) 121, 149, 151, 152, 158, 179,
 180, 181, 256, 259
 전기문학 126, 127, 131, 168, 180, 241,
 242
 전기소설(傳奇小說) 149, 150, 151, 152,
 155, 156, 157, 158, 161, 162, 163, 164,
 168, 227, 228, 231, 232
 전기소설 발생설 156
 전기소설적 특징 151, 154
 전등신화 208, 241, 242, 243, 245, 257,
 258, 259, 260, 279, 335
 전설 19, 42, 45, 46, 47,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9, 81, 86,
 87, 90, 93, 94, 99, 104, 111, 150, 151,

153, 156, 212, 221, 222, 223, 232, 260,
 272, 273, 326
 전통계승론 260
 제금오신화(題金鰲新話) 209, 210
 제왕운기(帝王韻紀) 15, 16, 33, 63, 114
 줄본부여 65, 78, 102
 좌절 230, 261, 373, 375
 주몽 35, 63, 64, 65, 66, 69, 74, 76, 77,
 78, 79, 81, 85, 90, 91, 92, 93, 94, 95,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12, 115, 117, 273, 282
 주몽신화 63, 64,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주몽전설 35, 63, 66,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93, 97,
 99, 100, 101, 102, 104, 105, 107, 110,
 113
 주생전 386
 주체사상 201, 237, 238, 267, 289
 중세건국설화 63, 70, 72, 73
 중세의인소설 363, 364
 중편소설양식 363, 364, 376
 지괴(志怪)류 작품 152
 지괴서사 153
 진보적 128, 129, 131, 139, 143, 145, 146,
 147, 148, 149, 183, 216, 248, 292, 299,
 300, 307, 308, 326, 332, 359, 360, 361,
 365

ㄹ

천군(天君) 342, 343, 344, 345,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62, 363,

365, 370, 371, 372, 373, 375
 천군계열 364
 천군기 385
 천군본기 364, 379, 385
 천군소설(天君小說) 376, 380
 천군실록 364, 377, 379, 385
 천군연의 364, 377, 379, 385
 천군전 367, 369, 370, 380, 384, 385
 천상계 280
 초기 소설 149, 150, 208, 211, 212, 216,
 217, 227, 231, 252
 초기 전기소설 153, 232
 초상묘사 144
 초월 230, 268, 271, 275, 276, 279, 283,
 285, 312
 초현실적 268, 280
 최남선(崔南善) 51, 122, 206, 207, 258,
 259, 319
 최생우진기 337
 최초의 소설 227, 240, 324
 최치원 121, 122, 123, 125,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45, 146, 147, 148,
 149, 151, 153, 154,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227,
 243, 244
 추모 41, 42, 77, 82, 281
 추향기(秋香記) 259
 축문 336
 출퇴관 196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204, 214,
 216, 229, 245, 246, 267, 268,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304, 327,

386
 취취전(翠翠傳) 259

E

태평광기 161, 167, 168, 169, 259, 260
 태평통재 121, 122, 127, 130, 132, 133,
 156, 160
 택당집 346, 347, 348, 349, 366, 367
 토탑 19, 20, 21, 46
 통전(通典) 64
 퇴계언행록 204, 206

II

패설 178, 183, 241, 250, 253, 254, 326,
 329
 표면주제 246, 248
 풍자 181, 185, 194, 196, 360, 361, 365,
 368, 369, 370, 383, 384
 풍자적 수법 331, 360, 361

H

하늘신 19, 20, 22, 23, 26, 28, 29, 30,
 90, 102
 하백 64, 65, 67, 69, 96, 97, 102
 합법칙성 241, 296
 합법칙적 결과 240, 241, 242, 243, 244,
 245
 해동고승전 132, 158
 해모수 35, 52, 64, 65, 67, 69, 74, 77,
 81, 88, 89, 90, 91, 92, 96, 97, 100, 101,
 102, 103, 104, 106, 117

해모수신화 63, 68, 72, 77, 78, 88, 89,
90, 91, 92, 99, 111, 113
해부루 89, 113
행동묘사 144, 225
현실재현 253, 254
형상 창조 127, 139, 141, 142, 144, 148
홍건적 239
홍건적의 난 239
화복향응설 304
화왕계 144, 145
환백장군전 385
환상 21, 33, 73, 79, 80, 127, 128, 129,
130, 131, 136, 138, 143, 150, 153, 155,
165, 209, 214, 218, 220, 221, 222, 223,
226, 232, 243, 247, 252, 254, 255, 278,
298, 299, 300, 311, 312, 326, 327, 330,
365
환상계 254
환상성 131, 231, 232, 233, 291, 298, 299,
300, 311, 312
환상적 수법 129, 130, 131, 214, 243,
244, 245, 275
환상적인 내용의 이야기 326
환상적인 수법 128
환설 326
환설적 326
환응 16, 19, 20, 21, 23, 24, 25, 26, 27,
30, 35, 46, 52, 53, 56, 57
환인 16, 34, 35, 52, 76

▶ **필진**

정운채(건국대 국문과 교수)

김종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강미정(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나지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박사수료)

박재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박사수료)

이원영(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박사수료)

조홍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박사과정)

황승업(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석사과정)

한상효(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석사과정)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고전산문 1

초판 인쇄 2011년 12월 2일 | 초판 발행 2011년 12월 10일

지은이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 펴낸이 박찬익 | 책임편집 김민영

펴낸곳 도서출판 **박이정** |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162

전화 02) 922-1192~3 | 팩스 02) 928-4683

홈페이지 www.pjbook.com | 이메일 pjbook@naver.com

온라인 국민 729-21-0137-159 | 등록 1991년 3월 12일 제1-1182호

ISBN 978-89-6292-303-2 (938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